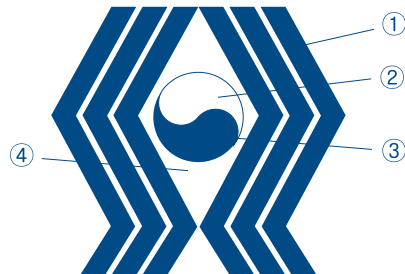




금속노련기에 대한 설명



1. 손 : 즉 양손을 모았으며 그것이 6개가 됨으로써 금속 연맹의 기계금속,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조선, 비철 금속의 업종별, 분과를 표상하고 다양한 가운데 통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합심단결을 과시하였으며 또 날카로운 직선은 금속의 무한한 창조성을 나타냄.
 2. 태극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을 뜻함.
 3. 원 : 공존공영의 번영을 나타냄.
 4. 다이아몬드 : 금속의 빛과 정열, 견고함을 나타내고 정밀, 중화학공업의 중핵으로서의 가치와 불변함을 나타냄.
- ※ 색깔 : ①의 색은 영광으로서의 황금색 ⑤의 바탕은 남청색으로서 노동은 문화창조의 근원을 나타냄.

금속노련가

정태암 작사

나규호 작곡

(씩씩하고 힘차게)



떠 오 르 는 태 양 의 이 상 을 안 고
비 - 지 땀 기 림 손 의 노 동 의 보 람
용 - 광 로 흐 른 용 액 불 꽃 튀 기 듯



선 언 강 령 구 현 위 해 뭉 친 우 리 - 들
하 - 늘 과 바 다 물 을 세 계 로 뻗 - 는
우 - 리 의 핏 줄 속 은 불 고 뜨 거 - 워



거 - 칠 은 가 시 밭 길 꺾 어 넓 히 며
영 - 광 의 산 업 대 열 맥 박 이 똬 다
잘 - 사 는 평 생 터 전 우 리 손 으 로



나 가 자 금 속 깃 발 강 - 철 의 대 오
" " "



손 모 - 은 여 섯 분 과 무 궁 한 길 을
일 - 하 며 교 류 하 는 무 국 제 유 대 로
뜻 모 - 은 투 혼 속 에 내 일 은 밝 다



정 의 의 사 회 퍼 갈 금 속 노 — 려
인 류 의 의 평 화 지 킬 금 속 노 — 려
복 지 를 다 저 가 는 금 속 노 — 려

위원장



김만재

지도위원



박인상



유재섭



이병균



장석춘



변재환



강영섭



최웅길

상임부위원장



박용락

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준영

부 위원 장



감규상



강상욱



고상남



권태훈



김동일



김동준



김성호



김학송



김해광



김해주



남재환



박칠규



박태우



신진호



안병철



어진호



오지수



원철식



윤각열



윤익병



윤정만



이기화



이상윤



이승현



이정희



이준덕



장재성



정관



정동민



정란홍



정상식



조용갑



최무환



최보라



최해경



하영규



허일욱



황영안

회 계 감 사



김삼두



송해광



안교신



조소희



최철

사 무 처



정책기획본부장 김영미



조직강화본부장 전종덕



총무실장 박선자



조직실장 노윤철



조직국장 곽상욱



정책국장 나병호



조직국장 최재원



노사대책부장 지영철



조직부장 임태빈



조직부장 한현철



조직부장 이의선



홍보부장 이효원

2023년

2023 임단투 승리! 노동계약 저지! 노동존중사회 건설
2023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2023년 5월 16일 13시 30분

사진으로 보는 금속노련



2023년도 정기대의원대회 (2023.05.16.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2023년
사업보고





▲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천막농성 김만재 위원장, 김준영 사무처장 결함(2023.05.23.)



▲ 노동탄압 폭력만행 윤석열 정권 규탄 한국노총 기자회견 (2023.05.31.)



▲ 노동탄압 폭력만행 윤석열 정권 규탄 금속노련 기자회견 및 김만재 위원장 석방(2023.06.01.)



▲ 노동탄압 폭력만행 윤석열 정권 규탄 및 김준영 동지 석방 촉구 기자회견(2023.06.02.)



▲ 노동자 폭력진압 강력 규탄 한국노총 기자회견(2023.06.02.)



▲ 노동탄압 폭력만행 윤석열 정권 규탄 및 김준영 동지 석방 촉구 기자회견(2023.06.02.)

투쟁활동

2023년
사업보고



▲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2023.06.07.)



▲ 경찰 폭력 과잉 진압 진상 조사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2023.06.19.)



▲ 금속노련 사내하청 노동자 기자회견(2023.06.20)



▲ 금속노련 윤석열 퇴진투쟁 선포 기자회견(2023.07.11.)



▲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을 위한 금속노련 천막농성(2023.07.18.~11.07)



▲ 윤석열퇴진 7.15 범국민대회(2023.07.15.)



▲ 윤석열퇴진 8.12 범국민대회(2023.08.12.)

투쟁활동

2022 년
사업보고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기자회견 및 연좌농성(2023.08.23.)



▲ 김준영 사무처장 보석 석방(2023.11.03.)



▲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 노동자-민중 전국대행진단 기자회견 (2023.11.16.)



▲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2023.11.11.)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정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2023.05.04)



▲ 한국항공우주산업노동조합 임단투 출정식(2023.05.10.)



▲ 한화시스템노동조합 임금투쟁 집회(2023.06.14.)



▲ KGS틸협력사지부 파업집회(2023.08.28.)



▲ 포스코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2023.09.07.)

투쟁활동

2023년
사업보고



▲ 금속일반노조 KG스틸협력사지부 도급계약해지 규탄 조합원 결의대회(2023.09.13.)



▲ 포항지역 출근선전전(2023.09.14.)



▲ 오티스엘리베이터사무직노조 결의대회(2023.09.22)



▲ 현대ITC노조 임단투 출정식(2023.10.11.)



▲ 노동탄압규탄 인천지역산별 지역본부 투쟁결의대회(2023.10.17.)

2023년 사업보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투쟁활동



▲ 포스코노조 본사상경집회(2023.10.24.)



▲ 동해기계항공노조 파업출정식(2023.10.25.)



▲ 영풍석포제련소노조 천막투쟁(2023.10.27.)



▲ GS에코메탈노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2023.11.01.)



▲ 한국철강노조 집회 및 점거농성(2023.11.09.)



▲ NVH코리아사내협력사노조 집회(2024.01.22.)



▲ LG이노텍노조 분사상경집회(2024.02.02.)



▲ 조선선재노조 총파업 결의대회(2024.02.05.)



▲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회의 2024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2024.02.06.)



▲ 포스코노조 천막농성(2024.03.18.~29)



▲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 기자회견(2024.03.26.)



▲ 위니아담채노조 피켓팅(2023~2024)



▲ 위니아전자노조 용산 집회(2023.06.28.)



▲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해결 및 박영우 회장 증인 채택 촉구 기자회견(2023.09.25.)



▲ 박영우회장 국정감사 출석촉구 기자회견(2023.10.17.)



▲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이용빈 국회의원 -대유위니아그룹 노조 간담회(2023.12.19.)



▲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 규탄 및 임금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 (2023.12.20.)

회의 및 행사

2023년
사업보고



▲ 2023년 상반기 지역순회(2023.03.08.~04.18)



▲ 193차 중앙위원회(2023.04.25.)



▲ 194차 중앙위원회(2023.07.06.)



▲ 금속노련-중앙법률원 법률자문 협약식(2023.08.04.)



▲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워크숍(2023.08.31.~09.01)



▲ 2023년 하반기 지역순회(2023.09.14.~10.30)

2023년 사업보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회의 및 행사



▲ 자동차 연구사업 실무회의(2023.10.17.)



▲ 자동차 부품산업 정의로운 전환 모색 세미나(2023.11.22.)



▲ 2023년 금속노련 조직강화워크숍(2023.12.12.~13)



▲ 금속노련 2024년 시무식(2024.01.02.)



▲ 금속노련-전태일노동대학 업무협약(MOU) 체결(2024.01.23.)



▲ 195차 중앙위원회(2024.03.05.)

교육활동

2023년
사업보고



▲ 2023 금속노련 노조간부 실무교육(2023.04.10.~12)



▲ 2023 현장중심 참여형 안전보건교육(2023.05.23.)



▲ 금속-화학 산업안전보건 기본교육(2023.08.16.~18)



▲ 광양지역노동교실(2023.08~09)



▲ 금속노련 여성위원회 회의 및 교육(2023.09.04.~05)



▲ 2023 금속노련 노동법률교육(2023.10.23.~25)

2023년 사업보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교육활동



▲ 2023 금속노련 노조간부 기본교육(2023.11.14.~16)



▲ 2023 금속노련 신입대표자 및 임원 교육(2023.11.22.~23)



▲ 2023년 금속노련 홍보담당자교육(2023.11.29.~30)



▲ 2023년 금속노련 노조간부 산업안전보건교육(2023.12.13.~15)



▲ 제조연대 1차 교섭위원교육(2024.03.12.~13)



▲ 금속노련 노동문화교육(2024.03.13.~15)

교육활동

2023년
사업보고



▲ 제조연대 2차 교섭위원교육(2024.03.19.~20)



▲ 2024 금속노련 임단투 교육(2024.03.25.~26)



▲ SK실트론노조 간부교육(2023.12.18.)



▲ 남양벡스모노조 확대간부교육(2024.03.15.)



▲ 지엠사무직노조 신규입사자 교육(2024.03.26)



▲ 2024 금속일반노조 운영위원회 및 확대운영위 워크숍
(2024.03.28.~29)



▲ 노동개악 저지! 민생파탄 규탄! 2023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2023.05.01.)



▲ 윤석열 정권 심판! 최저임금 인상! 한국노총 노조간부 결의대회(2023.06.27.)



▲ 제11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자대회(2024.03.08.)





▲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양대노총 시민사회 기자회견(2023.06.29.)



▲ 정년연장 법제화 국민동의청원 처리 촉구 기자회견(2023.10.05.)



▲ 위험적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2023.11.15.)



▲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2023.12.05.)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규탄 긴급 기자회견(2024.02.01.)



▲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2024.03.14.)



▲ 한국노총 제15기 통일선봉대(2023.08.09.~12)



▲ 2023 삼성연대 하반기 워크숍(2023.10.23.~24)



▲ 제53주기 전태일추도식 및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2023.11.13.)



▲ 장진수열사 추모제(2023.12.01.)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전개소식 (2024.02.27.)

국제활동

2023년
사업보고



▲ 인터스트리올 글로벌국적위원회 회의(2023.04.27.~28)



▲ 인터스트리올 정보통신전자전자운영위원회 회의 (2023.05.08.~11)



▲ 인터스트리올 중앙집행위원회 및 중간정책대회(2023.06.19.~21)



▲ 인터스트리올 아시아태평양지역 집행위원회 회의 및 정책회의(2023.10.31.~11.01)



머리말

2024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지난 2023년 한해를 되돌아봅니다.

2023년에 현장에서 노동운동의 모범이 되어주신 금속노련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야심 찬 2023년 계획을 동지들의 힘찬 결의로 시작했으나 예상치 못한 일로 녹록지 않았던 한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며 친자본, 반노동 행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감시, 파견확대, 대체근로 등 제도 개악을 획책하며 노동자와 노동계를 악마화하는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금속노련은 정책사업과 조직사업, 행사 등으로 사업을 펼쳐왔습지만 2023년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 탄압이 극에 달하여 우리 금속노련에 믿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활동하기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던 광양 포운 사업장에서 5월 말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과잉폭력진압, 끝내 김준영 사무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른바 ‘광양사태’로 금속노련은 기조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금속노련은 순천경찰서, 서울 경찰청,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용산 대통령실 앞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광양경찰서와 광양 포스코 앞에서 대규모 긴급 집회를 동지들의 전폭적인 연대로 개최했습니다. 마침내 연대에 힘 입어 김준영 사무처장은 11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우리 곁에 돌아 왔습니다.

광양사태로 사업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었으나 현장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사업만은 미룰 수 없어 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저출생, 고령화 등 복합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취약계층노동자들의 노동 사각지대와 사회적 불평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습니다.

2024년에도 계속될 노동개악과 투쟁하며 노동운동이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사명임을 잊지 않고 동지들과 함께 연대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일 년 간 우리노련에 관심과 애정으로 연대해 주셨던 것처럼 2024년 우리노련의 사업과 활동에 더 큰 관심과 참여,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조직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 5.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만재

〈 목 차 〉

선언, 강령, 연혁 및 연혁일람표	33
00 총 론	47
01 정책기획활동	73
02 조사통계활동	143
03 교육활동	159
04 총무활동	171
05 조직활동	181
06 국제활동	237
07 법규활동	275
08 산업안전보건활동	285
09 대외협력활동	293
10 홍보선전활동	301
11 여성문화활동	369

선언

역사 발전의 주역이며, 산업의 근간을 담당하는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깃발 아래 굳게
단결하여 자주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불평등한 사회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사회중심 세력으로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참된 민주·평등·복지·평화 통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강령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강화하여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중심이 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인 남북 평화 통일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자주평화민족 대 단결에 입각한 통일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3. 우리는 민주적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하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4. 우리는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확보, 모성보호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남녀 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5.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며, 노동운동의 도약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노동조합운동의 대통합을 실현한다.
6. 우리는 노사 대등의 원칙 아래 경영 참여를 확대하여 산업민주화와 경제 민주주의를 앞당겨 실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투쟁한다.
7.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를 강화하여 초국적 자본의 횡포와 경쟁 만능의 신자유주의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전쟁을 막고 세계평화를 이룩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연혁

서기 1959년 3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부산지구 철공노동조합을 주체로 하여 탄생하였으나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여 오던 중 서기 1960년 10월 대한조선공사를 주축으로 한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여 사실상 제2노조로 등장하게 되어 긴요한 총단결 과제는 혼미상태에 이르게 되어 당시 노련에서는 또다시 서기 1960년 10월에 인천중공업회사를 주축으로 한 이른바 전국철강노동조합연맹 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노조가 등장하는 과정에 처하여 오던 중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인하여 노동단체가 해체되고 동년 8월 3일 공포된 법률 제 672호에 의하여 단일산업별 체계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어 결성되었다. 그러나 1980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1981년 2월 23일 개최된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거쳐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으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혁 일람표

대회명	개최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결성대회	59. 3.	유익배	한승용,이원석		
한국금속노동조합 연맹결성대회	60. 10.	임한식		김사육	
전국철강노동조합	60. 10.		준비위원회:임한식 준비부위원회:송영준,김재범		
전국금속노동조합 결성대회	61. 8. 25	지연일 (인천중공업)	김재범(대한중기),이수영(삼양산업),이령(금천철공)	박종현 (삼성기계)	609
제2차대의원대회	62. 7. 2				
제3차대의원대회 (임시대회)(선출)	63. 4. 12	박종현 (삼성기계)	유귀형(한국전력기계),이수영(삼양산업),권종오(한국 기계)	김득성 (기아산업)	5,034
제4차대의원대회	64. 4. 30		유귀형(한국전력기계),박세천(한국기계)		8,455
제5차대의원대회	65. 4. 30		최종규(금성사),이명구(인천강업)	이건성 (인천중공업)	9,110
제6차대의원대회 (임기)	66. 1. 8	박세천 (한국기계)	최종규(금성사),김병용(기아산업),박종선(한국공업)	허만성 (인천중공업)	9,984
제7차대의원대회	67. 4. 27		최종규(금성사),김병용(기아산업),이의용(인천중공업)	홍순모 (일진기계)	14,038
제8차대의원대회	68. 4. 30				15,223
임시대회의원대회 (보선)	68. 9. 20	김병용 (기아산업)	최종규(금성사),이성학(조선기업),문익모(이천전기), 이규운(봉신주철),강준석(한국베어링)	이택용 (인천중공업)	17,947
제9차대의원대회	69. 4. 29		문익모(이천전기),이규운(봉신주철),강준모(한국베아 링),허재업(조선공사)(보선),강기태(금성사)보선	이한구 (한국기계) -보선	23,960
제10차대의원대회 (임기)	70. 4. 30		강기태(금성사),정남수(조선),하준(조선기업),이우년 (한국기계)	최종규 (금성사)	25,217
제11차대의원대회	71. 1. 16		정남수(조선),하준(조선기업),문익모(이천전기)(보선)		27,306
제12차대의원대회	72. 4. 28				
제13차대의원대회 (임기)	73. 4. 25		문익모(이천전기),강준석(한국베어링),정부경(금성 사),한달수(대한전선),팽종출(조선공사),김정배(대한 중기)		27,246
제14차대의원대회	74. 4. 30				43,856
제15차대의원대회	75. 4. 23				53,293

대회명	개최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제16차대의원대회 (임기)	76. 4. 21	김병용 (기아산업)	강준석(한국베어링), 정부경(금성사), 하준(승리기계), 한달수(대한전선)	최종규 (금성사)	72,809
제17차대의원대회	77. 4. 27				92,756
제18차대의원대회	78. 5. 20				112,891
제19차대의원대회 (임기)	79. 5. 11				138,668
제20차대의원대회	80. 6. 17				126,140
제21차대의원대회 (전국금속노동조합연 맹결성임시대의원대회 , 정기대의원대회같은) (보선)	81. 2. 23	팽종출 (조선공사) -보선	최종규(금성사), 민정식(금성사), 박인상(조기), 이준(화 천), 한창석(인천제철), 김장선(대한전선), 이상숙(금성 통신), 권수태(대림자동차)	김성문 (대한전선)	108,846
제22차대의원대회 (임기) (1983, 1984년은 중앙위원회로같은)	82. 5. 7	팽종출 (조선공사)	권수태(대림자동차), 박인상(조기), 민정식(금성사), 김 장선(대우전자), 한창석(인천제철), 조태식(효성중공 업), 최정원(대선조선), 이성균(새한자동차), 허성원(금 성전선)		99,594
제23차대의원대회 (임기)	85. 5. 30	민정식 (금성사)	권수태(대림자동차), 박인상(조기), 김세민(기아산업), 김장선(대우전자), 최경환(금성알프스), 강창령(동부제 강), 최규문(국제종합기계)김장화(아세아자동차), 유철 규(평화크랫치)	한창석 (인천제철)	119,636
제24차대의원대회	86. 5. 23		권수태(대림자동차), 박인상(조기), 김세민(기아산업), 김장선(대우전자), 최경환(금성알프스), 강창령(동부제 강), 최규문(국제종합기계)김장화(아세아자동차), 유철 규(평화크랫치)		119,445
제25차대의원대회	87. 5. 22		권수태(대림자동차), 박인상(조기), 김세민(기아산업), 김장선(대우전자), 최경환(금성알프스), 강창령(동부제 강), 최규문(국제종합기계)김장화(아세아자동차), 유철 규(평화크랫치)		138,990
제26차대의원대회 (임기)	88. 5. 27	박인상 (조기)	김세민(기아산업), 김장선(대우전자), 유철규(평화크랫 치), 강영섭(금성사), 임창기(대한중기), 박기식(연합철 강), 정기춘(화천), 이영복(현대자동차), 이금수(크라운 전자), 양동생(대우조선), 박병윤(대우통신), 이성균(대 우자동차), 차경준(한국중공업)	김성문 (대한전선)	295,864
제27차대의원대회	89. 5. 26		김장선(대우전자) 강영섭(금성사), 박기식(연합철강), 정기춘(화천), 이영 복(현대자동차), 박병윤(대우통신), 이성균(대우자동 차), 차경준(한국중공업)		356,900
제28차대의원대회	90. 5. 11		김장선(대우전자) 강영섭(금성사), 박기식(연합철강), 정기춘(화천), 박병 윤(대우통신), 이성균(대우자동차), 차경준(한국중공업)		389,060
제29차대의원대회 (임기)	91. 5. 15		수석: 김장선(대우전자) 상임: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박기식(연합철강), 유재섭(금성사), 박병윤(대우통신), 정기춘(화천), 차경준(한국중공업), 정학균(대동조선),	최용길 (동양강철)	272,078
제30차대의원대회	92. 5. 13				262,078

대회명	개최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제30차대의원대회	92. 5. 13	박인상 (조기)	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 박영호(영창약기), 피희중(동해전장), 염성태(대우중공업), 양재석(동부제강), 강규석(기아특수강), 박영구(력키금속), 전덕진(현대전자), 허관무(기아자동차)	최웅길 (동양강철)	
제31차대의원대회	93. 5. 20		수석:김장선(대우전자)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박기식(연합철강), 유재섭(금성사), 박병윤(대우통신), 정기춘(화천), 차경준(한국중공업), 정학균(대동조선), 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 박영호(영창약기), 피희중(동해전장), 염성태(대우중공업), 양재석(동부제강), 강규석(기아특수강), 박영구(력키금속), 전덕진(현대전자), 허관무(기아자동차), 김영철(현대전자), 김관태(기아자동차)	정창영 (금성전선)	232,474
제32차대의원대회 (임기)	94. 5. 17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최웅길(동양강철) 유재섭(금성사), 정학균(대동조선), 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 박천석(기아서비스), 전재환(대우중공업), 정기춘(화천), 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 박영호(영창약기), 김동교(인천제철), 오봉출(한진섬유기계), 박영구(력키금속), 하영일(금성전선), 박한주(코리아스파이서), 김경조(쌍용중공업), 김윤주(범양냉방), 백종부(부산파이프)		243,271
제33차대의원대회	95. 5. 12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최웅길(동양강철) 유재섭(금성사), 정학균(대동조선), 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 박천석(기아서비스), 전재환(대우중공업), 정기춘(화천), 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 박영호(영창약기), 김동교(인천제철), 오봉출(한진섬유기계), 박영구(력키금속), 하영일(금성전선), 박한주(코리아스파이서), 김경조(쌍용중공업), 김윤주(범양냉방), 백종부(부산파이프), 이병균(대우전자), 장지태(경창산업)		183,200
제34차대의원대회 (보선)	96. 5. 15	유재섭 (LG전자) -보선	상임: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LG전선), 최웅길(동양강철) 정학균(대동조선), 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 정기춘(화천), 오봉출(한진섬유기계), 박영구(력키금속), 하영일(LG전선), 김경조(쌍용중공업), 김윤주(범양냉방), 백종부(부산파이프), 이병균(대우전자), 장지태(경창산업)	정창영 (LG전선)	160,327
제35차대의원대회 (임기)	97. 5. 16	유재섭 (LG전자)	상임: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정기춘(화천), 김경조(쌍용중공업), 나찬경(LG전자), 김영철(현대전자), 하영일(LG전선), 강익화(대한전선), 강창영(동부제강), 백종부(세아제강), 황창배(대우전자), 김복천(정일공업), 강석수(창원공업), 김무호(한국파워	이병균 (대우전자)	169,628

대회명	개최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제35차대의원대회 (임기)	97. 5. 16	유재섭 (LG전자)	트레인, 강한우(삼신), 김윤주(범양방방), 강진호(연합철강), 김상수(동아건설), 지수식(삼영전자), 이정석(기아특수강), 박영규(LG금속)	이병균 (대우전자)	169,628
제36차대의원대회	98. 5. 20		상임: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정기춘(화천), 김경조(쌍용중공업), 김영철(현대전자), 하영일(LG전선), 강익화(대한전선), 강창영(동부제강), 백중부(세아제강), 황창배(대우전자), 김복천(정일공업), 김무호(한국파워트레인), 강한우(삼신), 강진호(연합철강), 김상수(동아건설), 지수식(삼영전자), 이정석(기아특수강), 김만재(현대전자), 이병균(대우전자), 박병용(대창단조), 김수도(대우전자)		138,858
제37차대의원대회	99. 5. 20		상임: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장석춘(LG전자), 허원(칩팩코리아), 도정복(LG전선), 김두형(대성공업), 신성균(한화구로), 박병도(LG정밀), 신향철(대한전선), 문광주(세진전자), 강영철(현대반도체), 변재환(LG필립스)		124,097
제38차대의원대회 (임기)	00. 5. 24		상임: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파견), 문광주(세진전자), 김만재(현대전자) 장석춘(LG전자), 강창영(동부제강), 김상수(동아건설), 김수도(대우전자), 서갑순(한국특수공구), 하영일(LG전선), 김영철(현대전자), 지수식(삼영전자), 도정복(LG전선), 허원(칩팩코리아), 황창배(대우전자), 손종홍(대한제당), 이병욱(태양금속), 강한우(삼신), 김무호(한국파워트레인), 김경조(쌍용중공업대구), 김두형(대성공업), 강진호(연합철강), 박병용(대창단조), LG필립스(변재환), 강영철(현대반도체), 박병도(LG이노텍), 배동한(한국철강), 이정석(기아특수강)		106,126
제39차대의원대회	01. 5. 25.		보선-정상영(하이닉스반도체), 조병철(대한전선), 김인배(LGPhilipsDisplays)		102,770
제40차대의원대회 (보선)	02. 5. 10	이병균 (대우전자) -보선	보선-김한모(칩팩코리아), 김준수(하이닉스반도체청주), 김한성(충북본부), 신태기(울산본부), 정일진(LG전자), 김길주(기아특수강), 김광호(안산시흥본부), 이문호(경남본부), 김도론(포항본부)	김만재 (하이닉스반도체)	101,985
제41차대의원대회 (임기)	03. 5. 22	이병균 (대우일렉트로닉스)	상임:정창영, 문광주, 정일진, 김만재 장석춘, 서갑순, 최경호, 김순호, 하영일, 지수식, 도정복, 정상영, 조병철, 김한모, 황창배, 손종홍, 이병욱, 김광호, 김두형, 강한우, 강창영, 김한성, 김준수, 이문호, 최해경, 강진호, 권동재, 신태기, 손은진, 김경조, 김무호, 변재환, 강영철, 김인배, 강학중, 김길주		100,850
제42차대의원대회	04. 5. 20.		상임:정창영, 문광주, 정일진, 김만재 장석춘, 서갑순, 최경호, 김순호, 하영일, 지수식, 도정복, 정상영, 조병철, 김한모, 허원, 이복고, 황창배, 손종홍, 이	이정석 (세아베스틸)	100,942

대회명	개최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제42차대의원대회	04. 5. 20.	이병균 (대우일렉트로닉스)	병욱, 김광호, 김두형, 강한우, 강창영, 김한성, 김준수, 이문호, 최해경, 강진호, 권동재, 신태기, 손은진, 김경조, 김무호, 이복교, 변재환, 강영철, 김인배, 강학중	이정석 (세아베스탈)	100,942
제43차대의원대회	05. 5. 25		상임: 문광주, 정일진, 김만재 장석춘, 서갑순, 최경호, 지수식, 도정복, 정상영, 조병철, 허원, 손종홍, 이병욱, 김광호, 김두형, 강한우, 김한성, 김준수, 이문호, 최해경, 권동재, 신태기, 손은진, 김경조, 이복교, 변재환, 강영철, 김인배, 강학중		105,445
제44차대의원대회 (임기)	06. 5. 3	장석춘 (LG전자)	상임: 김만재, 정일진 서갑순, 허원, 정상영, 윤동현, 변재환, 지수식, 노남섭, 정종철, 유은식, 김재업, 백승택, 김정근, 손창두, 강영석, 김광호, 이병욱, 김두형, 배승천, 장재성, 고석희, 왕용호, 김한성, 김준수, 박정민, 박병용, 주해식, 황대선, 김희근, 권동재, 박한봉, 장준영, 박준수, 정진용, 이상협, 김순창, 이복교, 정한근, 신석근, 강영철, 김인배, 김병수, 강학중, 최정열, 하헌준, 김흥배	손종홍 (대한제당)	114,919
제45차대의원대회	07. 5. 22		상임: 김만재, 정일진 서갑순, 허원, 정상영, 윤동현, 변재환, 지수식, 노남섭, 정종철, 유은식, 김재업, 백승택, 김정근, 강영석, 김광호, 이병욱, 김두형, 배승천, 장재성, 고석희, 왕용호, 김한성, 김준수, 박정민, 박병용, 주해식, 황대선, 김희근, 권동재, 박한봉, 장준영, 박준수, 정진용, 이상협, 김순창, 이복교, 정한근, 신석근, 강영철, 김인배, 김병수, 강학중, 최정열, 하헌준		108,206
제46차대의원대회 (보선)	08. 5. 22	변재환 (LGDisplay)	상임: 김만재, 정일진 서갑순, 박준수, 조병철, 김정근, 허원, 정상영, 윤동현, 지수식, 노남섭, 정종철, 유은식, 문광주, 김재업, 백승택, 손창두, 손종홍, 강영석, 김광호, 이병욱, 김두형, 오기순, 배승천, 장재성, 고석희, 박정용, 왕용호, 김한성, 김준수, 박정민, 조경주, 박병용, 황대선, 김희근, 권동재, 이상철, 장준영, 최해경, 정진용, 이상협, 김찬중, 김순창, 정한근, 신석근, 김동준, 강영철, 김인배, 김동의, 김병수, 강학중, 최정열, 하헌준, 석승희	김성수 (OTIS엘리베이터)	103,429
제47차대의원대회 (임기)	09. 5. 7.		상임: 김만재, 정일진 서갑순, 박준수, 김정근, 조병철, 오용환, 허원, 김갑섭, 윤동현, 박종현, 박덕규, 정종철, 문광주, 노남섭, 김덕수, 백승택, 박상규, 오인상, 강영석, 김광호, 김형기, 오기순, 배승천, 박정용, 고석희, 정덕순, 왕용호, 이승현, 김준수, 조경주, 윤종남, 권동재, 황대선, 박병용, 조용석, 김희근, 전광언, 주해식, 이상철, 최해경, 박한봉, 장준영, 정진용, 박한배, 김순창, 김동준, 윤승오, 김채민, 신석근, 나영섭, 강영철, 김인배, 김동의, 조성륜, 김병수, 정상준, 이동철, 장복이, 하헌준, 최정열, 석승희		106,897

대회명	개최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제48차대의원대회	10. 5. 4.	변재환 (LGDisplay)	상임:김만재, 정일진, 김성수 서갑순, 박준수, 김정근, 조병철, 오용환, 허원, 김길섭, 윤동현, 박종현, 박덕규, 정종철, 문광주, 노남섭, 김덕수, 박태석, 백승택, 박상규, 오인상, 강영석, 김광호, 김형기, 오기순, 배승천, 박정용, 고석희, 정덕순, 왕용호, 이승현, 김준수, 조경주, 윤종남, 권동재, 황대선, 박병용, 조용석, 김희근, 전광언, 주해식, 이상철, 최해경, 박한봉, 장준영, 정진용, 박한배, 김수환, 김동준, 윤승오, 김채민, 신석곤, 나영섭, 강영철, 김인배, 김동의, 이상덕, 김병수, 정상준, 이동철, 장복이, 김찬중, 하헌준, 최정열, 석승희	김성수 (OTIS엘리베이터)	106,804
제49차대의원대회	11. 5. 18.		상임:김만재, 정일진, 김성수 서갑순, 배상호, 김기태, 허원, 윤동현, 김길섭, 박종현, 박덕규, 정종철, 박태석, 김덕수, 문광주, 노남섭, 이기동, 박상규, 김정근, 오인상, 강영석, 김광호, 김형기, 오기순, 배승천, 박정용, 고석희, 정덕순, 왕용호, 이승현, 김준수, 조경주, 윤종남, 황대선, 주해식, 박병용, 조용석, 김희근, 전광언, 이상철, 최해경, 배동한, 박한봉, 장준영, 정진용, 박한배, 정상욱, 이동철, 장복이, 김찬중, 김수환, 김동준, 윤승오, 김채민, 신석곤, 나영섭, 강영철, 김인배, 김동의, 이상덕, 석호진, 김병수, 정상준, 최정열, 하헌준, 설승욱, 석승희		108,178
제50차대의원대회 (임기)	12. 5. 10.	김만재 (SK하이닉스)	상임:석호진, 정일진, 김성수 서갑순, 김길섭, 김영국, 강영석, 오기순, 정덕순, 왕용호, 황대선, 이상철, 이동철, 김수환, 서성묵, 정상준, 최정열, 설승욱, 석승희, 배상호, 김기태, 박태석, 윤동현, 이기동, 문광주, 윤자심, 박은미, 이영자, 박상규, 김광호, 한명선, 정금선, 김준수, 조경주, 전광언, 정상욱, 장준영, 김봉영, 김동준, 신석곤, 한창욱		126,690
제51차대의원대회	13. 5. 10.		상임:석호진(수석), 정일진(상임), 김성수(상임) 서갑순, 김길섭, 김영국, 윤석진, 오기순, 정덕순, 김광희, 황대선, 이상철, 이동철, 김수환, 서성묵, 정상준, 최정열, 석승희, 배상호, 박태석, 윤동현, 윤자심, 박은미, 윤복현, 박상규, 김광호, 한명선, 김준수, 조경주, 정상욱, 장준영, 김봉영, 김동준, 신석곤, 한창욱		127,383
제52차대의원대회	14. 5. 20.		상임:석호진(수석), 정일진(상임), 김성수(상임) 장세종, 김길섭, 김영국, 윤석진, 오기순, 정덕순, 김광희, 황대선, 이상철, 이상협, 김수환, 서성묵, 정상준, 최정열, 석승희, 배상호, 박태석, 윤동현, 윤자심, 박은미, 윤복현, 박상규, 김광호, 한명선, 김준수, 조경주, 정상욱, 장준영, 김봉영, 김동준, 신석곤, 한창욱		128,582
제53차대의원대회 (임기)	15. 5. 20.		상임:정일진(수석), 김성수(상임) 장세종, 김길섭, 오인상, 윤석진, 오기순, 정덕순, 김광희, 황대선, 이상철, 이상협, 김수환, 서성묵, 김영근, 최정열,		128,905

대회명	개최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제53차대의원대회 (임기)	15. 5. 20.	김만재 (SK하이닉스)	석승희, 김태완, 배상호, 박태석, 윤동현, 권동섭, 윤복현, 윤자심, 김영국, 박상규, 김광호, 한명선, 장재성, 김준수, 조경주, 정상욱, 최해경, 정진용, 김봉영, 김찬중, 김동준, 박철규, 한창욱, 김동의, 정상준	김성수 (OTIS엘리베이터)	128,905
제54차대의원대회	16. 5. 17.		상임: 정일진(수석), 김성수(상임) 장세중, 김길섭, 오인상, 방운제, 이남철, 정덕순, 이해관, 황대선, 이상철, 남재환, 김수환, 서민호, 최정열, 석승희, 김태완, 배상호, 허정우, 권동섭, 윤복현, 윤자심, 김영국, 박상규, 윤동현, 김광호, 한명선, 장재성, 김준수, 조경주, 정상욱, 최해경, 정진용, 김봉영, 김찬중, 김동준, 박철규, 신석곤, 한창욱, 김동의, 정상준		129,163
제55차대의원대회	17. 5. 23.		상임: 정일진(수석) 김해광, 김길섭, 오인상, 방운제, 이남철, 정덕순, 이해관, 황대선, 이상철, 남재환, 김수환, 배준호, 천정근, 최정열, 석승희, 김태완, 배상호, 허정우, 권동섭, 윤복현, 윤자심, 김영국, 박상규, 윤동현, 김광호, 한명선, 장재성, 강국모, 류재선, 최해경, 정진용, 이준덕, 김동준, 박철규, 신석곤, 한창욱, 김동의, 정상준	김준영 (부천시역)	127,447
제56차대의원대회 (임기)	18. 5. 15.		상임: 김해광(수석) 김용안, 김길섭, 오인상, 방운제, 이남철, 정덕순, 이해관, 황대선, 이상철, 남재환, 김수환, 배준호, 정상준, 최정열, 김태완, 석승희, 배상호, 권동섭, 권윤미, 윤복현, 허정우, 윤자심, 김영국, 윤동현, 한명선, 장재성, 정란홍, 강국모, 박태우, 안병철, 김종국, 류재선, 최해경, 이준덕, 김동준, 박철규, 신석곤, 김동의, 어진호		136,009
제57차대의원대회	19. 5. 14.		상임: 김해광(수석) 김용안, 원철식, 오인상, 백선진, 이남철, 정덕순, 이해관, 윤각열, 이상철, 남재환, 김수환, 배준호, 정상준, 최정열, 김태완, 석승희, 배상호, 권동섭, 오지수, 윤복현, 이장호, 한승연, 김영국, 윤동현, 한명선, 장재성, 정란홍, 강국모, 박태우, 안병철, 김종국, 김인덕, 최해경, 이준덕, 김동준, 박철규, 신석곤, 김동의, 어진호, 김인철		148,275
제58차대의원대회	20. 5. 14		상임: 김해광(수석) 김용안, 원철식, 오인상, 백선진, 이남철, 장재성, 박태우, 윤각열, 손승일, 남재환, 김수환, 배준호, 정상준, 정관, 김학승, 석승희, 배상호, 권동섭, 오지수, 이장호, 한승연, 김영국, 신진호, 한명선, 정란홍, 강국모, 안병철, 김인덕, 최해경, 감규상, 이정희, 이준덕, 박철규, 이상윤, 김기표, 김동의, 어진호, 김인철		133,802
제59차대의원대회 (임기)	21. 5. 13~14 (온라인)		김준영, 김용안, 원철식, 오인상, 강상욱, 이남철, 장재성, 박태우, 윤각열, 손승일, 남재환, 김수환, 정동민, 정상준, 정관, 김학승, 김종원, 배상호, 권동섭, 오지수, 김해주, 한승연, 신진호, 한명선, 허일욱, 정란홍, 강국모, 이승현, 안		159,166

대회명	개최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제59차대의원대회 (임기)	21. 5. 13~14 (온라인)	김만재 (SK하이닉스)	병철, 최해경, 감규상, 이정희, 황영안, 이준덕, 박철규, 김 동준, 이상윤, 김동의, 김경석, 어진호	김준영 (부천시역)	159,166
제60차대의원대회	22. 5. 12		상임:박용락(상임) 김준영, 김용안, 원철식, 오인상, 강상욱, 윤익병, 장재성, 박태우, 윤각열, 손승일, 남재환, 김수환, 정동민, 정상준, 정 관, 김학송, 윤정만, 배상호, 권동섭, 오지수, 김해주, 최 보라, 신진호, 한명선, 허일욱, 정란홍, 강국모, 이승현, 안 병철, 최해경, 감규상, 이정희, 황영안, 이준덕, 박철규, 김 동준, 이상윤, 김동의, 김경석, 어진호		167,684
제61차대의원대회	23. 5. 16	김만재 (SK하이닉스)	상임:박용락 김준영, 김해광, 원철식, 신진호, 강상욱, 윤익병, 장재성, 박태우, 윤각열, 조용갑, 남재환, 권태훈, 정동민, 김동일, 정 관, 김학송, 윤정만, 하영규, 정상식, 오지수, 김해주, 최 보라, 이기화, 허일욱, 정란홍, 고상남, 이승현, 안병철, 최 해경, 감규상, 이정희, 황영안, 이준덕, 박철규, 김동준, 이 상윤, 최무환, 김석호, 어진호	김준영 (부천시역)	168,472

○ 임 원 (2022.05.12.)

직책	성명	소속 조합명	직책	성명	소속 조합명
위원장	김만재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준영	부천지역
상임부위원장	박용락	ASE코리아	부위원장	김해주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김해광	LG전자	부위원장	최보라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원철식	에이엔피	부위원장	이기화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신진호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허일욱	대덕전자
부위원장	강상욱	비츠로	부위원장	정란홍	두울아산
부위원장	윤익병	남전기공	부위원장	고상남	SK하이닉스청주
부위원장	장재성	새로운오토모티브	부위원장	이승현	현대모비스
부위원장	박태우	현대모비스	부위원장	안병철	부산주공
부위원장	윤각열	대한제강	부위원장	최해경	한국중천
부위원장	조용갑	한국제강	부위원장	감규상	풍산홀딩스
부위원장	남재환	울산알루미늄	부위원장	이정희	삼성공조
부위원장	권태훈	영진	부위원장	황영안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위원장	정동민	효성TNS	부위원장	이준덕	풍산
부위원장	김동일	현대종합금속	부위원장	박칠규	에스엘
부위원장	정 관	대유에이텍	부위원장	이상윤	평화오일셀
부위원장	김학송	대유글로벌	부위원장	김동준	평화발레오
부위원장	윤정만	토다이수	부위원장	최무환	SK실트론
부위원장	하영규	LG전자	부위원장	김성호	포스코
부위원장	정상식	LGDisplay	부위원장	여진호	LS엠트론
부위원장	오지수	LGDisplay			

○ 지도위원

박인상	유재섭	이병균	장석춘	변재환	강영섭	최웅길
-----	-----	-----	-----	-----	-----	-----

○ 회계감사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송해광	JMI	조소희	LG디스플레이
김삼두	에스엘안전지부	최 철	한스코퍼레이션
안교신	삼동		

○ 중앙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한예지	ASE코리아	김영태	LG디스플레이구미지부
황성관	LG전자	류다빈	LG전자
박성걸	LSMN	허도영	PHA
하두호	TK-FUJIKIN	윤석진	광명전기
조제현	남양박스모	장만덕	노벨리스코리아
김정희	대동모벨시스템	장득학	남양금속
강진연	대한전선	조주희	대한제당
박규진	대호특수강	박상규	동국제강
정성진	동희오토협력업체	오성원	롯데알미늄
민한기	리한	강미희	명일
백선진	명화공업 안전지부	김진업	서진산업
오상훈	삼성화재	최용훈	세아창원특수강
염성곤	세아베스틸	윤동현	스태츠칩팩코리아
남원섭	스타리온성철	이창수	애디언트코리아
김송훈	신한일전기	이기남	이수페타시스
이수출	유일	방운제	일진전기반월
최중진	인팩	김귀녀	한국보그워너티에스
오유진	파주전기초자	강현민	한라스택폴
이상용	한국보그워너티에스	우하나	현대모비스

성명	소속	성명	소속
후보중앙위원			
전 상	K-MEC	황상문	한국특수전지
이용식	도루코	장기현	KUM
류성필	KG스틸인천	이지모	AMS
손중기	인지컨트롤스	복명진	엘링크링거
정상용	진합	강준영	동일산업봉강사업부
최용호	캐논코리아	김현철	서진산업광주지부
반영진	극동전선	김 훈	가온전선전주지부
박창혁	대창단조	이상훈	한일전기

○ 중앙집행위원 (2023. 3. 31 기준)

직책	성명	소속조합명	직책	성명	소속조합명
정책기획본부장	김영미	금속노련	조직강화본부장	전종덕	금속노련
총무실장	박선자	금속노련	조직실장	노윤철	금속노련
정책국장	나병호	금속노련	조직국장	곽상욱	금속노련
조직국장	최재원	금속노련	법규국장	윤재욱	AST
산업안전국장	손성범	화천기공	조사통계국장	정진영	LGDisplay
대외협력국장	류성룡	대동하이렉스	정책기획2국장	강철희	영풍석포제련소
조직국장	하두호	TK-FUJIKIN			

2023 금속노련 사업보고

00 총서

1. 2023년 정세
 - 가. 2023년 정세 회고
 - 나. 2023년 노동 동향
2. 2023년 금속산업(제조업) 전망
 - 가. 2023년 11대 주력산업 전망
 - 나. 2023년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3. 2023년 임단투 목표와 요구
 - 가. 2023년 임단투 목표
 - 나. 2023년 임단투 지침 주요 요구

1. 2023년 정세

가. 2023년 정세 회고

1) 정치-남북관계

(1) 정치

○ 윤석열 정부의 검찰 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정치적 갈등 크게 확산

- 검찰 권력을 동원한 무작위적 수사와 기소 남발로, 정치적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남.
- 반면 대통령의 가족, 정부 관계자 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 친정부세력에 대한 각종 의혹은 거의 무마되거나, 사법부의 봐주기식 판결로 이어짐.

○ 가치편향적 정책의 남발로 전 영역에서 불안요소 급증, 민주주의 퇴행

- 정부는 자신의 지지층을 재벌대기업-자산가-보수층이라고 인식하고 제반 정책이 이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해,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있음.
- 그러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는 언론과 법을 동원해 고립시키는 방식을 취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은 높아지고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음.

○ 노동계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

- 2023년은 노동계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된 한 해로, 비리노조-귀족노조 등의 프레임에 씌워 국민과의 갈라치기가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한편 노조회계 공시를 압박하고 국고보조금을 끊는 등 노조 길들이기에 몰두함.
- 또한 각종 정부위원회에 대한 노동계의 참여 배제로 공공 및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 창구가 대폭 축소되는 한편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적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음.

○ 지지율 30% 고착화와 보궐선거 참패

-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1년 내내 30%에 머물고 부정평가는 60%대에서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임.
- 이러한 흐름 속에 10월 개최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무려 17%의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이 완승함. 소위 미니총선이라 불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실상 정권유지 代정권견제라는 국민 여론의 바로미터였으며, 이에 따라 여당의 참패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큰 충격이 됨.

(2) 남북관계

○ 날로 확대되는 한반도 긴장

- 2023년은 남북 간 갈등과 충돌이 최고조에 이르고 한미일-북중러 대립 구도에 따른 정치군사적 갈등이 더해지면서, 냉전시대보다 더욱 격렬한 대립과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됨.

○ 한미동맹을 우선하는 대외정책으로 국제적 입지는 계속 축소

- 국제사회가 실리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운용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미 동맹 중심의 소위 '가치외교'를 내걸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하면서 동북아 정세는 더욱 긴장됨
- 또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역사 왜곡 등을 용인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등 불균등한 외교정책을 운용하여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함.

2) 경제

○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 소비자물가는 3.6%로 나타남¹⁾.

○ 우리나라 경제는 2023년 코로나19 회복 과정의 여파가 지속하였고,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현상에 직격탄을 맞았음. 특히, 대외적인 굵직한 변수(러시아 -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 미-중 패권갈등 심화 등)에 따른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상존함.

○ 국내 경제는 고물가에 따른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서민 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졌음. 이에 체감 경기 지수는 나날이 악화하며 소득 양극화, 임금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음.

○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정책 지속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큰 여파는 없었음. 하지만,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 PF 리스크로 이어지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임.

○ 이런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경기침체 여파로 장기화되는 '민생의 회복'을 내걸었지만, 고물가-고금리에 고통받는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 정부는 시설-R&D 투자를 이유로 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24년 12월), 공제율 또한 상향(+10% p) 조정하고, 시설 투자를 위한 역대 최대규모 자금(52조 원) 투입, 특구 지정 등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 및 수출을 유도, 부동산 규제완화, 기업 감세 등을 내걸며 기업의 투자 효과로 인한 낙수효과 경제성장 기조가 20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반면, 경제주체로서의 임금노동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이렇다 할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노동시장 선진화라는 말로 포장된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급 추진 등 사실상 노동 탄압의 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임.

1)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발표

3) 노동

(1) 노사 법치주의를 가장한 전방위적 노조탄압

-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노사관계 분야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우며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 등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고, 노동조합 대표성을 훼손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함.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인 듯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법치주의 잣대를 노동조합에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적용함.
- 그 결과, 노조의 쟁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폭력진압, 먼지털이식 압수수색, 구속-수사 등 극단적 공권력 횡포로 얼룩짐.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부르며 불법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아니면 말고’식 수사를 한 끝에, 급기야 건설노조 간부가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함.
- 포스코 하청업체의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400일 이상 농성을 지원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을 폭행-강제연행하고,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사무처장을 무자비하게 폭력진압하고 구속하는 일까지 벌어짐.
- 정부의 노골적인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 시도 역시 표면화됨. 정부는 올해 초부터 노조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고, 최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회계자료를 공표한 노조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함.
-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노조의 불법행위 사례수집에 나서는가 하면, 노조에 대하여 고용세습, 탈법집단의 탈을 덧씌우기 위한 노조 규약 및 단체협약 실태조사와 시정명령, 타임오프 운영 위법사례를 수집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2) 전국민적 여론의 역풍을 초래한 노동시간제도 개악 및 업종별 적용 꼼수 시도

- 정부는 월 단위 이상 연장노동시간 관리 등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초래하는 정부 입법안까지 마련하였으나, 일과 생활의 균형과 여가활동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등 전국민적 여론의 역풍을 맞고 정책추진이 중단되기에 이름.
- 이에 정부는 한발 물러나서 노동시간제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향후 일부 업종에 대해서 노사합의에 따라 연장노동관리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힘. 연장노동관리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한 ‘일부’ 업종-직종으로 제조업-건설업, 설차-정비-생산직-기술직 등을 꼽았지만, 이는 대표적 장시간 노동 사업장으로서 오히려 노동시간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업종들임.

(3) 노조 배제와 사회적 대화의 실종

- 정부는 양대노총이 각종 노동 및 사회정책 분야 정부위원회를 독점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던 각종 정부위원회의 양대노총 위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함.

- 그 결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건강보험재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의 대표를 임기만료를 이유로 쫓아내고 추천위원을 배제함.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철탑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강제 연행되고 구속되어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사노위 활동 역시 전면 중단됨.
- 11월, 금속노련 간부의 석방과 한국노총의 노동계 대표성을 인정한다는 대통령실의 메시지와 사회적 대화 복귀요청을 계기로 노총의 경사노위 복귀선언을 하였으나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됨.

(4) 이중구조 해소에 역행하는 노동시장 정책

-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권고안이 제시되었으며, 공공부문부터 임금체계 개편이 시도됨.
- 정부는 파견 확대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추진계획을 밝혔으며, 화물기사 노동자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강화하되 실업급여 하한액의 수준은 낮추는 제도 개악을 추진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400건이 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검찰 기소는 25건에 불과함. 특히, 정부는 50명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유예 움직임을 노골화하였음.
- 현 정부는 일련의 노동시장 정책들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허울을 달고 추진되고 있지만, 본질은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강화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적정 소득에 기반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음.

4) 사회

(1) 상대적 빈곤을 하락 정체와 상위계층의 자산 독점 강화: 불평등 심화의 기로

- 한국은 2000년대부터 계속된 사회정책의 확대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난 바 있음. 장기적으로 상대적 빈곤율은 떨어지고, 소득분배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장소득과 이전소득이 정체되면서 상대적 빈곤율의 추이가 다시 반등하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 반대로 자산 추이에서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중산층의 몰락임. 23년 3월 조사 시점 기준으로 순자산은 전년 4억 5,602만 원에서 4억 3,540만 원으로 무려 3.5% 하락함. 이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실물자산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부채(특히 임대보증금)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중산층이 가진 자산의 여력이 안정적이지 못 한 신호로 읽을 수 있음.

〈소득5분위별 자산보유액 및 점유율〉

(단위: 만원, %, %p)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2022년	54,772	16,911	30,562	43,724	61,553	121,088
	2023년	52,727	17,287	28,567	41,948	58,361	117,458
	증감	-2,045	377	-1,994	-1,776	-3,192	-3,630
	증감률	-3.7	2.2	-6.5	-4.1	-5.2	-3.0
점유율	2022년	100.0	6.2	11.2	16.0	22.5	44.2
	2023년	100.0	6.6	10.8	15.9	22.1	44.6
	전년차	0.0	0.4	-0.3	-0.1	-0.3	0.3

자료: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소득 5분위별 자산보유액 및 점유율을 살펴봐도 이는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임. 전체 자산보유액의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2~4분위는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분위는 오히려 0.3%p 증가함. 고소득-고자산층의 자산확대가 작년에도 이어 계속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중산층의 위기가 자산 측면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할 수 있음.
-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노동조합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임. 임금이나 고용조건 등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이 상당한 목소리를 내며 활동해왔으나, 자산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함.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노동조합이 운동과제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2) '약자복지'를 빙자한 복지축소와 노동계 배제, 본격화된 연금개악

- 윤석열 정부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라는 전략 아래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1차 사회서비스기본계획 등을 연속적으로 발표한 바 있음. 종합해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라는 정책적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약간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상승 등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복지확대는 없는 상황임.
- 정부예산이 확대되고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기존 프로그램들의 자연확대분에 불과함. 사실상 복지정책의 전반적 확대보다는 최하위계층에 대한 약간의 지원 확대를 내걸고 물밑으로는 각종 복지프로그램들을 방치 내지 축소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임.
-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 노동계에 대한 배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었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시작으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행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정책 결정 거버넌스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정책 내용과 무관한 단체나 양노총 산하조직을 위원 단체로 선임한 바 있음.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축소에 대해 저항하는 대표적 단체인 노동조합을 본격적으로 축출해내어 유리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임.

(3) 사회갈등만 야기한 연금개혁 시도, 더욱 멀어진 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 국민연금의 재정계산과 그에 따른 정부의 중합운영계획안이 나오면서 세대 간-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 관리에 기반한 집합적 부양수단으로서 공적연금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민간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불안하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았음. 특히, 소득보장기능보다는 재정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공적연금을 재단하려 하여 사실상 공적연금의 본질적 기능인 ‘세대 간 연대를 통한 노후보장’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음.
- 그 과정에서 노인 및 고령자에 대해서는 비생산적이고 의존적 인구로 묘사하고, 청년세대의 노후 불안정을 더욱 강조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됨. 더불어 소비 여력이 충분한 상위계층에게는 민간연금을 들도록 하는 보수경제언론의 보도행태에 따라 경제적 여력이 다소 충분치 않은 중하위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했음. 세대 간-계층 간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개혁을 정치권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사항에서도 ‘민간자문위원회’, ‘공론화위원회’ 같은 면파성 장치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음.
- 의료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도 다소 요원해졌음. 의사정원 확대에만 매몰되어 지역의료원 등 지역사회 내 필수적 의료체계 확대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뗐으며 의사 이외의 인력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실종되었음. 게다가 장기요양기본계획에는 민간 우위의 공급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공공의 공급에 대한 언급이 사라짐.

나. 2023년 노동 동향

1) 노사관계

- 정부의 노골적인 노조 적대적 친(親)기업-반(反)노동 정책은 현장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 노조에 고용세습 등 귀족노조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조사 결과발표, 노조회계공시시스템 도입 등 정부의 노조운영 개입으로 개별사업장 노사가 정부 눈치를 보며 임단협 체결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보임. 대표적으로 정부의 근로시간면제 시정지시를 근거로 사측이 근로시간면제자를 모두 무급휴직 발령한 사례를 들 수 있음.
- 한편, 정부는 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하며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일수 등 노사관계지표 개선을 정책성과로 선전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는 56만 357일로 나타났으며, 파업 등의 지속 기간도 노사분규 1건당 평균 지속일수는 9일로써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음.
- 노조사무실에 대한 먼지털이식 압수수색, 집회-시위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발표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노조에 대한 재정적 압박, 물리적 탄압과 제도 개악을 병행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이 제약되고 노조 활동이 크게 위축됨.

-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4.2%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상승의 주요 원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효과, 특히 20~30대가 노조조직률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목함.

2) 노동시장

(1) 임금

〈중사상 지위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내역별 임금〉

(단위: 천원, %)

	'22.10월		'23.7월		8월		9월		10월	
상용근로자	3,838	(5.4)	4,213	(1.4)	3,970	(1.3)	4,590	(5.8)	4,018	(4.7)
정액급여	3,317	(4.6)	3,451	(3.5)	3,424	(3.6)	3,433	(3.6)	3,435	(3.6)
초과급여	238	(4.1)	221	(2.7)	228	(4.9)	227	(2.8)	252	(5.6)
특별급여	283	(17.7)	541	(-10.5)	318	(-19.2)	930	(15.9)	331	(17.2)
임시일용근로자	1,752	(2.9)	1,745	(-0.8)	1,762	(2.5)	1,889	(7.4)	1,860	(6.2)

출처 :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23.12.28

- 정부가 2023년 12월 발표한 사업체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23년 10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018천 원으로 4.7%(+180천 원)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1,860천 원으로 6.2% (+108천 원) 증가하였음. 임금 내역별로는 정액급여는 3,435천 원으로 3.6%(+118천 원) 증가, 초과급여는 252천 원으로 5.6%(+13천 원) 증가, 특별급여는 331천 원으로 17.2%(+49천 원) 증가함.

〈노동자 1인당 누계 월평균 실질임금〉

(단위: 천원, %)

	'18.1~10월		'19.1~10월		'20.1~10월		'21.1~10월		'22.1~10월		'23.1~10월	
명목임금	3,360	(5.5)	3,478	(3.5)	3,503	(0.7)	3,653	(4.3)	3,841	(5.2)	3,944	(2.7)
소비자물가지수	99.07	(1.4)	99.44	(0.4)	99.96	(0.5)	102.21	(2.2)	107.43	(5.1)	111.36	(3.7)
실질임금	3,391	(4.0)	3,498	(3.1)	3,504	(0.2)	3,574	(2.0)	3,576	(0.0)	3,542	(-1.0)

출처 :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23.12.28

- 2023년(1월~10월) 명목임금과 물가수준을 반영한 월평균 실질임금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42천 원으로 전년동기(3,576천 원) 대비 1.0%(-34천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용직의 상여금, 성과급 효과로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막은 것에 불과함.

- 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 저하 현상은 사실상 노동자 임금이 상승해도, 높은 물가로 인해 임금인상 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임금인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대기업 위주의 낙수효과를 노린 경제성장을 거두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내수활성화 정책의 전진 배치를 통해 노동자 가구의 소득 인상 정책이 요구되며, ‘노동자 임금인상 → 내수활성화 →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모색해야 함.
-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장기적인 경기침체 상황에 대비한 자구책으로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음.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임금인상’을 통한 경제성장의 연착륙을 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고물가 상황 극복을 위해 코로나 팬더믹 긴급 지원의 대부분이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제공하며 ‘중산층 주도 경제성장(Middle-out)’ 정책이 서서히 빛을 보고 있으며, 일본 역시 최저임금 역대 최대 인상 등을 결정하며 소비 활성화 정책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있음.
- 이렇듯 우리나라는 장기화하고 있는 고물가-고금리 상황, 국가 재정 악화 등에 따른 민생이 최악으로 치닫는 시기라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관련한 정책 생산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올해 기업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감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추진하는 등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2) 노동시간

-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1시간으로서, OECD 회원국 중 5번째의 장시간 노동 국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평균인 1,752시간보다 150시간 가량 연간 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3.11.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85.5%의 사업장이 1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여 1주 52시간 상한제가 현장에서 무리 없이 정착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정부가 인가 사유-기간 확대 이후 인가 건수가 폭증하여 2020년 4,204건에서 2023년 9,11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함. 특히, 인가 사유 중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특별근로인가는 2020년 1,114건에서 2023년 5,584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1년 59.7%에서 2023년 61.2%로 증가함으로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현재 실노동시간 단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고용

- ☐ 단시간-비정형 일자리 증가와 나쁜 일자리에 이주노동자 도입
- 통계청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23년 연간 취업자는 2,841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32만 7천 명(1.2%)이 증가함. 2023년 취업자 수는 2021년 36만 9,000명, 2022년 81만 6,000명 증가에 비하면 3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음.
 - 특히 40대 취업자는 지난 2020년(-15만 8,000명) 이래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이며 1만 9,000명 감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9만 8,000명 줄어 2020년(-18만 3,000명) 이후 3년 만에 감소함.

- 고용률은 69.2%로 30대와 50대와 60세 이상에서 상승해 전년 대비 0.7%p 상승했지만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 60세 이상, 실업률은 2.7%로 20대와 60세 이상 등에서 하락해 전년 대비 0.2%p 하락함.
- 산업별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증가,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등에서 감소함. 특히, 제조업은 취업자가 4만 3,000명 줄어 2020년(-5만 3,000명) 이후 3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임.
-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정부가 분류를 잘못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규직이 많을 것으로 추정, 비정규직 문제 개선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단시간 노동자로 비정규직 구성이 바뀌고 있음.
- 노동시장 현상은 단시간 노동과 특고-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등 비정형 형태의 노동이 증가, 부업 비중이 높고 단시간 노동이 가능한 업종들로 N잡러(멀티잡)가 증가하고 있음. 단시간 중 35시간 미만 노동 비중은 2022년 27.9%까지 증가, 20시간 미만은 9.0%로 OECD 평균(7.3%)보다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6.0년(2022년 기준)으로 OECD 평균 9.3년보다 크게 낮으며, OECD 27개 국가 중 가장 짧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임.
- 정부는 코로나19 등 고용위기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내국인 부족 일자리에 작년보다 37.5% 확대된 역대 최대규모의 16만 5천 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기존 나쁜 일자리의 질 개선 없이 이주노동자로 메꾸고 있음.

2. 2023년 금속산업(제조업) 전망

가. 2023년 11대 주력산업 전망

1) 2023년 11대 주력산업 전망

○ 2023년 주력산업은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인플레이션 압박, 통화 긴축기조 등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확대로 대부분의 산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

- 수출) 주요 수출국 물가상승 및 통화 긴축기조 유지,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여파로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부진할 것으로 예상
- 생산) 조선, 철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재고 누적의 부정적 요인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

〈2023년 산업전망 기상도〉

		수출	내수	수입	생산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정유	☂☂	☁☁	☁☁	☂
	석유화학	☂☂	☁☁	☁☁	☂☂
IT 산업군	정보통신기기	☁☁	☁☁	☁☁	☁☁
	가전	☁☁	☁☁	☁☁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
	이차전지	☀☀	☀☀	☀	☀☀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감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내수와 생산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나. 2023년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1) 대외 여건 변화 :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인플레이션 압박, 통화긴축 기조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 점증

○ (세계수요 여건) IT·친환경 관련 산업 부문(정보통신기기, 전기차, 이차전지 등)의 견조한 수요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위축,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물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다수 산업에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할 전망

- 프리미엄 정보통신기기(고사양 노트북, 5G 폴더블폰 등)와 친환경(전기차, 친환경 선박, 이차전지 등) 부문 산업의 세계수요는 2023년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금융 불안, 주요국 긴축재정, 소비심리 위축 등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여 전반적인 세계수요 위축 전망

○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에서 수입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할 전망

- 미국의 경우 자동차(이연 수요), 철강(투자 확대), 정유(항공유 수요 증가), 이차전지(전기차 판 매 호조) 등에서 5% 미만의 증가세 예상

- 유럽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의 불확실성 심화로 수요 부진 지속 예측

- 우리 중간재 및 자본재의 주요시장인 중국 역시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 부진 예상

〈2023년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국가	비중 ¹⁾	전망	국가	비중	전망	국가	비중	전망
자동차	미국	38.6	☁	EU	19.1	☂	호주	4.4	☁
일반기계	미국	23.1	☁	유럽	18.6	☁	중국	17.6	☂
철강	북미	12.0	☁	EU, 러시아	12.0	☁	중국	13.0	☁
정유	미국	9.6	☁	중국	7.9	☁	아시아 (중국 제외)	70.8	☁
석유화학	중국	50.0	☂	아세안	15.0	☂☂	기타	35.0	☂☂
정보통신기기	중국	29.3	☁	미국	24.5	☁	EU	17.2	☼
가전	미국	48.7	☁	중국	6.4	☁	일본	6.3	☂
반도체	중국	41.0	☂	홍콩	15.2	☂☂	베트남	11.8	☂
디스플레이	베트남	34.8	☁	중국	7.0	☂	기타	6.0	☁
이차전지	미국	38.7	☁	독일	11.2	☁	중국	6.4	☁

주: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2년 기준)

2)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해외생산 전망) 2023년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은 산업별,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세계 수요 대응 및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생산 확대와 투자가 지속될 전망

- 자동차는 2023년에는 부품공급망의 정상화가 예상되고, 그간 누적된 이연 수요 충족을 위해 대부분의 해외공장 가동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체코, 슬로바키아, 튀르키예의 현지 공장 생산량은 감소 예상
- 조선은 2023년 예정된 국내 건조 물량 확대를 위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중국 블록공장 생산 증가 전망
- 철강은 향후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인도네시아와 인도에 친환경 상공정 및 하공정 설비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자동차용 도금강판 공장(중국), 자동차용 핫스탬핑 라인(체코), 해상풍력 발전용 모노파일 공장(영국) 신증설이 이뤄질 계획
- 가전은 세계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물류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베트남, 미국에서는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미·중 분쟁이 점차 심화하면서 중국 현지 생산은 감소하는 반면,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 생산은 단가 및 가동률 상승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 전망
- 디스플레이는 OLED 수요 확대로 중국 광저우 현지 생산 증가 전망
- 이차전지는 국내 기업들의 미국 내 신규공장 가동 계획 통해 현지 양산 확대 예상

〈2023년 산업전망 기상도〉

	해외 생산기지(생산 전망)
자동차	중국(☹) 미국(☹) 브라질/멕시코(☹) 러시아/체코/슬로바키아(☹) 튀르키예() 인도(☹)
조선	중국(☹☹) 베트남(☹)
일반기계	중국(☹) 미국(☹) 인도(☹)
철강	유럽(☹) 아세안(☹) 북중미(☹) 중국(☹)
석유화학	중국(☹) 아세안(☹) 미국(☹)
정보통신기기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중국(☹)
가전	동남아(☹) 동유럽(☹) 중남미(☹) 중국() 미국(☹)
반도체	중국(☹) 미국(☹)
디스플레이	중국(☹)
이차전지	미국(☹) 유럽(☹) 중국(☹)

주: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글로벌 경쟁 여건의 변화) 중국과의 기술 및 제품 경쟁이 글로벌 경쟁 여건 악화 요인으로 인식되며, 마중 무역분쟁,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 경쟁 여건에 부정적 영향

○ (제품 단가 변화) 원자재 가격상승과 제품의 고급화를 통한 제품 단가 상승세가 전망되나, 폭은 다소 완화될 것

2) 대내 여건 변화 : 내수 부진, 공급능력 위축 전망

○ (국내 수요 여건) 대내외 경제 성장을 둔화, 물가 및 금리 인상, 수요산업 부진 등 전반적인 내수 여건 악화가
가능

- 자동차는 2023년에도 누적된 이연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 하반기까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차량 구매 부담 가중으로 인해 내수는 위축될 전망
- 조선은 해운 시장 악화와 환경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선박금융 조달의 어려움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우리나라 해운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철강은 수요의 부정적 여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 완화 영향에 따라 수요 여건 개선 가능성 존재
- 정유는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산업용 석유제품 수요 둔화로 소폭 감소 전망
- 정보통신기기, 가전, 반도체는 물가 및 금리 상승,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여건의 부정적 요인 우세
- 디스플레이는 주력 품목이 기존 LCD에서 OLED로 전환되면서 내수 구조 변화가 지속
-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이차전지는 국내 전기차 생산·판매 증가 추세에 따라 양호한 내수 확대 기대

○ (공급능력 여건) 부품 수급 정상화, 대내외 수요에 대응한 생산설비 신증설 및 가동을 상수에 힘입어 국내 공급능력 향상이 기대되나, 일부 산업에서는 해외생산 확대 및 제품구조 변화로 공급능력 위축 우려

- 자동차는 2022년 3분기 이후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지난 2년간 저조했던 가동을 만회를 위한 신규 모델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 공급물량 증가 예상
- 조선은 2023년과 2024년의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능력 확충이 필요하나, 생산인력 부족으로 공급능력의 위축 우려
- 일반기계는 내수 및 수출 감소에 따라 주로 유지보수 및 효율 증대를 위한 설비투자를 보수적으로 진행 전망
- 정유, 석유화학은 설비 신증설 투자 완료 및 공정 개선 등을 통해 공급능력 개선 예상
- 정보통신기기와 가전은 해외생산 비중이 높아 국내 공급능력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는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모두 지속적으로 향상
- 디스플레이는 LCD 수익성 악화로 관련 생산설비 축소 지속
- 이차전지는 원통형 배터리 공장의 신규 투자 및 기존 생산라인의 효율화·합리화 투자 강화로 전년 대비 개선 전망

3) 2023년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1) 수출 :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대외 수요 부진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 전망

○ 주요 수출국 물가상승 및 통화 긴축기조 유지,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여파로 자동차(2.5%), 조선(42.4%), 이차전지(17.3%)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부진하여 2022년(7.9%)보다 4.5% 감소한 4,870억 달러 전망

- 11대 주력산업 수출액: ('21) 4,722억 달러 → ('22) 5,097억 달러 → ('23) 4,870억 달러

○ (기계산업군) 일반기계 감소(-2.3%)에도 불구하고 자동차(2.5%)와 조선(42.4%)이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5.7% 증가 전망

- 자동차는 공급 차질이 일부 해소되는 반면 수요도 위축되는 상황이지만 국내업체들은 경쟁업체 대비 공급능력이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올해 대비 2.5% 증가 예상

- 조선은 2020년 4분기 이후 대량으로 수주받은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LPG운반선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42.4% 증가 기대

• 다만, 기능인력 부족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정상적인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출이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도 상존

- 일반기계는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주요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프라 개선 투자 등의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통화 긴축 정책에 따른 제조업 경기 악화로 기계류 수요는 소폭 감소(-2.3%) 전망

○ (소재산업군) 단가 하락 및 수입수요 둔화로 전년 대비 11.9% 감소 전망

- 철강 수출 물량은 내수 부진 만회를 위한 전략적 수출 확대와 유럽을 제외한 주요 수출국의 하반기 점진적 수요 회복으로 올해 대비 1.8%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수출액은 수출단가 인하로 인해 8.4% 감소 전망

- 정유는 항공유 중심의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 확대 및 아세안 지역의 수요 회복 기대로 물량 기준 4.1% 증가가 예상되나, 수출액은 수출단가가 크게 하락(-17%)하여 11.9% 감소 예상

- 석유화학은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수출 물량(-1.0%)과 수출단가의 동반 하락으로 14.2% 큰 폭의 감소 예상

○ (IT산업군)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부진과 해외 생산 확대로 전년 대비 5.9% 감소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폴더블폰 등 프리미엄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위축되면서 1.0% 감소 전망

- 가전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요 감소, 비용 절감을 위한 해외 생산 증가로 올해(-4.4%)에 이어 내년에도 감소세(-4.9%) 지속 전망

- 반도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발생한 과다 수요가 줄어들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산업이 부진하여 올해 증가세(1.6%)에서 내년에는 큰 폭의 감소(-9.9%) 예상

- 디스플레이는 내년 하반기 OLED 애플리케이션 확대 및 패널 단가 상승의 긍정적 요인이 기대되지만, 상반기에는 큰 폭의 수출 감소(-9.5%)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 전망
- 이차전지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의 전기차 판매 호조가 지속되면서 올해 대비 17.3% 증가한 121억 5,00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
 - 최대 수출국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배터리 관련 규정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 강화로 인해 중국기업의 미국 시장진출 제동이 예상되는 등 국내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 확대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전망

(2) 수입: 단가 안정화 및 내수경기 둔화로 전년(11.9%) 증가에서 -1.6%의 감소로 전환 전망

- (기계산업군) 조선은 해외 기자재 수입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소폭 감소하여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0.4% 증가 전망
 - 자동차 수입은 공급물량 부족과 하반기 이후 내수 시장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한 212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할 전망
 - 조선은 수입 기자재 탑재 비중이 높은 LNG운반선과 LPG운반선의 건조량이 2023년에 크게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13.9% 증가 전망
 - 일반기계는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효과가 지속되나, 제조업 전반의 생산 및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 증가세(2.8%)에서 감소(-0.2%)로 전환할 전망
- (소재산업군) 모든 업종에서 단가와 물량 동반 부진으로 10.8% 감소 전망
 - 철강 수입 물량은 내수 정체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고, 수입단가 역시 하락하여 수입액은 전년 대비 8.7% 감소 전망
 - 정유와 석유화학 수입액 역시 수입 물량과 단가가 모두 하락하여 전년 대비 각각 8.2% 및 19.1% 감소
- (IT산업군)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내수 확대가 IT산업군 수입 증가를 견인하여 2.4% 증가가 예상되지만, 전년(13.3%) 대비 증가폭은 크게 둔화
 - 정보통신기기는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되나, 신규 제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6%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전 수입은 내수에서 국내 브랜드가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감소와 수입 제품 가격경쟁력 약화로 전년 대비 2.4% 감소 전망
 - 반도체는 국내생산이 어려운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 경기 둔화로 수요산업이 위축되어 2023년 수입은 전년 대비 0.3% 감소 전망
 - 디스플레이 수입은 최종제품 수요 부진에 따른 재고 누적으로 재고 관리용 재수입 물량이 늘어 전년 대비 2.4% 증가 전망
 - 이차전지 수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45.1% 증가한 89억 6,500만 달러 규모 예상

(3) 내수 : 수요산업 경기 둔화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다수 산업에서 감소세 지속되거나 제한적 성장세 전망

○ 조선(35.4%)과 이차전지(33.1%)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감소세를 지속하거나(자동차, 일반기계, 정유, 석유화학, 가전, 디스플레이) 성장세 둔화(반도체) 전망

○ (기계산업군) 조선을 제외한 자동차, 일반기계 내수 감소세 지속

- 자동차는 누적된 이연수요가 실현되면서 상반기까지 증가세(3.4%)가 지속되나, 하반기 금리 인상, 이연수요 실현 등의 부정적 요인이 내수 회복을 제약(-5.7%)하여 전년 대비 1.3% 감소 전망
- 조선은 국내 해운사가 발주한 대량의 LNG운반선, LPG운반선이 인도되면서 전년 대비 35.4% 크게 증가
- 일반기계는 수요산업 수주 및 설비투자 축소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10.1%) 전망

○ (소재산업군) 전방산업 업황 부진 및 민간소비 둔화로 전반적인 내수경기 위축 전망

- 철강은 조선업 제외 대다수 수요산업의 부진 또는 정체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0.7%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정유는 항공유 및 휘발유를 중심으로 한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 증가세는 유지되나, 경기 둔화에 따른 산업용 석유제품 수요 부진 및 석유화학용 석유제품의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 석유화학은 전방산업 업황 부진에 따른 내수 감소세가 상반기까지 지속되어 전년 대비 4.2% 감소 전망

○ (IT산업군) 가전, 디스플레이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가 IT산업군 전체 내수 성장을 견인

- 정보통신기기 내수는 물가 인상 등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 저하의 영향이 있겠지만, 신규 국산·외산 스마트폰(5G 폰, 5G 폴더블폰 등) 교체수요에 힘입으면서 전년 대비 3.8% 증가 전망
- 가전 내수는 프리미엄 제품 및 스마트홈 시장 확대의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물가 및 금리인상, 주택 시장 부진, 교체수요 소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 전망
- 반도체 내수는 국내 소비심리 악화로 인한 수요 감소와 IT 기기 교체 시기가 늘어나면서 실수요는 감소하지만 재고 증가로 인해 전년(10.8%)보다 소폭 축소된 8.7% 증가 전망
- 디스플레이 내수는 OLED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LCD 감산으로 전년 대비 6.4% 감소 전망
- 이차전지 내수는 경기불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생산 증가 추세 대응을 위한 이차전지 생산 확대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33.1% 증가한 7조 9,100억 원 수준 전망

(4) 생산 : 조선(42.4%), 철강(1.6%)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재고 누적의 부정적 요인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거나 감소로 전환

○ (기계산업군) 자동차(-0.1%)와 일반기계(-9.5%)는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감소하지만, 조선은 코로나 이후 수주한 선박이 본격적으로 생산되어 큰 폭의 증가(42.4%) 전망

- 자동차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2023년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대기수요가 소진되고 경기 둔화로 인한 내수와 수출 감소 여파로 전년 대비 0.1% 감소한 368만 대를 기록할 전망
 - 조선은 2020년 4분기에서 2021년 초에 대량으로 수주한 선박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수출(42.4%)과 유사한 42.4% 수준의 증가가 예상
 - 일반기계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심화로 에너지 인프라 관련 투자 확대가 생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글로벌 제조업체의 재고 증가가 생산 감소로 이어지면서 기계류 생산은 전년 대비 9.5% 감소 전망
- (소재산업군) 철강(1.6%), 정유(1.1%)는 소폭 증가세가 예상되나, 석유화학(-1.5%)은 대내외 여건 악화로 감소 전망
- 철강은 국내 수요 및 수출의 소폭 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1.6% 증가한 7,181만 6,000톤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 태풍 피해 영향에 의한 복구작업은 2022년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나, 전체 생산량의 정상 수준 복귀는 2023년 2분기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
 - 정유는 항공유 중심의 수송용 석유제품 수출 확대가 생산을 견인하겠으나, 산업용 및 화학용 석유제품의 내수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칠 전망
 - 석유화학은 2023년 상반기까지 가동률의 하방 압력으로 전년동기비 4.4% 감소가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주요 수출국 전방산업 경기 회복세 진입으로 수입수요가 일부 회복됨에 따라 생산 감소세가 개선되어 전년 대비 1.5% 감소 전망
- (IT산업군) 가전(-3.1%), 반도체(-4.9%), 디스플레이(-2.7%) 생산은 국내외 수요 둔화로 감소하지만, 정보통신기기(1.4%), 이차전지(5.4%) 등은 수요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 유지
-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상반기의 경우 수출 감소와 기저효과로 부진(-3.8%)하지만, 하반기 통신기기 중심으로 수출 및 내수 회복 등에 힘입으면서 전년 대비 1.4%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전 생산은 국내외 수요 감소, 해외 생산 유인 증가, 2021년 기저효과(11.6%)의 영향에 따라 전년 대비 3.1% 감소할 전망
 - 반도체 생산은 글로벌 수요 감소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 감소(-4.9%)가 불가피
 - 디스플레이 상반기 생산은 LCD 감산과 세계 경기 둔화로 10.7% 감소가 전망되나, 2023년 하반기 생산은 고부가 OLED 생산 확대로 5.4% 증가하여 전체 생산은 2.7% 감소 전망
 - 이차전지 생산은 국내 설비투자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및 해외시장의 수요 증가가 이차전지 국내생산을 견인하여 전년 대비 5.4% 증가한 12조 3,850억 원 수준 전망

3. 2023년 금속노련 임단투 목표와 요구

가. 2023년 임단투 목표

2023 총력투쟁 현장과 함께 노동개악 저지! 승리하는 제조노동자

윤석열 정부의 노조혐오·반노동정책에 맞서
제조노동자 총력투쟁으로 노동개악·노조탄압 분쇄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전진하자!

-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사수
 - 노동개악 저지와 반노동정책 분쇄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노조법 2·3조 개정
 - 노조혐오 노조탄압 분쇄
 - 노조활동 제약하는 타임오프 폐지
- 물가폭등에 따른 노동자 실질임금 확대
 - 임금인상 9.67% 쟁취
 - 임금피크제 폐지 및 정년 65세 법제화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삽입 확대
 -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저지
 -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임금 쟁취
- 노동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안정
 -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대응
 - 중대재해 처벌법 강화와 노동자 생명권 보호
 - 외투기업 먹튀방지법 제정
 - 사업이전 시 고용승계 입법화 추진
 - 노후소득 보장없는 연금개악 저지

나. 2023 임단투 지침 주요 요구

1)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악 시도 및 대응과제

- 현재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을 도외시키고 오로지 기업의 편익만을 우선시한 노동시간 제도개악을 추진하며, 월 단위 이상 연장노동시간 관리,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전문직스타트업 근로시간 적용제외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정부의 이와 같은 노동시간 제도개악 시도는 한마디로 '기업으로의 초장시간 압축노동 합법화' 또는 1주 최대 52시간 제한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정부는 '노사 자율적 선택을 존중'이라는 말로 노동시간 제도개악에 대해 현혹하고 있지만, 노조가 없고 사장의 일방적인 통제와 작업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용자에게 경영상황에 따라 살인적 압축노동을 시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임.
- 노동시간 제도개악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써 '부문별 근로자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특히 주목해서 대비해야 하는 문제임. 근로자대표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에 반해 부문별 근로자대표는 부서별 업종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노동시간 유연화 등 주요 노동조건 결정시 노조를 배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이며 결국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이에 노동조합은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사측의 유연근무제 도입 등 노동시간 유연화 시도에 대응하여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유연근무제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함. 기타 현장 대응지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노동시간은 1일 최대 10시간, 1주 최대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할 것
 - 사업주의 노동시간 기록의무 및 노동자 기록열람권을 명확히 규정할 것
 - '부분 근로자대표' 도입·실시에 반대할 것
 - 노조세력 약화 및 노조활동 위축 목적의 근로자대표제도 악용을 저지할 것
 - 유연근무제 도입·시행은 반드시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
 - 유연근무제 도입시, 임금보전방안 및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명확화를 통해 임금감소를 저지할 것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무일별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의 사전예측권을 확보할 것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결정에 대한 노동자 결정권을 명확히 할 것
 -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것
 - 일반적인 업무량 폭증, 시설장비 고장 등 '경영상 장애'에 대한 사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 시도는 적극 저지할 것
 - 사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은 반드시 노사협의 후 진행되도록 할 것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 추가연장노동 인정이 일몰되었음을 주의할 것

2) 정부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악의 문제점 및 대응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노동 정책공약의 타이틀을 ‘노동개혁’으로 삼았음. 당선 이후 국정 과제 속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변경되었다가 국회 시정연설 (2022. 5. 16)에서 ‘노동개혁’으로 회귀하였고, 정부 5대 부문 개혁에서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명칭으로 정부 핵심 정책으로 추진됨.
- 이후,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 세부 추진 방향(2022. 5. 16)으로 발표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본격적인 개편을 위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22.7.18)을 통해, 노동시장 개악을 공식화하였으며 정부 일방의 최종 권고문을 발표하였으며(22.12.12), 이를 명분화하려는 의도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23.2.2)시킴.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임금체계 개악 시도는 오랜 기간 사용자단체가 주장해온 요구사항의 ‘소원수리’이며, 사실상 노동자 배제적인 악의적인 개악임.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임금체계 개악에 대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숙지하고 향후 이러한 개악시도를 전면 거부해야 할 것임.

3) 노조운영에 대한 정부개입과 자주적 노조활동 보장

- 2022년 화물연대파업을 강경진압한 정부는 2023년에도 역시 지지층 관리를 위해 노조흡집내기, 노조때리기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노조를 부정부패세력으로 매도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노조운영에 대해 공권력의 개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임.
- 이와 함께 종전 사용자단체의 숙원사항인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파업시 사업장 점거제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형사처벌조항 삭제’ 등 반(反)노조 정책도 경산노위내 노사관계제도관행자문단을 통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임.
- 이와 같은 정부의 ‘노조죽이기’ 정책은 작년 4월 발효되기 시작한 ILO 기본협약 제87호에서 규정하는 “정부당국은 단결권 등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해야 한다”는 협약을 위반하는 것임. 나아가 ‘노사자치’ 내지 ‘협약자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노조법 운영원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됨.
-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운영 개입 시도 등 노조탄압에 맞서 ILO 비준협약 이행보고서 작성·제출을 통해 정부의 협약위반 사례를 수감조사하여 국내외 여론을 환기시키고, 노조할 권리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개정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
- 2023년 1월부터 정부의 노조화계감시, 온라인 노사부조리센터 운영을 통해 노조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현장 대응지침은 아래와 같음.
 - 한국노총 중앙-산별-현장교섭과 연계하는 대책 활동 전개

- 정부의 노조운영 개입행위 부당성 고발 및 제도개선 활동
- 법률대응 및 소송지원 강화 : 한국노총 산하 조직 및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차별없는 소송지원, 한국노총 중앙과 산별연맹, 각 시도지역본부, 지역 노동법률상담소를 통해 정부의 불법부당한 노조운영 개입사례에 대한 신고접수, 감시활동 전개
- 정부의 노조회계감시 대응지침 : 정부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것, 정부의 '현장조사' 시 근로감독관의 노조사무실 출입요구에 불응거부할 것, 정부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동법률대응
- 정부의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대응지침 : 사업장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파악할 것, 실태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의 범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위반내용을 신고할 것

4) 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연장 대응

-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음. 정부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에서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정년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중 선택)를 추진할 계획임. 다만 임금체계 개편이나 직무근로시간 조정 등을 기반으로 한 고용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어 고령자 계속고용을 둘러싸고 노사 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하여 정부조사나 노총 현장조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축적직 등 비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정년 직전보다 임금, 복지 등 처우 수준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재계약에 따른 상시적 고용불안을 안고 있으므로 정년연장을 통한 고용연장을 교섭 방향으로 삼아야 함.
- 올해 정부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고용연장한 경우 재정지원 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임.
- 노동조합에서는 정부의 고령자고용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교섭의제로 연금수급연령과 연동한 단계적 정년연장을 적극 요구해 나가도록 함.

5) 중대재해처벌법 정착과 노동자 생명·안전 확보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중대재해는 계속되고 있고,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법이 잘못되었다며 되돌리려고만 했고, 정부는 그런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 감경 및 면제를 목적으로 의무내용과 처벌수준을 수정 보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단일화하여 규율하는 것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경제벌로 전환하고자 함. 또한, 2024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의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음.

- 정부는 일관된 입장으로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지만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고 있음. 특히, 작년 1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안전보건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자가 죽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전형적인 안전보건 개악 로드맵임. 또한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TF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사정 추천 없이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모아 TF를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함.
- 고용노동부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금고형과 벌금이 아닌 법인에 과태료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 유력한데 이러한 행정질서벌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경영책임자의 처벌만을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와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산재예방의 제1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선제적으로 안전보건에 투자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 한 건의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입법 효과를 논하거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함.
-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에 맞서 단호히 투쟁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바로잡고,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 철폐 투쟁에 나설 것임.
-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점검 및 감독 강화 등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나야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미흡한 점이 있음.
- 22년 6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재정 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6) 비정형노동의 확산과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 최근 기간제단시간,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 해소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특히,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 양상으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비정형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및 기초안전망 보장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노총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제1노총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연대교섭을 추진하여 지역·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아울러, 비정규직 노조가입 및 조직화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등 구성을 통해 공동교섭을 추진하여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
-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규모 감축과 함께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 보장원칙을 명문화하고, 차별적 처우 금지대상을 단협에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동종유사업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차별시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협상의 명확한 규정이 담보되어야 함.
- 임단협 시 임금인상분의 일정비율의 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연대임금전략도 점차 확장시켜 나가야 함.

7)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통한 노동존중문화 실현

- 2022년 한국노총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서는 5,560명에 대해 약 8,073건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진행됨. 괴롭힘 유형은 ‘폭언’이 3,119건(38.6%)으로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했으며, 사업장 규모 및 성별과 상관없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법상 미흡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과 노사협약합의, 취업규칙 제·개정 등으로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인식 확산과 피해자 보호 조치, 객관적 조사 등의 중요성과 사내 규범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동조합 실천 활동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사건발생에 따른 접수조사처리과정 전반에서 세밀한 주의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을 위해 노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숙지하여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야 함.
-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확대와 예방효과가 높은 예방교육 의무화, 객관적 조사의 실행방안 등이 개선과제로 남아 있음.

8)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중심의 산업전환 대응

-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전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기후위기는 우리 삶. 특히 대응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산업구조 대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일자리 위기나 불평등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해 총연맹, 산별, 단 조, 지역 등 정의로운 전환 모색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 과정이 노동계와 이해당사자를 시혜와 사후보고의 관점이 아닌 산업전환의 주체로 인정하는 대등한 참여 보장을 기본으로 사회구조와 일자리 문제가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함.

- 한국노총의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과제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입각한 기후위기 대응 산업전환 계획 수립, △ 정의로운 전환 노동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및 현장 공동결정, △관찰은 녹색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조례 제개정 등 지역 역할 강화임.
- 노동조합은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이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임을 인식하고, 정부와 산업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책에 적극적으로 개입,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과 아전직 및 녹색일자리 보장을 목표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노동조합은 임단협 대응지침으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환경담당 직제 신설, △친환경 녹색 단체협약 지침 마련, △사업장 수준에서 실행지침 마련, △선제적으로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 등 상황과 여건에 맞는 고용노동정책 의제를 발굴, 단체교섭을 통해 단협으로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함.

2023 금속노련 사업보고

01 정책 기획 활동

1. 정책연구 활동
 - 가. 자동차부품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조의 대응전략 연구사업
 - 나. 독일 자동차부품사 노사 대응 사례 세미나
 - 다.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워크숍
2. 노동현안 대응 활동
 - 가.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 나. 정의로운 전환 대응 활동
3. 회의체 활동
 - 가.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4. 국정감사 대응 활동
 - 가.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건
 - 나. 포운 노사분쟁 사건
5. 한국노총 제조연대 활동
 - 가. 제조연대 사업
 - 나. 제조연대 제22대 총선요구안

평가 및 개선방향

정책부에서는 대전환기 가운데 한국 자동차산업의 원·하청관계 이중구조 속에서 자동차 부품사의 전환실태를 파악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및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조의 대응전략 연구사업을 진행했다. 연구의 결과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위한 노사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기술혁신 및 산업전환에 대한 조합원과 회사의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를 향한 노사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김준영 사무처장이 근로자위원이었으나 광양폭력진압사태 이후 고용노동부는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유로 김준영 사무처장을 해촉하고자 한다. 이후 김만재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고용노동부를 이를 거부한다. 최저임금 개악 시도와 더불어 정부의 횡포가 자행됐다.

2기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노동계가 완전히 배제되었다. 산업전환 거버넌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김문수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전 상태가 되었다. 노동개악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에서 사회적 대화는 실종됐다.

총선 패배 이후에도 노동개악을 추진하며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 과거 낮은 지지율을 노조 때리기로 지우려던 행태가 다시금 나타날 수 있다. 정책부는 명확한 지침 시달을 통해 현장에서 혼란과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계 특히 제조노동자의 공동투쟁 전선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노총 제조연대 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단결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및 친재벌 정책을 분쇄하고 제조노동자가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1. 정책기획 활동 평가

가. 자동차부품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조의 대응전략 연구사업

1) 목적

- 대전환기 가운데 한국 자동차산업의 원하청관계 이중구조 속에서 자동차부품사의 전환실태를 파악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및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자동차산업은 140여 년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특히 전기차)로의 전환, ‘4차산업혁명’(디지털화)의 영향으로 자율주행/커넥티드 카/모빌리티 서비스/스마트 공장의 출현, 코로나 사태, 국제적 기술 패권주의(특히 미중 갈등)와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의 파괴 또는 재편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동안 일어났던 많은 혁신은 내연기관차의 틀 안에서 일어난 점진적 혁신인데 반해, 지금처럼 시장, 제품, 생산공정, 공급망, 사업모델 등 자동차산업의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는 자동차산업의 역사상 처음 겪는 급진적 또는 파괴적 혁신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대전환기 속에서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여기에는 한국 자동차산업이 갖는 원·하청관계의 이중구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한국의 현대차그룹도 야심 찬 계획을 세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84조 원을 투자하여 전기차 글로벌 생산량을 323만대(2021년 25만여 대)로 높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12%(2021년 5%)로 높인다는 계획임. 현재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회복력을 발휘하면서 전반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현대차그룹은 2021년에 판매량 세계 5위였고, 전기차 판매량도 5위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이룬데 반해 부품사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함. 작년보다 올해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률은 60% 이상 증가할 전망이나, 부품사는 작년 1~3분기 9.8% 증가에 그침.
-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 부품사들의 미래차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움. 실제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조사(2021)에 따르면, 부품사의 72.6%가 전환계획이 없으며, 그 이유로 자금과 정보 및 기술인력 부족을 꼽고 있음.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이중구조 속에서 부품사의 전환실태를 파악하고 노조의 대응전략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음.
 -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미래차 전환에 따라 2030년에 부품사 900개가 감소하고 3만 5천여 명이 일자리 잃을 위험이 있다고 전망함. 현재 한국노총 금속노련에는 자동차 부품생산 사업체 노조의 대다수(200여 개)가 가입되어 있음(조합원 3만 5천여 명). 이들은 지금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나 노조의 대책은 특별히 없는 상태임.

○ 그동안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산업정책이나 노조의 대응전략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음. 한국의 부품사 실정과 노조의 대응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함.

-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부품사의 어려운 실태를 알려주고 부품사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는 기여했으나, 구체적으로 산업전환을 위해 어떤 전략이 요구되는지 대해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음. 대부분 R&D 지원이나 교육·훈련 강화 및 사회적 대화 등을 피상적으로 강조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제로 와 닿는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많으며, 미래의 불안으로 산업전환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기도 함. 이는 지금까지의 연구가 부품사의 미래경쟁력을 위한 산업정책적 관점과 결부되지 않은 채 주로 노동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임. 산업전환기에는 노동정책이 산업정책과 결부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짐.- 단위노조 간부 등의 지식을 함양하여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연구방법

(1) 선행연구 등 문헌검토

- 국내의 문헌연구와 함께 통계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차산업의 경영 및 고용 현황을 파악함. 또한 노사의 대응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해외사례로 독일 금속노조의 대응 사례를 살펴봄.

(2)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금속노련 소속 자동차부품 생산 사업장 전체 노조를 대상으로 함(회사와 조합원이 가능한지 추후 검토)
-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3) 관련 사례 검토 또는 면접조사

- 사례조사는 산업전환의 '위기군'(미래차 전환으로 사라지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유지군'(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업체), '확대군'(앞으로 더욱 많은 수요가 있는 부품사)으로 나누어 위기군에 속한 4개 업체와 유지군 및 확대군에 속한 업체 각 2개 등 모두 8개 업체 선정하고(지역 안배 고려), 사업장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상이한 실태 및 전략을 파악함. 사례조사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조 및 경영진과 면담방식을 취함.

(4) 전문가 자문회의

3) 기대효과

- 현재 자동차부품사 노사는 대체로 산업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으나 전환 비용과 방식에 대해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미래가 불안해지면 노사 모두 산업전환의 저항세력이 되기 쉬움. 본 연구를 통해 대응전략과 향후 비전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저항보다는 미래를 향한 파트너십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의 부품사 노사는 아직 탄소중립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잘 모르고 있음. 본 연구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왜 탄소중립이 미래경쟁력에 중요한지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노사의 탄소중립 등에 따른 산업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정책역량 강화 및 교섭의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노동배제적 분위기가 높아지고 사회적 대화가 악화 되는 현 시기에 노조의 참여를 통한 산업전환에 대한 논의는 더욱 필요함. 이를 통해 노조의 참여가 산업전환의 중요한 성공 요소라는 점을 알리고자 함. 이로부터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고 산업전환 관련 자원책을 마련하는 대정부 교섭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 또한 기술과 시장중심적 전략에서 벗어나 노동의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노조는 산업정책에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음. 노조는 그동안 보호적 차원의 노동정책에 집중해왔으나 전환의 시기에는 노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산업정책에의 참여가 필수적임.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산업전환 지원 정책 및 입법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노사와 정부(중앙 및 지방)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및 지역경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의 결과는 정당한 전환에 대한 위한 노사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기술 혁신 및 산업전환에 대한 조합원과 회사의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를 향한 노사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금속노련 가맹 자동차 부품생산 기업 노동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나 사측) 등과 함께 하는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연구결과 공유 및 확산

4) 결론

(1) 중소부품사의 어려움

- 자동차산업은 지금 ‘파괴적 혁신’이라 불릴 만큼 대전환의 시기에 놓여 있음. 여기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탄소화’와 흔히 4차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디지털화’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탈탄소화를 위해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디지털화는 자율주행 또는 커넥티드카, 모빌리티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탄생시킴. 이와 함께 새로운 ‘테크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존의 업체들은 커다란 위기의식을 갖고 있음.
- 노조입장에서는 고용의 문제가 핵심 사안인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한편에서는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체 ‘총고용’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부품수의 감소, 자동화 등 고용이 줄어드는 요인도 있지만, 배터리와 IT 또는 모빌리티 서비스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감소 되는 양을 메워주기 때문임. 그러나 총고용량에 변화

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내연기관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노동자 및 그 지역은 큰일이 아닐 수 없음. 내연기관차 부품사들이 산업전환을 하지 못하면 업체는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며, 그 지역은 경기가 급격히 침체됨. 물론 어느 지역에서는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가 많아 변창할 수 있으나, 이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노동자나 주민들이 새롭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직업을 찾기란 쉽지 않음. 따라서 산업전환의 문제를 충고용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기업과 지역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으로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한국 중소부품사의 문제를 살펴보았음. 전체적으로 보면 완성차 및 대형 1차 밴더(대기업)와 중소부품사와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즉 전자는 충분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산업전환에 대응하고 있으나, 후자는 그렇지 못해 미래가 불분명함. 이들은 전환기에 다음과 같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첫째, 전통적인 경쟁력 요소인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대한 원청사로부터의 압력은 지속됨. 게다가 원청사는 자신의 막대한 전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품사에 대한 단가 인하 압력(이른바 'CR')을 더 강화하는 경향도 나타남. 둘째, 이와 같은 기존의 압력 위에 새로운 '혁신'의 압력이 가중됨. 즉, 전동화와 디지털화라는 이중 전환에 대응하는 제품과 사업모델의 혁신이 요구된다는 것임. 이를 이루지 못하는 부품사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움. 셋째, 탈탄소화 또는 기후정의에 대한 압력임.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원청사의 탄소중립 정책은 공급망 전체로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이 막히고 공급망에서 퇴출되기 쉬움. 현재 한국 중소부품사들의 혁신역량(자본과 기술력)을 볼 때 이와 같은 압력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음. 때문에 부품사들은 혁신과 전환 대신 지금까지 해왔던 비용절감 전략만을 강화함. 그 결과로 비용절감의 수단인 도급 또는 외주화가 늘어나 정규직이 줄고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전환기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줌. 이중 전환을 위한 혁신을 감당하기에는 중소부품사의 자본과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임. 자동차 후진국에서 지금은 전기차 선두주자로 떠오른 중국의 경쟁력은 국가의 산업정책적 지원 때문이었음. 이에 지금은 세계의 모든 자동차 강국들이 보호주의와 산업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음. '큰 정부'가 필요한 시기임.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긴축 정책을 주장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대 역행적이라 아니할 수 없음. 이러한 정책이 계속되면 산업전환보다는 산업공동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음.

(2) 노동조합의 과제

가) 단위노조 차원

- 노동조합의 과제는 단위노조(사업장 차원)와 중앙 및 지역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함. 먼저 단위노조 차원에서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전략 개발이 필요함 앞서 우리는 부품사를 감소군, 유지군 및 확대군으로 분류하여 각 상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노조의 전략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 먼저 감소군의 핵심문제는 미래의 불확실성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협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미래의 제품과 생산 전략 및 인력계획 등이 들어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사의 역할과 책임이 담겨짐. 핵심은 무엇보다 회사가 지향하는 미래의 비전을 노사가 공유하는 일임. 미래

의 비전을 공유할 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양보와 협력이 가능하다. 조직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구성원들은 개인화되고 이기주의에 빠지기 쉬움.

- 유지군은 제품의 혁신을 통해 ‘하이로드’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함. 유지군의 제품 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 커넥티드 카 또는 자율주행차의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 제어를 위한 첨단기술과 접목되어야 함. 이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하이로드의 기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노사는 이에 맞는 전략적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하며, 노조는 특히 노동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결합하는 일터혁신과 조합원의 고용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중점을 둠.
- 확대군의 경우는 ‘통제된 유연성’의 생산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확대군의 영역에는 많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진입하여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이며, 미래차의 수요 변동도 심해 생산의 유연성이 필요함. 그러나 이를 회사에 일방적으로 맡겨두면 고용 및 임금이 불안정해지기 쉬움. 따라서 노조는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이 해치지 않은 선에서 유연성을 수용하는 이른바 ‘통제된 유연성’ 모델을 구상해야 함. 이를 협의하는 노사 공동의 ‘고용안정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나) 중앙 및 지역 차원

- 첫째, 중앙(연맹)과 지역본부 차원에서는 먼저 노동의 관점에서 산업전환을 바라보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나가야 함. 산업전환을 위한 국가적 역할(큰 정부)과 사업장 차원에서 ‘미래협약’의 중요성 등 주요 의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요구함. 무엇보다 미래의 경쟁력은 에너지전환에 달려 있으며, 여기에 정부의 투자가 시급한 상황임을 공유해야 함. 또한, 미래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정부의 산업정책적 지원이 제공되면 미래협약을 맺는 업체가 늘어나고 산업전환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 둘째, 단위노조의 대응과정을 지원하는 ‘전환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앞서 감소군, 유지군 및 확대군에서 보았듯이 전환기에 현장에서는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단위노조에서는 이에 대응할 정보나 전략이 부족한 상태임. 중앙과 지역본부에서 이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극복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주는 전환 팀을 구성하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셋째, 조직화 사업을 강화해야 함. 전환기에 신규물량을 외주화 또는 자회사를 통해 생산하는 경향이 나타남. 또한, IT나 배터리 등 신사업 부문에는 전통적인 자동차산업이 아니라 전기·전자, 화학산업에서 새롭게 진입하고 있음. 이들은 대부분 무노조 사업장임. 기존의 조직화된 부품사가 이들과 경쟁하게 되면 끝없는 양보교섭의 압력으로 자동차산업 전체가 하향평준화로 가기 쉬움. 노조 조직화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필수적임.
- 넷째, 외투기업의 상황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예컨대 ‘외투기업위원회’ 같은 기구가 요구됨.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산업전환을 위한 신사업은 자국에서 전개하고, 내연기관차 부품을 담당하는 해외 공장은 점차 폐쇄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음. 외투기업의 주요 경영전략은 본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보 교류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폐쇄통보로 노사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이는 ESG 경영이나 공급망 실사법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글로벌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역행하는 처사임. ‘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검토하면서 외투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통지 기간과 기업의 사회적 의무 사항을 단협으로 요구하거나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 다섯째, ‘고용연대기금’을 마련함. 지금까지 노동자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갖지 못함. 때문에 지난한 ‘투쟁’으로만 맞서는 일이 반복됨. 전환기에 사업 재편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산업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고용연대기금을 마련하여 직무향상이나 재고용 등 고용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는 노동자에게는 물론 노사 갈등이 감소 돼 산업전환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음.
- 여섯째, 시민사회와 지식인 그룹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함. 지금까지 언급한 과제들은 노조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음. 산업전환을 위한 과제들은 그만큼 전문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임. 과제별로 시민단체나 지식인 그룹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임. 이를 통해 노조의 권력 자원이 넓혀지고 정치 세력화의 공간도 확대됨.

5) 설문지

I. 기업 일반현황(2023년 11월 기준)

A1. 귀사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 생산품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바디	판넬, 프레임, 도어, 범퍼 등	⑥ 조향장치	스티어링 등
② 동력발생장치	엔진본체, 냉각장치, 연료장치, 흡배기 장치 등	⑦ 의장	각핏모듈, 내장부품, 외장부품 등
③ 동력전달장치	클러치, 트랜스미션, 액슬, 기어류 등	⑧ 전기장치	배터리, 배선, 모터, 스위치, 센서, 램프, 컨트롤, 유닛 등
④ 제동장치	브레이크 등	⑨ 기타	고무제품, 필터류, 기타 등
⑤ 현가장치	속압쇼바, 스테빌라이저 등		

A2. 귀사는 다음 중 어떤 기업에 속합니까?

- ① 소기업(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 ② 중기업(평균 매출액 120~1,500억원)
- ③ 중견기업(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혹은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상)
- ④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 ⑤ 기타()

A3. 2023년 11월 기준 귀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전체	생산·기능직	사무직	연구개발직	기타
총()명	()명	()명	()명	()명

A3-1. **2023년 11월 기준** 귀사의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와 최근 5년간(2019-2023년) 변화추세**를 적어주세요.

고용형태	규 모	최근 5년간(2019-2023) 변화추세
정규직	()명	① 변화없음 ② 증가 ③ 감소
기간제·계약직·시간제	()명	① 변화없음 ② 증가 ③ 감소
사내하청·협력업체 근로자	()명	① 변화없음 ② 증가 ③ 감소

A4. 귀사의 **2022년 연간 총 매출액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변화추세**를 적어주세요.

A4-1. 2022년 총 매출액 () 억원

A4-2. 최근 5년간 총 매출액 변화추세 ① 변화없음 ② 증가 ③ 감소

A5. 귀사의 총 매출액을 100으로 할 때, 주거래 고객사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 %

A6. 귀사의 총 매출액을 100으로 할 때, 내수와 수출의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내수: () %, 수출: () %

A7. 귀사의 **2022년 영업이익율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변화추세**를 적어주세요.

A7-1. 영업이익율 () %

A7-2. 최근 5년간 영업이익율 변화추세 ① 변화없음 ② 증가 ③ 감소

A8. 완성차 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귀사의 주력 제품은 어느 단계입니까?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이하 협력업체
①	②	③

- 1차 협력업체: 완성차 업체와 직접 거래
- 2차 협력업체: 완성차 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1차 협력업체와 직접 거래

A9. 귀사가 거래를 경험한 상위 거래처들의 불공정 거래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해당 번호 모두에 '✓'표시 해주십시오.

- | | |
|--------------------|---------------------------|
| ① 납품단가 인하 | ② 납품대금 결제 지연 |
| ③ 부당한 발주(구두 발주) 취소 | ④ 기술 자료 유출 |
| ⑤ 인력 탈취 | ⑥ 경영관련 자료(재무, 인력 자료 등) 요구 |
| ⑦ 부당한 물품 강제 구매 요구 | ⑧ 기타(적어주세요:) |

A9-1. 지난 5년간 귀사와 주로 납품하는 업체와의 거래관계가 보다 공정하게 변화했다고 보십니까?

매우 불공정하게 변화	다소 불공정하게 변화	그대로	다소 공정하게 변화	매우 공정하게 변화
①	②	③	④	⑤

A10. 2023년 11월 기준 귀 사업장이 속한 기업의 생산공장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귀 사업장을 포함하여 응답하여주시시오. 해당 없는 경우 '0'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국내: ()개 ② 해외 : ()개

A11. 2023년 11월 기준 귀사는 연구개발 관련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② 연구소는 없으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존재
③ 연구개발 전담부서 없으나 연구인력 존재 ④ 해당 사항 없음

A12. 귀 사업장의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어떠합니까?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①	②	③	④	⑤

II.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 현황과 인식

B1. 향후 10년 이내 귀사의 사업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① 현재 사업의 확대 ② 현재 사업규모의 유지 ③ 현재 사업규모의 축소
④ 인수합병(M&A) ⑤ 폐업 ⑥ 기타()

B2. 미래차(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의 생산 및 보급 확대에 따라 향후 5년간(2024~2028년) 귀사의 주요 자동차부품과 관련하여 매출액, 영업이익률, 고용인원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매출액	① 변화없을 것 ② 증가할 것 ③ 감소할 것
영업이익율	① 변화없을 것 ② 증가할 것 ③ 감소할 것
고용인원	① 변화없을 것 ② 증가할 것 ③ 감소할 것

B3. 귀사는 **현재 미래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향후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① 현재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음 (☑ B3-1로)
- ② 현재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생산 계획이 있음 (☑ B3-1로)
- ③ 향후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고 싶지만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B3-1로)
- ④ 현재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진출계획도 없음 (☑ B3-2로)

B3-1. (B3번 설문에서 ①~③번 응답자) 미래차 관련 부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귀사는 주로 어떤 **사업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업 내부에서 자체 생산
- ② 자회사 설립하여 생산
- ③ 인수합병(M&A)이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생산
- ④ 기타()
- ⑤ 잘 모르겠음

B3-1-1. 귀사가 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래차 부품 개발 방식은 무엇입니까?

- ① 기업 내부에서 자체 개발
- ② 고객사와 공동개발참여 및 기술지원
- ③ 타기업 등에 아웃소싱
- ④ 산학연 협력사업
- ⑤ 정부·지자체 연구개발과제 수행
- ⑥ 인수·합병(M&A) 및 전략적 제휴
- ⑦ 해외기업과 공동개발 및 기술도입
- ⑧ 기술이전
- ⑨ 기타()
- ⑩ 잘 모르겠음

B3-1-2. 귀사의 미래차 관련 주요 기술 확보 및 제품개발과 생산설비에 필요한 **재원**은 주로 어떻게 조달하셨거나 조달하실 계획인가요?

- ① 자체 보유 자금
- ② 고객사와 공동투자
- ③ 회사채 발행 또는 금융기관 대출
- ④ 정부 및 유관기관 정책자금(대출)
- ⑤ 정부 및 지자체 R&D 지원자금
- ⑥ 자금조달이 어려움
- ⑦ 기타()

B3-1-3. 귀사가 미래차 관련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해당 번호 모두에 '✓'표시 해주십시오.

- ① 안정적 공급처 확보 애로
- ② 기술개발 역량 부족
- ③ 전문기관 기술 및 컨설팅 정보 부족
- ④ 진출 희망분야 선정 애로
- ⑤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 자금 부족
- ⑥ 기타()

B3-2. (B3번 설문에서 ④번 응답자) 귀사가 현재 미래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진출 계획이 없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고객사에서 기술개발이전 등을 통해 부품 공급을 의뢰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임
- ② 기술개발이나 신규투자 여력이 없음
- ③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판매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 ④ 내연기관차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 ⑤ 기타()

B3-2-1. 미래차 진출 계획이 없으시다면, **향후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의 수요 및 보급 확대시 주요 대응방향**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존 사업 지속 ② 사업규모 축소 ③ 폐업
④ 다른 업종으로 다각화나 전환 ⑤ 인수합병(M&A) ⑥기타()

B3-2-2. 귀하는 귀사가 미래차 사업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B4. 미래차로의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미래차 관련 부품의 생산이나 향후 진출 계획 등 귀사의 사업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별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 대응하고 있다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B5. 미래차로의 전환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귀사의 주된 제품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존 제품 유지 ② 제품고도화(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제품혁신)
- ③ 미래차 관련 제품 개발 ④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한 생산제품 다변화
- ⑤ 기타()

B6. 귀하는 자동차산업 전환 관련 조합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 B6-1로) ② 필요하지 않다 (☞ B7로)

B6-1. (B6번 설문에서 ①번 응답자) 귀사는 자동차산업 전환 관련 교육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기업 자체, 외부기관 교육 포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B6-2. 교육 참여에 가장 방해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육기회 관련 정보 부족 ② 현업으로 인해 교육 참여 어려움
③ 희망하는 교육과정이 없음 ④ 기타()

B7. 향후 미래차가 확대될 경우 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폭 둔화될 것이다	소폭 둔화될 것이다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소폭 성장할 것이다	대폭 성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B8. 미래차로의 산업구조 변화가 귀사의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빠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별 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매우 개선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B9. 귀하는 미래차 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	대체로 잘 대응하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B10. 미래차 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	대체로 잘 대응하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III.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인식과 노동조합의 대응

C1.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유지
- ② 재교육과 재훈련을 위한 예산 지원
- ③ 일자리 전환에 따른 소득보전 대책 마련
- ④ 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 ⑤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마련
- ⑥ 새로운 일자리에서의 자유로운 노조 가입
- ⑦ 기타()

C2. 전기차 부품 개발·생산 계획 등 미래차로의 전환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어느 정도 참여합니까?

- ① 사전통보없이 회사가 결정
- ② 사전통보
- ③ 노사협의
- ④ 노사공동결정
- ⑤ 해당없음

C2-1. 노사는 미래차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주로 어떤 주제를 논의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해주십시오.

- ① 미래자동차 관련 고용변화 대책
- ② 생산성 향상
- ③ 미래자동차 관련 회사 정책
- ④ 교육훈련
- ⑤ 기타()
- ⑥ 논의(협의)하지 않음

C2-2. 미래차로의 전환 등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와 관련하여 귀 노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해주십시오.

- ① 노조의 주요 안건으로 선정
- ② 노조내 전담부서 설치
- ③ 단체교섭 안건으로 설정
- ④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
- ⑤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 ⑥ 조합원 대상 관련 교육(훈련)
- ⑦ 외부전문가 자문
- ⑧ 기타 ()

C2-3. 귀 노조가 미래차로의 전환(또는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 관련 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해주시시오.

- ① 미래차 전환 등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에 대한 정보 부족 ② 전문성 부족
 ③ 대응인력 부족 ④ 회사의 비협조적 태도
 ⑤ 대응 필요성 못 느낌 ⑥기타()

C3. 전세계적으로 ESG 경영전략이 기업경영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ESG 경영전략은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및 노동조건, 노사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는 아래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세부 항목	전혀 모른다	들어본적 있지만 잘 모른다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잘 알고 있다
ESG 의무공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①	②	③	④
공급망 실사	①	②	③	④

C3-1. 공급망 실사 등 글로벌 공급망 규제가 귀사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이다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C4. 귀하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노동조합 · 정부 · 사용자 ·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약간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C5. 귀하 소속 지역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① 구성되어 있다 (☞ C5-1로) ② 구성되어 있지 않다 (☞ C6으로) ③ 잘 모르겠다

C5-1. (C5번 설문에서 ①번 응답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기후변화와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와 관련하여 지역차원의 대응이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②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③ 의제로 다루어질 계획이 없다 ④ 잘 모르겠다

C6. 귀하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C7.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독일 자동차부품사 노사 대응 사례 세미나

1) 취지

-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등 산업대전환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독일 자동차부품산업의 실태와 노사의 대응현황을 독일 전문가로부터 듣고, 참석자들이 한국 자동차부품사업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며, 향후 대안을 함께 모색함.
- 특히 독일 역시 자동차부품산업의 양극화가 주요 문제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양상은 한국과 차이가 있음. 독일의 양극화 대응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2) 일시 및 장소

- 2023년 11월 22일(수), 14:00~17:00,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

3) 순서

- 참석자 소개
- 홀스트교수 발표
- 참석자 질의응답 및 사업장 실태 공유

4) 세미나 참석 대상

- 금속노련 자동차부품사업장 노조 간부

5) 세미나 자료

자동차산업 독일 전문가-부품업체 노조 세미나

독일 자동차산업의 이중전환
- 탈탄소화와 디지털화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일시: 2023.11.22. (수) 14 : 00~

장소: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

순서

일 정	내 용
14:00-14:10	•금속노련 임원 환영사 •참석자 자기소개
14:10-15:00	•“독일 자동차산업의 이중 전환-탄탄소학과 디지털화” 발표 -하요 홀스트교수 (오스나브뤼크 대학교)
15:00-16:00	•참석자 사업장 전환 현황 공유 -사업장 현황 (생산부품 등) , 산업전환 (미래차) 현황과 주요 이슈 (어려움 등)
16:00-17:00	•전환 전략관련 질의·응답 및 논의·모색 •세미나 마무리

독일 자동차산업의 이중전환 - 탈탄소화와 디지털화

하요 홀스트 교수
오스나브뤼크 대학교

내 용

- 출발점 : 1990년대 이래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의 노동
- 이중 전환 : 근본적인 도전으로써의 탈탄소화와 디지털화
- 사례 연구 : 완성차 및 부품사의 도전
- 독일체제의 긴장 : 전환 위협의 양극화

~ 1 ~

<출발점: 이중 전환 이전>

■ 독일 공동결정의 거점으로서의 자동차산업 :

(높은 노조 조직물에 기초한) 완성차업체 및 대형 부품사에서의 협력적인 경영
진-노동자 관계

■ 1990년대부터 : 일자리의 질과 경제적 효율성을 결합한 참여형 된 생산 반
자율적 팀작업과 토요타 생산시스템(TPS) 도입

■ 동시에 : 아웃소싱과 파견 노동을 통한 (글로벌) 생산의 파편화

■ 수직통합의 완화로 부품업체는 자동차 생산에서 더 큰 역할을 하지만 완성
차업체 (OEM)가 비용 압력을 외부화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사용함에 따라 강력
한 비용 압박 하에 놓여 있음,

-2-

<자동차산업의 이중전환: 탈탄소화와 디지털화>

■ 탄소 배출의 주요 원천으로서 탄소 기반 자동차:

언비 향상, 더 큰 차(SUV) 및 시장 확대

■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특히 탄소 기반 이동성에 의존하고 있음:

독일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체 경쟁력의 주요 지표로서 내연기관(ICU) => 자동
차 파워트레인 산업 고용 비중이 큼

■ 경영 실패: 독일 완성차업체는 내연기관(ICU)을 (ICU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믿음 하에서) 너무 오래 고수했고, 이제 세계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화 속에서
뒤처지고 있음.

■ 현재 전략: 탈탄소화를 위한 주요 경로로서의 E-모빌리티

새로운 제품, 새로운 공급망, 새로운 직무자격

■ 복합 전환으로서 디지털화: 제품의 디지털화와 생산의 디지털화

-3-

<사례 연구 1 (완성차) : 전환을 위한 직무자격과 참여>

■ 사례 연구: 완성차 공장에서의 전환 프로젝트

(기어박스 및 액셀 생산 내부 부품업체) : 작업장 평의회에 의해 시작, 사측과 작업장 평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실행

■ 제품 변화: 기어박스 생산의 외주화, 차체제조 (이 공장을 위한 신제품) 로 교체, 400 명의 노동자 포괄

■ 생산 변화: 고도로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된 새로운 생산 라인 (문제 해결 및 예측 유지보수를 위한 사물인터넷 (IoT) 포함)

■ 직무자격: 수개월간 400명 (선반, 조립, 물류 등) 노동자 집중 재교육, 워크샵 및 현장실습

■ 종합 인력 배치 계획 (새로운 일을 위한 사람들의 동기 부여 및 자격 부여)

■ 참여형 린 생산의 지속: 새로운 생산라인에서 일터 혁신의 원천으로서 팀워크!

* 목표: (a) 공장의 탄소-이동성 의존도 감소, (b) 고용 안정 및 (c) 일터 혁신에 지속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이중점환 지원!

-4-

■ 사례연구 I: 완성차공장에서의 전환 프로젝트 (기어박스와 액셀의 내부 부품업체) : 작업장평의회에 의해 시작, 경영진과 작업장평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실행

■ 제품 변화: 기어박스 생산의 외주화, 차체제조 (신제품) 에 의한 대체, 400명의 작업 포괄

■ 생산 변화: 고도로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된 새로운 생산 라인 (문제 해결 및 예측 유지 보수를 위한 IoT 포함)

■ 직무자격: 400명 집중 재훈련 (선반, 조립, 물류 등)

■ 참여형 린 생산의 지속: 새로운 생산라인에서 일터혁신의 원천으로서 팀작업 (직무 충실화, 직무 확대, 노동자의 참여) !

■ 종합 인력 배치 계획 (새로운 직무에 대해 사람들의 동기 부여 및 자격을 갖추게 함)

· 목표: (a) 탄소-이동성에 대한 공장의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b) 고용을 확보하고, (c) 일터 혁신에 지속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이중 전환을 지원하는 것.

-5-

■ 사례 연구 n: 완성차업체에 의한 배터리 시스템 생산 (탄소 기반 파워트레인 생산 전통적인 부품 공장: 액셀, 조향 시스템): 기업 경영진은 배터리 시스템 생산을 내부화하기로 결정

■ 제품 변화: 500명의 작업자 포괄하는 배터리 시스템 생산 및 조립 (선반작업 요소를 제외한 공장의 신기술)

■ 생산 변화: 새롭고, 고도로 자동화된 (95%, 로봇 290대), 디지털화된 생산 라인 (디지털 문제 해결 및 예측 유지 보수를 위한 IoT 포함), 비숙련 작업은 조립에서만 가능

■ 직무자격: 40+명 노동자를 위한 집중 재훈련 (선반, 조립, 물류 등)

■ 참여형 인 생산의 지속: 새로운 생산라인에서 일터 혁신의 원천으로서 팀작업!

□ 목표: (a) 핵심 e-제품 역량 강화, (b) 고용확보를 통한 기업의 이중전환 지원!

“새로운 E-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생산 노동자가 필요하고 품질을 마지막 날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라인에서 최고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라인 관리자)

-8-

<사례 연구 in: 1차 부품업체-E엔진 생산>

■ 사례 연구: 1차 부품업체의 E-엔진 (전통적으로 탄소 파워트레인 생산에 내재화된 공장)

■ 신제품: E-엔진은 R&D (전기 엔지니어) 분야의 새로운 엔지니어링 역량과 조립 라인 (전압) 분야의 새로운 역량을 필요로 함.

■ 생산 변화: 고도로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된 새로운 생산 라인 (문제 해결 및 예측 유지 보수를 위한 IoT 포함) (이전 생산 라인보다 노동자 수 감소)

■ 직무자격: (다양한 분야) 노동자 40명을 위한 재훈련, 소수 노동자에 한해 전자 직무자격 취득

■ 종합 인력배치 계획 (구제품과 신제품 병행생산):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파견노동자 (도전은 질적인 것!)

✓ 목표: e-모빌리티를 위한 역량 및 생산능력 구축

· 도전: 신제품은 R&D 및 생산 시설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시장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고 마진이 더 적음 (기존 탄소 관련 제품과 비교하여)!

“e-엔진 시장은 쇼크나 기어박스 시장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하다. 경쟁자가 많을수록 마진은 훨씬 적다. 그러나 대안이 없다. 지금 e-모빌리티 생산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몇 년 안에 자동차산업에서 사라질 것이다” (공장 매니저)

-9-

■ 사례 연구 IV (E-엔진 생산) : 하위 하청업체 (생크, 쇼크 및 베어링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내연기관/탄소 파워트레인에 사용되는 부품의 대량생산) .

■ 제품: 전통적인 제품에 집중 (현재 수요가 많고 마진이 높음) , 자본 부족으로 e-모빌리티를 위한 생산 투자 어려움

■ 생산: 생산설비 노후, 유지보수에 낮은 투자 (고수익)

■ 직무 자격: 직무교육 전략 없음

■ 인력충원: 빈 자리는 과전노동자들로 채워짐 (인력의 양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 목표: ICU 자동차가 판매되는 한 생산

' 도전: ICU 차량 이외의 전망 없음, 고용자 수 감소, 작업의 질에 대한 관심 부족

"우리는 말이 죽을 때까지 탐 것이다." (공장 관리자)

-8-

<더 큰 그림: 독일 자동차산업의 양극화>

■ 독일 완성차 및 1차 부품업체의 도전:

기존 인력을 활용한 유럽 공장에서 e-모빌리티 전환

■ 기존 인력에 대한 직무 (높은 노조 조직률과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에 의해 뒷받침됨)

■ 새로운 기술 및 직무 자격에 대한 막대한 투자 (e-모빌리티를 위한 생산 라인, 직무 자격을 갖춘 인력)

■ 기존 및 새로운 생산의 병행 (탄소 관련 제품 및 e-모빌리티 관련 제품)

■ 공장 인력 배치 계획 (생산 최종일까지 기존 제품 지원의 신제품 증가 지원)

■ 노동의 질에 대한 엇갈린 영향 (완성차에서는 지속, 부품사에서는 압박)

■ 중소 (대량) 부품업체의 도전: 전환을 하느냐 아니면 죽느냐!

■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자본 부족

• E-제품 경쟁 심화로 인한 투자수익 감소

■ 과도하게 탄소-이동성에 기반을 둔 제품 포트폴리오로 인해 전환 위험 증가

■ 노동력이나 작업의 질에 대한 책임감 결여

■ 일부 공장은 내연기관 (ICU) /탄소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수하여 현재의 수익을 극대화함 (미래를 위한 기회를 희생함) .

-9-

<독일 자동차산업에서 일터혁신의 미래>

■ 완성차업체(V, BMW, Daimler)와 1차 부품업체(ZF, Bosch, Conrtinental) :

전환 시 공동 결정의 연속성과 노동의 질 집중

■ 이중전환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책무와 참여적 린 생산

연구 개발 및 신제품 라인에 대한 높은 투자

■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구조화하여 전환 위험 감소

■ 작업장 평의회와 노조의 영향력 강화(IG Metall-독일 금속노조)

■ 소규모 부품업체: 이중 전환은 노동자 참여와 고용을 압박함(생존은 보장되지 않는다!)

■ 전통적으로 소규모 부품업체에서는 일터 혁신에 덜 중점
함¹⁾ ■ '己'

■ 자본의 부족과 경쟁의 심화

■ 완성차업체가 탄소 관련 제품의 외주화를 증가시킴에 따라 전환 위험 증가

■ 이중 전환 시 일터 혁신의 양극화?

산업정책을 통한 직무 자격과 노동자 참여를 위한 공적 지원이 필요함!

■ 독일 금속노조(IG Metall)와 국가는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들 간의 지역 협력(전환 네트워크)을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 모든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는 연구를 재정 지원함.



The Dual Transformation in the German Auto Industry- Decarbonization and Digit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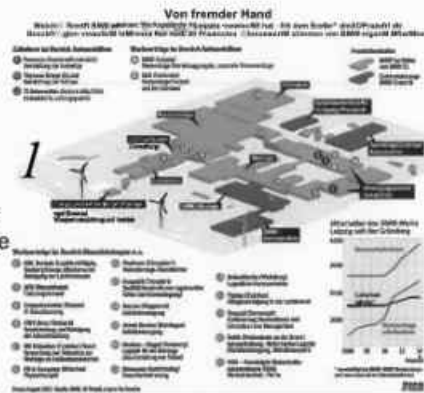
Prof. Dr. Hajo Holst
University of Osnabrück



Content

- **The Starting Point: Work in the German automotive industry since the 1990s**
- **The Dual Transformation: decarbonization and digitalization as fundamental challenges**
- **Case studies: Challenges for Car makers and suppliers**
- **Tensions in the German System: polarization of transformation risks**

- Automotive as the Stronghold of German Co-Determination:
cooperative management-worker relationships in OEM and large suppliers
(based on high union density)
- From the 1990s: Introduction of Participatory Lean Production
semi-autonomous teamwork and Toyota production system (TPS) combining job
quality and economic efficiency
- Parallel: Fragmentation of (global)
Production through Outsourcing and
Temporary Agency Work
- Due to vertical desintegration suppliers
play a bigger role in car production but are
under intensive **cost** pressure as OEM use
outsourcing to externalize cost pressures



Dual Transformation in The German Auto Industry / Hajo Hölzl 7.22.11.2023 / 3 von 11

- Carbon-based automobility as a major source of carbon emissions:
Increasing fuel efficiency, bigger cars (SUV) and growing markets
- Germany's automotive sector is particular dependent on carbon-based mobility:
Internal combustion engine (ICU) as primary marker of competitiveness of
German OEM and suppliers => large share of industrial employment in automotive
powertrain
- Management failure: German OEM stucked with ICU too long (belief in the
technological superiority of ICU) and are now Laggards in the Decarbonization of
the global car industry.
- Current Strategy: E-Mobility as the Primary Path towards Decarbonization.
New products, new supply chains, new qualifications
- Digitalization as a Parallel Transformation:
digitalization of products and digitalization of production

Dual Transformation in The German Auto Industry / Hajo Hölzl / 22.11.2023 / 4 von 11

■ Case Study: Transformation Project in an OEM plant

(internal supplier for gearboxes and axles): initiated by works council, implementation with close cooperation between management and works council

- *Product Change*: outsourcing of gearbox production, replacement by bodywork (a new product type for the plant), involving 400 workers
- *Production Change*: new, highly automated and digitized production line (including IoT for problem solving and predictive maintenance)
- *Qualification*: intensive re-training for 400 workers (from turnery, assembly, logistics) lasting several months, workshops and practical training
- *Complex Staffing Planning* (motivating and qualifying people for new jobs)
- *Continuity of Participatory Lean Production*: teamwork as a source of workplace innovation in new production lines!

• **Objective**: Supporting the dual transformation by (a) decreasing the plant's dependency on carbon-mobility, (b) securing employment and (c) continuing focus on workplace innovation!



■ Case Study: Transformation Project in an OEM plant

(internal supplier for gearboxes and axles): initiated by works council, implementation with close cooperation between management and works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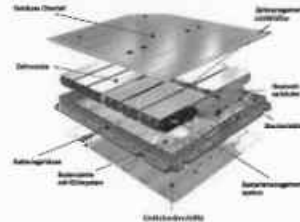
- *Product Change*: outsourcing of gearbox production, replacement by bodywork (a new product type for the plant), involving 400 workers
- *Production Change*: new, highly automated and digitized production line (including IoT for problem solving and predictive maintenance)
- *Qualification*: intensive re-training for 400 workers (from turnery, assembly, logistics)
- *Continuity of Participatory Lean Production*: teamwork as a source of workplace innovation in new production lines (job enrichment/job enlargement, worker participation)
- *Complex Staffing Planning* (motivating and qualifying people for new jobs)

• **Objectives**: Supporting the dual transformation by (a) decreasing the plant's dependency on carbon-mobility, (b) securing employment and (c) continuing focus on workplace innovation!



■ **Case Study: Battery systems production by an OEM**
(traditional component plant for carbon-based powertrain: axles, steering systems): corporate management decided to internalize battery systems production

- **Product Change:** battery system production and assembly (new technology for the plant except turnery elements), involving 500 workers
- **Production Change:** new, highly automated (95%, 290 robots) and digitized production line (including IoT for digital problem solving and predictive maintenance), unskilled jobs only in assembly
- **Qualification:** intensive re-training for 400 workers (from turnery, assembly, logistics)
- **Continuity of Participatory Lean Production:** teamwork as a source of workplace innovation in new production lines!



- **Objectives:** Supporting the company's dual transformation by (a) building up competencies in central e-products, (b) and (b) securing employment!

"We need the best production workers to build up the new E-lines, and we need the best workers in the old lines to keep quality up to the last day." (Line Manager)

6

Dual Transformation in The German Auto Industry / Hajo Holt / 22.11.2023 / 7 von 11

■ **Case Study: E-Engine by 1st tier supplier**
(plant traditionally embedded in carbon powertrain p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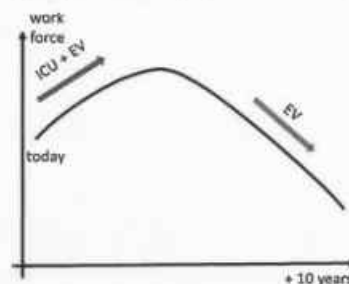
- **New Product:** E-Engine requires new engineering competencies in R&D (electrical engineers), and new competencies in the assembly line (voltage)
- **Production Change:** new, highly automated and digitized production line (including IoT for problem solving and predictive maintenance) (less workers than in older productions)
- **Qualification:** re-training for 40 workers (from different areas), electrical qualification only for a minority of workers
- **Complex Staffing Planning** (parallel production of old and new products). Temporary agency workers to cope with temporarily increased staff demand (challenge is a qualitative one!)

- **Objectives:** Building competencies and production capacity for e-mobility

- * **Challenges:** New products require big investments in R&D and production facilities, but market competition is much more intensive and margins are smaller (compared to old carbon-related products)!



"The market for e-engines is much more competitive than the markets for shocks or gearboxes. More competitors, much lower margins. But there is no alternative. If you do not start production for e-mobility now you will be out of the auto industry in some years." (Plant Manager)



Dual Transformation in The German Auto Industry / Hajo Holt / 22.11.2023 / 8 von 11

■ Case Study: Lower Tier Supplier

(traditionally mass production of parts used in ICU/
carbon powertrain such as shanks, shocks and
bearings).

- *Product*: concentration on traditional products (currently high demand and high margins), lack of capital blocks investments in production for e-mobility
- *Production*: old production facilities, low investment in maintenance (high profits)
- *Qualification*: no-qualification strategy
- *Staffing*: Empty positions are filled with temporary agency workers (to increase the quantitative adaptivity of the workforce)

□ **Objectives**: Producing as long as ICU cars are sold

* **Challenges**: No perspective beyond ICU vehicles,
shrinking employment numbers, no focus on quality
of work



*„We are riding the horse
until it is dead.“
(Plant Manager)*

S

■ Challenges for German Car Makers and 1st Tier Suppliers: transformation to e-mobility in European plants *with* the existing workforce

- *Commitment to the existing Workforce* (supported by high union density and German co-determination)
- *Huge Investments in new technologies and qualification* (productions lines, qualifying workers for e-mobility)
- *Parallel, 01st and newst productions* (carbon-related and e-mobility-related products)
- *Complex Staffing Planning* (supporting old products until final day of production, and supporting ramp-up of new products)
- *Mixed effects on quality of work* (continuity in OEM, pressures in suppliers)

■ Challenges for Smaller (Mass) Suppliers: transformation do-or-die!

- *Lack of capital* impeding investments in new technologies
- *Intensified Competition in F-Products* decreasing returns on investments
- *A Product Portfolio heavily based on Carbon-Mobility* increasing transformation risks
- No commitment to workforces or quality of work
- Some plants stick to ICU/carbon product portfolio to maximize today's returns (and sacrifice opportunities for the future).

9

- **OEM (VW, BMW, Daimler) and 1st Tier Suppliers (ZF, Bosch, Continental):**
Continuity of Codetermination and Quality of Work Focus in Transformation
 - Commitment to Workers and Participatory Lean Production in the Dual Transformation
 - High Investments in Research & Development and New Product Lines
 - Reducing Transformation Risks by Restructuring Product Portfolio
 - Strong influence of works councils and Unions (IG Metall)
- **Smaller Suppliers: Dual Transformation puts Worker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under Pressure (Survival is not guaranteed)!**
 - Traditionally less Focus on Workplace Innovation in Smaller Suppliers
 - Lack of Capital and Intensified Competition
 - Increasing of Transformation Risks as OEM increasingly outsource Carbon-related Products
- **Polarization of Workplace Innovation in the Dual Transformation?**
 There is a need for Public Support for Qualification and Worker Participation though Industrial Policy!
- The IG Metall and the State foster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OEM and suppliers (transformation networks) and finance research facilitating a socially just transition for all workers in the industry¹ IO

다.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워크숍

1) 취지

- 자동차업종 산업전환 현황, 관련 사업 이해
- 자동차부품업종 현장 상황 공유

2)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31일(목) ~ 9월 1일(금) <1박 2일>
- 장소 : 대전KT인재개발원
- 대상 : 자동차업종 단위노조 간부
- 참가비 : 1인당 3만원
- 예상인원 : 40명

3) 일정표

시간 \ 일자	8월 31일 (1일차)	9월 1일 (2일차)
08:00 ~ 09:00		조식
09:00 ~ 10:00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 오기영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3:50	접수 및 개강식	
14:00 ~ 15:30	자동차업종 산업전환의 이해 - 워크인연구소 이문호 소장 -	
15:40 ~ 16:50	자동차부품사 현황 공유 및 토의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황선자 부원장 -	
17:00 ~ 17:50	- 워크숍 종합토론 및 기타토의	
18:00 ~	석식	

2. 노동현안 대응 활동

가.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1) 개요

-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물가 폭등 상황, 물가상승률 보다도 낮은 임금인상률로 인한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 현상(12개월 연속 삭감)이 매우 심화하였음.
- 특히, 물가폭등에 따른 필수·저임금·취약계층 노동자의 지출 품목(식료품, 주거, 교통)에 대한 부담이 더욱 높아졌지만,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임금체계 개편, 임금인상 자제 주문 등)과 맞물리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그 어느 해 보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 또한,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과정 이후 벌어진 노동자위원(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부재 상황, 신규위원(김민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 거부, 언론 보도를 통한 정부 고위 인사 가이드라인 제시 및 부당 심의 개입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 자율성,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으며 노동계의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었음.
- 결과적으로, 2024년도 최저임금은 노·사의 최종 표결로 사용자위원 안인 2.5% 인상률(시급 9,860원)로 결정되었지만,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등)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자료와 비혼단신생계비(월 241만원)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2) 전원회의 활동

(1) 최저임금 심의요청 (3. 31)

-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요청
 - (주요내용)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

(2) 제1차 전원회의 (5. 2)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 접수
- 최저임금안 심의 관련 세부사항을 전문위원회 심사에 회부

(3) 제2차 전원회의 (5. 25)

- 제1차 생계비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접수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해 노·사 간 합의하여 표결 없이 결정

- (의결주문)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3) 평가

-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과거 최저임금위원회 활동과 비교하였을 때, 정부의 노동 탄압 국면, 정부의 노동자 위원 해촉 및 위촉 거부로 인한 노사 간 불균형, 정부의 노골적 개입 등 노동계에 매우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심의가 전개됨.
-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삼자주의와 노사공 동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적 대화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 및 후퇴한 해였음.
- 특히, 노동자 위원(김준영) 부재 상황, 정부 고위 인사 최저임금 수준 심의 개입 등 최대한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무리하고 과도하게 개입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함.

4) 성명서

**최저임금위원회 김준영 노동자위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강제해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김만재 위원장을 즉각 위촉하라 -

오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촉을 제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김준영 사무처장이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를 했으며 노동자위원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쳤다.

노사법치라는 해괴하기 이를 데 없는 단어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가 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법치 수호자가 되어 왔다. 그런 고용노동부가 이제는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제해촉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은 폭력 진압의 피해자인 김준영 사무처장이 오히려 구속됨에 따라 사임이나 위임 등의 방법을 찾아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김준영 사무처장을 해촉하고, 새 노동자위원을 위촉하는 절차를 빠르게 밟자는 제안을 했다.

노동자위원의 공백을 막을 수 없기에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은 협의를 통해 김만재 위원장을 위촉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김만재 위원장의 위촉을 반대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김준영 사무처장을 일방적으로 해촉했다.

김준영 사무처장의 해촉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문까지 적시한 노동부가 김만재 위원장 위촉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만재 위원장이 현행법상 어떤 근거로 노동자위원에 위촉될 수 없는지 노동부는 설명해야 한다.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제해촉한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금속노련은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강제 해촉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부 스스로의 주장대로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김만재 위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위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2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시급 9,860원으로 네가 살아봐라!
- 금속노련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다 -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은 더 큰 고통을 감내해 왔다. 2019년 코로나 위기 이후 4년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은 4.2% 정도인데,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은 3.6%로 실질임금은 하락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유례없 이 물가가 폭등한 상황임에도 1만원 돌파는 요원했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물가 상승률을 3.3%로 전망한 바 있다. 최저임금 2.5% 인상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회장,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권순원 공익위원은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인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제 해촉했고, 김만재 위원장에 대한 위촉을 거부했다.

이렇듯 공익위원들은 그들의 책무인 중립성과 객관성은 저버린 채 정권의 눈치만 살피 왔다. 최저임금심의 과정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1만 원 이하 최저임금 발언들을 언론에 뿌렸고 공익위원들은 그들의 예언을 현실로 만들어 줬다. 이제는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공익위원들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금속노련 최저임금위원회의 불공정성과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금속노련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 문제인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보장,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같은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 7. 19.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나. 정의로운 전환 대응 활동

1) 정의로운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활동

- 활동 : 더불어민주당과 정국회 통과 목표로 대국회 활동 전개
- 법안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정의당 의원안),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
- 노동전환지원법 관련 환노위 야당 간사 면담
 - 일시 및 장소 : 2023. 7. 7(금) 14:30~ , 국회의원회관 545호(이수진 의원실)
 - 참석자 :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나병호 금속노련 정책국장, 송 민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 노유근 전력연맹 실장, 노총 정책1본부, 민주노총 등

2) 한국노총 기후노동네트워크 참여

- 구성 : 사무총국, 금속·공공 등 기후위기 관련 산업전환 산별 대상
- 방식 : 이슈를 중심으로 비정기 간담회 진행
- 내용 :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일자리 정책의 정의로운 전환, 노총 기후정책 역량 강화 논의 등

3) 노동자 기후위기 아카데미 참여

(1) 목적

- 기후위기는 비단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산업과 먹거리, 일자리 등 우리 삶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음.
- 이에 한국노총은 기후운동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쟁점들 속에서 노동조합이 꼭 알아야 하는, 행동해야 하는 점들을 되짚는 교육을 통해 이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3. 9. 4(월) 10:00~16:30,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대상 : 관심 있는 산별 및 지역 간부들

(3) 주요 내용

- 기후위기시대, 우리가 애써 외면해 왔던 것들(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 기후위기시대, 우리가 사는 곳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
- 노동조합,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 내가 만드는 손파켓 & 수료식

3. 회의체 활동

가.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1) 개요

- 목적 : 자동차 산업 인력 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 체계구축을 위한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의 23년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 2023년 12월 13일(수) 10:30~13:00
 -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홀(서울시 강남구 소재)
- 참석자 : 자동차 ISC 위원장위원 및 정부 관계자 총 28명
 - 운영위원 : 한자연 원장(위원장),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총 25명
 - 정부 관계자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직업능력평가과장, 산업통상자원부(미정) 총 3명
- (주요 행사) 안전 보고, 간담회
 - ISC 혁신성과 경진대회 결과, 제2차 자문위 결과, 제4기 ISC 운영 및 24년도 사업계획

2) 참가자 명단

- 대표기관 산업별협 단체 : 한국자동차연구원 나승식 원장
- 참여기관 산업별협 단체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이사
- 참여기관 산업별협 단체 :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오원석 이사장
- 참여기관 산업별협 단체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고문수 전무이사
- 참여기관 산업별협 단체 : 한국자동차공학회 민경덕 회장
- 참여기관 산업별협 단체 :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문희석 사무국장
- 참여기관 산업별협 단체 : 한국표준협회 권오성 본부장

- 참여기관 산업별협 단체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강순근 회장
- 참여기관 산업별협 단체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홍석광 회장
- 참여기관 노동자단체 :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부위원장
- 참여기업 :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 참여기업 : 모빌리티 KG 이은석 상무
- 참여기업 : 현대모비스 김영빈 전무
- 참여기업 : 만도 배홍용 부사장
- 참여기업 : 명화공업 문성준 대표이사
- 참여기업 : 경기산업 박경배 대표이사
- 참여기업 : 다성 문 승 대표이사
- 참여기업 : 삼보모터스 박준영 사장
- 참여기업 : 덕양산업 손동인 대표이사
- 참여기업 : 오비고 황도연 대표이사
- 참여기업 : 베이리스 김형준 대표이사
- 참여기업 : 컨트론크스 박승범 대표이사
- 학계 : 한양대학교 허건수 교수
- 학계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민준기 교수
- 학계 :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

4. 국정감사 대응 활동

가.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건

1) 문제점

- 1999년 대유에이텍을 설립하며 자동차 부품 사업을 시작한 대유그룹은 2014년 위니아만도(현 위니아), 2018년 동부대우전자(현 위니아전자)를 각각 인수하며 가전제품 사업에도 진출함.
- 하지만 지난해부터 임금 체불을 시작하여 현재 553억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음.
- 이후 위니아그룹은 노사간 진행한 임금, 퇴직금 등 지급 합의를 대다수 이행하지 않아 그 체불액이 급증함.

- 박영우 회장은 비등기이사임에도 그룹의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 왔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도 있음.

2) 현황

- 위니아전자, 위니아딥채 등 임금, 퇴직금 미지급 진정이 300여건에 달하여 고용노동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위니아전자 박현철 대표이사가 구속 수감됨.
- 박영우 회장은 비등기이사로서 법적인 책임은 없이 그룹 내 의사결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시 의무가 있는 확인이 가능한 위니아, 대유에이텍, 대유플러스, 대유에이피로부터 2021년 65억, 2022년 77억원의 보수를 받음.
- 박영우 회장은 2017년 10월 자본시장법(대유신소재 주식 손실회피)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됨.
- 또한 박영우 회장은 2023년 8월 위니아에이드 주식 116만주를 처분하여 자본시장법(주식 손실회피) 위반 의혹이 있음.

3) 대유위니아그룹 주요 지배구조



4) 대우위니아그룹 주요 이슈

구분	시기	주요 사건	내용	규모	비고	
지분 확보	㈜위니아	2022	지분 확보	자회사 지분 확보	97억	㈜위니아 → 대우위니아 타일랜드
자산 매각 및 매입	㈜위니아	2023	유형자산 양도	현금지급 및 채권 상계	842.3억	㈜위니아 → 위니아에이드
	위니아전자	2018	부동산 처분	성남물류 및 부평연구소	334억	실 유입 추정액 116억
		2019	부동산 처분	부평연구소	151억	실 유입 추정액 38억
			공장 매각	광주 음향공장 매각	145억	실 유입 추정액 41억
			지분 매각	천진 전자레인지 지분(51%)	220억	실 유입 추정액 120억
		2022	건물 매입	미국 뉴저지 사무소폴빌딩 3,100만달러 매입	404억	한화 404억 (환율 1300)
		2023	공장 매각	위니아전자 천진공장		340억 채무불이행으로 이슈 발생
			공장 매각	위니아전자 멕시코공장(진행중)	1,200억	부채 2,500억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2023	공장 양도	유형자산 양수 결정	880억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 ㈜위니아
분사 및 생산라인 이전	㈜위니아	2015	영업권 양도	㈜위니아 국내영업 대리점사업부문		㈜위니아전자 → ㈜위니아에이드
		2022	물적분할 추진	위니아 하남공장(주 담채생산) 물적 분할		실패
	위니아전자	2019	라인 이전	세탁기 2개 라인		광주공장 → 대우위니아 타일랜드
		2019	서비스 이관	AS 부문 → 위니아에이드로 이관		아이폰AS, 물류센터 알짜 기능 뺏김
		2020	제조부분 분사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광주공장)		당시 340명 소속 변경
		2020	라인 이전	냉장고(고부가가치 모델) 라인		광주공장 → 멕시코공장
		2020	제조부분 분사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340여명 소속 변경
		2021	영업권 양도	위니아전자 국내영업부문		위니아전자 → ㈜위니아
소송	위니아전자	2022	로열티 소송 제기	브랜드 사용료 + 패소비용 41억		
			엔텍할 소송	매출채권 236억 확보 소송진행		
	대우홀딩스	2022	남양유업 소송	인수 매매예약완결권 확보에 따른 계약금	320억	1심 패소, 2심 진행중(소송비는 누가?)
구조조정	㈜위니아	2023	휴직+희망 퇴직	퇴직금 지급기일 약속 + 4개월		감원중
	위니아전자	2019	구조 조정	광주공장 기능직 사원 대상		120명 감원
		2023	구조 조정	광주공장 기능직 사원 대상		125명 감원

참고1) 9/25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현장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니아전자 광주공장에 근무하는 윤성복입니다.

위니아전자와 생산법인인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재직 직원들이 못받은 월급 8개월입니다. 내가 낸 세금을 국가가 돌려주는 연말정산도 회사는 주지 않았습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도 체납 9개월입니다.

지난 7월 중순에 회사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급여의 70프로를 줄테니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직원의 70프로에 대해 강제휴업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두달이 지나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휴업대상자들은 재직중 신분이어서 임시직으로라도 다른 데 취업하거나 소득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알바도 일용직 근로도 안됩니다. 꿈쩍 못하게 손발 다 묶어놓은 생매장입니다. 배신감 보다는 하루하루 어떻게 연명하냐! 이번달 대출과 카드는 또 어떻게 막을까! 이미 빌릴만한데서 다 빌려쓰고 의료보험 체납으로 추가대출도 안되고... 참으로 가슴답답하고 막막할 뿐입니다.

회사를 다녀도 안나오고, 강제휴업으로 집에 있어도 안나오고 퇴직을 해도 급여와 퇴직금이 안나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9월부터 1년 동안 이어진 장기체불에 이미 재직자와 퇴직자 일부는 대출금과 카드를

못막아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내일모레 9월이 지나면, 추석이 지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납니다.

지난 13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신속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임금체불 걱정없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위니아전자와 매뉴팩처링 직원들 500가구의 삶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가족 2천명이 불길 속에서 생사를 다투고 있습니다. 모두 즉시 구조하여 심폐소생을 시키고 긴급수혈을 해야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는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그리고 위니아를 재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긴급구호대책을 세워주시길 호소드립니다.

23년 9월말 현재,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위니아 500명이 월급과 퇴직금 790억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520억, 매뉴팩처링 270억)을 못받았습니다. 어째서 이런 대량 대규모 임금체불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수 없는 일입니다.

월급이 밀리고 안나온지 오늘이 꼭 12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현 대표이사는 오너가 아닙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계속 알아보고 있다, 시간을 더 달라... 1년 동안 똑같은 녹음기만 틀어놓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거대한 임금 체불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룹회장이 하루빨리 책임지고 해결해야합니다. 그는 직원들의 퇴직금과 월급 체불에 대해 작년 (9월)부터 오늘까지 못줘서 미안하다,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서 언제까지 주마.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주는게 아니라 줄 필요와 책임감을 못 느끼는 것인지, 마음이 없고 줄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전 재산이 20만원뿐이어서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2018년 2월, 대우그룹은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하였습니다. 남아 있던 가치 있는 자산을 팔았습니다. 광주공장의 세탁기를 태국으로, 냉장과 핵심모터를 멕시코로 옮겼고 국내영업과 서비스를 다른 계열사로 떼어가 버렸습니다. 중동과 중남미에서 인지도 높은 대우브랜드를 폐기처분했고 천진공장을 매각했고 멕시코공장을 매각진행중입니다.

그룹회장은 매주 매월 탑(회장) 주관의 회의를 통해 각 대표들과 사업본부장들에게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실제 의사결정과 업무지시를 해오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장사가 잘 안되니까, 매출이 줄고 적자가 늘어나니까 각 계열사 각 사업부는 각자도생해라. 알아서 살아라합니다. 월급도 퇴직금도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실제 회사경영 장본인으로서 엄연한 책임회피이자 배임이지 않습니까? 계열사가 손가락만큼 많고 10억 상금의 골프대회도 열고 멕시코시티 빌딩과 뉴저지 허드슨강 옆에 대형 빌딩도 있는데 줄 돈이 없다는 것입니까?

6일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우리나라는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다. 검찰에서 심각하게 보고있으며 범죄혐의를 밝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퇴직자와 재직자 500명. 가족 2천명을 대신하여 거듭 호소드립니다. 조속한 체불금 지급. 신속엄정수사. 책임자 처벌! 감사합니다.

참고2) 9/25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기자회견문

대우위니아그룹의 악의적인 임금체불을 규탄한다!

박영우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대우위니아그룹의 전자제품 계열사인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의 재직자와 퇴직자는 확인된 것만 553억 원의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급여 생활자는 한두달만 급여가 체불되어도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급여 생활자인 저희 재직자와 퇴직자는 2022년부터 7월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거의 아무 수입 없이 생활해 왔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저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죽음과도 같은 참혹한 생활을 겨우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임금체불 투쟁을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느낀 것은 임금체불은 직접 당하지 않고서는 그 고통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가족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어 함께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중국에는 가정을 파탄 내고 가족을 해체 시킵니다. 말 그대로 생지옥이며 가정 파괴범과도 같은 최악의 악질 범죄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은 이 지긋지긋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 간의 협의를 수도 없이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회사로부터 지급 약속도 많이 받았습시다. 번번히 그 약속을 어기며 급여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살기 위해서 항의 집회도 수 없이 해 왔습시다. 언론에도 알렸습시다. 하지만 회사는 무책임하게 묵묵부답입니다.

결국 저희들은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을 200여 건이 넘게 했고, 9월 20일 위니아전자 박현철 대표이사가 구속되었습니다. 실소유주이며 실권자인 그룹의 박영우회장의 수사개시도 함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 사장이자 실권없는 박현철 대표이사가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의 임금체불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지금도 그룹 전체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박영우 회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장의 계열사 밀어주기, 회사쪼개기, 분사, 무리한 해외공장으로의 제품 및 설비 이전, 대우브랜드 포기 등 잘못된 경영판단과 의사결정으로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위니아는 연쇄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습니다. 또한 전자제품 계열사가 어려운 와중에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성남 신사옥 완공, 미국 뉴저지 빌딩 매입, 남양유업 인수를 위한 계약금 납입, 신기인터모빌(대우이피) 인수 등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임금체불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영우 회장은 몽베르 골프장, 빌딩, 건설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보유한 재벌입니다. 회장의 연봉은 2022년 기준 77억이고 기업오너 중 재계 3위입니다. 하지만 미등기이사로 빠져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월급쟁이 등기이사를 전면에 세워 두고 바람막이로 활용하며 실제로는 모든 의사결정을 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회장이 실제로 경영을 했고 임금 지급을 못하는 상황을 만든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박영우 회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무 실권 없는 이름뿐인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소유주가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법과 제도를 보완하기 이전

에는 현실적으로 회장의 결정 없이는 저희들의 생명줄인 체불임금을 받을 수가 없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내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 꼭 박영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박영우 회장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사과와 더불어 해결책을 제시 받아 임금체불을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가족, 친지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습니다. 집에 갈 버스비가 없습니다. 박영우 회장은 실제 그룹을 경영한 회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박영우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진심으로 호소하고 간청합니다.

박영우 회장은 대우위니아그룹 임금체불 해결하라!

박영우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참고3) 위니아전자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피해자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검사님, 언론인 및 국민여러분

저희는 대우위니아그룹 위니아전자의 퇴직금 및 체불임금 피해자들 입니다. 대우위니아그룹 가전계열사 5개사중 위니아전자, 위니아매뉴팩처링, 대우플러스 3개사가 기업회생절차라는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법정관리가 개시되어 법원판결에 따라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게 되고, 제도상 회사에 체불임금 지급요청도 할수가 없습니다. 법원판결이 파산으로 결정이 나면 20년을 다녔든 30년을 다녔든 최대 3년치의 퇴직금 밖에 못 받게 됩니다. 암담하고, 억울하고 낙심스러운 심정입니다.

대우그룹이 김치냉장고로 유명한 덩채와 수출주도기업 대우전자를 인수후 운영한지 불과 5년만에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가, 결국 파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직원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은채 2-30년 피땀흘린 소중한 직장을 떠나야게 되었을 했을까요? 또 피해보상은 커녕, 일년동안 사과 한번없다가 법정관리로 몰고간 그룹 박영우회장은 체불임금지급 의무는 물론 형사처벌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월급쟁이 대표이사과 고용계약을 체결했고, 그룹회장과 계약관계가 없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차 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박영우회장과 대우위니아 그룹은 증거를 인멸하고 본인들 피해확산 방지에만 급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출국금지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악덕 기업주를 처벌하고, 재발방지가 되어야 합니다.

위니아전자만 해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체불금액이 412명에 302억원 입니다. 가전그룹을 합하면 무려 553억이 됩니다. 미신고 직원들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이렇게 큰 체불임금이 만들어지게 된 건 22년 하반기부터 입니다. 인수후 초반에는 남양유업 인수실패, 태국공장 투자, 신사옥 설립등 무리한 확장으로 약1천억의 손실이 발생하여 1차 경영악화가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체불문제는 위니아전자의 멕시코공장을 키워 미국과 멕시코시장 매출확대에 몰입한 회장의 야망으로 그룹 계열사의 모든 자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런 총력투자에도 불구하고 22년 7월에 갑자기 냉장고 생산물량을 주수물량의 1/4인 2만대로 감산결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급여는 커녕 그룹의 유동성이 막히게 되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조기업의 감산 결정은 치명타 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큰 감산결정을 할수 있는 직원과 경영진은 없

습니다. 회장의 단독결정이었고, 너무나 위험한 결정이어서 거듭 철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되었고, 직원, 부품공급업체, Buyer는 물론 계열사에게 까지 치명적이고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니아전자가 22년 4분기부터는 직원들의 의료보험료, 고용보험은 물론 전기세도 납부를 못하게 될 정도가 되어, 연말에 대규모 희망퇴직을 감행했습니다. 그후 법정기한 14일이 경과하였으나 아무도 퇴직금과 밀린급여를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박영우회장집 앞, 그가 가진 몽베르 골프장등에서 23년 내내 수많은 길거리 집회를 해왔습니다만 한푼도 받지 못하고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참혹한 현실입니다. 직원들의 개인 파생으로 이어질 것 입니다. 박영우회장은 중대한 범죄자 입니다. 검찰은 박회장과 대유위니아 그룹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이런 범죄자가 이땅에서 사라지도록 해주십시오. 언론인 분들과 국민여러분들은 이런 악덕기업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죄값을 받을 때까지 주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년 10월 2일

위니아전자 파산으로 400억 채불임금을 못받게 된 피해직원 일동

5)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2023년 9월 22일(금)	
한국노총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 / • 문의 : 나병호 금속노련 정책국장(010-2791-7677)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해결 및 박영우 회장 증인 채택 촉구 기자회견

1. 중견기업인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액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된 금액만 553억에 달합니다.
2. 박영우 회장은 미등기임원으로 법적인 책임은 없이 그룹 내 의사결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2021년 65억, 2022년 77억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3.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박영우 회장의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증인 채택이 필수적입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3. 9. 25(월) 11:20 ~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의당 이은주 의원, 금속노련, 위니아덤체노조, 위니아전자노조,
- 진행순서
(사회 : 금속노련 나병호 정책국장)
- ☞ 발언
 - 정의당 이은주 의원
 -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 위니아전자노조 윤성복
- ☞ 기자회견문 낭독
- ☞ 기자회견 마무리 및 정리 <끝>.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 규탄 및 임금채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

□ 배경 및 목적

- **(배경)**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채불액이 7백억원을 넘어가고 있지만 박영우 회장은 채불임금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사제출연 같은 방안없이 소송에 승소하거나 자산을 추가 매각해야 채불임금 변제가 가능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음
- **(목적)** 박영우 회장을 규탄하고 임금채불 해결을 촉구하기 위함

□ 개 요

- 일시 : 2023. 12. 20(수) 09:20 ~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원, 이용빈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금속노련, 위니아전자노조, 위니아딥채노조, 위니아전자지회, 위니아딥채지회
- 진행순서
 - ☞ 발언
 - 참석 국회의원
 - 금속노련 김만제 위원장
 - 금속노조 위니아전자지회 박종하 지회장
 - ☞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련 위니아전자노조 강용석 위원장
 - ☞ 기자회견 마무리 및 정리 <끝>.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이용빈 국회의원-위니아노조 기자회견 및 간담회 계획(안)

□ 배경 및 목적

- (배경)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액이 7백억원을 넘어가고 있지만 박영우 회장은 여전히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
- (목적)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상호 모색하고자 함

□ 개 요

- 일시 : 2023.12.19.(화) 15:00
- 장소 :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중회의실
- 참석자
 -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광주 광산구 갑)
 -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니아전자노조 강용석 위원장, 이병섭 부위원장, 윤성복 부위원장
 -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노동조합 김영도 위원장
 -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니아딴채노조 남승대 위원장, 김형우 사무국장, 김인태 대의원
 - 한국노총 금속노련 나병호 정책국장
 -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전자지회 박종하 지회장
 -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딴채지회 김학구 지회장

□ 진행순서(진행:나병호 정책국장)

시간		내용	비고
15:00~15:10	10'	<u>공동성명서 발표</u> =금일 간담회 취지 설명 =임금체불 문제해결 촉구성명발표	참석자 전원
15:10~16:00	50'	<u>간담회</u>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임금체불 실태 현황 보고 =해결방안 논의 및 마무리 말씀	이용빈 의원 윤성복 부위원장 참석자

6) 성명서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촉구한다.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이 10월 17일 국회 환노위 국감을 앞두고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니아전자노동조합, 위니아딤채노동조합은 박영우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유그룹은 2014년 위니아만도, 2018년 동부대우전자를 각각 인수하며 가전제품 사업에 진출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을 시작하며 현재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확인된 것만 553억 원 이상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다. 생산 공장까지 합하면 체불임금은 8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박영우 회장은 비등기이사로 법적인 책임은 없이 그룹의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위니아, 대유에이텍, 대유플러스, 대유에이피 4개사에서만 2021년 65억, 2022년 77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현재 위니아와 위니아전자 등 계열사 3곳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제공자인 박영우 회장의 대책과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금속노련과 위니아전자노동조합, 위니아딤채노동조합은 더 불어민주당, 정의당의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박영우 회장의 환노위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것이다.

하지만 국감을 코앞에 두고 박영우 회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영우 회장은 지금도 멀쩡히 출근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검도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있다. 이러한 박영우 회장의 국감 증인 불출석은 임금체불로 자녀들의 학원부터 끊으며 추석에도 귀향하지 못 하고 이제는 쌀을 살 돈도 없어 끼니를 걱정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기만이자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박영우 회장은 2012년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으로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전례가 있다. 이후 박영우 회장은 2017년 10월 자본시장법(대유신소재 주식 손실회피)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았다. 최근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한다.

박영우 회장은 지금 당장 증인 불출석 의사를 철회하고 환노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 본인을 둘러싼

잘못을 속죄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임금체불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금속노련과 위니아전자노동조합, 위니아딤채노동조합은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의혹에 대한 박영우 회장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3. 10. 16.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대우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은 체불임금 지급확약 반드시 이행하라.

10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박영우 회장이 26일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우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제공자인 박영우 회장의 대책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노조의 끊임없는 요구에 결국 출석한 것이다. 하지만 임금 체불 규모를 묻는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의 질문에 박영우 회장은 "300억 원대"라고 답변했다.

아니다. 틀렸다.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확인된 체불임금만 600억이 넘는다. 그룹의 최고책임자인 회장이 정확한 임금체불액도 모르고 있는 상황을 보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길게는 1년 가까이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이어가는 조합원들에 대한 조롱이자 모욕이다.

박영우 회장은 몽베르CC, 경기도 성남의 R&D 사옥, 멕시코 생산공장 매각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몽베르CC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매각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다. 매각대금을 체불임금변제에 최우선으로 쓸 것이냐는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그럴 것이라고 확약했다. 또한 박 정 환노위 위원장에게 체불임금 해결과정을 보고하라는 것에도 동의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관리, 감독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마치 대우위니아그룹의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우위니아그룹은 박영우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언 중이던 때 위니아에이드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국회에 출석한 날 다섯 번째 계열사를 부도낸 것이다. 이미 체불임금 지급합의에 대한 반복적인 미이행, 고의 부도 의혹, 내부 부당거래 의혹 등으로 대우위니아그룹은 신뢰를 잃었다. 그렇기에 체불임금 확약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감장에서 박영우 회장이 증인으로 밝혀진 체불임금 약속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감에서 위증 시에받는 처벌은 형법상 위증죄보다도 형량이 무겁다. 국감 선서 증인이 허위 진술하는 경우 「국회에 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형벌을 떠나 임금체불로살아도 사는 게 아닌 조합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이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앞으로도 금속노련은 대유위니아그룹의 모든 체불임금 지급이 완료되는 순간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다.

2023. 10. 27.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박영우 회장은 체불임금 즉각 지급하라.
검찰은 박영우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대유위니아그룹 가전3사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액이 작년 10월 7백억 원을 넘겼다. 그 금액은 더 커져서 이제는 8백억 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박영우 회장은 여전히 체불임금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길게는 1년 반 동안 수입 없이 생활하고 있다. 임금체불로 4대보험마저 체납되어 병원에도 못 가고 금융권 대출도 불가능한 극한의 시간에서 가정은 파탄 나고 있다.

광주지역 450여개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1천억 원이 넘는 납품 대금의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박영우 회장의 임금체불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기에 그 고통은 더욱 크다.

지난 12월 6일 대유위니아그룹이 국회에 제출한 체불임금 변제계획서에 따르면 몽베르CC 매각을 통해 현금 1천 2백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체불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자산 추가 매각과 M&A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박영우 회장의 국감 증언은 거짓이었기에 국회는 1월 4일 검찰에 박영우 회장을 위증으로 고발했다.

박영우 회장 본인은 몽베르CC 매각을 통해서 300여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박영우 회장은 1월 17일 노조와의 면담 자리에서 구속 상태인 위니아전자 박현철 대표가 석방되도록 노조가 협조해 줄 경우 50억 정도의 체불임금 변제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검찰의 조사

를 받으면서도 다시 한 번 체불임금을 변제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박영우 회장은 지금이라도 석고대죄의 자세로 몽베르CC 매각 대금에서 체불임금을 설날 이전에 즉각 변제해야 한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위증을 하고 현재도 체불임금 변제 의지가 없는 박영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룹의 실소유주이자 의사결정권자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지만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법의 처벌을 피하고 있는 박영우 회장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설날을 앞두고 더욱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대우위니아그룹 노동자들의 모든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까지 금속노련은 17만 조합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다.

2024. 2. 6.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박영우 회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라!

대우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이 2월 19일 밤 구속됐다. 그룹의 실소유자이자 의사결정권자로서 활동했던 박영우 회장은 그 동안 미등기임원이라는 핑계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작년 9월까지 6백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그룹사 임금체불 총액은 800억원 대로 추산된다.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박영우 회장의 구속은 당연한 수순이다. 박영우 회장은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국감장에서의 약속을 뒤집고 골프장 매각 대금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먼저 챙겼다.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듯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박영우 회장의 법적 책임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박영우 회장이다. 박영우 회장의 계열사 밀어주기, 회사쪼개기, 무리한 해외공장으로의 제품 및 설비 이전, 대우브랜드 포기 등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위니아, 위니아전자, 위니아매뉴팩처링은 연쇄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고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졌다.

위니아그룹사 노동자들은 길게는 1년 반 동안 수입 없이 생활하고 있다. 임금체불로 4대보험마저 체납되어 병원에도 못 가고 금융권 대출도 불가능한 극한의 시간에서 가정은 파탄 나고 있다. 광주지역

450여개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1천억 원이 넘는 납품 대금의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박영우 회장은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몽베르CC 매각 이익을 포함한 사재 출연을 통해 체불임금을 즉각 변제해야 한다. 이것만이 박영우 회장의 무능과 비도덕적인 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이자 원상회복이다. 임금체불 문제가 선결돼야 위니아 매각도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야 위니아를 비롯 위니아전자, 위니아매뉴팩처링 노동자들의 고용도 보장할 수 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금속노련은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들의 고용을 비롯한 노동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17만 조합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 2. 2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공동성명서〉

박영우 회장은 체불임금, 납품대금 즉각 해결하라!
검찰은 박영우 회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대유위니아그룹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액이 7백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박영우 회장은 여전히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450여개 협력업체 납품대금 미지급 규모도 천억이 넘습니다. 열심히 함께 일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영우 회장은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대유위니아그룹 가전계열사들은 길게는 1년 반 동안 월급도 없이 버텼습니다. 차마 죽지 못해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혹합니다.

지난 12월 6일, 대유위니아그룹이 제출한 체불임금 변제 계획서에 따르면, 몽베르CC 매각 이익금 1,200억을 확보했으나, 법적리스크 문제로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 하며 자산 추가 매각과 M&A 통한 변제 계획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회장에 묻습니다.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출석해 감히 거짓으로 답변한 것입니까? 만약 의도된 허위 답변을 한 것이라면, 위증의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러한 참혹한 상황을 외면하고 방치하는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1월 10일 광주광역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습니다. 반드시 지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가 12월 5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대로 광주 광산구 소속의 직원이 성남시 등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더라도 지역 제한 없이 생활 안정 자금융자 지원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12월 7일, 박영우 회장 사무실, 성남 R&D센터, 자택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박영우 회장은 대유위니아 계열사를 지배하는 실소유주입니다.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에 궁극적 책임이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박영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은 10월 26일 국회에서 국민과 약속한 대로 가전 3개사 체불 임금 708억을 몽베르CC 매각 대금에서 12월말 한도로 변제하고, 체불임금 해결과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선릉 사옥, 사택, 별장도 신속히 매각해야 합니다.

박영우 회장은 임금체불-고용위기-납품위기로 도탄에 빠진 노동자들과 협력사의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고, 결자해지-원상회복-공개사과에 부합하는 진지한 태도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시, 혹독한 대가를 더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도 바랍니다. 우선순위 없는 정책은 제도를 차갑게 만들어 국민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기준을 현장의 눈높이와 속도에 맞게 반영하여 광주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박영우 회장은 자산매각-사재출연을 통해 체불임금과 납품대금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 신속지정을 통해 위기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따뜻해야 할 연말이 매섭고 차갑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곳 대유위니아 현장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국회의원 이용빈(광주 광산갑)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니아담채노동조합 위원장 남승대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니아전자노동조합 위원장 강용석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노동조합 위원장 김영도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전자지회 지회장 박종하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담채지회 지회장 김학구

나. 포운 노사분쟁 사건

1) 질의배경

-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운의 노사관계가 극한으로 치닫게 된 배경에는 2020년 7월 18일에 노사간 작성한 합의서가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의 영향이 컸음. 그로 인해 노사분쟁이 400일 이상으로 장기화 되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포운 위임 교섭에 참여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폭력집안을 당하고 구속됨. 이에 여수지청이 해당 합의서를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2) 여수지청 주장

- '20.7.18. 작성된 협약서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7.18. 서면으로 작성한 사회적 합의서이고, 협약서 체결일(7.18)에는 포운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포운이 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경사노위 중재 과정을 통해 작성된 합의서를 당사자간의 단체교섭 결과물로 보기는 어려워 임금협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3) 노조 의견

- (1) 여수지청은 2021년 9월 1일 노조가 제기한 임금체불과 관련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경사노위 중재에 따라 체결된 합의서대로 임금을 삭감 또는 추가 지급한 것으로, 범죄구성요건이 인정되기 위한 피진정인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없다면서 내사종결 처리한 바 있음.(증1) 즉, 개별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해당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였음에도 진정을 내사종결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근거로 위 합의서를 들고 있음(증2).
- (2) 또한 (주)포운 박원수 대표는 직접 서울로 상경하여 경사노위 위원장 사무실에서 박옥경위원장과 2020년 7월 18일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 조합원 고용승계를 위한 사전협약서'(증3)를 체결하였음. 해당 사전협약서에는 "(주)포운은 아래 단체협약 안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 조합원 입사와 동시에 적용하고 입사 2일 이내에 (주)포운과 조합간 아래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부칙 제 1조(유효기간)에서는 "조합원 입사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즉, 위 사전협약서에 따르면 박원수 대표는 기존 조합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입사 2일 후 사전협약서와 동일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협약의 유효기간을 '입사일로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전협약서'는 단체협약임.
- (3) 노조는 2020년 9월 29일 (주)포운에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사측은 "당사는 2020년 8월 1일 귀 노조와 단체협약(유효기간 : 2022년 1월 31일)을 체결하였고, 당사 및 당사를 비롯한 5개사는 2020년 7월 18일 임금 등 주요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 현재 적용하고"있음을 근거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음(증4). 사측이

오히려 협약서의 내용을 단체협약이라고 주장한 것임.

- (4) i)노사 모두가 위 사회적 합의의 성격을 단체협약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사회적 합의는 단체협약으로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의 기준이 되어 왔음. 또한 여수지청은 위 ii)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노조의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내사종결을 한 바 있음. 게다가 iii)(주)포운 박원수 대표는 '사전협약서'에 따라 관련 조합원들의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을 합의하였음. 그럼에도 여수지청은 모호한 단순 논리로 위 사회적 합의를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 (5) 여수지청이 단체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주)포운에 권고하고 단협 위반 여부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였다면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였을 것임(고용노동부가 단협이라고 인정하면 인정하겠다는 박원수 대표이사 발언-녹취록 확인 중). 이는 여수지청의 직무유기에 다름이 아님.

5. 한국노총 제조연대 활동

가. 제조연대 사업

1) 제조연대 의장 선출

의 결 사 항

제조연대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 한국노총 제조연대 의장을 선출하고자 함.

[제조연대 운영규정 참조]

제5조 【대표자회의 의장】

- ① 대표자회의는 원칙적으로 공동대표 체제를 취한다.
- ② 의장은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의장 궐위 시 연장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 ④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보선된 의장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경과보고

- 2022년 1월 27일 제조연대 제9차 대표자회의 개최
 - 제조연대 의장을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으로 선출함.

- 의장의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제조연대 운영규정 제9조, 제13조에 의거하여 집행위원장에 최성호 고무산업노련 사무처장, 회계감사위원에 박종윤 섬유·유통노련 사무처장, 김도영 화학노련 사무처장으로 호선하고, 제조연대 운영 규정 제12조에 의거 대변인은 정태교 금속노련 국장으로 위촉함.
- 현재 제조연대 대변인은 금속노련 나병호 국장으로 위촉됨.

■ 제조연대 전임 집행부

	의장	집행위원장	회계감사위원		대변인
성명	김만재	최성호	박종윤	김도영	나병호
산별	금속노련	고무산업노련	섬유·유통노련	화학노련	금속노련

※ 나머지 산별대표자는 공동대표

■ 제조연대 현재 구성

	위원장	사무처장	담당자
고무산업노련	천관욱	최성호	
금속노련	김만재	김준영	나병호
섬유·유통노련	오영봉	김승자	정대중
식품산업노련	박갑용	송기정	박준우
화학노련	황인석	최용선	이승용

■ 의장 선출

산별	고무산업노련	금속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산업노련	화학노련
대표자	천관욱	김만재	오영봉	박갑용	황인석

2) 제조연대 사업계획

(1) 총괄

사업명	세부계획	사업시기	주관산별
1. 교육사업	▶ 제조연대 상반기 교육 [교섭위원교육, 노동법률교육, 선전선동교육] ▶ 제조연대 하반기 교육(1회) [신임대표자 및 상근간부 교육 + α] ※ 교육은 제조연대가 집행을 책임짐	3월~4월 10월~11월	금속
2. 선전·홍보사업	▶ 2024년도 임단투지침 표지 ▶ 2024년도 임단투 포스터 ▶ 성명서(금속→화학→식품→섬유·유통) ▶ 제조연대 노동조합 실무지침	2월~3월 2월~3월 수시 10월~2월	화학 공동 공동
3. 정책·연구사업	▶ 제조연대 공동임단투 지침 제작 및 발간 ▶ 외투기업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일명 먹튀방지법) ▶ 노동조합 전임자 노사자율 쟁취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춘 정년연장 ▶ 기업변동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률제정(계속) ▶ 제조연대 단체협약 해설집 개정판 제작(파일)	1월~3월 1월~5월 1월~5월 1월~5월 상반기 10월~12월	섬유·유통 화학, 식품 공동 공동 금속 공동
4. 제조연대 기관 및 워크숍	▶ 제조연대 기관 정례화 - 대표자회의 : 분기별 / 집행위원회 : 매월 ▶ 워크숍 - 연맹 사무처 임간부 전체 워크숍 - 대표자 및 집행위원회 + α	연중 연중 7월~8월 10월~11월	식품
5. 기타사업	▶ 통일사업(한국노총 통일사업) ▶ 각 산별 경사노위 업종별위원회 설치 및 활동 ▶ 22대 국회의원선거 공동 총선요구안 및 입법활동 ▶ 각종 위원회 활동(제조연대에서 추천) ▶ 시기적으로 요구되는 사업	수시 수시 2월~6월 수시 수시	집행 위원회

나. 제조연대 제22대 총선요구안

1) 기업변동 시 노동관계 승계 등 노동자 보호

(1) 현황 및 문제점

○ 기업변동 시 근로조건 및 단체협약 무력화

-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관계 법률은 합병, 분할, 영업양도, 외주화, 위탁업체 변경 등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판례법리에 의존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경우 기업변동에 관한 지침을 두고 있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에서는 기업변동에 따른 고용승계를 명문화하고 있음. 일본 또한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승계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관련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함.
- 현장에서는 하청업체 변경으로 해고를 우회하기도 하며, 특히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일부 기업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이전 등 각종 편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2) 정책요구

○ 기업변동 시 고용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등 법제화

(3) 실현방안

○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기업변동 전 미리 사업주가 근로자대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노동자의 승계 거부권, 이의신청권 등을 규정함.
- 기업변동이 있는 경우 기존 취업규칙·단체협약 상의 노동조건이 노동자 개별동의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변동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함.
- 기업변동이 있는 경우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승계되도록 규정함.

(4) 기대효과

- 합병, 분할, 영업양도, 외주화, 위탁업체 변경 등으로 고용불안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을 두텁게 보호함.
- 기업변동이 있는 경우 종전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을 원칙적으로 승계하여 노동3권을 보장함.

2) 정년 65세 연장 법제화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 진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의무화 됨.
-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7.2%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음. 2018년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고령자 비중이 전체인구의 20.8%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법정 정년의 불일치

-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연금개시 연령이 61세를 시작으로 매년 5년마다 1세씩 올라 2033년에는 연금개시 연령이 65세가 됨. 특히,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8세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연령과의 차이로 3~5년간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음.
- 외국사례를 보면,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보아 금지하거나 공적연금의 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제의 허용 내지 정년연장 또는 폐지를 제도화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 특히, 미국은 1986년 '연령차별금지법'을 개정해 연령에 기반한 강제퇴직제도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됨. 일본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정년 70세로 연장한 '신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되었음.

(2) 정책 요구

○ 국민연금 수급연령 65세에 맞춘 정년 65세 연장 법제화

(3) 실현방안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개정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제1항과 부칙의 정년 60세 이상을 정년 65세 이상으로 하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이행방법 및 이행 기간

- 22대 국회 구성 후 연내 입법화(개정)

(4) 기대효과

- 국민연금 개시연령과 법정 퇴직연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노후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에 기여
- 숙련 노동자들의 잔류기간의 확보에 따른 사용자의 인력 부족 현상 완화 및 대비책 준비 기간 확보
- 출생률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고용인력 확보 및 국가경쟁력 및 경제성장에 기여

3) 외국인 투자기업 먹튀 방지법

(1) 현황 및 문제점

○ 외투기업의 지배구조 특수성

- 외국인투자기업은 해외에 본사가 있고, 그 본사에서 지휘 통제를 받고 있어서 각국의 법인에 지사장인 대표이사는 주어진 권한이 제한적이고, 본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예측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이 노사관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본사에서 단기성으로 해외지사를 평가하고 있고, 한국의 지사장인 대표이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년마다 교체되기 때문에 노조와 협력적 관계를 통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에 협력적 노사관계보다는 로펌을 통한 노조파괴에 대한 방향으로 선회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고, 국내법도 이를 저지할 방법이 부족이 없기에 난감한 상황임.

○ 외투자본의 특혜철폐와 국내노동자 역차별시정

- 정부가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여러 면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있지만, 외투자본은 이것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 착각하고 있음.
- 페르노리카코리아 사례는 외투자본이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국내법을 부정하고,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국내노동자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음.
- 페르노리카코리아 외국인 대표이사는 허수아비 교섭위원을 협상에 참여시켜서 성실교섭을 진행한 것처럼 둔갑하여 교섭해태와 조합원 탈퇴, 회유, 협박, 부당발령, 심지어 단협위반 등으로 노조를 와해하고자 시도하였고,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용되어서 검찰에 기소가 되었으나,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여 죄가 없다고 변명하고 다음날 본국인 프랑스로 도주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됨.
- 한마디로 정부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 조세감면(제9조),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외국인투자법 제13조, 제13조의2), 국유공유재산의 매각(13조의3), 현금지원(제14조의2) 등 외투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이처럼 누리는 혜택에 비하여 책임은 지지 않고, 기여도 하지 않고 있음.
- 이것은 국내법이 애초부터 문제가 있어서 파생된 결과로 ‘외국인투자자유화라’는 명목으로 외자를 유치하는데 급급하여 정작 챙겨야 할 내용을 살피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자가당착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즉 외투자본은 노동유연화가 수반된 내용을 최대한 악용하여 한국 노동자의 고용을 고의로 불안정하게 하고, 법적 책임에서 국내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에서 외투기

업은 ‘먹튀’를 일고의 가책도 없이 자행하여 역설적으로 국내노동자를 차별하는데 국내법이 기여한 꼴이 됨.

(2) 정책요구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먹튀방지 요구
- 외국인 대표가 노동법 위반하면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내국인처럼 동등하게 적용

(3) 실현방안

○ 관련 법·제도 보완 및 개선

- 외국인투자법의 외국인투자위원회(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는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범위를 허용하여 개정해야 함.
- 우리 법도 다른 나라처럼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므로 외투기업이 공공질서유지, 공중도덕 보호, 생명·건강 보호, 안보 등을 위반하면 예외적으로 투자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준하는 내용으로 적용을 확대해야 함.
- 외투기업이 폐업할 때 국내법에 따라 고용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동등하게 적용하여 국제규범으로 외투먹튀자본에 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함.
- 외국기업인이 3년 이하의 피의사실로 기소가 될 경우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제2조(출국정지대상자)에 따라 국내의 노동조합법을 위반해도 출국을 금지하지 못하는 것을 개정해야 함.

○ 이행방법 및 이행 기간

-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4) 기대효과

- 본 먹튀 방지법이 신설, 개정되면 외투기업의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이며, 이로 인하여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악영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이 조세감면, 입지·현금 지원 등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4) 근로시간면제한도 폐지(개정) 및 노사자율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 위축

- 2020.12.9. 국회 본회의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관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법률안 등 노동관계법 10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통과됨. (2021.4.20. 비준)
- 노조법 제24조 개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되고, 근로시간면제자로 명칭이 통일됨.
- 더불어, 제24조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노조법 24조4항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추가되었음.
- 이는 노동조합 활동에 기본이 되는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을 법으로 제한, 축소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전한 노사관계를 제약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임.

(2) 정책요구

○ 근로시간면제한도 폐지 및 노사자율 보장

-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해 무효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해 노사자율합의에 맡기는 법개정이 필요함.
- 또한, 현행 제도 유지 시에도 근로시간면제한도 상한을 규정하는 제도가 아닌 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거나 최소 한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함.

(3) 실현방안

○ 관련 법제도 개선

-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한도(상한선 규정) 규정을 폐지하고, 노사자율을 보장하는 제도로 법을 개정함.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기준 이상으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사자율 교섭을 확대함.
- 근로시간 면제기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함.

○ 이행방법 및 이행 기간

-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국제기준에 맞춘 노조법 개정을 통해 즉각적인 근로시간면제한도폐지, 제도 개선이 필요함.

(4) 기대효과

- 사업 및 사업장별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상한시간제)를 노사자율 보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업 및 사업장 상황에 맞는 노동조합 간부를 선임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 노동조합 탄압 악용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를 폐지 및 개정함으로써 노동쟁의 발생 원인을 차단함.

5)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강화 및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 전기차·수소차 보급확대 정책에 따른 내연기관차 부품 생산기업 타격

- 우리 자동차산업은 수출 700억 불, 고용 35만 명(연관사업 포함 150만 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으로 완성차 기업과 1만 여 개에 이르는 부품기업들이 하나의 산업생태계를 형성하는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 산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옴.
- 현재 자동차산업은 '디지털화·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특히 전기·수소차 확대에 따라 엔진·배기·연료계 부품기업 4천여 개, 고용은 11만 명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함.
- 그러나 대부분의 부품기업들이 자금·정보 부족 등으로 미래차 대비 계획이 없으며, 매출규모가 작을 수록, 도급단계가 낮을수록 대비가 취약한 상황임.
- 더구나 기업의 생존과 수익 여부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있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됨.

(2) 정책요구

○ 미래차 전환과정에서 자동차 부품기업 제도적·정책적 지원

- 미래차 설비투자·M&A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저리로 융자하는 프로그램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함.
- 직무변화에 노동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장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충분한 예산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때까지 하이브리드차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감면,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함.

○ 미래차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전직지원 및 고용안정 보장

- 현재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직·이직·재취업 지원, 기업 매각과 합병 등의 과정에서 안정적인 고용상태 보장 등을 핵심적으로 지원해야 함.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의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월 1회 이상 정기·대면회의를 개최해야 함. 또한 보다 구체적이고 시의성 있는 논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3) 실현방안

- 자동차 부품기업 전환 지원 제도 확대
- 자동차 부품기업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4) 기대효과

-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
- 자동차 부품 사업장 노동자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통한 고용보장

6)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한계기업 및 법인 파산 급증

- 국내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의 어려움 속에서 최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 증가 등 부실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고금리와 경영여건 악화까지 맞물려 한계기업 비중은 18.6%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또한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과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수가 각각 1,509곳, 1,431곳을 기록하여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파산신청이 회생신청보다 높아, 지난해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법원의 경영상 해고 요건의 완화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판례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다60193 판결)하여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임. 즉, 지나치게 넓은 경영상 해고 개념으로 인하여 경영권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대량해고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도 판례는 효력요건으로 보지 않아 50일 전의 통보의무를 사용자가 위

반한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유효로 보고 있음.(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두4119 판결)

(2) 정책 요구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3) 실현방안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개정

- 제24조 제1항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엄격히 제한 →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를 명확하기 위해 “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현존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도록 함.
- 제1항 후문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삭제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어느 쪽이 정리해고의 주체가 되는지 학설이 갈리고 있음. 다수설은 양도인 또는 피인수·합병인에게 정리해고의 주체가 된다고 함. 즉, 경영악화의 우려에 직면한 기업이기 때문임. 법률의 다양한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1항 후문을 삭제함.
- 다. 제3항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를 구체화 →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효력요건으로 보지 않는 판례에 대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해 “5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노동조합(근로자대표)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서면 통보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협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로 개정함.
-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 벌칙조항 삽입 → 신고는 정리해고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또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도 없음. 따라서 부칙 제11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제24조 제4항 삽입.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초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벌칙조항을 두도록 함.

○ 이행방안 및 이행기간

- 22대 국회 구성 후 연내 입법화(개정)

(4) 기대효과

- 법원의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 등 경영상의 필요성을 넓게 해석하는 것을 법 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게 하여, 무분별한 사용자의 해고를 제한하여 노사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노사간 상생을 바탕으로 고용위기 및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
- 고용안정을 통한 세수확보는 물론 국가의 사회적 비용 절감 등 국가경쟁력 제고

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1) 현황 및 문제점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현황

- 복수노조 하에서 어느 일방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함.
- 조합원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로 되고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음.

○ 창구 단일화 절차의 문제점

-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응해야 하지만 회피할 목적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고의로 교섭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
- 그래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통해 시정조치를 구해서 정상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뒤늦게 밟게 됨.
- 문제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더라도 시정명령 결과가 나오기까지 1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바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임.
- 이로 인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수개월이 지나서 첫 교섭을 진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 일부 사측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런 문제점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음.

(2) 정책요구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위반시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적용

- 사용자가 회피의 목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3”에 따라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 보고 법으로 엄격히 적용해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권이 보호돼야 함.

(3) 실현방안

○ 관련 법·제도 개선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교섭을 해태하는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3”의 처벌규정 당연 적용
- 노동위원회는 창구 단일화 절차를 법의 취지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측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적용해야 함.

○ 이행방법 및 이행 기간

- 법 개정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측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적용하므로 교섭을 해 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음.

(4) 기대효과

-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게 되는 조항이 신설되면, 사측이 고의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지연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제대로 보장되게 됨.
- 현행처럼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지연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 간에는 합리적인 단체교섭이 진 행돼서 이로 인하여 야기되었던 소모적인 갈등도 지양될 것임.

8)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에서 석유정제사업 제외

(1) 현황 및 문제점

○ 석유정제사업 노동자에 대한 단체행동권 권리 침해

- 노조법 제71조 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이라 하고 있음.
- 현재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는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철도사업, 수도사업, 병원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이 있으며, 노동쟁의 조정은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함.
- 필수공익사업은 2006.12.30일 법개정 이전까지는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직권중재제도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위헌논란과 ILO 시정권고 등으로 개정되어 직권중재는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로 대체되었으나, 여전히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약이 심각한 상황임.

(2) 정책요구

○ 석유정제사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제외

- 석유정제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이 4개사로 운영되어 업무의 대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지도 않으며, 생명안전과 같이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3) 실현방안

○ 관련 법제도 개선

- 정유사 노조의 파업으로 휘발유 등의 공급이 일부 제한된다 하더라도, 민간기업이 4개사로 독점체제

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대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지도 않으며, 생명안전과 같이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될 이유가 없음.

- 또한, 정유 4개사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다 해도 노조법상 긴급조정(법 제76조, 제77조)을 통해 사후적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에서 석유정제사업을 제외하는 것이 마땅함.

(4) 기대효과

- 석유정제사업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에 대한 권리 침해 예방

9)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삽입범위 정상화

(1) 현황 및 문제점

○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고정성 부정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

-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 사건, 대법 2012다89399)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확인한 바 있음.
- 더불어, 재직자 조건 혹은 중도퇴사자에 대한 일할규정 등을 인용하면서 정기상여금에 대한 고정성이 부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판시하였으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었음.
- 그러나 최근 하급심을 비롯하여 2022년 11월에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금융감독원 전 현직 근로자 170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금융감독원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 바 있음.
- 2심이었던 서울고법에서는 ‘정기상여금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있고 정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재직자 요건을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음.
- 그러나 사측은 여전히 2013년 갑을오토텍 판례를 근거로 재직자규정을 근거로 정기상여금에 대한 고정성을 부정함으로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2) 정책 요구

○ 판례에 따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확대

- 최근 하급심 및 현대제철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재직자 규정이 존재하고, 중도퇴사자에 대한 일할 지급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정기상여금에 대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인정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이에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노사간의 소송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3) 실현방안

○ 관련 법제도 개선

-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대해 ‘제6조 (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을뿐 고정성에 대한 법조문은 존재하지 않음.
-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시행령 등에 통상임금 판단 시 고정성을 제외하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

(4) 기대효과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노사 간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 간의 소송비용 증가,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추구함.

02 조사 통계 활동

1. 2023년 임금교섭 결과
 - 가. 2023년 금속노련 임금인상요구
 - 나. 2023년 임금교섭 결과
2. 2024년 임단투 준비활동(실태조사)
 - 가. 개요
 - 나. 조사결과
3. 2024년 임단투 지침 및 포스터 발간
 - 가. 2024년 임단투 지침
 - 나. 2024년 임단투 포스터

평가 및 개선방향

조사통계활동은 금속노련 산하 노동조합 현장 조합원 및 노동자들의 상황, 노동운동을 둘러싼 객관적 현황파악을 통해 연맹 활동의 논리를 제공하며 금속노련 활동의 기초가 된다.

2023년 연맹의 조사통계활동은 2023년 임단투 결과 및 임금을 비롯한 현장의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를 기본으로 2024년 임단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임단투지침서 발간사업 등 가맹노조의 임단투 지원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반기별 임단투 결과조사를 진행했는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그치고 하반기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임단투 결과조사의 정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팬데믹 국면을 거치며 임단투 지침 순회교육 자체가 임단투 지침 설명회의 형태로 상반기 지역순회의 한 부분으로 굳어지게 되었고, 그 외 제조연대 집체교육 등을 통해 지침해설이 이루어졌다.

연맹의 조사통계활동이 그 대표성과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단위노조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히 응답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올해 현장과 지역의 열렬한 도움에 힘입어 응답률이 상승했으며, 수거 부수의 증가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2023년 임금교섭 결과

가. 2023년 금속노련 임금인상요구

2023 임금인상요구 요약		
금속노동자 평균가구원수 2.90인 생계비		5,525,379 원
2023년 물가상승률(3.5%)을 반영한 생계비		5,718,767 원
근로소득비중(85%)을 반영한 생계비 (목표생계비)		4,860,952 원
금속노련 조합원 월평균임금 (2023 입단투지침 실태조사)	고정급(기본급+수당+상여월할)	3,989,206 원
목표생계비와 금속조합원 고정급여 차액	임금차액(목표임금)	871,746 원
	충족 요구율	21.85 %
2023년 금속노련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인상 요구율	9.67 %
	기본급 인상 요구액	228,847 원
	생계비 충족율	90.0 %

나. 2023년 임금교섭 결과

1) 개요

○ 목적

- 2023년 금속노련 임금 및 단체교섭 지침 이행현황을 조사하고 교섭에 관해 어려웠던 점과 연맹에 바라는 점을 조사하여 향후 조직지원 및 지도에 활용

○ 조사기간 : 2023년 7월 26일(수) ~ 8월 11일(금)

○ 조사대상 및 방식 : 금속노련 산하 572개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전수조사

○ 수거율 : 분석대상 572개 중 81개 설문지 수거, 응답률 14.2%

2) 조사결과

- 2023년 상반기인 조사기간 현재, 교섭이 완료된 조직이 60.5%로 가장 많았고, 교섭 중은 33.3%, 교섭이 아직 준비 중인 조직은 6.2%로 나타남. 교섭이 완료된 경우 본교섭은 평균 6.0회, 실무교섭은 평균 5.2회 진행되었고, 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 본교섭은 평균 4.0회, 실무교섭은 5.0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 임금인상을 기본급 기준으로 하는 조직은 59.2%, 기본급과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조직은 27.2%로 나타남. 중복응답을 포함하여, 호봉승급분을 임금인상기준에 포함한 조직은 7개로 나타남.
- 임금인상은 여전히 시급과 월급을 기준으로 한 경우가 22.2%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일급은 9.9%로 나타남.

- 조사기간 현재까지, 2023년 임금인상요구율 평균은 7.9%, 타결률 평균은 4.7%로 나타남.
- 추가로 단체교섭 등을 통해 현재 임금체계,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를 논의하고 있는 조직은 각각 15, 5, 20개로 나타남.

2. 2024년 임단투 준비활동(실태조사)

가. 개요

- 목적
 - 2024년 임단투에 임하는 금속노련 단위노조의 상황 및 의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연맹의 정책근거로 삼기 위해 실시
 - 조사결과를 통해 각 단위노조의 임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와 추이를 살펴보고, 2024년 임금인상 요구율 및 임금지침을 결정하는 기초로 활용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26일(화) ~ 2024년 1월 24일(수)
- 조사대상 및 방식 : 금속노련 산하 565개(본조 및 일반노조 개별교섭단위 포함, 2023년 12월 기준)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전수조사
- 수거율 : 34.69%(분석대상 556개 중 154개 설문지 수거)

나. 조사결과

1) 설문응답노조 유형별 분류

(1) 지역

- 설문 응답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15.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각 지역 전체 노조 대비 제출노조 비율은 인천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충북과 충남세종이 각각 48.8%, 46.7%로 높게 나타남.

〈지역본부별 제출현황〉

지역	제출노조	응답률(%)	지역전체노조	제출/지역(%)
서울	5	2.6	28	17.9
경기	30	15.3	78	38.5
인천	13	6.6	26	50.0
안산시흥	16	8.2	40	40.0
대전	2	1.0	5	40.0

지역	제출노조	응답률(%)	지역전체노조	제출/지역(%)
충남	28	14.3	60	46.7
충북	21	10.7	43	48.8
부산	12	6.1	33	36.4
경남	18	9.2	52	34.6
울산경주	10	5.1	29	34.5
대구경북	17	8.7	63	27.0
구미	5	2.6	22	22.7
포항	8	4.1	40	20.0
광주전남	4	2.0	28	14.3
전북	5	2.6	13	38.5
강원	2	1.0	4	50.0
합계	196	100.0	564	34.8

- 지난 6개년 간 연도별 설문지 수거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수거량과 수거율 모두 크게 증가했으며, 지역본부의 적극적인 협조 덕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연도별 설문지 수거 추이〉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거량	125	98	122	180	154	196
수거율	26.21	19.76	24.02	34.22	27.69	34.69

(2) 조합규모

- 설문 응답을 조합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조합원 규모 50~299명 규모 노조가 6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실태조사는 조합원 50명 이상 300명 미만 규모 노조의 근로조건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하고 있음. 각 규모별 전체 노조 대비 제출노조 비율은 1,000명 이상 사업장이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조합규모별 제출현황〉

조합규모	제출노조	응답률(%)	전체노조	제출/전체(%)
1~49명	21	10.7	175	12.0
50~99명	42	21.4	126	33.3
100~299명	83	42.3	178	46.6
300~999명	36	18.4	62	58.1
1000명 이상	14	7.2	23	60.9
합계	196	100.0	565	34.69

(3) 업종

- 설문 응답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기 전자가 19.4%로 뒤를 이음. 각 업종별 전체 노조 대비 제출노조 비율은 자동차가 44.3%로 가장 높게 났음.

〈업종별 제출현황〉

조합규모	제출노조	응답률(%)	전체노조	제출/전체(%)
기계금속	24	12.2	76	31.6
전기전자	38	19.4	111	34.2
자동차	90	45.9	203	44.3
철강	17	8.7	67	25.4
조선	4	2.0	10	40.0
비철금속	16	8.2	44	36.4
기타	7	3.6	53	13.2
합계	196	100.0	564	34.69

2) 임금 등 노동조건 현황

(1) 노동시간 및 근속년수, 연령, 가족규모 현황

- 2023년 주당 평균 실노동시간은 47.9시간으로 지난해에 비해 0.3시간 감소함.
-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은 지난해와 같고, 여성은 1.2년 증가함. 평균연령은 남성은 0.9세 낮아진 43.1세, 여성은 0.5세 높아진 44.0세로 나타났고 전체연령 평균은 43.5세로 나타남.
- 조합원 평균 가족규모는 2.82인으로 지난해 2.90인에 비해 0.08인 감소함.

구분	주당평균 실노동시간	평균 근속년수		평균 연령		평균 가족규모
		남	여	남	여	
2023	47.9시간	15.0년	13.7년	43.1세	44.0세	2.82인
2022	48.2시간	15.0년	12.5년	44.0세	43.5세	2.90인
2021	47.7시간	14.4년	12.4년	42.6세	43.6세	2.91인
2020	47.1시간	14.4년	12.7년	43.2세	41.3세	2.90인
2019	50.4시간	15.2년	13.0년	42.6세	43.5세	2.89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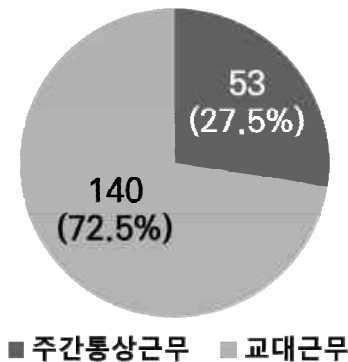
- 주당 평균 실노동시간은 최소 22.7시간부터 최대 68시간으로 나타남. 주 40시간 이하는 13.6%로 지난해 11.8%보다 증가함.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 사업장 비율이 79.9%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주 52시간 사업장은 29.0%로 지난해 32.6%보다 감소함.

- 여전히 52시간을 넘어서는 장시간노동사업장 비율이 6.5%로 일부 나타나고 있음. 지난 해 사라졌던 60시간 초과 초장시간 노동이 다시 등장해 1.8%로 나타나 초장시간노동 확대에 대한 경계가 요구됨.

구분	응답수	백분율(%)	연도	52시간 초과 사업장 비중(%)
40시간 이하	23	13.6	2019	23.3
40시간 초과~51시간 이하	86	50.9	2020	11.7
52시간	49	29.0	2021	4.3
52시간 초과~60시간 이하	8	4.7	2022	4.9
60시간 초과	3	1.8	2023	6.5
합계	158	93.5		

(2) 근무 형태

- 근무 형태는 주간통상근무만 한다고 응답한 곳이 27.5%(53곳)로 지난해 26.0%에 비해 약간 증가한 반면, 조합원이 일부라도 교대근무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노조가 72.5%(140곳)로 지난해 74.0%보다 다소 감소함.
- 복수 응답으로 제출한 조합원의 교대근무형태를 보면, 2조2교대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67개(34.7%)로 가장 높았으며, 3조2교대가 25개(13.0%), 3조3교대가 24개(12.4%), 주간연속2교대가 22개(11.4%), 4조2교대가 13개(6.7%)인 것으로 나타남. 기타응답으로는 5조4교대, 주간3주-야간1주, 시차출퇴근, 24시간 대기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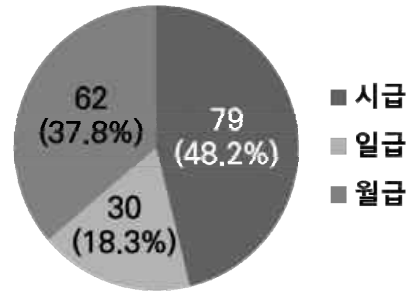


구분	응답수	백분율(%)
주간통상근무	104	53.9
2조2교대	67	34.7
3조2교대	25	13.0
3조3교대	24	12.4
4조2교대	13	6.7
4조3교대	20	10.9
주간연속2교대	22	11.4
기타	3	1.6

(3) 임금지급형태

- 임금형태는 시급제(48.2%)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일급제는 18.3%로 지난해 19.0%보다 감소했고, 월급제의 경우 지난해 35.8%에서 37.8%로 증가함.

구분	응답수	백분율(%)
시급	79	48.2
일급	30	18.3
월급	62	37.8



(4) 조합원 임금실태

- 설문에 응답한 196개의 노조 중 193개의 노조가 임금 현황에 응답함. 각각 평균을 낸 결과, 2023년 기본급은 2,468,317원, 고정급은 4,065,676원, 변동급은 832,573원, 임금총액은 4,898,249원으로 나타남.

(2023년 12월 기준, 단위: 원)

기본급(A)	고정수당 (B)	상여월할(C)	고정급 (A+B+C)	변동급(D)	임금총액 (A+B+C+D)
2,468,317	339,324	1,258,035	4,065,676	832,573	4,898,249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금속노련 조합원의 임금실태 추이를 살펴보면, 고정급과 임금총액은 매년 상승함. 기본급과 변동급은 2023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고정수당 및 기타수당과 상여월할은 2022년보다 감소함. 2022년 임금총액 상승률이 4.89%인데 반해 2023년에는 2.61%로 큰 폭으로 하락함.

(2023년 12월 기준, 단위: 원)

년도	기본급(A)	고정 및 기타 수당(B)	상여월할(C)	고정급 (A+B+C)	변동급(D)	임금총액 (A+B+C+D)	임금총액 상승률(%)
2023	2,468,317	339,324	1,258,035	4,065,676	832,573	4,898,249	2.61
2022	2,367,219	414,448	1,207,539	3,989,206	788,803	4,773,633	4.89
2021	2,177,616	454,195	1,231,120	3,862,931	687,676	4,550,910	1.76
2020	2,017,487	549,842	1,183,632	3,750,961	721,025	4,471,986	5.09
2019	2,209,281	327,875	1,085,195	3,622,351	632,998	4,255,349	1.17

(5) 지역별 임금실태

- 임금실태를 지역별로 나누어보았을 때, 상여월할과 변동급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이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고정급은 600만 원을, 임금총액은 700만 원을 초과함. 한편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이었으며,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강원 임금총액의 차이는 2,877,472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격차가 6.7% 작아짐.

(2023년 12월 기준, 단위: 원)

지역	응답수	기본급 (A)	고정 및 기타 수당(B)	상여월할 (C)	고정급 (A+B+C)	변동급 (D)	임금총액 (A+B+C+D)
전체	196	2,468,317	339,324	1,258,035	4,065,676	832,573	4,898,249
서울	5	3,915,893	1,280,163	1,165,534	6,361,590	817,091	7,178,681
경기	30	2,514,861	449,956	999,286	3,964,103	568,837	4,532,940
안산시흥	13	2,663,776	228,040	1,098,053	3,989,869	770,278	4,760,147
인천	16	2,401,632	311,828	1,386,035	4,099,495	787,938	4,887,433
대전	2	2,208,121	194,540	1,173,800	3,576,461	278,003	3,854,464
충남세종	28	2,320,023	274,851	1,313,467	3,908,341	1,110,491	5,018,832
충북	21	2,372,466	316,742	1,407,106	4,096,314	891,698	4,988,012
부산	12	2,658,489	330,902	1,464,319	4,453,710	733,636	5,187,346
경남	18	2,514,892	344,938	1,202,023	4,061,853	942,666	5,004,519
울산경주	10	2,379,062	195,235	1,435,219	4,009,516	979,220	4,988,736
대구경북	17	2,209,692	414,318	1,165,209	3,789,219	954,825	4,744,044
구미	5	2,872,642	362,559	788,370	4,023,571	1,063,206	5,086,777
포항	8	2,514,736	315,990	1,667,626	4,498,352	477,669	4,976,021
광주전남	4	2,260,454	277,245	1,563,622	4,101,321	395,201	4,496,522
전북	5	2,240,508	260,848	1,443,208	3,944,564	905,712	4,850,276
강원	2	2,568,951	133,500	781,667	3,484,118	410,000	3,894,118

(6) 규모별 임금실태

- 조합 규모별 임금실태를 살펴본 결과, 임금총액은 1000명 이상 사업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0~999명, 100~299명, 50~99명, 1~49명 순으로 나타나 규모와 임금총액 사이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음.
- 한편 모든 항목에서 1,000명 이상 사업장이 가장 높게 나타남. 고정급과 기본급은 1~49명 사업장을 제외하고 규모가 클수록 높아짐. 1~49명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은 50~99명 사업장과 100~299명 사업장보다, 고정급은 1~49명 사업장보다 높게 나타남.

(2023년 12월 기준, 단위: 원)

규모	응답수	기본급 (A)	고정수당(B)	상여월할 (C)	고정급 (A+B+C)	변동급 (D)	임금총액 (A+B+C+D)
전체	193	2,468,317	339,324	1,258,035	4,065,676	832,573	4,898,249
1~49명	20	2,474,888	313,554	1,167,726	3,956,168	561,850	4,518,018
50~99명	40	2,348,486	315,201	1,071,260	3,734,947	904,854	4,639,801
100~299명	83	2,437,774	300,874	1,268,143	4,006,791	844,557	4,851,348
300~999명	36	2,564,286	389,863	1,335,993	4,290,142	800,540	5,090,682
1000명 이상	14	2,759,101	544,507	1,646,680	4,950,288	959,036	5,909,324

(7) 업종별 임금실태

- 업종별로 임금실태를 살펴보면,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조선이고 가장 낮은 업종은 자동차이며, 그 차이는 1,747,506원으로 나타남. 조선 업종은 임금총액뿐만 아니라 기본급, 고정급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남. 기타 업종은 고정 및 기타수당이, 철강 업종은 상여월할이 가장 높게 나타남.

(2023 12월 기준, 단위: 원)

규모	응답수	기본급 (A)	고정 및 기타 수당(B)	상여월할 (C)	고정급 (A+B+C)	변동급 (D)	임금총액 (A+B+C+D)
전체	193	2,468,317	339,324	1,258,035	4,065,676	832,573	4,898,249
기계금속	24	2,671,825	393,811	1,029,318	4,094,954	750,511	4,845,465
전기전자	36	2,655,655	356,427	1,231,674	4,243,756	906,346	5,150,102
자동차	90	2,292,433	292,702	467,207	3,052,342	822,685	3,875,027
철강	16	2,628,481	187,839	1,756,758	4,573,078	857,801	5,430,879
조선	4	2,811,040	401,432	1,537,395	4,749,867	872,666	5,622,533
비철금속	16	2,398,407	339,828	1,246,053	3,984,288	974,054	4,958,342
기타	7	2,762,874	880,926	788,000	4,431,800	362,000	4,793,800

(8) 2023년 단위사업장 임금인상 요구율 및 타결율 (기본급기준)

- 2023년 임금인상요구율 평균은 7.73%로 지난해보다 0.18%p 상승했고, 타결률 평균은 4.32%로 지난해보다 1%p 하락함. 요구액은 평균 180,318원이었으며, 타결액은 146,919원으로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함.

연도	요구율 평균(%)	타결률 평균(%)	연도	요구액 평균(원)	타결액 평균(원)
2019	6.84	3.29	2019	-	-
2020	5.88	2.70	2020	114,533	60,144
2021	6.36	3.80	2021	130,396	75,221
2022	7.55	5.32	2022	164,060	100,973
2023	7.73	4.32	2023	180,318	146,919

3) 2024년 임단투 전망

(1) 단위노조의 중점사항

- 2024년 단위노조가 임단투에 중점을 둘 사항에 대해 순위와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증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과 “정년연장 대응” 순으로 나타남.

2024년 단위노조 임단투 중점사항	중점1	%	중점2	%	중점3	%	전체 응답수	%
총고용 유지 및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28	14.3	14	7.2	9	4.8	51	26.3
노동시간 축소	8	4.1	14	7.2	20	10.5	42	21.8
정년연장 대응	25	12.8	30	15.3	34	17.9	89	46.0
임금체계(직무성과급 도입 등) 변경 저지	6	3.1	18	9.2	10	5.3	34	17.6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2	1.0	4	2.0	5	2.6	11	5.6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7	3.6	60	30.6	56	29.5	123	63.7
복수노조 관련 교섭권 확보	2	1.0	3	1.5	5	2.6	10	5.1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증진	109	55.6	42	21.4	23	12.1	174	89.1
기후위기가자동화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5	2.5	1	0.5	12	6.3	18	9.3
임금피크제	4	2.0	10	5.1	16	8.4	30	15.5
합계	196	100.0	196	100.0	190	100.0	582	300.0

(2) 금속노련(한국노총) 중점사항

- 2024년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이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해야 할 사안에 대해 순위와 무관하게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임금정책(최저임금 등)”이 가장 높았으며, “노동시장(노동시간임금체계) 개악저지”, “정년연장 대응”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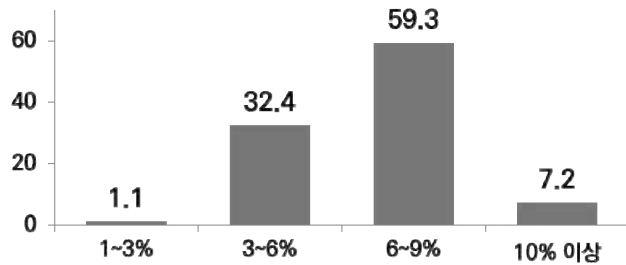
2024년 금속노련 (한국노총) 활동 중점사항	중점1	%	중점2	%	중점3	%	전체 응답수	%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32	16.4	11	5.6	16	8.4	59	30.4
노동시장(노동시간임금체계) 개악저지	48	24.6	46	23.6	25	13.2	119	61.4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임금정책(최저임금 등)	52	26.7	37	19.0	37	19.5	126	65.2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관련 대응	16	8.2	24	12.3	22	11.6	62	32.1
정년연장 대응	33	16.9	27	13.9	29	15.3	89	46.1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7	3.6	24	12.3	33	17.4	64	33.3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연금 개악저지)	5	2.6	18	9.2	12	6.3	35	18.1

2024년 금속노련 (한국노총) 활동 중점사항	중점1	%	중점2	%	중점3	%	전체 응답수	%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성평등 실현	0	0.0	1	0.5	3	1.6	4	2.1
기후위기가동화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1	0.5	4	2.1	4	2.1	9	4.7
취약계층 및 비정형 노동자 권익증진	1	0.5	3	1.5	9	4.6	13	6.6
합계	195	100.0	195	100.0	190	100.0	580	300.0

(3) 2024년 금속노련(한국노총)이 제시할 임금인상률 지침 수준

- 2023년 단위노조에서 요구하는 금속노련(한국노총)이 제시할 임금인상률 지침의 수준은 “6% 이상 9% 미만” 수준의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55.1%보다 높게 나타남.

구분	응답수	백분율(%)
1 ~ 3%	2	1.1
3 ~ 6%	59	32.4
6 ~ 9%	108	59.3
10% 이상	13	7.2
합계	182	100



3. 2024년 임단투 지침 및 포스터 발간

가. 2024 임단투 지침

〈 목 차 〉

제1편 2024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제1장. 2024년 임단협을 둘러싼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 I. 2023년 정세회고 및 노동운동 평가
 1. 기본 정세 회고
 2. 2023년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현황-지표
- II. 2024년 정세전망
 1. 정치-남북관계
 2. 국내외 경제
 3. 노동-사회
 4. 금속산업(제조업)
- IV.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과 주요과제
 1. 활동 기조 및 운동 방향
 2. 주요과제

제2장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요구율

- I. 2023년 임단투 평가와 2024년 임단투 전망
 1. 2023년 임단투 평가 및 2024년 조사개요
 2. 고용 및 노동시간 변화
 3. 2024년 임·단투 계획 및 전망
 4. 2024년 임금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 II. 2024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1.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2. 2024년 임금인상요구
 3.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요구
 4. 2025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 III. 2024년 금속노련 임금지침
 1. 2024년 임단투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분석
 2. 2024년 금속노련 임금인상 요구

제2편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과 대응지침

제1장. 장시간 노동 근절 및 노동시간 유연화 대응지침

1. 노동시간 관련 주요 현황
2. 연장노동시간 산정기준 관련 대법원 판결 및 행정해석 변경
3.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한국노총 대응방침 및 정책과제
4. 장시간 노동 근절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임단협 지침

제2장.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전략

1. 한국노총의 사회연대전략
2. 노조의 사회연대활동 강화를 위한 연대교섭지침
3.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활용을 통한 연대교섭지침
4.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연대교섭지침
5. 고용형태별 연대교섭 지침

제3장 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연장 대응

1. 통계로 본 인구변화와 고령자의 삶
2. 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 실태
3. 정부의 고령자고용정책의 방향과 문제점
4.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재고용제도의 문제점
5. 한국노총의 입장 및 대응
6. 한국노총 대응지침 및 단체협약(안)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정착과 노동자 생명·안전 확보

1.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및 노동조합의 대응
2. 안전한 일터, 건강한 일터 만들기
3. 직업성 질환의 예방 및 조치
4. 노동자 산재보상권 확대
5. 모범단협안(예시)

제5장 경제불확실성에 따른 일방적 구조조정 대응지침

1. 현황 및 문제점
2.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와 의결사항의 단체협약 명시
3. 노사 간 합의(동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 체결
4. 일방적 구조조정의 단계별 유형 및 노동조합 대응원칙
5. 한국노총 대응방침 및 노동조합 단체협약(안)

제6장.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중심의 산업전환 대응

1. 국제사회 현황
2. 기후위기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3.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현황
4. 기후위기 산업전환 대응 관련 노동조합 임단협 대응지침

제7장. 성평등 노동환경 구축과 일·생활 균형 실현

1. 노동시장 성평등 현황과 관련 제도
2.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3. 임신 관련 모성권 및 건강권 강화
4. 출산 관련 모·부성권 강화
5. 육아기 돌봄권 강화
6. 가족 돌봄권 강화
7. 성희롱 없는 안전한 일터 실현

제8장. 노동 참여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및 노동조합의 대응

1.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필요성
2. 직업능력개발 현황 및 문제점
3.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방안
4. 직업능력개발 한국노총 지침

제9장.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강화 대응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이해
2. 퇴직급여제도 FAQ 및 현장단위 대응방안

제10장. 노동자 노후준비와 노동조합의 개입

1. 노후준비 현황과 관련 제도
2. 한국노총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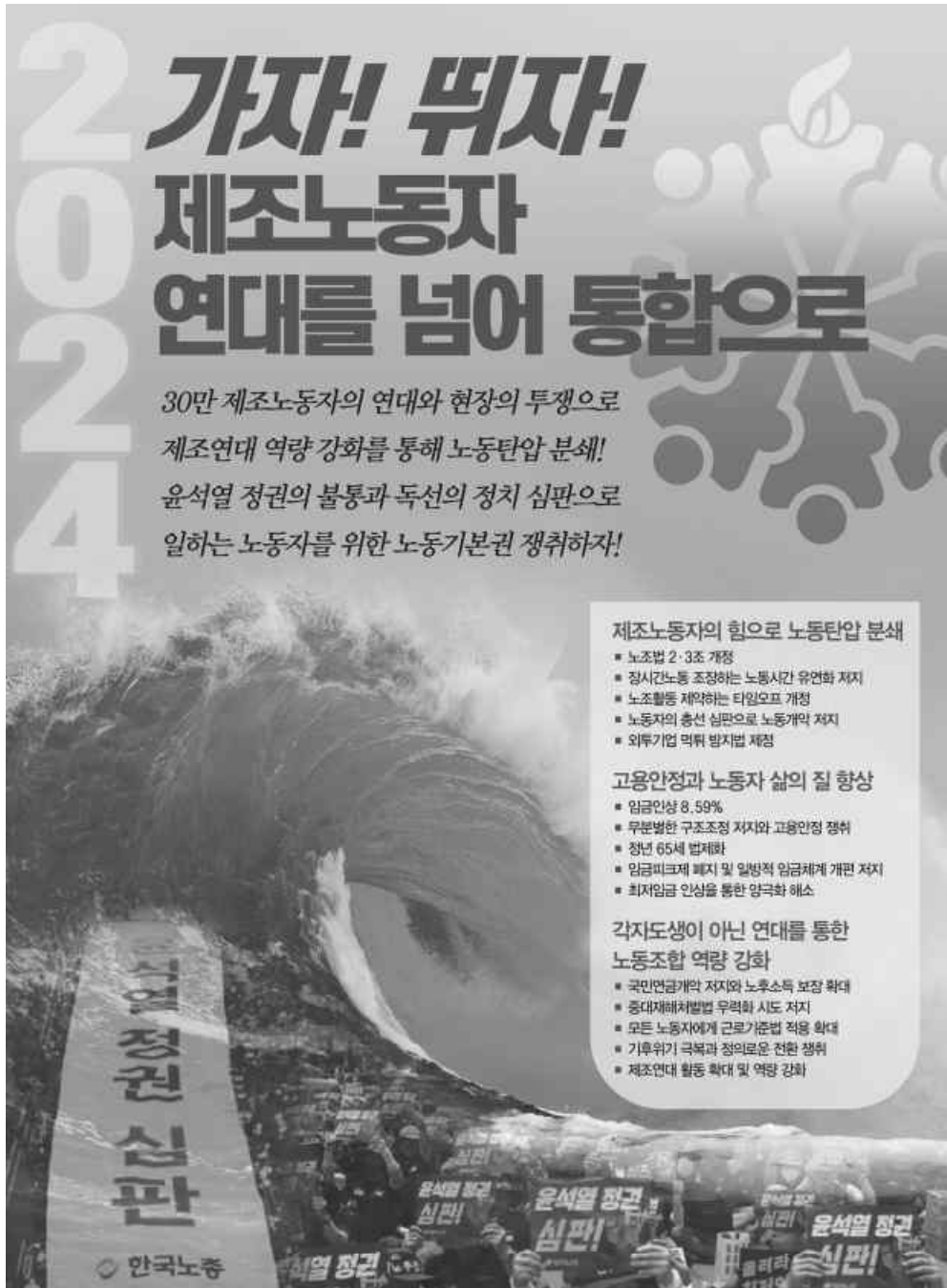
부록

[부록1] 2023년 주요 판례 및 시사점

[부록2] 2024년 변화되는 노동관계법·제도

[부록3] 비정규직 유형별 차별 판단기준 및 시정절차

나. 2024 임단투 포스터



한국노총
노동조합연맹회의

고무산업노련 / 금속노련 / 섬유·유통노련
식품산업노련 / 화학노련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 금속노련 교육활동
 - 가. 노조간부 기본교육
 - 나. 임단투 교육
2. 제조연대 교육활동
 - 가. 1차 교섭위원교육
 - 나. 2차 교섭위원교육
3. 교육지원 활동
 - 가. 가맹노조 강사 파견 현황
 - 나. 연간교육 일정안내

평가 및 개선방향

교육부는 금속노련의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 입안 및 지도에 관한 사항과 교육용 자료의 수집 및 교재의 제작 전반에 관한 사항, 간부교육 실시 및 강사파견 등 가맹조직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관련 교육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을 주 업무로 한다.

단위노조 간부 등의 지식을 함양하여 조직력을 강화하고 연대 및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금속노련 노조간부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대전에서 진행해서 접근용이성을 높였다. 노동정세와 임단협 지침 내용을 함양하여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단투 교육을 진행했다. 제조연대 교육에서는 금속노련 교육생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에 추가로 편성한 교육이다. 2025년에는 사전에 금속노련 교육을 배치해서 제조연대 교육과의 비중을 맞추어 계획이다.

제조연대 상반기 교육은 3월에 교섭위원 2회를 진행했다. 제조연대 노동법률교육은 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반기 법률교육 진행 시부터 교육 지원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가맹노조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금속노련 간부들이 강사로 파견됐다. 조합원교육부터 간부교육까지 대상이 다양했으며, 조직 및 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응했다.

금속노동자들에게 위력한 교육시스템이며 교섭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장이다. 향후 다양한 커리큘럼의 교육들을 기획하여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실무적인 교육지원의 한계를 넘어 단위와 지역의 자체적 교육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현장의 교육역량이 질적·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1. 금속노련 교육활동

가. 노조간부 기본교육

○ 목적

- 단위노조 간부 등의 지식을 함양하여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 단위노조 간부 등의 연대 및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1월 14일(화) ~ 11월 16일(목), KT대전인재개발원

○ 참석인원 : 73명

○ 교육일정표

일자 시간	11월 14일(화) (1일자)	11월 15일(수) (2일자)	11월 16일(목) (3일자)
08:00~09:00		아침식사 및 교육준비	
09:00~10:00		노동법 실무	산재보상 실무
10:00~11:00			
11:00~12:00			
12:00~13:00	점심식사		단위사업장으로
13:00~14:00	접수 및 개강식	노조회계 실무	
14:00~15:00	참가자 소개	노조간부 자세와 역할	
15:00~16:00	노동정세		
16:00~17:00	노동조합 소통 특강	노조운영 분임토의	
17:00~18:00			
18:00~19:00	단결의 밤	저녁식사	
19:00~		휴식	

나. 임단투 교육

○ 목적

- 노동정세와 임단협 지침 내용을 함양하여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 단위노조 간부 등의 연대 및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 일시 및 장소 : 2024년 3월 25일(월) ~ 3월 26일(화),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 참석인원 : 160명

○ 교육프로그램

일자 시간	3월 25일(월) (1일차)	3월 26일(화) (2일차)
08:00		조식
09:00		선전선동 이론 및 실습
10:00		
11:00		
12:00	접수(1일차 중식 미제공)	단위사업장으로 (2일차 중식 미제공)
13:00	개강식 및 사진촬영	
14:00	2024 정세와 임단협 지침 해설	
15:00	단체교섭 전략 및 전술	
16:00		
17:00		
18:00	석식	

2. 제조연대 교육활동

가. 1차 교섭위원교육

- 일시 및 장소 : 2024년 3월 12일(화) ~ 13일(수), 한국생산성본부 연수원
- 참석인원 : 105명
- 교육일정표

일자 시간	3월 12일(월) (1일차)	3월 13일(화) (2일차)
08:00		조식
09:00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
10:00		
11:00		
12:00	접수 및 방배정(1일차 중식 미제공)	단위사업장으로 (2일차 중식 미제공)
13:00	개강식 및 사진촬영	
14:00	2024 정세와 임단협 지침 해설	
15:00		
16:00	단체교섭의 법률 쟁점 해설	
17:00		
18:00	석식	

나. 2차 교섭위원교육

○ 일시 및 장소 : 2024년 3월 19일(화) ~ 20일(수), 장소 : 한국생산성본부연수원

○ 참석인원 : 84명

○ 교육프로그램

일자 시간	3월 19일(화) (1일차)	3월 20일(수) (2일차)
08:00		조식
09:00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
10:00		
11:00		
12:00	접수 및 방배정(1일차 중식 미제공)	단위사업장으로 (2일차 중식 미제공)
13:00	개강식 및 사진촬영	
14:00	2024 정세와 임단협 지침 해설	
15:00		
16:00	단체교섭의 법률 쟁점 해설	
17:00		
18:00	석식	

3. 교육지원 활동

가. 가맹노조 강사 파견 현황

연번	일자	장소/강사	단위노조 및 교육대상
1	2023.04.04	포천/조직국장	코웨이노조 조합원교육
2	2023.04.07	명화공업노조 안산지부/조직실장	명화공업노조 안산지부 조합원교육
3	2023.04.10	화신정공노조/사무처장	화신정공노조 조합원교육
4	2023.04.10	노총 교육원/조직본부장	노총 노조간부 기본교육
5	2023.04.11	유구/조직국장	코웨이노조 조합원교육
6	2023.04.11	NEK노조/사무처장	NEK노조 간부교육
7	2023.04.12	동해기계항공노조/조직실장	동해기계항공노조 간부교육
8	2023.04.12	노총 교육원/정책본부장	노총 노조간부 기본교육
9	2023.04.12	유구/조직국장	코웨이노조 조합원교육
10	2023.04.12	마산지역지부/사무처장	마산지역지부 간부교육
11	2023.04.13	경주/조직본부장, 정책국장	농협사료노조 워크숍 교육
12	2023.04.14	유구/조직국장	코웨이노조 조합원교육
13	2023.04.15	노총 교육원/정책국장	K-MEC노조 대의원대회 확대간부교육
14	2023.04.17	포스코/사무처장	포스코노조 교육
15	2023.04.19	사내/조직본부장	효성TNS노조 조합원교육
16	2023.04.20	배내골 영남알프스/조직본부장	세아창원특수강노조 간부교육
17	2023.04.26	우진/사무처장	우진노조 전 조합원교육
18	2023.04.27	노총 충남서부지부/조직실장	동국제강협력사 신규 주체 교육
19	2023.04.27	무창포/조직본부장	세아베스틸노조 간부교육
20	2023.04.28	노조사무실/조직본부장	포스코노조 대의원교육
21	2023.04.28	금속 충남지역본부/조직실장	금속노련 충남지역본부 대표자교육
22	2023.05.03	이화다이아몬드/사무처장	이화다이아몬드노조 간부교육
23	2023.05.04	포항/조직본부장 조직실장	포스코노조 교섭위원교육
24	2023.05.10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조직국장	남동공단협의회 조합원교육
25	2023.05.12	우포인근/조직실장	영흥노조 간부교육
26	2023.05.12	노총 대구지역본부/조직국장	대한OSG노조 신임간부교육
27	2023.05.12	경주/조직국장	NPF노조 조합원교육
28	2023.05.12	노총 시흥지역지부/조직본부장	동서기공노조 간부교육

연번	일자	장소/강사	단위노조 및 교육대상
29	2023.05.12	사내 대강당/정책국장	수산씨에스엠노조 조합원교육
30	2023.05.12	태안 푸른바다와금빛해변/사무처장	새론오토모티브 간부교육
31	2023.05.19	포스코노조/조직실장	포스코노조 교섭위원교육
32	2023.05.24	에릭슨엘지엔터프라이즈/사무처장	에릭슨엘지엔터프라이즈노조 조합원교육
33	2023.05.29	영주/조직본부장	금속일반노조 에이스테크지부 조합원교육
34	2023.06.01	웰리힐리/조직본부장	노총 중앙투쟁선봉대 교육
35	2023.06.10	경북청도/조직본부장	현대종합금속노조 간부 교육
36	2023.06.28	당진시근로자종합복지관/조직실장	금속일반노조 동국제강협력사(라온)지부 교육
37	2023.07.03	포항/조직실장	포스코노조 간부교육
38	2023.07.06	포항 포스코/조직차장	만서기업노조 간부교육
39	2023.07.26	천안/조직국장	광명산업노조 교섭위원교육
40	2023.07.26	노조 회의실/정책본부장, 정책국장	풍산노조 교육
41	2023.07.27	광양사무소/조직본부장	부국산업노조 간부교육
42	2023.08.09	사내/노대부장	금속일반노조 올품지부(간부교육)
43	2023.08.10	사내/조직부장	금속일반노조 올품지부(간부교육)
44	2023.08.18	사내식당/조직본부장	션엔엘노조 조합원교육
45	2023.08.24	사내/조직본부장	금속일반노조 올품지부 간부교육
46	2023.08.25	풍기우정연수원/조직본부장	노총 경북북부지부교육
47	2023.08.30	명화공업안전산지부/조직국장	명화공업노조 안전지부 조합원교육(1근,2근)
48	2023.08.31	아산/조직국장	광명산업노조 조합원교육
49	2023.09.04	사내/조직본부장	금속일반노조 올품지부 간부교육
50	2023.09.05	노조 광양지부 교육실/조직본부장	포스코노조 광양지부 대의원교육
51	2023.09.07	금속 광양지부 대강당/조직본부장	광양지역기계금속무창노조 3/4분기 교육(1차/2차)
52	2023.09.07	당진시근로자종합복지관/조직실장	금속일반노조 동국제강협력사지부 조합원교육
53	2023.09.08	천안/조직국장	광명산업노조 조합원교육
54	2023.09.11	노조사무실/조직본부장	광양지역기계금속무창노조 3/4분기 교육(3차)
55	2023.09.12	광주 광산/조직국장	광명산업노조 조합원교육
56	2023.09.14	수안보/조직실장	한국보그워너티에스노조 간부교육
57	2023.09.15	사내/조직본부장	세아제강군산지역노조 조합원교육
58	2023.09.18	사내식당/조직본부장	한국철강노조 조합원교육
59	2023.09.20	노조사무실/조직본부장	광양지역기계금속무창노조 3/4분기 교육
60	2023.09.20	사내 대강당/정책국장	한국항공우주산업노조 신규입사자 교육

연번	일자	장소/강사	단위노조 및 교육대상
61	2023.09.21	동학사/조직본부장	한화시스템노조 간부교육
62	2023.09.21	노총 마산지역본부/조직국장	노총 마산지역지부 간부교육
63	2023.09.22	노총 여주이천지역지부/조직실장	발렉스서비스노조 간부교육
64	2023.10.31	대회의실/조직본부장	금속일반노조 올품지부 조합원교육
65	2023.11.03	상관리조트/조직본부장	LS엠트론노조 간부교육
66	2023.11.08	노총 울산지역본부/조직본부장	GS에코메탈노조(파업) 조합원교육
67	2023.11.13	사내회의실/조직본부장	영풍석포제련소노조 대의원교육
68	2023.11.16	대천해양수련원/정책국장	금속노련 충남세종지역본부 대표자워크숍 교육
69	2023.11.20	가야호텔(상주)/조직실장	금속노련 대구경북지역본부 교육
70	2023.11.25	진천군청소년수련원/조직본부장	전선협의회 교육
71	2023.12.08	노조 회의실/정책국장	효성TNS노조 간부교육
72	2023.12.14	노조사무실/조직본부장	광양지역기계금속무창노조 조합원교육
73	2023.12.16	울산과학대/조직본부장	NVH코리아사내협력사노조 간부교육
74	2023.12.18	울산 머큐어엠버서더/위원장	SK실트론노조 교육
75	2023.12.18	노조사무실/조직본부장	광양지역기계금속무창노조 조합원교육(2차)
76	2023.12.20	울산공장/정책국장	한일튜브 조합원교육
77	2023.12.21	금속 광양지부/조직본부장	광양지역기계금속무창노조 조합원교육(3차)
78	2023.12.22	노조사무실/조직본부장	광양지역기계금속무창노조 조합원교육(4차)
79	2023.12.23	울산과학대/조직본부장	NVH코리아사내협력사노조 간부교육(2차)
80	2023.12.27	노조사무실/조직본부장	광양지역기계금속무창노조 조합원교육(5차)
81	2023.12.27	노총 포항지역본부(덕업관)/정책국장	포스코노조 대의원교육
82	2023.12.29	NEK/사무처장	NEK 조합원교육
83	2024.01.04	금융노조/사무처장	금융노조 간부교육
84	2024.01.05	노조사무실/조직실장, 한조직부장	볼보트럭코리아노조 간부교육
85	2024.01.05	유구공장/조직본부장	코웨이노조(유구) 조합원교육
86	2024.01.12	인천공장/조직본부장	코웨이노조(인천) 조합원교육
87	2024.01.19	포천공장/조직본부장	코웨이노조(포천) 조합원교육
88	2024.01.20	노총 평택지역지부/조직실장	WHI노조 간부교육
89	2024.01.25	아산/조직본부장	금속노련 충남세종지역본부 신입대표자 교육
90	2024.01.29	대회의실/조직본부장	금속일반노조 올품지부 교육
91	2024.01.31	노조사무실/조직본부장	코웨이노조 교섭위원교육
92	2024.02.16	노조사무실/사무처장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간부교육

연번	일자	장소/강사	단위노조 및 교육대상
93	2024.02.20	사업장/사무처장	현대모비스노조 확대간부교육
94	2024.02.22	사내 대강당/정책국장	한국항공우주산업노조 정규직전환자 교육
95	2024.02.23	사내강당/조직본부장	동해기계노조 조합원교육
96	2024.02.23	노조사무실/조직실장	SK하이닉스이천노조 간부교육
97	2024.02.24	성남이동노동자쉼터/조직실장	삼영전자노조 간부교육
98	2024.02.26	대회의실/조직본부장	금속일반노조 올품지부 교육
99	2024.03.13	원주/사무처장	농협사료노조 간부교육
100	2024.03.15	DB생명인재개발원(화성)/조직실장	남양넥스모노조 확대간부교육
101	2024.03.15	부천/사무처장	부천보건소노조 조합원 교육
102	2024.03.26	사내강당/정책본부장, 정책국장	지엠사무직노조 신규입사자 교육
103	2024.03.27	노총/조직본부장	노총 새내기 교육

나. 연간교육 일정안내

교육명	일정	장소	내용
교섭위원교육 1차	3월 12~13일	한국생산성본부연수원	노동정세, 단체교섭 법률 쟁점, 단체교섭 전략 전술
노동문화교육	3월 13~15일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노동정세, 노동조합간부 소통특강, 노래로 배우는 노동운동사, 몸짓 배우기
교섭위원교육 2차	3월 19~20일	한국생산성본부연수원	노동정세, 단체교섭 법률 쟁점, 단체교섭 전략 전술
임단투 교육	3월 25~26일	한국생산성본부연수원	노동정세, 단체교섭 전략 전술, 선전선동 이론실습
선전선동교육	4월 2~3일	국제청소년센터	노동정세, 단체교섭 법률 쟁점, 선전선동 이론실습
노동법률교육	4월 29~30일	미정	노동정세, 임금, 노동시간, 쟁의행위, 산업재해 등
여성간부교육	6월(2박 3일)	미정	여성 간부의 역할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1차	8월(2박 3일)	미정	노동정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조간부 기본교육	9월(2박 3일)	미정	노동정세, 간부자세, 노동관계법, 금속노련 역사 등
신임대표자 및 임원교육	10월(1박 2일)	미정	노동정세, 노동관계법, 위원장 특강, 단체교섭 전술 등
노동법률교육	11월(2박 3일)	미정	노동정세, 임금, 노동시간, 쟁의행위, 산업재해 등
홍보교육	11월(1박 2일)	미정	소식지, 성명서, 보도자료 작성 실습, 홍보활동 소개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2차	12월(2박 3일)	미정	노동정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1. 회의활동
 - 가. 2023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나. 중앙위원회 및 기타회의 개최
2. 회계감사 수검
3. 주요행사 및 지원사업
 - 가. 주요행사 집행
4. 노총장학재단 및 금속노련 장학금 배정지급
 - 가. 취지
 - 나. 연도별 장학금 수혜 내역

1. 회의활동

가. 2023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일시 : 2023년 5월 16일(목) 13:30
- 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 참석자 : 재적대의원 887명 중 참석 645명
- 결의사항

안건	결의사항
가. 2022년도 사업보고 건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나. 2022년도 회계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건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다. 임원보선 건(부위원장)	- 총투표자수 645 찬성 637 반대 6 무효 2 : 선출됨
라. 중앙위원선출 건	- 총투표자수 645 찬성 635 반대 8 무효 2 : 선출됨
마. 2023년도 사업계획수립 건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바. 2023년도 예산수립 건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사. 기타토의	- 자문위원 위촉 건 (금속노련 규약 제46조에 의거 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함)

○ 부위원장(보선)

번호	소속	성명	성별
1	서울지역본부	김해광	남
2	경남지역본부	조용갑	남
3	대구경북지역본부	권태훈	남
4	포항지역본부	김동일	남
5	LG디스플레이	정상식	남
6	SK실트론	최무환	남
7	SK하이닉스청주	고상남	남
8	스태츠칩팩코리아	이기화	여
9	포스코	김성호	남

○ 중앙위원

번호	소속	성명	성별
1	ASE코리아	한예지	여
2	LGDisplay 구미지부	김영태	
3	LG전자	황성관	
4	LG전자	류다빈	여
5	LSMnM	박성걸	
6	PHA	허도영	
7	TK-FUJIKIN	하두호	
8	광명전기	윤석진	
9	남양넥스모	조제현	
10	노벨리스코리아	장만덕	
11	대동모벨시스템	김정희	여
12	남양금속	장득학	
13	대한전선	강진연	
14	대한제당	조주희	
15	대호특수강	박규진	
16	동국제강	박상규	
17	동희오토협력업체	정성진	
18	롯데알미늄	오성원	
19	리한	민한기	
20	명일	강미희	여
21	명화공업안전지부	백선진	
22	부산주공	안병철	
23	삼성화재	오상훈	
24	서진산업	김진업	
25	세아베스틸	염성곤	
26	세아창원특수강	최용훈	
27	스타리온성철	남원섭	
28	스태츠칩팩코리아	윤동현	
29	신한일전기	김송훈	
30	애디언트코리아	이창수	
31	유일	이수출	
32	이수페타시스	이기남	
33	인팩	최종진	
34	일진전기(반월)	방운제	

35	파주전기초자	오유진	
36	한국보그워너티에스	김귀녀	여
37	한국보그워너티에스	이상용	
38	한라스택폴	강현민	
39	현대모비스	우하나	여

○ 중앙위원후보

번호	노조명	이름	성별
1	K-MEC	전 상	
2	도루코	이용식	
3	KG스틸인천	류성필	
4	인지컨트롤스	손중기	
5	진합	정상용	
6	캐논코리아	최용호	
7	극동전선	반영진	
8	대창단조	박창혁	
9	한국특수전지	황상문	
10	KUM	장기현	
11	AMS	이지모	
12	엘링크링거	복명진	
13	동일산업봉강사업부	강준영	
14	서진산업 광주지부	김현철	
15	가온전선전주지부	김 훈	
16	한일전기	이상훈	

나. 중앙위원회 및 기타회의 개최

1) 제193차 중앙위원회의

- 개최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13:30
- 참석인원 : 재적 70명 중 참석자 40명
- 개최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안건
 - 가. 보고안건
 - 안전1)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계획의 건
 - 회의자료를 토대로 총력투쟁계획 보고
 - 안전2) 2023년 상반기 지역순회 결과보고의 건
 - 회의자료를 토대로 상반기 지역순회 결과 보고

나. 의결안건

- 안전1)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 회순심의 : 원안대로 통과
 - 사업계획 및 예산서 심의에 관한 건: 원안대로 통과
 - 대의원 자격심사건 : 원안대로 통과
 - 표창자 확정 : 원안대로 통과
- 안전2) 통일위원장 선출의 건
 - 금속노련 통일위원장에 박용락 상임부위원장 선출

라. 기타토의

- 경사노위 전 문성현 위원장을 연맹 대의원대회때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임을 보고

2) 제194차 중앙위원회의

- 개최일시 : 2023년 7월 6일(목) 13:30
- 개최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 78명 중 참석 40명
- 가. 보고안건
 - 안전1) 광양 포운 투쟁 경과보고

- 회의자료를 토대로 보고

안건2) 최저임금 관련 보고 건

- 회의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 관련 보고

안건3)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준) 참가 건

- 회의자료를 토대로 보고

나. 의결안건

안건1)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 상반기 총파업 대기 해제의 건

- 원안대로 통과

안건2) 윤석열 심판, 윤희근사면, 사내하청 노동3권보장, 김준영 석방 투쟁 계획의 건

- 원안대로 통과

안건3) 예비비 집행에 관한 건

- 원안대로 통과

안건4) 김준영 사무처장 등 법률투쟁비용 지원을 위한 모금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다. 기타토의

3) 제195차 중앙위원 회의

○ 개최일시 : 2024년 3월 5일(화) 11:00

○ 개최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 78명 중 참석 38명

가. 보고안건

안건1) 2024년 정책 및 법제도개선 주요과제

- 회의자료를 토대로 보고

안건2) 한국노총 22대 총선 정책요구 건

- 회의자료를 토대로 보고

안건3) 2024년 교육일정보고 건

- 회의자료를 토대로 보고

안건4) 2023년 조직강화본부 사업 추진 현황 건

- 회의자료를 토대로 보고

안전5) 영화<다시부르는노래,초혼>후원 제안의 건

- 회의자료를 토대로 보고

안전6) 세월호 10주기 시민위원 모집 참여의 건

- 회의자료를 토대로 보고

나. 의결안전

안전1) 가예산승인(2024년 4월-5월)건

- 원안대로 통과

안전2) 2024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관한 건

- 원안대로 통과

안전3) 2024년도 임단투지침(안)확정 건

- 3안 (생계비충족율 90%, 임금인상요구율 8.59%, 기본급기준 211,927원)으로 통과됨

다. 기타토의

4)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개최일시 : 2024년 3월 5일(화) 11:30

○ 개최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 54명 중 참석 32명

가. 의결안전

안전1) 선거관리 위원 선출 건

나. 기타토의

2. 회계감사 수검

1) 2022회계연도 하반기 회계감사 수검

○ 일시 : [노련회계감사] 2023년 4월 21일(금) 11:00
[공인회계사 감사] 2023년 4월 19일(수) 11:00 / 1회(년)

○ 장소 : 우리노련 회의실

○ 내용 : 2022회계연도 하반기(2022.10.1.~2023.03.31) 회계집행내역에 대하여 회계감사 수검

○ 공인회계사 : 민영포 / 대주회계법인

○ 회계감사위원 : 김삼두(에스엘앤산), 송해광(JMI), 안교신(삼동), 조소희(LGDisplay), 최철(한즈코퍼레이션)

2) 2023회계연도 상반기 회계감사 수검

- 일시 : 2023년 11월 10일(금) 11:00
- 장소 : 우리노련 회의실
- 내용 : 2023회계연도 상반기(2023.4.1.~2023.9.31)회계집행내역에 대하여 회계감사 수검
- 회계감사위원 : 김삼두(에스엘안산), 송해광(JMI), 안교신(삼동), 조소희(LGDisplay), 최철(핸즈코퍼레이션)

3. 주요행사 및 지원사업

가. 주요행사 집행

1) 금속노련 창립 62주년 기념식

- 목적 : 2023년 금속노련 창립 62주년 기념 금속노련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노동운동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장소 : 한국노총 2층 독심한우
- 일시 : 2023년 8월 25일(금) 14:00

2) 복지증진을 위한 직원 건강검진 실시

- 개요 및 목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반 질병 및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및 환경을 보호·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
 -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건강상 이상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지속적 진찰 및 상담 등 의학적 검진 시행
 - 과도한 업무 및 긴장상태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도와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
- 검진일정 : 2023년 6 ~ 12월 중 본인 선택
- 검진대상 : 2인(본인 및 가족1인)
- 검진기관 : 한국의료재단(여의도)

4. 노총장학재단 및 금속노련 장학금 배정지급

가. 취지

- 한국노총 장학재단에서 금속노련에 배정된 2023학년도 장학금 61,000,000원을 수령하여 가맹노조의 맹비납부 실적에 따라 배정함.
- 또한 금속노련 장학금을 2009년도부터 신설하여 장학금 20,000,000원을 산하 조직의 조합원의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신입생 포함)중 경제적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당해 조직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선정하여 배정함.

나. 연도별 장학금 수혜 내역

연도	고등	대학(2년)	대학(4년)	수혜자계	지급총액
2012	43	3/방통대1	2	49	55,400,000
2013	41	1	1	43	46,000,000
2014	27	2/방통대1	1	31	34,400,000
2015	28	1	-	29	29,660,000
2016	28	1	-	29	30,200,000
2017	30	-	-	30	30,000,000
2018	28	1	-	29	30,200,000
2019	29	1	2	32	37,000,000
2020	26	1	-	28	31,000,000
2021	27	-	1	28	30,000,000
2022	32	-	1	33	35,000,000
2023	55	-	2	57	61,000,000
금속노련 장학금 수혜 내역					
연도	고등			수혜자계	지급총액
2019	40			40	20,000,000
2020	40			40	20,000,000
2021	40			40	20,000,000
2022	40			40	20,000,000
2023	40			40	20,000,000

05 조직활동

1. 조직현황
 - 가.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 나. 지부현황
 - 다. 신규조직 현황
 - 라. 대표자변경 조직 현황
 - 마. 해산 및 이탈조직 현황
 - 바. 연도별 조합원 증감 현황
 - 사. 조직확대 우수본부상 수여
2. 조직, 분쟁 사업장 지도·지원 현황
 - 가. 지역본부별
 - 나. 주요투쟁노조
3. 핵심사업
 - 가. 윤석열 노동개악·탄압대응
 - 나. 간부역량강화
 - 다. 조직역량강화
 - 라. 연대선전

평가 및 개선방향

조직강화본부는 2023년 ‘윤석열 노동개악·탄압대응’, ‘매뉴얼·지침·교육자료 발행’, ‘간부역량 강화’, ‘조직역량강화’, ‘연대선전’, ‘금속일반노조’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신규조직화’, ‘분쟁사업장지도·지원’, ‘각종 법률대응’ 등 일상사업을 진행했다.

우선, 주요사업 중 ‘윤석열 노동개악·탄압대응’에서는 2023년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5번의 집중투쟁을 결의하고 <5.1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1차 총파업포함 총력투쟁(7.15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범국민대회로 대체)>, <8.15 전후 범국민대회(8.12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범국민대회로 대체)>, <11.13 전후 노동자대회(2개 대회 참가: <11.11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윤석열 정권 퇴지 총궐기)>를 정세변화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했으며,

특히, 김만재 위원장 연행과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까지 이어졌던 광양에서의 <사내하청노동자 노동3권보장을 위한 투쟁>은 87년 노동자대투쟁과 96·97 노동악법개정저지투쟁 이후 반노동자 정권의 실체를 전국적으로 폭로·확산시키고, 각종 투쟁에서 금속노련 조직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매뉴얼·지침·교육자료 발행’에서는 <불법파견 대응 매뉴얼>을 수정 보완하여 하청노동조합 등 불법파견 대응이 필요한 조직에 공유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노동법 교육자료>를 필수 판례를 추가하여 수정 배포하였다.

‘간부역량강화’에서는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교육(한국노총교육, 제조연대교육, 금속노련 교육 등)의 장소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찾아가는 지역 노동교실 사업을 기획하였고, 2023년 상반기 투쟁의 상징적 장소인 광양지역에서 <광양지역노동교실>을 실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현장에 가까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중앙과 단위노동조합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조직역량강화’에서는 <신임대표자 및 임원교육>을 양적·질적으로 성장시켜 신규조직의 자체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였으며, <조직강화팀> 워크숍을 통해 중앙-지역본부-단위노조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사업의 본격적 가동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연대선전’에서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금속 나를 바꾸는 시간(금속나바시)>를 12회,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찾아가 소식을 알리는 <금속공장>을 20회까지 제작했으며, 이는 연대선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지속성을 유지한 것으로 향후 새로운 콘텐츠 제작과 홍보활동으로 대내외에 금속노련을 알릴 수 있는 SNS를 이용한 선전사업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금속일반노조’사업에서는 20여 개 지부, 1,3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한국노총 내 대표 초 기업별 노조로 위상을 높였다.

다음으로, 일상사업 중 ‘신규사업’에서는 2024년 3월 말 기준 20여 개 조직(지부포함)을 가입 시켜, 약 1,700여 명의 조합원이 늘어났으며, 금속노련 조직강화본부 사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분쟁사업장지도·지원’ 및 ‘각종 법률대 응’에서는 인지컨트롤노조(시화, 옥천), 코웨이노조, 금속일반노조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연구조합지부 등 30여 개의 조직의 위임교섭과 광양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조선선재노조, 금속일반 노조KG스틸협력사지부 등 20여 개의 분쟁사업장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지원하여 현장과 함께 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조직강화본부의 활발한 활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으로 계획된 <기자회견·집회 매뉴얼>, <노조·상급단체 필요성 선전물, 신규·간부·조합원 표준교육자료>가 예기치 못한 투쟁 발생 등으로 제작되지 못해 올해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부족한 현장 지도·지원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내 운영키로 계획했던 <조직강화팀>이 올해도 실질적 가동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교실>에서도 교육회차가 늘어날수록 참석률이 떨어지기도 하였고 사업의 과도기적 성격으로 교육의 전문성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단위노조 지도·지원에서는 현장의 실정을 잘 파악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직화 초기 단위노조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소들로 인하여 해당 조직의 상급단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부족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이상, 조직강화본부는 2023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2024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한다.

1. 조직현황

가.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1) 서울지역본부

- ① 설립연월일 : 1989년 12월 28일
- ②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99-2 푸리마타워 13층 1318호
- ③ 전화번호 : (02)6956-3666 / FAX : 070-7543-0122
-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김해광	LG전자	2022.12.23.
수석부의장	오성원	롯데알미늄	2022.12.23.
부의장 / 사무국장	전 상	K-MEC	2022.12.23.
회계감사	오상훈	삼성화재	2022.12.23.
회계감사	황홍석	하이텔서비스	2022.12.23.

⑤ 서울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	K-MEC	16.02.12	전상	경기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광명역자이타워 B동 2305호
2	KC코트렐	99.06.09	최진규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34 디지털큐브 12층
3	LG전자	63.05.30	하영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63 5층
4	OTIS엘리베이터	87.07.07	방규현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별관2층
5	경보전기	91.04.12	송제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12가길 5
6	금속일반	18.06.27	김만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7	농협사료	17.02.06	홍헌표	경남 함안군 가야읍 고분길 98-1 C동 101호
8	롯데알미늄	76.04.07	오성원	서울 금천구 벚꽃로 104 금천롯데타워 11층
9	볼보건설기계코리아	00.08.03	박준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30 볼보빌딩 6층
10	삼성생명	20.05.28	이학섭 이미정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8 BNK디지털타워 9층 삼성생명노동조합
11	삼성생명서비스	22.10.27	박재형	대구 동구 송라로10길 33 상가동 1F 1228호
12	삼성엔지니어링&U(엔유)	21.06.30	김봉준	서울 강동구 상일로6길 51 다올빌딩 6층 삼성엔지니어링노동조합엔유
13	삼성카드고객서비스	21.11.04	최재영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센터포인트웨스트 25층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4	삼성화재	19.12.13	오상훈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76 삼성화재영등포사옥 12층
15	삼성화재에너지손해사정	18.07.02	최원석	경기 광명시 양지로 21 유플레넷 티타워 1121호
16	야마하뮤직코리아	14.09.01	정웅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8 11층 야마하뮤직코리아노조
17	에릭슨엘지엔터프라이즈	16.07.01	김용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9 11층 에릭슨엘지엔터프라이즈노동조합
18	오텍오티스파크시스템	16.04.01	김진태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구관 지하1층
19	오티스서비스엑스퍼트	23.10.04	이현동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3번길 4
20	오티스엘리베이터사무직	19.12.10	김영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03 영진빌딩 4층
21	위니아덤채사무관리직	14.10.20	남승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09 대유위니아타워 R&D센터 구관4층
22	위니아에이드	98.12.29	김용안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33
23	하이엠솔루텍	20.07.01	정재훈	경기 광명시 덕안로 104번길 17 광명역엠클러스터 1513호
24	하이텔레서비스	19.04.03	황홍석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5로 1길 20 마곡나루역 보타닉비즈타워 718호
25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87.09.02	금동욱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19 배재빌딩 B동 9층
26	현대엘리베이터사무직	20.01.23	윤민욱	서울 양천구 화곡로 74 2층

2) 경기지역본부

① 설립연월일 : 1982년 9월 27일

②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7층

③ 전화번호 : (031)233-3580 / FAX 번호 : (031)233-3586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원철식	우진	2021. 10. 29
상임부의장	민한기	리한	2021. 10. 29
부의장	장대식	LG이노텍 오산지부	2021. 10. 29
부의장	안광호	서진산업 화성지부	2021. 10. 29
부의장	오유진	파주전기초자	2021. 10. 29
회계감사	김송훈	신한일전기	2021. 10. 29
회계감사	박원제	인알파코리아	2021. 10. 29
사무국장	이용식	도루코	2021. 10. 29

⑤ 경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	ASE코리아	88.12.19	조진우	경기도 파주시 산업단지길 76
2	JMI	97.01.20	송해광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8길 15-20
3	LGDisplay	99.01.01	정상식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45 A1동
4	SK하이닉스이천	87.08.14	황용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5	SK하이닉스	08.03.19	박이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6	SK하이닉스주식회사	20.02.10	서주옥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7	SK하이이엔지	01.06.18	이영근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협력2관
8	SK하이이엔지기술사무	19.04.30	최용준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9	STX엔진	01.12.05	김진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288
10	TDK한국	96.02.28	이동범	경기 평택시 청북읍 현곡산단로 104 TDK노동조합
11	가온전선	89.01.24	이광희	경기 군포시 엘에스로45번길 120
12	경동산업	88.12.13	김달호	경기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601번길 51
13	능원금속	20.03.19	최성돈	경기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 366 능원금속노동조합
14	니콘프레시전코리아	03.12.10	서동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124번길 2
15	대동도어	89.02.21	안영철	인천 연수구 첨단대로124번길 64 대동도어(주) 송도공장
16	대동모빌리티	87.08.26	김호인	경기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867-11
17	대주정공	20.10.21	차남규	경기 화성시 장안면 석포로 39
18	대한에프에이	22.10.28	전승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19	덴소코리아화성	68.01.28	최일성	경기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5길 9 덴소코리아노동조합
20	도루코	75.05.20	이용식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50
21	동화프라임	87.08.14	박운병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곶남로 528-2
22	동화정공(아산)	00.06.19	김경주	충남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150-46
23	두원정공	18.05.29	이강언	경기 안성시 대덕면 만세로 21-5
24	디투디	20.04.23	김현수	경기 이천시 대월면 대산로247번길 20-1
25	로얄&컴퍼니	87.07.27	김민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895-20
26	리한	07.06.01	민한기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16-16
27	명일	21.01.20	강미희	경기 화성시 석우동 3-1 R&D스테이션 501호
28	발렉스서비스	23.07.28	윤영희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발렉스서비스노동조합
29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	05.04.08	윤종근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30	볼보트럭코리아	00.11.08	김인식	경기 화성시 동탄기흥로 64-106 2층 볼보코리아노동조합
31	부천지역	88.07.06	김덕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36 근로자복지관3층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32	삼구아이앤씨	20.06.02	김영민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 171 3층
33	삼기	78.10.13	박진호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268번길 147
34	삼성에스원참여	20.11.03	신웅교	경기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2 신건프라자 506-1
35	삼성웰스토리	17.08.05	이진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2 신건프라자 506-2호
36	삼아알마늄	89.03.08	양상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92
37	삼영전자	88.08.28	김경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7
38	삼화전자	94.11.21	이영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215
39	삼화콘덴서	87.08.24	송영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227 삼화콘덴서노동조합
40	서진캠	03.07.05	정지덕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31 어연한산지방공단 내 2B-5L
41	성문전자	91.01.03	조재흥	경기도 평택시 세교산단로 61 성문전자노동조합
42	성안기계	89.05.15	심규성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6길 33
43	세아FS	87.07.19	서민형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19
44	시스트로	88.05.17	최중선	경기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711-78 대신기계노동조합
45	신한일전기	74.05.18	김송훈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공단로 167
46	썬터온	93.03.10	조성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1155
47	에스와이	21.06.23	노태연	경기 화성시 효행로 1060 이타운4, 209호
48	엘에스머트리얼즈	21.01.22	임장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39 6층
49	오토리브코리아	20.02.04	이원로	경기 화성시 동부대로 730-66
50	우주엔비텍	03.04.01	임재용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별말로 122
51	우진	87.09.02	최승훈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48
52	원광로지텍	20.11.25	이상호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53	이큐글로벌	01.12.07	남종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서촌로 56 4층
54	이화다이아몬드	88.03.12	이준우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374
55	이화전기공업	01.06.11	김선영	경기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42번지
56	인알파코리아	10.10.21	박원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2길 39
57	일신비츠온	01.11.10	조용식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팔아산단로12번길 56
58	일진전기	87.08.16	최성호	경기도 화성시 만년로 905-17
59	일진전기전선사업부	17.11.15	강철선	경기 화성시 만년로 905-64 일진산전
60	일진제강	87.08.29	김영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905-80
61	전국삼성전자	19.11.13	손우목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3 삼성전자기흥나노파크 2층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62	전국삼성전자서비스	22.04.04	황성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탑동) 7층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63	카이스	88.06.24	오세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294 카이스노동조합
64	코모스	02.03.08	노민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842-1
65	코웰패션필코전자사업부	87.08.26	김석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70 (원천동)
66	테크젠	20.08.25	위응량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309
67	파주전기초자	11.05.19	오유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695-35
68	파카코리아	93.04.01	이상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1길 23
69	프라코	88.07.14	김석준	경기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679-24
70	플러스이엔지	23.01.03	권혁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처인성로 1179 플러스이엔지노동조합
71	하나로넷	22.02.18	유병문	경기 평택시 고덕중앙로 322 (고덕동) 에이스타워 429호 하나로넷노동조합
72	한국기가포톤	13.04.05	김지민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21길 24 (영천동)
73	한국전광	16.04.07	정종민	인천 계양구 서운산단로2길 36 (서운동)
74	한국키스톤발부	88.07.09	김한기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1길 56
75	한화시스템	21.11.17	이성중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8 (삼평동)
76	한즈시스	17.05.01	윤영인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6길 12 (쌍송리)

3) 인천지역본부

- ① 설립연월일 : 1981년 11월 2일
- ②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구월동) 3층
- ③ 전화번호 : (032)437-8505 / FAX 번호 : (032)437-8504
-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신진호	스태츠칩팩코리아	2022.02.27.
상임부의장	조주희	대한제당	2022.03.28.
부의장	박상규	동국제강	2022.03.28.
부의장	김정운	대동시스템	2022.03.28.
부의장	김희중	다이후쿠코리아	2022.03.28.
부의장	최대근	신한다이아몬드공업	2022.03.28.
부의장	박상욱	린나이코리아	2022.03.28.
부의장 / 사무국장	최철	한즈코퍼레이션	2022.03.28.
회계감사	양승조	우일정밀	2022.03.28.
회계감사	김의흥	청우하이드로	2022.03.28.

⑤ 인천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	KG스틸인천	66.04.29	류성필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789 KG스틸인천노동조합
2	LG마그나	22.08.01	김성규	인천 서구 경명대로 322
3	다이후쿠코리아	17.04.07	김희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275번길 8 다이후쿠코리아 기술연구소
4	대동시스템	89.07.11	김정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419
5	대동하이렉스	03.08.06	류성룡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78번길 43
6	대한제당	69.06.02	조주희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16
7	동국제강	89.02.20	박상규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15
8	동보	87.09.10	정찬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646
9	린나이코리아	89.03.16	박상욱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577번길 48
10	머큐리	00.11.17	김영국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90
11	서연탐메탈	88.08.06	김기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10번길 40
12	서울엔지니어링	87.08.24	최희명	인천광역시 남구 방축로 332
13	스태츠칩팩코리아	98.07.01	신진호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무역로 191
14	신한다이아몬드공업	12.07.03	최대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70번길 57-15
15	심팩	87.08.18	김도형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141 심팩노동조합
16	심팩인더스트리	08.07.04	강광식	인천 서구 가좌로 64
17	엘티메탈	87.08.23	문상묵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117 희성금속남동공장
18	우일정밀	87.08.24	양승조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289번길 5
19	위니아전자사무직	18.03.01	강용석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09 위니아전자사무직노조
20	인켈	87.09.19	하재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중로 93
21	청우하이드로	88.05.10	김익흥	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 166
22	한국지엠사무직	16.04.19	안소현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23	한일튜브	93.05.17	김종남	인천광역시 서구 원전로 17
24	한조코퍼레이션	14.04.01	최철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854
25	후지테크코리아	87.08.27	김영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51

4) 안산시흥지역본부

- ① 설립연월일 : 1997년 2월 16일
- ②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47, 근로자복지관 3층
- ③ 전화번호 : (031)410-8601 / FAX 번호 : (031)401-8602
-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고동현	대덕전자	23.11.30
부의장	조제현	남양넥스모	23.11.30
부의장	황명찬	태양금속	23.11.30
회계감사	최병남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23.11.30
회계감사	김정희	대동모벨시스템	23.11.30
사무국장	이성영	한샘	23.11.30

⑤ 안산시흥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	PN풍년	86.08.31	류영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620
2	SP일렉텍	89.10.26	황경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정공길 2-15
3	TRW	87.01.07	김영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127
4	광명전기	87.08.15	윤석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160
5	교세라커넥터	99.04.29	김진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116
6	남양넥스모	95.03.28	조제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150
7	대덕전자	87.12.28	허일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3
8	대동모벨시스템	02.04.26	김정희	경기도 시흥시 번영로 105
9	대풍공업	78.02.23	장정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9번길 196
10	동서기공	89.04.24	임동훈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155
11	동희산기	91.05.22	이홍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453
12	디젠스	97.04.14	김창규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27번길 38
13	비츠로	90.08.21	강상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
14	삼보오토	88.06.29	강영석	충남 예산군 웅봉면 산단1길 66 삼보오토노동조합
15	삼화왕관	19.10.01	신용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140
16	서울반도체	18.07.16	박정훈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63번길 97-11
17	서진산업	76.02.26	김진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96
18	서진오토모티브	91.01.25	이석동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313
19	선도전기	89.03.06	김보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86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20	세플러안산유한회사	95.05.13	박재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179
21	스탠다드인터내셔널	87.08.22	노석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355
22	신화다이나믹스	88.01.08	정재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변영2로 31
23	아이아	89.01.13	박시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87
24	에스엘미래텍	06.09.28	김종훈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130
25	엔피씨몰텍	95.05.13	홍영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89
26	우진공업	89.05.13	김영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48
27	위스코	88.10.18	고재정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133-14
28	유택솔루션	09.11.03	이진우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205
29	인지컨트롤스	08.12.08	손중기	경기 시흥시 군자천로 171
30	일진전기(반월)	87.08.22	방운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21
31	진영공업	06.10.11	변병욱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80
32	태양금속(안산)	76.05.26	황명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12
33	트릴리엄플로우코리아	17.08.09	김우섭	경기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151
34	포레시아코리아	03.06.19	전해명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4길 11
35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09.09.30	최병남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235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노동조합
36	한샘	80.04.01	이성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변영2로 144
37	흥진정공	88.11.18	이정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141번길 27

5) 대전지역본부

- ① 설립연월일 : 1981년 1월 30일
- ②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84 근로자복지관 3층
- ③ 전화번호 : (042)488-9057 / FAX 번호 : (042)488-9058
-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윤익병	남선기공	2022.01.02.
사무국장	정상용	진합	2022.01.02.
회계감사	정제중	세아이앤티	2022.01.02.

⑤ 대전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1	남선기공	74.02.21	윤익병	대전 대덕구 대전로1331번길 17
2	로옴코리아정의	21.06.10	박범구	대전 대덕구 문평서로17번안길 40
3	알루코	67.03.06	진현주	대전 대덕구 대화로119번길 31
4	에스에이엔지니어링	87.01.07	정제종	대전 대덕구 신일동로67번길 40
5	진합	88.01.26	정상용	대전 대덕구 문평서로 42

6) 충남·세종지역본부

① 설립연월일 : 1995년 6월 1일

②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457, 근로복지회관 1층

③ 전화번호 : (041)565-8001 / FAX 번호 : (041)565-9001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장재성	새론오토모티브	2021.06.10.
수석부의장	최종진	인팩	2021.06.10.
부의장	김태선	두원공조	2021.06.10.
사무국장	최용호	캐논코리아	2021.06.10.
회계감사	김성오	귀뚜라미범양냉방	2021.06.10.
회계감사	박인용	에스엠백셀	2021.06.10.

⑤ 충남·세종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	KB오토시스	87.09.15	김미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528-24
2	KG스틸	66.04.29	강호기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228
3	LS메탈	55.10.15	문창배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화송길 123
4	MEMCKOREA	96.03.27	김우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854
5	YH오토	88.04.18	김태영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95
6	경신전선	89.09.10	배형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567
7	광진기계	23.06.08	이태후	충남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23-50 광진기계노동조합
8	귀뚜라미범양냉방	77.08.04	김성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음봉로 850
9	대륙제관	87.08.28	손경식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202번길 17 대륙제관노동조합
10	대양금속	06.02.20	이상길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1	대원전선	87.08.01	허일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덕령길 92
12	대한전선	72.06.15	강진연	충남 당진시 고대면 대호만로 870
13	동양철관	87.08.26	추영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515
14	동원금속아산공장	97.04.30	강춘호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울금로 288-7
15	동일알미늄	95.07.27	이진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160
16	동해기계항공	18.11.18	김태환	충남 공주시 신포면 고도평말길 175
17	동희오토협력업체	11.03.21	정성진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신당1로 105-1
18	두울아산	99.07.04	정란홍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611
19	두원공조	87.08.10	김태선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울금로 43
20	리텍	23.02.26	손건우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산단남로 60 리텍노동조합
21	삼성디스플레이	20.02.01	권상욱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181 삼성1캠퍼스 블루홀 2층
22	삼신	87.07.29	류기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1138-11
23	새론오토모티브	95.10.16	이종홍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5길 133
24	새화신	02.03.14	최희탁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468
25	서연오토비전	15.01.12	강길원	충남 당진시 합덕읍 거섬들2길 45 서연오토비전노동조합
26	세명테크	17.12.04	정동진	충남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91 명화공업(주)
27	수산CSM	95.05.08	지홍중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365 수산CSM노동조합
28	스테코	20.10.22	유민영	충남 천안시 서북구 3공단1로 20
29	승일	12.12.26	김지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1길 10
30	신성비앤씨	22.04.25	손성우	충남 아산시 선장면 삽교천로 50 비엠아이협력사
31	신원	01.09.03	김국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448
32	쌍신전자통신	78.04.26	정명식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당산로 507
33	아산성우하이텍	05.11.10	최명철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591
34	애디언트코리아	95.09.25	이창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로 45
35	에스엠벡셀	87.09.12	이재진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48-15
36	오스텍	97.01.23	정동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739
37	오텍	05.09.14	정종명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1033-36
38	유한테크	18.01.04	이승찬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남로 185
39	인지디스플레이AMT	10.01.29	나명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156
40	인팩	89.04.20	최중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6길 47
41	인팩훈시스템	96.08.12	이성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1길 7
42	캐논코리아	94.06.26	최용호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57 8층
43	코넥	21.09.15	석수봉	충남 서산시 고북면 고수관로 62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44	코리아신에	89.09.23	이도경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924
45	코리아휠	67.10.13	김종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165
46	코웨이	22.07.13	임재환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47	태성전장	06.03.15	박현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송1길 110
48	페더럴모굴	71.05.13	조성준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청연로 442-16
49	풍산FNS	02.11.11	최용웅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득안대로 893
50	한일캐천안공장	18.10.24	하형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망향로 1112-84
51	현대ITC	21.05.24	이용우	충청남도 당진시 유곡로 20 당진엠코타운 105동 1601호
52	헤인	87.07.27	이춘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5로 23
53	환영철강	95.01.17	이찬규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보덕포로 587
54	휴스틸	80.05.08	남궁진성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131

7) 충북지역본부

- ① 설립연월일 : 1988년 12월 31일
- ②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65-15, 202호
- ③ 전화번호 : (043)267-1418 / FAX 번호 : (043)266-5088
-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 장	박태우	현대모비스	2022.01.21.
부의장	안교신	삼동	2022.01.21.
부의장	안호철	한국에이버리데니슨	2022.01.21.
부의장	김태규	동성금속	2022.01.21.
부의장	서지웅	한미전선	2022.01.21.
부의장	최용훈	에스피텍	2022.01.21.
회계감사	손관수	백조썬크	2022.01.21.
회계감사	김영일	키파운드리	2022.01.21.
사무국장	반영진	극동전선	2022.01.21.

⑤ 충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	AND전자저울	89.02.22	윤석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씨제이로 101 AND전자저울노동조합
2	KBI메탈	06.10.11	최현록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소산단로 66
3	LS이모빌리티솔루션	22.04.25	신병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95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4	LS일렉트릭	87.07.27	이호정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95
5	PNS로지스	23.03.16	강진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180번길 52
6	SK키파운드리	04.10.06	김영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215
7	SK하이닉스청주	90.02.09	고상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37
8	극동전선	87.08.22	반영진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길 29-23
9	금화소재	15.10.05	김숙화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중원산업로 158
10	넥상스코리아	78.02.19	안진성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50
11	니텍어드밴스테크놀로지코리아	18.02.22	정우종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로 10
12	대림통상	87.08.13	박종삼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평산단로 23
13	대성셀텍에너지스	89.04.19	홍민표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로 55-72
14	대호특수강(충주)	20.09.01	김호준	충북 충주시 충주산단1로 95 대호특수강노동조합
15	동성금속	91.03.09	김태규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용산공단길 74
16	두산전자	87.08.20	김승진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두산로 40
17	로얄테크	04.12.03	박홍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215
18	백조싱크	85.02.18	손관수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 353
19	삼동	96.08.09	안교신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816-41
20	삼화전기	90.01.31	이창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3 삼화전기노동조합
21	서울전선	09.09.17	조병선	충북 음성군 삼성면 명심이길 27-20
22	선일다이파스	88.06.18	조경탁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산단2길 14
23	성은	13.08.06	이덕수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용로 329
24	스탬코	20.07.30	이정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4로 79-44
25	앤디포스	21.07.31	김수호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 224-7
26	에넥스	87.08.10	조재봉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에넥스로 37
27	에스엠알오토모티브도올코리아	87.11.12	김원배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과학산업1로 170 오창과학단지 4-9블럭
28	에스피텍	02.12.02	최용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38
29	에이치그린파워	18.06.24	한훈희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1로 69
30	우지막코리아	05.11.25	이종필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 259 우지막코리아노동조합
31	인지컨트롤스옥천	09.12.24	이상현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농공로 70
32	전진건설로봇	10.01.12	이석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264
33	존슨일렉트릭오퍼레이션스	08.10.01	전병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5로 101
34	지애피	87.09.03	이은호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448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35	티와이엠옥천공장	74.02.01	유광수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부로 49 티와이엠옥천공장노동조합
36	한국보그워너티에스	01.05.21	이상용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251번길 19
37	한국야금	91.02.04	김홍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55
38	한국에이버리데니슨	21.05.16	안호철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291 한국에이버리데니슨
39	한국캠브리지필터	90.02.16	유호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86
40	한미전선	13.06.30	서지웅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2028-37 한미전선노동조합
41	헨켈코리아	13.06.20	심현보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298
42	현대모비스	00.04.01	이승현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2길 95
43	현대성우메탈	03.02.11	최창수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344
44	현대엘리베이터	87.08.14	주인수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단1로 128 현대엘리베이터노동조합

8) 부산지역본부

- ① 설립연월일 : 1980년 12월 29일
- ②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86, 근로자종합복지관 6층
- ③ 전화번호 : (051)861-4613 / FAX 번호 : (051)853-8770
-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 장	윤각열	대한제강	2022.01.24.
부의장	하영수	대선조선	2022.01.24.
부의장	추진호	동희정공	2022.01.24.
부의장	안병철	부산주공	2022.01.24.
부의장	하두호	TK-FUJIKIN	2022.01.24.
사무국장	박창혁	대창단조	2022.01.24.
회계감사	김휘중	고려용접봉	2022.01.24.
회계감사	박근수	태광	2022.01.24.

⑤ 부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	HLBO노베이션	11.08.19	원광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4길 16
2	SH PAC	22.04.12	김대환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5로 81
3	TK-FUJIKIN	08.02.05	하두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61로88번길 7
4	YKSteel	80.02.26	변태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760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5	강남	78.03.19	김찬홍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로16번길 71
6	고려옹접봉(부산)	84.06.17	김휘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63번길 70 고려옹접봉노동조합
7	대동스프링	11.01.01	박철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19번길 9
8	대선조선	68.12.03	하영수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나루로 254
9	대창단조	75.05.10	박창혁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157
10	대창솔루션	93.08.31	임철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삼동로 387-22
11	대한제강	89.04.20	황중율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69
12	동국씨엠	24.02.20	성경훈	부산 남구 신선로 102 동국씨엠 부산공장
13	동양제강	87.08.14	박영철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147 동양제강
14	동화엔텍	87.09.10	김영만	부산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63번길 20
15	동희정공(양산)	87.09.01	추진호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공단1길 41
16	버카트컴프레이션코리아	19.10.16	박수종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58번길 48 105동
17	부산선박목의장	93.03.25	장재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50번길 20
18	부산주공	88.04.20	안병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1길 54
19	부산지역금속일반	18.11.27	황대선	부산 연제구 연수로 86
20	성광벤드	75.11.19	주영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62로 26
21	성우하이텍	88.07.07	이영진	경남 양산시 소주공단3길 50
22	스타리온기원	18.06.12	문동우	부산시 금정구 화동동 125-1 (주)기원
23	신흥정기	23.09.27	차명훈	부산 사하구 다산로 241신흥정기
24	오리엔탈정공	90.02.17	황도연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89로 6
25	일본해사협회한국	17.07.01	방승욱	부산 중구 대교로 141 1018호
26	제일전기	77.03.19	정훈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555
27	캐스텍코리아	23.05.25	김동국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4로 55
28	태광	76.06.02	박근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117-12
29	태양금속(부산)	96.05.23	성정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240
30	태원니들	89.04.06	우성식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469번길 76
31	풍산홀딩스동래	03.11.16	제준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230
32	프라이그파이스트	10.09.30	황인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7로 19
33	한국주철관	80.04.19	박정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525
34	힐티코리아	91.06.17	정형일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533번길 74 힐티코리아노동조합

9) 경남지역본부

- ① 설립연월일 : 1981년 1월 9일
- ②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581, 노동복지회관 4층
- ③ 전화번호 : (055)284-4021 / FAX 번호 : (055)287-5052
-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조용갑	한국제강	2023.1.31.
부의장	김진성	LG전자1지부	2023.1.31.
부의장	남원섭	스타리온성철	2023.1.31.
부의장	전광배	세플러코리아	2023.1.31.
부의장	김창옥	LG전자2지부	2023.1.31.
부의장	심규현	세아창원특수강	2023.1.31.
부의장	이동우	영흥	2023.1.31.
부의장	황영안	한국항공우주산업	2023.1.31.
부의장	윤용운	대성사	2023.1.31.
사무국장	황상문	한국특수전지	2023.1.31.
회계감사	김진희	대동기어	2023.1.31.
회계감사	박기봉	에스텍	2023.1.31.
회계감사	신재중	STX중공업	2023.1.31.

⑤ 경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	GMB코리아	88.11.15	김동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618
2	KGF	00.03.19	김진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50
3	KR모터스	83.03.26	감경석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28
4	NEK	96.03.25	장원혁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서3길 18
5	STX중공업	87.08.10	신재중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222
6	고려용접봉(창원)	18.02.09	지경수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704
7	고려특수선재	87.03.21	강승민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43
8	금속경남일반	19.10.15	이상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581
9	대동기어	83.04.24	김진희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42
10	대동정비	89.10.04	백운효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로 154
11	대명공업	88.11.24	김종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384
12	대성사	76.03.30	윤용운	경상남도 양산시 대동로 53
13	대신금속	96.11.26	김진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346번길 10
14	대흥R&T	17.12.26	김윤하	경남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436번길 70-25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5	덴소코리아마산	80.05.15	이정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첨단산업로 3
16	덴소코리아창원	89.03.08	정원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630
17	두원중공업	80.01.14	정진용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구해창길 20-7
18	디아이시스템	20.02.25	김상일	김해시 한림면 용덕로48-33
19	삼성공조	85.04.04	이정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6
20	삼성발레오	89.04.28	김문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62번길 28 삼성발레오노동조합
21	케이제이에스인터밸브	05.01.15	전상갑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328 삼우KJS텍노동조합
22	삼우금속	80.06.07	차재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 53
23	삼한	87.08.13	신용술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84
24	상농전선	78.08.28	박수영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9길 6-1
25	세동산업	18.07.18	손동우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635번길 42
26	세방전지	76.07.28	류택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22
27	세아창원특수강	99.07.30	심규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147 세아창원특수강노동조합
28	세아항공방산소재	02.03.24	최해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48
29	세원이앤씨	88.11.02	박철홍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11
30	세일공업	88.04.14	조경옥	경남 진주시 대곡면 대화로 92
31	세플러코리아	63.02.25	전광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90
32	수성기체산업	18.06.18	정석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1144번길 99
33	스타리온성철	04.06.25	남원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29
34	에스텍	04.03.17	박기봉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9길 22
35	영흥(함안)	06.10.18	이동우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731
36	영흥철강	10.05.11	하신홍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193
37	유니크	88.07.16	김현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179번길 90
38	태림페이퍼마산	17.09.12	이종관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서3길 62 태림페이퍼노동조합
39	풍산홀딩스	87.08.11	손진식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0
40	하나	16.11.08	이성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29 하나노동조합
41	하이닥코리아	19.08.05	정성훈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129번길 20
42	한국경남태양유전사천공장	87.08.22	최경식	경남 사천시 사남면 외국기업로 82 한국경남태양유전사천공장노동조합
43	한국제강	98.06.19	조용갑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394 한국제강(주)
44	한국중천	87.08.11	최해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2길 26
45	한국철강	87.08.10	배병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103번길 12 한국철강노동조합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46	한국코벨코용접	00.06.29	홍상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단지로 97
47	한국특강	13.01.15	김동현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407로 84
48	한국특수전지	05.03.10	황상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80
49	한국항공우주산업	03.09.22	황영안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50	한일제관	87.08.17	김윤근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4길 21
51	한전금속	18.03.06	김지영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43번길 25

10) 울산경주지역본부

- ① 설립연월일 : 1989년 9월 1일
- ②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 129
- ③ 전화번호 : (052)276-5880 / FAX 번호 : (052)274-9631
-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부위원장 / 사무국장 회계감사 회계감사	남재환 황명준 장호래 남호진	울산알루미늄 풍산울산지부 삼성SDI울산 스타리온일우	2021.11.08. 2022.01.21. 2022.01.11. 2022.01.11.

⑤ 울산경주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	DIC	85.06.07	이해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농공길 8
2	GS에코메탈	23.03.03	이상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1길 75-34 GS에코메탈노동조합
3	KBI동국실업	96.06.28	윤무관	울산광역시 북구 효자로 133
4	KCC진장기업	18.05.01	이영정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산업로 76
5	KUM	17.12.05	손영일	울산 울주군 두서면 전읍농공길 20
6	LSMnM	83.03.21	박성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148
7	NVHKOREA	01.05.12	최희정	울산 북구 이화산업1길 9
8	NVH코리아사내협력사	22.01.06	서원호	울산 북구 이화산업1길 9 NVH코리아사내협력사노동조합
9	고려아연	77.10.09	문병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
10	국일인토트	03.05.15	조정식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탑걸길 17
11	동화산업	87.08.12	김기선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675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2	명화공업	99.11.15	이상우	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 211
13	베바스토코리아	21.03.11	최재영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산업로 6
14	부창	18.11.01	김경옥	울산 남구 부두로 9 부창테크
15	삼성SDI울산	20.04.09	장호래	울산 울주군 삼남읍 가천금사길 45 레포트센터 1층
16	서연씨엔에프	21.07.02	박병울	울산 울주군 두서면 전읍농공길 13
17	수산이앤에스	91.08.21	심길섭	울산 북구 매곡산업로 21 3층 자동차조선기술관
18	스타리온일우	18.05.03	남호진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1길 56
19	영풍기계	17.02.28	유상업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공단길 165 (주)영풍기계
20	우수정기	07.11.13	오진수	울산 울주군 상북면 산전후리로 40-5 우수정기노동조합
21	울산알루미늄	78.08.03	김민수	울산광역시 남구 부두로 393
22	정명	20.02.18	서대호	울산 북구 농공단지3길 25
23	조선선재온산공장	02.03.06	박종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 34-13
24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08.01.01	최희대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25	코레스	14.10.21	권대우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길 84-64
26	풍산	87.07.25	이준덕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호국로 2606-10
27	해솔	08.02.21	홍상호	울산광역시 남구 남도로 110
28	현대세신	21.07.26	배성일	울산 북구 모듈화산업로 252 현대세신노동조합
29	호상	21.03.27	김용민	울산 북구 모듈화산업로 152

11) 대구경북지역본부

- ① 설립연월일 : 1981년 1월 10일
- ②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32, 근로자종합복지관 4층
- ③ 전화번호 : (053)570-7071 / FAX 번호 : (053)570-7079
-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권태훈	영진	2022. 12. 20
수석부의장	이상윤	평화오일씨	2022. 12. 20
부의장	김성호	경창산업	2022. 12. 20
부의장	이상만	금융기계	2022. 12. 20
부의장	김세홍	삼익정공	2022. 12. 20
부의장	방상훈	대리정밀	2022. 12. 20
부의장	윤재욱	AST	2022. 12. 20
부의장	박병선	평화기공	2022. 12. 20
부의장	허도영	PHA	2022. 12. 20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부의장	김태수	THN	2022. 12. 20
부의장	박경훈	화신	2022. 12. 20
부의장	김영정	평화산업	2022. 12. 20
부의장 겸 사무국장	황성원	대철	2022. 12. 20
회계감사	최상수	체시스	2022. 12. 20
회계감사	남기덕	대호에이엘	2022. 12. 20

⑤ 대구·경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현황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	AMS	19.02.13	이지모	경북 경산시 자인면 금박로 95
2	AST	07.12.04	윤재욱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산업단지2길 182
3	KBWS	15.12.15	조재철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33길 10
4	KDS	03.01.27	서정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8로26길 35
5	PHA	88.09.20	허도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392
6	THN	89.02.27	김태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71길 43
7	건화	02.02.23	김태진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5길 33
8	경창산업	85.07.20	김성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35길 6
9	경창정공	88.09.09	김기표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33길 149
10	구영테크	07.01.17	정용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39길 119
11	금오EMS	18.06.14	이영식	대구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대로4길 46
12	금융기계	90.03.24	이상만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7길 57
13	남선	03.04.25	손성호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효령공단길 14-5
14	남선알미늄	68.08.25	사청웅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88
15	남양금속	88.11.09	장득학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53길 20
16	대동금속제1	18.10.17	김홍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02
17	대리정밀	88.07.14	방상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117길 2
18	대철	70.02.26	황성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36안길 5
19	대한소결금속	88.10.21	김효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87길 43
20	대호에이엘	02.10.02	남기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21	동원파이프	89.03.15	김광석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6길 28
22	모토닉	87.10.21	김상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30
23	산도브레이크	91.04.10	배재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438
24	산도테크	91.04.10	임대봉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1길 7
25	삼성제침	91.05.27	권오탁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256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26	삼익THK	87.08.18	박기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163
27	삼익정공	89.08.16	김세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남로32길 39
28	세명기업	75.06.19	조인수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 20
29	세왕금속	87.08.27	이세형	경북 영천시 망정1길 209
30	세원물산	87.08.28	손광희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길 53
31	세원이엔아이	01.10.26	예병진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길 53
32	세원정공	01.10.25	이정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4
33	신양정밀	20.09.01	김갑섭	대구 달서구 성서서로19길 7
34	신영	84.10.26	박남규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공단길 39
35	아세아텍	87.06.15	권영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96길 11
36	아진산업	81.07.21	김경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 171
37	에스엘	68.06.18	박철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77
38	에스제이에프	17.03.31	이상식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79
39	영진	85.11.15	권태훈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산단로 53
40	영천배기	20.07.16	신영광	경북 영천시 임고면 신선로 549
41	이수페타시스	89.04.20	이기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53길 36
42	일지테크	89.02.01	김민철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 50
43	전우정밀제1	17.01.24	김건엽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8로 24
44	조일알미늄	19.02.19	손종창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98
45	체시스	92.06.18	최상수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일연로 528
46	카팩발레오	73.11.30	이동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 113
47	케이앤씨	23.02.02	박상근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22 케이앤씨
48	타이코AMP	89.11.01	윤정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 68
49	평화CMB	11.04.13	박영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29
50	평화ENG	11.05.31	안병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11
51	평화기공	11.04.08	박병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95
52	평화발레오	89.01.28	김동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236
53	평화산업	75.04.10	김영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97
54	평화오일씰	78.10.14	이상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51길 42
55	피엔디티	14.05.01	윤광열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산단로 92
56	한국OSG	17.02.22	이동기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109길 38
57	한국뎃와일러	14.11.19	서영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15길 26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58	한국신동공업	92.06.10	조영혁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87길 16
59	화신	88.05.04	박경훈	경상북도 영천시 안하공단1길 14
60	화신정공	02.04.25	장춘덕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3길 96
61	화진	18.09.27	정대성	경북 영천시 금호읍 영천산단로 155
62	효림산업	99.04.09	김원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10로 171

12) 구미지역본부

- ① 설립연월일 : 1993년 11월 15일
- ②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185
- ③ 전화번호 : (054)470-1191 / FAX 번호 : (054)470-1192
-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임상택	매그나칩반도체	24.01.01
부의장	김상희	델코배터리	24.01.01
부의장	강철희	영풍석포제련소	24.01.01
사무국장	한철우	클레스트라하우저만	24.01.01
회계감사	서원교	한화시스템	24.01.01
회계감사	김영태	LGDdisplay	24.01.01

⑤ 구미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	KEC	11.07.01	이준한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41
2	LG이노텍	87.08.14	이종일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77
3	LIG넥스원	87.08.17	신현범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354-25
4	LS전선	67.05.12	변상구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228 LS전선구미공장
5	SK머티리얼즈	21.09.12	김현민	경북 영주시 가흥공단로 59-33
6	SK실트론	89.01.05	최무환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3로 132-11
7	경북지역제조	23.05.19	장만덕	경북 영주시 영봉로 83 근로자복지화관
8	노벨리스코리아	95.07.15	장만덕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공단로 23
9	델코배터리	87.08.19	김상희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13
10	매그나칩반도체	90.02.09	임상택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375
11	매그나칩반도체사무직	21.09.14	박광호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375 매그나칩반도체사무직노동조합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2	엘링크링거	14.10.01	복명진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10길 23-7
13	영풍석포제련소	77.01.31	강철희	경북 봉화군 석포면 승부길 9-3
14	오성전자	18.07.02	권유성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335-4
15	일성기계공업	82.09.03	손진명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7길 58-27
16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인더스트리얼	18.08.01	김동한	경북 구미시 3공단로 198-9
17	클레스트라하우저만	89.02.24	한철우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0
18	태평양금속	88.07.01	안종섭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92
19	효성TNS	10.08.05	정동민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179-15

13) 포항지역본부

① 설립연월일 : 1991년 11월 23일

②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6 근로자복지관 202호

③ 전화번호 : (054)283-3728 / FAX 번호 : (054)283-3729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김동일	현대종합금속	2024.01.01.
사무국장	남경훈	포스코플랜텍포항	2024.01.01.
회계감사	정춘식	흥화	2024.01.01.
회계감사	김삼규	동주산업	2024.01.01.

⑤ 포항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	그린산업	88.07.01	김평일	경북 포항시 남구 중섬로 85 2F
2	대호특수강(포항)	89.07.01	박규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서원재로 44
3	동일기업	88.07.04	이두룡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259 2층
4	동일산업방강사업부	17.09.04	윤성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11
5	동일산업합금철사업부	96.03.21	김종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112
6	동주산업	06.11.14	김삼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66번길 61
7	동화기업	89.03.24	서정성	경북 포항시 남구 중섬로 85-2 3층 동화기업노동조합
8	디에스	09.02.13	조영철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 115 대동산업(주)
9	디케이동신	00.12.28	이문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54
10	롤앤롤	19.09.25	박경덕	경북 포항시 남구 효성로 62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1	선화이엔지	09.01.21	최태욱	경북 포항시 남구 문예로 57 서강빌딩 4층
12	성원제강	00.04.30	정경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로 206
13	세아제강	74.03.11	김주병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136
14	세아특수강	89.03.21	이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40 세아특수강노동조합
15	세영기업	18.02.23	이재철	경북 포항시 북구 우미길 89 세영기업노동조합
16	아진카인텍	11.11.28	이영원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갠버불길 148-6
17	영남산업	22.09.08	김진군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로 362 영남산업노동조합
18	영신정공	89.04.21	김효식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모아오야길 156
19	유일	00.04.08	이수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62번길 4-1
20	장원	07.05.21	윤만상	경북 포항시 남구 문예로 57 서강빌딩 2층
21	제일테크노스	89.08.08	김성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로39번길 7
22	조선선재	88.12.10	조석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43
23	케이알티	22.11.25	장종문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로492번길 76
24	코스틸	88.04.24	정연중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로 35 코스틸노동조합
25	포스코	88.06.29	김성호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6213번길 15-15
26	포스코DX	21.10.01	이재열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로 68 노동조합사무실
27	포스코퓨처엠	88.06.29	황성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서원재로 7
28	포스코플랜텍포항	88.06.29	남경훈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83번길 61
29	포원	22.06.27	박헌수	경북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6 202호
30	포지트	19.03.19	최종민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 21 경림빌딩 2층
31	포콤	19.08.30	고현민	경북 포항시 남구 문예로100 3층
32	포항지역플랜트건설	08.09.17	이창언	경북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6
33	포항철강일반	20.06.11	정상준	경북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6 2층 덕업관
34	피에스씨	01.11.28	조성식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 35
35	한금	90.12.05	이성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산단로 240
36	현대성우캐스팅	89.06.10	정천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459
37	현대종합금속	87.08.19	김동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00
38	화남테크	22.08.31	진재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 182 대가빌딩 2층
39	화인텍(포항)	19.11.22	김두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9번길 6
40	흥화	87.08.25	정춘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209

14) 광주·전남지역본부

- ① 설립연월일 : 1980년 12월 30일
- ②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94-7, 임동근로자복지관 2층
- ③ 전화번호 : (062)381-8581 / FAX 번호 : (062)381-8672
-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정 관	대유에이텍	2023.01.31.
부의장	이주행	한국신광마이크로애크트로닉스	2023.01.31.
부의장	모수환	코비코	2023.01.31.
사무국장	김현철	서진산업	2023.01.31.
회계감사	박거영	세방산업	2023.01.31.
회계감사	양기만	광양로행복	2023.01.31.

⑤ 광주·전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	DSR제강	85.06.14	이윤재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산단1길 15
2	SNNC	17.10.25	이종임	전남 광양시 중마동 1390-5 2층
3	광양로행복	17.12.22	양기만	전남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118 4층
4	광양지역기계금속무창	18.10.15	임성근	전남 광양시 향만9로 128
5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	88.05.24	박옥경	전남 광양시 향만13로 27-8 2층
6	금속노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양사무소			전남 광양시 중마중앙로 1 3층
7	대우전자	83.03.22	김영도	광주 광산구 용아로 559
8	대유에이텍	00.12.14	정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길 40-12
9	동강홀딩스	16.08.11	김대용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길 40-16
10	두원기업민음	19.01.14	김재식	전남 광양시 아미2길 20
11	부국산업	88.11.01	김재호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2148-97
12	삼진기업가족	23.02.02	김진일	전남 광양시 중마중앙로 1 3층 삼진기업가족노동조합
13	서암기계	99.07.08	나점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27-15
14	성광기업	15.04.15	김대중	전남 광양시 오류로 62 수성빌딩 3층
15	세방산업	06.03.06	박거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36
16	세아M&S	09.10.12	박상복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188
17	스틸싸이클에스씨	18.11.06	차귀은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2로 23
18	아룽기공	87.08.11	윤철수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담순로 48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9	캠스	02.04.06	장기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30
20	코비코	67.10.13	모수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368-33
21	코아정밀	13.12.17	박장춘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47
22	포스코GYS테크	96.05.29	조인관	전남 광양시 삼봉산로 21 203호 포스코GYS테크노조
23	포스코엠텍	89.02.08	이현길	전라남도 광양시 희망길 12-14 제철협력회관 4F B동
24	포스코플랜텍	03.08.05	정정섭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4길 2
25	한국신광마이크로에лект로닉스	89.11.27	이주행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산단1길 32
26	한국알프스	89.05.16	신정훈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33
27	현대하이텍	20.01.10	정원재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47 현대하이텍노동조합
28	호원	20.01.07	최영근	광주 광산구 용아로 548 하남공단 내
29	호원그룹	21.03.10	강금묵	광주 광산구 용아로 548
30	화천기공	77.03.27	손성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123-17

15) 전북지역본부

① 설립연월일 : 1996년 4월 10일

②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26

③ 전화번호 : (063)210-5490 / FAX 번호 : (063)211-1556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염성곤	세아베스틸	2023.12. 11.
부의장	어진호	LS엠트론	2023.12. 11.
사무국장	김 훈	가온전선	2023.12. 11.
회계감사	한근배	두산전자	2023.12. 11.
회계감사	장주성	두산퓨얼셀	2023.12. 11.

⑤ 전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	LS엠트론	08.07.01	어진호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86
2	SK넥실리스	20.12.21	황동혁	전북 정읍시 북면 3산단2길 2
3	기광	20.08.16	안인천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66 기광노동조합
4	대유글로벌	99.11.01	김학승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4로 133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5	동양정공	01.02.23	조계홍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8로 66
6	두산퓨얼셀	19.04.05	장주성	전북 익산시 서동로 627
7	세아베스틸	53.04.28	염성곤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522 세아베스틸노동조합
8	세아제강군산지역	20.01.31	박재성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로 52
9	솔루스첨단소재	19.10.01	오정기	전북 익산시 서동로 627
10	일진제강민주	16.01.03	이민영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46 일진제강
11	캐스코	05.08.16	박정욱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3산단1길 24
12	크로다코리아	23.02.21	신호진	전북 익산시 석암로11길 11 크로다코리아노동조합

16) 강원지역본부

① 설립연월일 : 2003년 2월 20일

② 소재지 : -

③ 전화번호 : -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	-	-	-

⑤ 강원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번호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	속초지역	70.01.26	전용원	강원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
2	토다이수	93.07.14	윤정만	강원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36
3	유한신일정밀	22.03.09	여호철	강원 강릉시 강변로 582

나. 지부현황

번호	조직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1	LG전자서비스1지부	19.05.19	여인권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34 대지빌딩 3층
2	LG전자서비스2지부	19.05.27	김인엽	대전 서구 둔산남로 100 우성빌딩 5층
3	금속일반금속노련지부	19.11.04	박선자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4	금속일반태광산업지부	20.08.10	강호성	서울 중구 동호로 310
5	금속일반한국배터리산업연구조합지부	24.01.02	권하리	서울 서초구 바우뒤편37길 37
6	삼성화재 RC지부(수도권)	23.03.24	양정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76 12층 삼성화재노동조합
7	LGDisplay파주2지부	20.01.01	정진영	경기 파주시 월릉면 엘지로 245
8	LG전자평택지부	63.05.30	김기학	경기 평택시 진위면 엘지로 222 LG전자 평택디지털파크
9	가온전선전주지부	05.02.23	김훈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77
10	금속일반서진캠협력사평택지부	19.02.22	이주영	경기 평택시 청북읍 청북산단로 31
11	프라코아산지부	98.03.27	엄상우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30번길 55
12	동국제강당진지부	12.01.01	김성곤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1길 25
13	동국제강포항지부	90.10.17	하상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 195
14	금속일반원일사지부	20.11.24	이승현	경기 안산시 단원구 능길로 126 원일사지회
15	금속일반제이스코홀딩스지부	19.12.24	김대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60
16	서진산업경주지부	01.05.01	김진동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2산단로 90
17	서진산업광주지부	99.06.26	김현철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3번로 121
18	서진산업화성지부	91.07.10	안광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송장안로 1481
19	금속일반KBI에이스텍지부	21.11.29	이명환	충남 아산시 영인면 윤보선로 69 KBI에이스텍 노동조합
20	금속일반KBS진흥개발지부	22.06.01	이재행	
21	금속일반KG스틸S&D지부	23.03.03	김철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228
22	금속일반KG스틸협력사지부	22.02.21	권인규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150-24 금속일반노조 당진사무소
23	금속일반SB오토모티브지부	19.05.01	배용호	충남 아산시 영인면 고룡산로 275 KBI모다노동조합
24	금속일반TI오토모티브지부	22.01.20	이종식	충남 천안시 서북구 3공단4로 11 TI오토모티브 노동조합
25	금속일반서진캠협력사아산지부	19.05.15	김재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103
26	대한전선기기&시공지부	76.06.15	정지래	충남 당진시 고대면 보덕포로 542
27	동양철관충주지부	91.01.26	황동현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415

번호	조직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28	세명테크익산지부	17.12.04	김영남	전북 익산시 석암로7길 137
29	LS일렉트릭천안지부	87.07.27	김창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4길 56
30	두산전자김천지부	09.09.01	정갑성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1길 83-16
31	두산전자익산지부	87.08.20	한근배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627
32	현대모비스용인지부	09.03.01	김순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240번길 17-2
33	삼성화재 RC지부(지방)	23.03.24	문현호	부산 동구 중앙대로 184 부산수정지점
34	한국주철관포항지부	89.01.17	강종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신행로 86
35	LG전자창원1지부	63.05.05	김진성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170
36	LG전자창원2지부	88.01.22	김창옥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84
37	세방전자광주지부	89.12.16	조성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87
38	세플러코리아전주지부	89.03.20	백수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7
39	한일제관대전지부	06.08.17	전응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50
40	한일제관음성지부	87.08.17	안재근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하이텍산단로 84
41	KUM충주지부	17.11.27	손상기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2로 47 케이유엠(주)충주공장
42	금속일반NVH오버헤드시스템협력사 지부	23.01.30	서병기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안길 44
43	명화공업안산지부	97.02.28	박일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65
44	코레스전주지부	22.01.28	권보배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66
45	풍산동래지부	88.12.05	박동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230
46	풍산안강지부	87.07.25	안효진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호국로 2606-10
47	풍산울산지부	87.07.25	황명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94
48	풍산특금지부	87.08.16	전종태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산단로 274
49	에스엘대구지부	91.04.10	정의철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공단로 32
50	에스엘안산지부	88.03.24	김삼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35
51	에스엘천안지부	99.04.29	김기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250
52	LGDisplay구미지부	05.07.01	김영태	경북 구미시 3공단2로 235
53	LG이노텍광주지부	04.07.01	이규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26
54	LG이노텍구미지부	87.08.14	이종일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21
55	LG이노텍파주지부	22.05.01	김영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휴암로 570
56	LG이노텍평택지부	71.05.14	장대식	경기 평택시 진위면 진위2산단로 111
57	LG전자구미지부	02.02.02	유정종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68 LG퓨처파크1
58	금속일반에이스테크영주지부	20.10.01	권현도	경북 영주시 적서공단로 23

번호	조직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59	금속일반유품지부	23.05.06	윤현철	경북 상주시 발산로 135
60	한화시스템 구미지부	21.11.17	서원교	경북 구미시 1공단로 244 한화시스템노동조합
61	포스코광양지부	18.11.06	신재호	전남 광양시 백운로 1638-11 백운메디컬센터 401호
62	포스코퓨처엠광양지부	88.06.29	신용수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1로 48
63	한금양산지부	90.12.31	천홍열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89
64	전국삼성전자광주지부	19.11.16	허창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107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광주지부
65	호원오토평택지부	15.06.08	김기천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76
66	금속일반SK넥실리스협력사지부	19.09.27	김윤철	전북 정읍시 북면 3산단2길 2 KCFT협력사지부

다. 신규조직 현황

번호	지역본부	조직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1	서울	오티스서비스엑스퍼트	23.10.04	이현동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3번길 4
2	경기	발렉스서비스	23.07.28	윤영희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3	경기	볼보트럭코리아	00.11.08	김인식	경기 화성시 동탄기흥로 64-106 2층
4	경기	카이스	88.06.24	오세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294
5	충남세종	광진기계	23.06.08	이태후	충남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23-50
6	충북	LS이모빌리티솔루션	22.04.25	신병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95
7	충북	테스트테크	23.04.03	류인정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단지로 226
8	부산	동국씨엠	24.02.20	성경훈	부산 남구 신선로 102 동국씨엠부산공장
9	부산	신흥정기	23.09.27	차명훈	부산 사하구 다산로 241
10	부산	캐스텍코리아	23.05.25	김동국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4로 55
11	경남	태림페이퍼마산	17.09.12	이종관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서3길 62
12	대구경북	건화이엔지	23.07.12	안형록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 43
13	대구경북	세왕금속	87.08.27	이세형	경북 영천시 망정1길 209
14	대구경북	화진	18.09.27	정대성	경북 영천시 금호읍 영천산단로 155
15	구미	경북지역제조	23.05.19	장만덕	경북 영주시 영봉로 83 근로자복지화관
16	광주전남	삼진기업가족	23.02.02	김진일	전남 광양시 중마중앙로 1 3층
17	전북	크로다코리아	23.02.21	신호진	전북 익산시 석암로11길 11

라. 대표자변경 조직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대표자 변경일자
	신	구	
서울 KC코트렐 불보건설기계코리아 삼성생명	최진규 박준규 이학섭,이미정	최경배 문민수 김길수,임근섭	24.02.27 24.01.12 23.10.18
경기 ASE코리아 SK하이닉스이천 TDK한국 동희정공(아산) 삼화전자 이화다이하아몬드 전국삼성전자 테크젠	조진우 황용준 이동범 김경주 이영목 이준우 손우목 위응량	박용락 김해주 김동수 박노용 김진옥 한정호 이원일 이양주	23.11.06 23.12.29 24.02.20 23.11.17 24.01.02 24.03.04 23.09.25 23.08.28
인천 엘티메탈 동보	문상묵 정찬덕	안병섭 홍은성	23.09.20 23.12.08
충남세종 KB오토시스 YH오토 경신전선 금속일반KG스틸협력사지부 동원금속아산공장 삼신 서연오토비전 에스엠백셀 페더럴모굴 휴스틸	김미라 김태영 배형우 권인규 강춘호 류기현 강길원 이재진 조성준 남궁진성	강주호 정영규 박영진 김철 이재완 김학희 오제현 박인용 김길중 김영호	23.04.12 24.03.05 23.09.07 23.11.16 24.01.29 23.08.07 23.06.26 23.06.12 23.12.27 24.01.04
충북 에넥스 지애피 현대엘리베이터 존슨일렉트릭오퍼레이션스	조재봉 이은호 주인수 전병문	성준제 서진성 손만철 강현민	23.09.04 23.04.06 23.09.05 23.10.23
부산 고려용접봉(부산) 부산선박목의장	김휘중 장재정	조극식 박용욱	23.06.28 24.01.25
경남 LG전자창원2지부 대명공업 대흥R&T 삼한 세방전지 세아창원특수강 세플러코리아전주지부 유니크	김창욱 김종철 김윤하 신용술 류택환 심규현 백수진 김현진	하영규 김희식 김영석 윤삼원 윤병삼 최용훈 양희완 허영복	23.05.30 24.01.04 24.01.08 24.01.04 24.03.04 23.07.17 24.01.25 24.03.06

노동조합명	대표자		대표자 변경일자
	신	구	
경남 풍산홀딩스 한일제관	손진식 김윤근	감규상 최진석	23.09.14 24.01.19
울산경주 DIC GS에코메탈 KUM 동화산업 우수정기	이해수 이상은 손영일 김기선 오진수	박찬기 윤민규 장기현 차갑석 김상배	24.03.05 23.06.30 23.12.06 24.01.03 23.07.13
포항 동일기업 동일산업봉강사업부 성원제강 포스코광양지부	이두룡 윤성현 정경인 신재호	이은형 강준영 김문연 신동인	24.03.05 23.09.18 23.12.26 23.05.18
광주전남 서암기계 아룡기공 호원그룹	나점규 윤철수 강금목	김수복 정홍원 조동수	24.01.23 23.11.24 24.03.05
전북 SK넥실리스 기광 세아제강군산지역	황동혁 안인천 박재성	최영진 서문청 송기현	24.02.27 23.08.23 23.05.18
강원 토다이수	이종상	윤정만	24.02.29

마. 해산 및 이탈조직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탈퇴일자	이탈사유	조합원수
경기 코리아에프티열린광장 동화텍 이노프라 전기초자코리아 플러스이엔지	김주승 박종욱 제정현 박영호 권혁희	23.04.12 23.11.24 23.10.24 23.09.19 24.03.27	해산 정지 해산 해산 해산	40 2 17 103 28
인천 A.F.T 삼양감속기 코웨이전국	하정호 유일현 문홍주	24.02.03 24.01.10 23.09.19	해산 해산 정지	25 20 30
안산시흥 썬앤엘인테리어	최준수	24.03.27	해산	60
충북 테스트테크 현대모비스충주	류인정 원종민	23.10.26 23.09.19	해산 해산	200 300

노동조합명	대표자	탈퇴일자	이탈사유	조합원수
부산 SKF코리아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이원선 최종학	23.12.31 23.09.19	해산 정지	60 65
대구경북 건화이엔지 상신정공 에스엠텍	안형록 신달 김성진	23.10.28 23.05.26 23.05.26	해산 해산 해산	45 100 23
포항 PCM TCC한진 에스엠 씨앤알테크	나승엽 고경호 이신호 이명환	23.05.15 23.05.19 23.06.10 23.06.07	해산 해산 해산 해산	75 175 40 44
전북 대우전자부품	이중찬	23.10.26	정지	10
강원 한일전기	이상훈	23.12.31	해산	44

바. 연도별 조합원 증감 현황

(2024.3. 현재)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직체수	488	484	483	496	524	551	562	594	617	609
조합원수	127,096	128,905	133,044	135,279	148,275	140,588	133,802	138,161	140,523	141,551
조합원증감	-287	+1,809	+4,139	+2,235	+12,996	-7,687	-6,786	+4,359	+2,362	+1,028
조직체증감	+2	-4	-1	+13	+28	+27	+11	+32	+23	-8

사. 조직확대 우수본부상 수여

- 조직확대사업에서 빠른 대응과 조직적 지원이 가능한 조직본부의 역할은 중요하며 조직본부의 활동 성과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음
- 지난 1년간 노동3권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리쟁취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대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하여 힘쓴 지역본부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조직확대 우수본부상을 수여함

(1) 조직확대 우수본부상 평가기준

내용	점수
1. 신규가입	2점
2. 탈퇴 후 재가입	1점
3. 탈퇴	① 상급단체변경 또는 탈퇴 : -2점 ② 중간노조 : -1점 ③ 노조해산 : -1점
4. 각 지역본부 1년 평균 의무금 증가액	각 지역본부 1년 평균 의무금 증가액/300 (※1년 평균 300명 의무금 증가 : 2개 신규노조 조직과 같다고 상정)

(2) 연도별 조직확대 우수본부상 수상내역

연도	지역본부명	평가점	비 고
2016년	충북	25	
2017년	서울	32	
2018년	포항	11	
2019년	포항, 광주전남	11	
2020년	포항	19	
2021년	경기	24	
2022년	충남세종	12	
2023년	서울	6	

2. 조직, 분쟁 사업장 지도·지원 현황

가. 지역본부별

본부	노조명	지도·지원내용	비고
서울	위니아담채사무관리직노조	교섭, 투쟁, 법률	단체교섭, 투쟁, 탄원 지원
	삼성엔지니어링&U(엔유)	교섭	단체교섭 지원
	하이엠플루텍	투쟁	투쟁(선전) 지원
	후지필름BI	교섭	단체교섭 지원
	금속일반 태광산업지부	교섭, 투쟁	단체교섭, 투쟁 지원
	금속일반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연구조합지부	교섭	단체교섭 지원
	오티스엘리베이터사무직	투쟁	투쟁 지원
경기	ASE코리아	교육	교육지원
	삼영전자	교섭, 투쟁	단체교섭, 투쟁(쟁의) 지원
	발렉스서비스	교섭	단체교섭 지원
	오토리브	교섭	단체교섭 지원
	한화시스템	교섭, 투쟁	단체교섭, 투쟁 지원
	원광로지텍	교섭, 투쟁, 법률	단체교섭, 부해·부노, 투쟁 지원
	디투디	교섭	단체교섭 지원
	에스वाई	투쟁	투쟁 지원
	볼보트럭코리아	교섭	단체교섭 지원
	현대ITC	투쟁	투쟁 지원
	테크젠(구, WHI)	교육	교육 지원
	금속일반 서진캠협력사(평택)지부	법률	불파소송 지원
	금속일반 대한FA시스템지부	교섭	단체교섭 지원
인천	위니아전자	투쟁, 법률	투쟁, 탄원 지원
안산 시흥	금속일반 원일사지부	교섭	단체교섭 지원
	금속일반 제이스코홀딩스지부	교섭	단체교섭 지원
	남양넥스모	교육	교육 지원
	인지컨트롤스	교섭	단체교섭 지원
	썬엔엘	교육	교육 지원
	명화공업안산지부	교육	교육 지원

본부	노조명	지도·지원내용	비고
충남 세종	대륙제관	교육	교육 지원
	동해기계항공	교섭, 법률	단체교섭, 부당해고 지원
	코웨이	교육, 교섭	교육, 단체교섭 지원
	광진기계	교섭	단체교섭 지원
	경신전선	투쟁	투쟁 지원
	동일알미늄	교섭	단체교섭 지원
	금속일반 서진캠협력사(아산)지부	교섭, 법률	불파소송 지원
	금속일반 KBI모다지부	교섭	단체교섭 지원
	금속일반 SB오토모티브지부	교섭, 투쟁	단체교섭, 투쟁 지원
	금속일반 TIO오토모티브지부	교섭, 조직	단체교섭 지원
	금속일반 KG스틸협력사지부	교섭, 투쟁, 법률	단체교섭, 투쟁(쟁의) 지원
	금속일반 KBS진흥개발지부	교섭	단체교섭 지원
	금속일반 KG스틸S&D지부	조직	조직분할, 자회사 지원
대전	남선기공	교섭	단체교섭 지원
	로움코리아정의	법률	법률 지원
충북	인지컨트롤스옥천	교섭, 투쟁	단체교섭, 투쟁(쟁의) 지원
부산	프라이그파이스트	교섭	사후조정 지원
경남	한일제관	교섭	단체교섭 지원
	한국철강	교육, 투쟁	교육, 투쟁(쟁의) 지원
	GMB	교육	교육 지원
구미	금속일반 에이스테크지부	교섭, 법률	불법파견 소송, 교섭지원
	금속일반 울품지부	교섭, 조직	조직화 및 단체교섭 지원
	효성TNS	분쟁	분쟁지원
	한화시스템(구미)	투쟁	투쟁 지원
	영풍석포제련소	교섭	단체교섭 지원
	SK머티리얼즈	교섭	단체교섭 지원
	LG이노텍	투쟁	투쟁 지원
포항	포스코	교섭, 교육	단체교섭, 교육 지원
	현대중합금속	교육	교육 지원
	조선선재(포항)	교섭	단체교섭 지원

본부	노조명	지도·지원내용	비고
울산 경주	금속일반 NPF지부	조직, 교섭	조직화 및 단체교섭 지원
	조선선재(온산)	교섭	단체교섭 지원
	GS에코메탈	교육, 교섭, 투쟁	교육, 단체교섭, 투쟁(쟁의) 지원
	NVH사내협력사	교육, 투쟁	교육, 투쟁 지원
전북	LS엠트론	교육	교육 지원
	금속일반SK넥실리스협력사지부	교섭, 법률	단체교섭, 불파소송지원
	세아제강군산	교육	교육 지원
광주 전남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	교섭, 투쟁, 법률	단체교섭, 투쟁, 부당징계 지원
	부국산업	교육	교육 지원
	포스코광양지부	교육	교육 지원
	광양지역기계금속무창	교육	교육 지원
기타	금속일반 광명산업지부	교섭	단체교섭 지원
	금속일반 NPF지부	교섭, 투쟁	단체교섭 투쟁(쟁의) 지원
	금속일반 유니투스지부	법률	부당해고 지원

나. 주요투쟁노조

1) 삼영전자

① 노조 개요

- 명칭 : 삼영전자노동조합
- 대표자명 : 김경민
- 조합원 수 : 200여 명
- 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② 주요 쟁점

- 2024년 임단협, 일방중재 폐지, 단협 실효, 노조탄압대응

③ 진행 상황

- 2024년 임단협 중 사측의 노조활동시간 등 노조권리 저하요구, 임금 동결 대응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여휴효 도과에 따라 노조사무실 폐쇄, 근로시간면제자 현장복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과 쟁의행위찬반투표 가결로 쟁의권 확보 후 투쟁 중

- 삼영자본의 노동조합 탄압 분쇄 및 2024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금속노련, 금속 경기지역본부, 노총 경기본부, 노총 성남지역지부 참가) 구성

④ 현 상황

- 준법투쟁(투쟁조끼 착용, 초과근로거부) 및 파업출정식(부분파업) 진행
- 교섭재개 요구 후 사측 입장 변화 여부에 따라 조합원 개별 순환파업 준비 중

2) 금속일반 KG스틸협력사지부

① 노조 개요

- 명칭 : 금속일반노조 KG스틸협력사지부
- 대표자명 : 권인규
- 조합원 수 : 100여 명
- 지역본부 : 충남세종지역본부

② 주요 쟁점

- 직고용쟁취(불법파견소송), 동일노동동일임금쟁취

③ 진행 상황

- 불법파견 소송 제기 후 2023년 임협 중 지부 조합원의 자회사 회유 저지와 원청사와 동일노동동일 임금 지급 요구 파업 중 원청사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하청사의 근로계약종료(해고) 통보
- 전원 해고 후 소송 승리를 위해 생계투쟁 돌입

④ 현 상황

- 금속노련, 금속충남지역본부, 금속일반노조와 당진지역 전략조직화 준비 중
- 생계투쟁 위해 재정사업 준비 중

3) 인지컨트롤스옥천

① 노조 개요

- 명칭 : 인지컨트롤스옥천노동조합
- 대표자명 : 이상현
- 조합원 수 : 80여 명
-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② 주요 쟁점

- 2022년 임금,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주간 연속2교대

③ 진행 상황

-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간연속 2교대제 요구
- 상시 출근투쟁 및 천막농성
- 쟁의권 확보 및 단체행동
- 인지컨트롤스 및 인지컨트롤스옥천 주간연속2교대제 관련 교섭권 위임
- 위임교섭을 통해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및 근로조건 합의

4) GS에코메탈

① 노조 개요

- 명칭 : GS에코메탈노동조합
- 대표자명 : 이상은
- 조합원수 : 50명
- 지역본부 : 울산경주지역본부

② 주요 쟁점

- 신규조직 설립 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

③ 진행 상황

- 2023.04.06. ~ 2023.09.07. 13회차 단체교섭 진행, 결렬
- 2023.10.13.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
- 2023.10.17. ~ 2024.01.12. 전면파업
- 2023.01.11. 잠정합의 54.7% 가결

④ 현 상황

- 2024.02.26. 단체협약 신규 체결

5)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① 노조 개요

- 명칭 :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
- 대표자명 : 김석원
- 조합원 수 : 100여 명
-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② 주요 쟁점

- 성암산업 사업반납, 해고, 국회앞 농성투쟁(2020년)
- 성암산업에서 포운으로 고용승계되는 과정에서 약속된 노사합의 불이행
- 불성실 단체교섭, 노조활동 부정, 임금동결, 단체교섭 장기화

③ 진행 상황

- 465일 천막농성투쟁, 금속노련 투쟁결합
- 김만재 위원장 연행,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
- 사내하청 노동3권보장투쟁으로 확대
- 2023년 8월 임금협약 체결

6) 금속일반 NPF지부

① 노조 개요

- 명칭 : 금속일반노동조합 NPF지부
- 대표자명 : 서병기
- 조합원 수 : 30여 명

② 주요 쟁점

- 신규조직, 임금인상을 통한 저임금 구조개선 및 단체협약 체결

③ 진행 상황

- 교섭창구단일화 및 쟁의조정 지원
- NPF 사측 원청(NVH코리아)에 사업권 반납
-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요구와 임단협교섭 병행
- 태업, 전면파업을 통한 단체행동

-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2023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

3. 핵심사업

가. 윤석열 노동개악·탄압대응

1) 계획

(2023년 대의원대회 자료집 참조)

2) 집행

○ 5.1 노동자대회

- 대회명 : 멈춰라 노동개악! 나서라 노동자여! 노동개악 저지! 민생파탄 규탄!! 2023 노동절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1일(월) 14:00 (사전대회 13:30), 여의대로
- 금속노련 배정인원(참가인원) : 6,500명(5,000여 명)

○ 1차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윤퇴 1차 총궐기로 대체)

- 대회명 : 7.15 윤석열 정권퇴진 1차 범국민대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7월 15일(토) 16:00(사전대회 15:30), 광화문
- 금속노련 목표인원(참가인원) : 1,000명(300여 명)

○ 8.15 전후 범국민대회

- 대회명 : 8.12 윤석열 정권퇴진 2차 범국민대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12일(토) 15:30, 광화문
- 금속노련 목표인원(참가인원) : 1,000명(500여 명)

○ 11.13 전후 노동자대회(2개 대회 참가)

- 대회명 : 윤석열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노동·민생입법 쟁취! 11.11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1월 11일(토) 13:00, 여의대로
- 금속노련 배정인원(참가인원) : 13,500명(5,000여 명)
- 대회명 :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1월 11일(토) 15:30, 서대문

- 금속노련 목표인원(참가인원) : 200명(100여 명)

○ 2차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

- 윤정부 노동개혁 강행 시, 진행키로 한 사업으로 개혁 시도 없어 보류

○ 김만재 위원장, 김준영처장 석방투쟁

- 2023.05.29. : 김준영 사무처장 고공농성 돌입
- 2023.05.30. : 김만재 위원장 강제, 폭력연행
- 2023.05.31. : 광양경찰서 항의방문, 한국노총 기자회견, 광양포스코 앞 규탄 집회
- 2023.06.01. :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 김만재 위원장 마중투쟁, 순천경찰서 앞 대기투쟁, 김만재 위원장 석방
- 2023.06.03. : 서울 경찰청 앞 노동자 폭력진압 경찰규탄 한국노총 기자회견, 순천지원 앞 기자회견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영장기각 탄원서 제출(2만 3천여 명), 순천병원 대기투쟁
- 2023.06.07. : 광양포스코 앞 한국노총 기금 투쟁 결의대회
- 2023.06.08. : 용산 대통령실 앞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선언 한국노총 기자회견
- 2023.06.12. : 김준영 처장 석방 탄원서 제출(2만 5천 명, 야당·민주노총·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포함)
- 2023/06/19. ~ 2023/06/26. : 윤석열 심판, 윤희근 파면, 사내하청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 전국 각 거점 1인 시위 및 현수막 게시(노련, 지역본부)
- 2023.06.20. : 용산 대통령실 앞 윤석열 심판, 윤희근 파면, 사내하청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 기자회견
- 2023.06.27. : 서울시청 앞 윤석열 심판, 최저임금 인상 한국노총 간부대회(용산까지 행진)
- 2023.07.19. :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을 위한 금속노련 천막 농성장 돌입
- 2023.07.28. : 김만재 위원장 인더스트리울 중앙집행위원회 석방촉구 연설 및 결의문 채택
- 2023.09.04. ~ 2023.09. : 김준영 처장 석방 10만 탄원 서명 운동
- 2023.11.03. : 김준영 처장 보석 석방
- 2023.11.07. :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을 위한 금속노련 천막 농성장 해산

나. 간부역량강화

1) 노동교실 계획

○ 배경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중앙단위(한국노총/제조연대/금속노련 등)에서 실시하는 집체교육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지역의 요청에 따라 2023년 찾아가는 지역노동교실 사업을 기획

○ 목적

- 금속노련과 단위노동조합의 결합력 강화
- 광양지역에 소재한 단위노동조합 간부의 역량 강화 및 노조 활동 실천에 대한 고민(생각거리) 제공

○ 명칭 및 주관

- 금속노련 광양지역노동교실
- 금속노련 조직강화본부 및 광양지역 단위노동조합

○ 대상

- 광양지역 내 소재한 단위노동조합 및 지부 간부 및 관심 있는 조합원

○ 내용 및 방법

- 2/3주 간격 총 8회차 교육 실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 경우 영상 시청
- 참석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강 실시)

2) 집행

일자	시간	내용	강사
2023.08.23.(수)	18:00	제1강 노동조합의 성격과 역할(신입OT)	전종덕
2023.09.06.(수)	18:00	제2강 단체교섭과 단체협약1	전종덕
2023.09.20.(수)	18:00	제3강 노동조합 간부의 역할과 자세	곽상욱
2023.10.18.(수)	18:00	제4강 노동조합의 탄생과 운영	노윤철
2023.11.01.(수)	18:00	제5강 단체교섭과 단체협약2	전종덕
2023.11.15.(수)	18:00	제6강 노동조합의 경영분석	노윤철
2023.11.29.(수)	18:00	제7강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전략과 전술	전종덕
2023.12.06.(수)	18:00	제8강 노동자의 철학 (졸업 워크숍)	지영철

다. 조직역량강화

1) 신임대표자 임원교육

(1) 계획

○ 교육취지

- 가맹노조 신임집행부(대표자, 임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노동법, 단체교섭 및 쟁의 행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키 위한.
- 가맹노조 신임집행부와 금속노련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조직현안들을 공유하기 위한. 금속노련의 투쟁을 기록하고 정리하기 위한.

○ 교육개요

- 일시 : 2023년 하반기, 1박 2일 숙박교육
- 장소 : 대전, 충청권
- 대상 : 단위노조 신임 대표자 및 임원
- 참가비 : 1인당 3만 5천원 (교육 당일 수납)

○ 교육일정

일자 시간	1일차	2일차
08:00		조식
09:00		집단적 노사관계 법률
10:00		
11:00		종강식
12:00		단위사업장으로
13:00	접수 및 개강식	
14:00	노조 간부의 자세와 역할, 노조운영	
15:00		
16:00	단체교섭 쟁의행위 전략전속	
17:00		
18:00	금속노련 위원장(또는 임원) 간담회	
19:30 ~	저녁식사(단결의 밤)	

(2) 집행

○ 교육명 : 2023년 신입대표자 및 임원 교육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1월 22일(수) ~ 23일(목), 소노문 단양

○ 참가 조직 및 인원 : 27개 조직, 63명

- 대동모벨, KBI메탈, 고려특수선재, ASE코리아, KG스틸인천, 삼성생명, 한라스텍폴, MEMC, 동희정공아산, 대성셀텍, 동일산업봉강, 코스틸, 노벨리스코리아, 풍산노조, SK머트리얼즈, 태평양금속, 가온전선(전주), 케이유엠(충주), PN풍년, 진영, 하나로넷, WHI, 금속일반올품지부, 금속일반KBS, 진흥개발지부, NVH사내협력사, 신영, LS메탈

○ 교육내용

- 제1강 간부의 자세와 역할, 노조 운영
제2강 단체교섭 쟁의행위 전략전술
제3강 집단적 노사관계 법률

2) 조직강화팀

(1) 계획

○ 사업개요

- 금속노련은 20만 조직화의 일환으로 2021년 “전략적 타겟”, “미조직 신규” 투트랙 조직사업의 성과를 계승해 2022년 ‘조직확대와 조직강화의 통일적 실현’을 실현하기 위해 대의원대회 결의로 “조직강화팀”을 설치함.

- 조직강화본부는 2022년 설치된 “조직강화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본부의 조직확대(신규조직, 단체교섭 수임 등), 조직강화(교육, 선전, 투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2023년 내 20만 조직화 달성을 이루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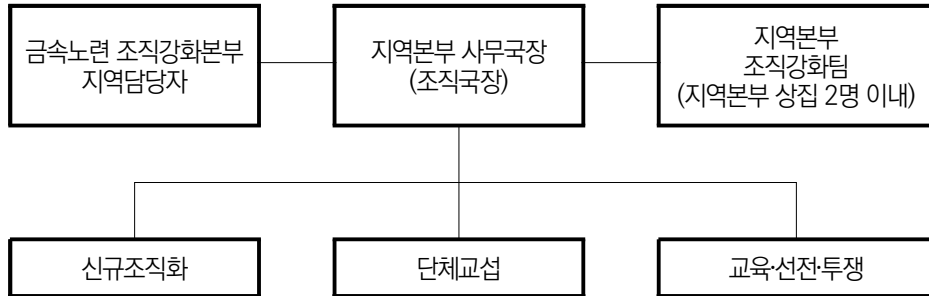
○ 조직구성

- 금속노련 조직강화팀(조직담당자)

구분	직책	성명	상근여부	소속노조	담당지역
금속노련	조직강화본부장	전종덕	상근	금속일반노조	-
	조직실장	노윤철	상근	금속일반노조	서울, 경기, 인천, 안산시흥
	조직국장	곽상욱	상근	금속일반노조	부산, 울산경주, 경남
	조직부장	최재원	상근	금속일반노조	-
	노사대책부장	지영철	상근	금속일반노조	대전, 충남, 충북
	조직부장	임태빈	상근	현대ITC노조	광주전남, 전북

구분	직책	성명	상근여부	소속노조	담당지역
	조직차장	이의선	상근	금속일반노조	대구경북, 구미, 포항, 강원
	조직2국장	하두호	비상근	태광후지킨노조	-

- 금속노련 - 지역본부 조직강화팀 구성



○ 사업

- 지역본부 신규조직화 사업, 단체교섭, 교육·선전·투쟁 시, 금속노련 조직강화 본부 지역담당자와 지역본부 사무국장, 지역본부 조직강화팀, 그리고 해당 조직이 함께 사업을 논의, 계획, 집행함.
- 이를 위해 조직강화본부는 조직강화팀은 신규조직실무, 단체교섭실무, 교육·선전·투쟁(쟁의행위) 실무 역량강화를 지원함.
- 조직강화팀 실무역량강화 교육(안)
 - 신규조직 실무 : 노조설립(가입)
 - 노동조합 교육 실무 : 노동법(근기법, 노조법), 조직운영, 진정·구제신청서 등 작성법
 - 단체교섭·쟁의행위 실무 : 단체교섭요구부터 쟁의행위까지

(2) 집행

- 행사명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조직강화팀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12일(화)~13일(수) 1박 2일, 천안 대명리조트
- 일정 및 진행 프로그램

시간	일자	12월 12일(화) (1일차)	12월 13일(수) (2일차)
08:00			조식
09:00			[만남] 광양투쟁이야기
10:00			
11:00			
12:00			단위사업장으로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저녁식사	
19:00 ~		단결의 밤	

○ 참가자 : 25명

- 서울2, 경기3, 인천2, 대전3, 충남세종2, 충북4, 부산1, 포항4, 광주1, 전북3

○ 지역별 모듬 구성

번호	지역본부	이름	소속/직책	모듬명
1	서울	전 상	지역본부 사무국장/K-MEC위원장	단결7명 노윤철
2		금동욱	한국후지필름 위원장	
3	경기	이용식	지역본부 사무국장/도루코 위원장	
4		강철선	일진전기전선사업부 위원장	
5		서동진	니콘프레시전코리아노조 위원장	
6	인천	김종남	한일튜브 위원장	
7		최희명	서울엔지니어링 위원장	
8	대전	정상용	지역본부 사무국장/진합 위원장	연대9명 지영철
9		진현주	알루코 위원장	
10		전응수	한일제강 위원장	
11	충남세종	최용호	지역본부 사무국장/개논코리아 위원장	
12		김성오	귀뚜라미범양냉 위원장	

번호	지역본부	이름	소속/직책	모듬명
13	충북	반영진	지역본부 사무국장/극동전선 위원장	
14		이상현	인지컨트롤스 위원장	
15		한훈희	HL그린파워 위원장	
16		박홍일	로알테크 위원장	
17	부산	박창혁	지역본부 사무국장/대창단조 위원장	투쟁9명 전종덕
18	포항	남경훈	지역본부 사무국장/포스코플랜텍 위원장	
19		정춘식	흥화 위원장	
20		최태욱	선화이엔지 위원장	
21		정연중	코스틸 위원장	
22	광주전남	박옥경	광양지역기계금속수산업 위원장	
23	전북	장주성	두산퓨얼셀 위원장	
24		박재성	세아제강협력사 위원장	
25		김훈	지역본부 사무국장/가온전선전주지부장	

○ 모듬별 토론 주제

- 주제 1) 금속노련-지역본부-단위노조 사업 공유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제 2) 신규조직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2-1) 신규조직화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2-2) 전략조직화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제 3) 조직 강화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3-1) 신규조직 지원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3-2) 분쟁조직 지원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 결과

① 투쟁 모듬(포항, 전북, 광주전남, 부산)

3-1 신규조직 지원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 신규 및 초선 위원장 멘토제도 도입
- 신규 및 초선 위원장을 대상으로 지역본부 내 경험있는 위원장을 조직 멘토로 지정함.
- 지역본부 내에 신규 및 초선 위원장이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말 걸 수 있는 대표자를 멘토로 지정해, 지역 활동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지역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 신규 및 초선 조직 정기 방문
- 금속노련과 지역본부에서 신규 및 초선 조직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함.

- 찾아가는 활동으로, 신규 및 초선 조직에 방문해 고충을 듣고 해소방안을 공동 모색함으로써 빠른 조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 조직 대표자 인식 전환

- “나 때는 말이야” 등 지역본부 내 상존하는 낡은 문화 개선
- 기존 대표자의 인식 개선을 통해 신규 및 초선 조직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도모함.

- ▶ 신규조직 지원 매뉴얼 제작 배포

- 신규 및 초선 조직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신규조직 지원 매뉴얼” 제작 배포
- 지역본부에서 쉽고 편리하며 신속하게 신규 및 초선 조직을 지원하기 위함.

- ▶ 복수노조 사업장에 특화된 지원 방법 모색

- 신규조직 지원 매뉴얼에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함.
- 복수노조 조직의 고충과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조직 안정 및 확대를 도모함.

3-2. 분쟁조직 지원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 금속노련, 공중전 전개

- 금속노련에서 분쟁조직에 대한 언론 보도 및 대정부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함.
- 지역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 ▶ 지역본부, 지역 지원 활성화(재정포함)

- 지역본부에서 분쟁조직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
- 지역조직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분쟁조직의 투쟁력을 강화하고 금속노련과의 거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 ▶ 분쟁조직 법률지원

- 중앙 및 지역 내 분쟁조직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함.
- 쉽고 편안한 법률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정확한 조직진단과 효과적인 투쟁 계획을 수립함.

- ▶ 분쟁조직 지원 매뉴얼 제작 배포

- 분쟁 조직 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분쟁조직 지원 매뉴얼” 제작 배포
- 지역본부에서 쉽고 편리하며 신속하게 분쟁조직을 지원하기 위함. 지역 특성에 맞는 분쟁조직 지원 방안을 모색함.

② 연대 모듬(충남세종, 충북, 대전)

1) 금속노련-지역본부-단위노조 사업 공유 어떻게 할 것인가?

- ▶ 충청권 조직강화팀 분기별 정기회의
- 주1회 금속노련 권역별 담당자와 지역본부 사무국장(조직강화팀 지역본부 팀장) 채널유지
-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권역별 조직강화팀 활동 계획수립, 조직집행, 평가 및 대책 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 ▶ 가맹단위 우선정리
- 지역본부의 신규조직사업 시 다른 업종 단위에 대한 가맹여부와 관련 상급단체의 우선 판단을 요청한 사항임.

2-1) 신규조직화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 조직화 매뉴얼 제작
- 신규 및 초선 조직 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신규조직 지원 매뉴얼” 제작 배포
- 지역본부에서 쉽고 편리하며 신속하게 신규 및 초선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2-2) 전략조직화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 연관 동일사업장 조직화
- 원하청 관계에 있는 연관 사업장을 우선 전략조직화 대상으로 선정
- 기존에 금속노련 소속 노조와의 협력 속에서 효율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 ▶ 산업전환에 따른 사업장 공략
- 산업전환의 흐름에 따라 조직 규모가 늘어나는 사업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전략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조직 공략하기 위한.

3-1) 신규조직 지원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 권역별 연대활동에 대한 의장단의 지원
- 동일 지역본부 소속의 사업장보다 타 권역 소속 사업장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경우도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본부의 틀을 뛰어넘은 권역별 연대를 활성화를 위한.
- 권역별 연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본부 의장단의 취지 관련 사전 공유와 합의가 필요함.
- ▶ 노하우 전수 및 공유 프로그램
- 기존 대표자의 풍부한 노하우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전수하거나 공유하기 위한.
- 기존의 부정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구두 전수를 지양하고 긍정적이며 목적의식적인 경험전수를 통한 신규조직의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3-2) 분쟁조직 지원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 조직강화팀 활동 예산지원
- 조직강화팀의 분쟁조직 지원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의 필요성을 공유함.
- 적절한 예산 반영을 통해 조직강화팀의 활발한 실적을 제고

③ 단결 모듬(서울, 경기, 인천)

1) 금속노련-지역본부-단위노조 사업 공유 어떻게 할 것인가?

- ▶ 주 단위 소통채널 유지 활용
- 월 단위 소통채널 활용방안 나왔으나, 분쟁조직 상황에 따라서는 월 단위 소통으로는 대응 불가하므로, 적어도 2주 단위 소통채널 유지키로 함.
- 노련 조직간부가 지역본부 대표자 카톡방에 참여할 필요 있음(적극 고려).

2-1) 신규조직화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 주요 거점 정기선전
- 금속경남 등에서 시행했던 주요 거점 정기 선전전 진행 필요
- 선전전에 필요한 현수막 등 비용지원 노련에 요구

2-2) 전략조직화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 대상 사업장 발굴
- 공단 사업장 등 대상 사업장 발굴 필요(지역본부에서 선정하면 노련-지역본부 토의 결정)

3-1) 신규조직 지원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 연대방문
- 신규조직에 정기 또는 사안별로 노련간부와 지역본부 단위노조 대표자가 방문해 연대 힘을 과시하고 필요한 사안들을 지원

3-2) 분쟁조직 지원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 인적물적 지원
- 노련간부-지역본부 단위 대표자-분쟁조직 대표자(또는 간부)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하여 지원하되, 지역본부에는 담당할 수 있는 단위 대표자를 여러명 배치해 여건 되는 대표자가 팀원을 맡음.
- 분쟁해결에 도움 되는 노하우, 인적동원, 장비, 물품, 지원금 등을 제공

라. 연대선전

1) 금속나바시

(1) 계획

○ 의의

- 조합원 교육은 노동조합의 핵심사업이지만, 교대제가 주를 이루는 금속사업장의 특성으로 조합원들의 한 장소에 모아 강사를 초청해 진행하기가 어려움. 접근성이 좋은 플랫폼을 이용해 상시적인 조합원 교육이 될 수 있음.

(2) 집행

○ 총 12편 제작(2023년 7편 제작)

- 6화(2023.04.21.): 우리의 노동력, 헐 값에 팔지 맙시다!
- 7화(2023.07.14.):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 권리와 회사의 이윤추구
- 8화(2023.08.07.): 노동조합은 자주적, 대중적, 민주적 조직이다!
- 9화(2023.11.09.): 노동조합의 특성
- 10화(2024.01.31.): 단체교섭이란?
- 11화, 12화 (2024.02.01.): 단체협약이란(1)?, 단체협약이란(2)?

○ 향후계획

- 2주에 1편 업로드를 목표로 조합원 교육영상 업로드
- 음성설명에 맞는 PPT자료 및 사진자료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
-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내용을 우선순위로 제작

2) 금속공장

(1) 계획

○ 의의

-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찾아가 투쟁의 이유와 목적을 소개하고 대내외에 알리기 위함.
- 금속노련 투쟁소식을 알리기 위한 매체 및 투쟁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아카이브의 역할

(2) 집행

○ 총 20편 제작(2023년 8편 제작)

- Ep13(2023.05.03.) : 6개월 임금체불. 박영우가 책임져라! 위니아전자사무직노조를 만났습니다.
- Ep14(2023.06.22.) : 외주화를 막아내고 노조를 시작하는 올품지부를 만났습니다.
- Ep15(2023.08.02.) : 심야노동 철폐!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 인지컨트롤스옥천노조를 만났습니다!
- Ep16(2023.09.06.) : 동일처우 약속! 즉시 이행하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를 만났습니다!
- Ep17(2023.10.25.) : 불법파견 철폐! 금속일반노조 KG스틸협력사지부를 만났습니다!
- Ep18(2023.11.20.) : 사측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GS에코메탈노조를 만났습니다!
- EP19(2024.01.24.) : 단협해지 통보, 단협개약 시도에 맞서 투쟁하는 조선선재온산공장노조를 만났습니다.
- EP20(2024.01.24.) : 일방중재조항폐지를 위해 단협실효를 무릅쓰고 투쟁하는 삼영전자노조를 만났습니다.

○ 향후계획

- 2주에 1편 업로드를 목표로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위한 연대활동 및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노동조합을 찾아가 방법을 공유할 예정
- 금속노련 조합원들의 시청률과 참여도를 높여 소속감 및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각자료를 이용해 영상의 내용을 정확하고 압축적으로 전달하려 함.

06 국제 활동

1. 국제회의

- 가. 인더스트리올 글로벌 다국적 기업 정책위원회 회의
- 나. 인더스트리올 정보통신 전기전자운영위원회 회의
- 다. 인더스트리올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라. 인더스트리올 아시아태평양지역 집행위원회 회의,
정책회의

2. 국제교류 활동

- 가. 인더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 특별 서신

평가 및 개선방향

2023년부터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되고 국제교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터스트리올 국제회의의 또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기 시작했다. 1년 순연된 세계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2023년 금속노련은 국제제조노동자들의 열렬한 연대를 실감했다. 광양사태 이후 김만재 위원장은 6월 열린 인터스트리올 중앙집행위원회를 찾아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특별결의문 채택을 요청했다. 인터스트리올은 결의문 채택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와 포스코에 규탄 서신을 보내주기도 했다. 11월 오랜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집행위원회에는 김만재 위원장이 김준영 사무처장의 현재 상황과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참여 등을 전했다.

한편 정보통신전기전자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삼성전자의 노조탄압을 고발하기도 했으며, 위원회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은 자신들의 국가의 삼성전자 지사장들에게 규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에게 국제적인 연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오면 우리도 다른 국가와 조직들을 위해 꾸준히 연대의 손길을 보내야 한다는 필요성과 책임감이 도드라진다. 앞으로도 국제적인 연대의 뜻을 모으는 데 금속노련이 앞장서며 크고 작은 활동에 지속해서 연대해야 한다.

화상회의를 통한 세미나나 회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세계 곳곳의 국제노조 운동 활동가들과 교류 기회들이 많았지만, 시차 또는 다른 일정과 겹치는 등으로 인해 지속해서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국제담당자 역량 향상 및 국제회의 참가 여건 등의 개선을 통해 세계 국제노동활동 속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국제회의

가. 인터스트리올 글로벌 다국적 기업 정책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 28일(금)
- 장소 : 프랑스노동조합총연맹 금속본부(프랑스 파리, CGT Metallurgie Headquarters)

(2) 참석자

- 금속노련 박용락 상임부위원장, 이의선 조직차장, 이효원 홍보차장

(3) 회의프로그램

○ 새로운 위원회 설치 배경과 구조

- 1) 새로운 위원회 설치 개요 : 다국적기업에 대항할 때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2)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기대사항 제안으로 새로운 위원회 설립
- 3) 모든 소속 회원조합의 참여(자원 문제)
- 4) 운영위원회의 역할
- 5) 이용 가능한 자원

○ 위원회의 전략적 초점과 업무

- 1) 새로운 위원회가 다룰 주요 주제/문제
- 2) 위원회의 주요 초점은 노동조합의 권력을 쌓아 글로벌 자본에 대항하는 것
- 3) 과거에서 얻은 교훈들

○ 전략적 조직 캠페인으로 세계적 자본에 대항하기 위한 노동조합 권력 구축

- 1) 조직 캠페인의 전략적 접근 방법과 단계
- 2) 회사 내에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할 때의 주요 요소
- 3) 성공여부 산정 - 노동조합의 힘
- 4) 도전과 함정에 대한 인식 유지

○ 이전의 다국적기업 사례 분석

- 1) 이미 수행된 캠페인의 장단점
- 2) 성공과 도전요소 식별

3) 주요 결과 분석 - 긍정적/부정적

4) 사례 연구

- (1) 리오 틴토(광산 및 자원기업): TBC, 미국 USW, 미국
- (2) 방글라데시 어코드
- (3) 폭스바겐
- (4) GFAs(Global Framework Agreement)/SAFRAN(프랑스 항공우주 및 군수산업 기업)
- (5) 기타 - 전체 토론

○ 다른 연맹들이 다국적 기업에 전략적으로 도전하는 방식들

- 1) 다국적 기업 캠페인에 대한 발표
- 2) 참석자들의 토론을 통한 논의

○ 전략적 캠페인 - 다국적 기업에 대한 액션플랜(사업계획) 개발

- 1) 다른 주체들의 역할 이해(사무국, 지역사무소, 본국 및 현지 연맹과 노조, 기타)
- 2) 집중타겟 선정 및 선정 기준 : 개별 기업, 산업, 국가 또는 지리적 지역
- 3) 캠페인 조직을 위한 가능한 대상 산업 - 참석자들의 토론을 통한 논의

○ 다음 단계

- 1)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중기 회의(집행위원회)
 - (1) 운영위원회 회의 조직 가능성
 - (2) 2일차 4개 그룹에게 권고 사항 제공(특히 제2그룹 "조직을 통한 조합 파워 구축" 및 제3그룹 "기업 및 브랜드에 대한 전략과 행동"에)
- 2) 제시할 컨셉 페이퍼 또는 전략 액션플랜(사업계획) 준비
- 3) 참석자들의 견해 및 피드백

(4) 회의결과

○ 회의결과 및 제안

- 명칭변경 : 위원회 명칭을 글로벌다국적위원회(Global Multinational Committee)로 변경
- 초점 : 위원회 활동은 인터스트리올 각 부문의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캠페인 개발, 시작, 감독을 초점으로 함
- 우선순위 제안 : 풍력/태양광 발전, 중요 광업 및 기초 금속, 원자재 등
- 운영위원회 구성(아래 별도 기술)
- 공동의장 선출 : 조나단 헤이워드(유나이티드 워커스 영국), 마리아 솔레다드 칼레(아르헨티나 금속 노조, UOM)(공동의장은 동시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됨)

- 인터스트리올 유럽 게스트 참가자는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조치 및 활동 제 공에 있어 신중한 조정을 보장함.
- 다음 단계 : 이 회의결과와 제안된 우선순위는 인터스트리올 중앙집행위원회 의제에 포함

○ 운영위원회 구성

- 총회 준비위원회 합의에 따른 형식
- 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제안됨.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각 부위원장이 지역 회 원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배분에 따라 지역 대표를 지명함으로써 결정됨.
(유럽 4, 아시아 태평양 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2, 북미 2, 중동 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
- 운영위원회 참가자 지명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 1)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간과 의지가 있는 동료
 - 2) 위원회 업무에 대한 책임/지식이 있는 동료
 - 3)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동료
 - 4) 성별 균형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지명되는 것도 인정됨.
- 운영위원회 임무
 - 1) 위원회 구성
 - 2) 적절한 재정 자원 동원 - 보조금 활용
 - 3) 적절한 인적자원 구성

나. 인터스트리올 정보통신 전기전자운영위원회 회의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 10일(수)
- 장소 : 베트남 하노이

(2) 참석자

- 금속노련 지영철 노사대책부장
- 전국삼성전자노조 손우목 위원장, 이현국 부위원장

(3) 회의내용

- ICT 전기 및 분야별 글로벌 동향 및 부문별 활동 전자 산업
 - 업계 동향 및 노동문제

- 인터스트리올의 부문 활동 및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
- 불안정한 작업에 반대하여 노조의 힘을 키우고 투쟁하기 위한 노조 조직 전략
 - 비육체적, 여성, 청년 및 이주민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논의
 - ICT 부문에서 효과적인 노동조합 캠페인 개발
 - 가맹점 활동 및 비정규직 반대 캠페인
- 노동조합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 법률과 과제
 - 국가 및 지역의 실사 업데이트
 - 유럽의 실사 도구 및 정책
- ICT EE 부문의 지속 가능한 산업 정책 촉진
 - 재생 가능 에너지 및 배터리 공급망
 - 인터스트리 4.0과 정의로운 전환
- 건강과 안전 및 양성평등
 - ICT에서 성별에 민감한 건강 및 안전 표준 개발 전기 및 전자
 - ILO C155 및 C187을 건강 및 더 나은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
- 반도체 산업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전자 제품 제조 서비스(EMS)
 - 현재 상황 업데이트
 - 작업/현안/캠페인 업데이트
- 후속 부문 실행 계획 및 향후 활동(해당 부문의 향후 활동에 대한 논의)
 - 전체 토론
- 박닌성 옌퐁 LS일렉트릭 공장 방문

(4) 회의 주요결과

- ‘노조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전략 : (Section 2: Union Organizing Strategies to Build Union Power and Fight against Precarious Work)’에서 전국삼성전자노조 손우목 위원장이 ‘삼성전자의 노조탄압과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한 조직확대’ 주제로 노사협의회를 이용한 삼성전자의 탄압 양상과 이에 맞선 노조의 투쟁내용을 발제하고 각국 참가자들에게 연대를 호소함.
- 회의 중간시간 인터스트리올 전기전자 운영위원장(알렉스)과 삼성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방안을 논의 함. 운영위원장은 유럽 쪽 삼성 사용자 측에 압박을 하겠다고 함. 또 6월에 개최되는 ‘인터스트리올 총회’와 직전에 개최되는 ‘인터스트리올 중앙집행위원회’에 직접 참가하여 발언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삼성 관련 내용을 주면 6월 총회에서 연대문건을 채택 하는 방식을 제안함.

마. 인터스트리올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 20일(화)

○ 장소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2) 참석자

○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김영미 정책기획본부장, 나병호 정책국장

(3) 회의내용

1. 호프만 위원장의 개회선언

- 세계는 격변의 시기에 있으며, 인구학적, 정치적, 경제적 무게중심이 변화하고 있음. 위기들은 서로를 강화시키며, 기아, 빈곤, 불평등 극복 등 시급한 질문들을 제기함. 글로벌 협력과 평등은 평화롭고 안전하며 더 정의로운 세계를 위한 필수 조건임.
- 주권 국가에 대한 푸틴의 이 침략 전쟁은 즉시 중단되어야 함. 주요 글로벌 노조연맹으로서 우리는 러시아 정부에 즉각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며 우크라이나의 영토 통합을 회복할 것을 촉구함. 우리는 평화를, 국제 연대와 사회 정의를 지지함.
- 전쟁의 결과로 공급망이 붕괴되고, 비료가 부족하며, 수백만 톤의 곡물이 세계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전 세계적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음. 에너지와 식량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음.
-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의 사람들로, 이들은 전쟁 이전에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으며, 충분히 먹을 것도, 깨끗한 물도, 적절한 지붕도 없었음. 우리는 특히 글로벌 남반구의 사람들이 푸틴의 이 침략 전쟁의 대가를 치르게 해서는 안 됨.
-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세계의 다른 모든 불의와 문제 지역들에 눈을 감게 하지 않음. 벨라루스에서는 루카셴코 정권에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수감됐으며, 많은 노조 활동가들이 긴 형기를 선고받았음. 미얀마에서는 폭력적인 군사 쿠데타 이후로 사람들이 잔인하게 억압되고, 고문당하며, 살해되고 있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급진 이슬람 탈레반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특히 여성들은 미래, 심지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성별 기반 폭력과 소수 민족 억압이 크게 증가함.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와 그들의 조직의 권리가 ILO 핵심 노동 기준에 따라 유린되고 있음.
- 전쟁과 폭력, 기후 변화, 경제와 노동 세계의 글로벌 전환, 그리고 팬데믹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극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평등권과 동등권에 대한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명확히 보여줌. 우리는 노동자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강력한 글로벌 목소리가 필요함. 경제가 글로벌하게 운영되는 곳에서는 노동자와 그들의 노조도 인터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의 공통 우산 아래 국경을 넘어 더욱 밀접하게 협력해야 함.
- 2021년 9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3차 세계총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설정함. 새로운 규약규정

과 2025년까지의 사업계획을 채택함. 이제는 비판적으로 반성하며 인터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의 활동들을 평가해야 할 때임.

- 독일에서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있음. 2030년까지 독일 정부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변환이 성공할 수 있도록 풍력 발전 생산을 두 배로 늘리고자 함. 이를 위해 독일에는 약 15,000개의 풍력 터빈이 건설되어야 함. 독일금속노조(IG Metall)은 이를 환영하며 파리 협정에 따른 기후 보호를 지지함. 독일금속노조는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도 좋은 생활 및 노동조건을 요구함. 덴마크의 베스타스와 같은 세계 시장 선도 기업조차도 독일에서 표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베스타스의 동지들은 이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일금속노조에 가입하여 단체 협약과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며 100일 넘게 파업 중임.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기에 이 사안에 대한 연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인적 및 재정적 자원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의 조합원 수와 조합비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 이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조 권력 자원을 확장하고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고민임. 무엇보다도, 조합원 문제는 매우 중요함. 전 세계적으로 노조 가입률이 6~7% 사이에 불과한 상황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음.
- 제한된 자원으로 예산을 잘 계획해야 함. 우선순위, 책임 및 작업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중앙사무국(제네바)을 비난하며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인터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은 중앙사무국이나 요하네스버그, 쿠알라룸푸르, 뉴델리, 모스크바, 몬테비데오에 있는 지역 사무소가 아님. 인터스트리올 유니온은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임. 우리 모두는 강력한 노조를 구축하고 전 세계의 노동 및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책임이 있음. 도전 과제는 크지만, 우리는 어디서나 불의와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낙관적이어야 함.

2. 회순 통과

○ 결정 : 원안대로 통과

3. 2022년 11월 15~16일 집행위원회의 회의록 통과

○ 결정: 원안대로 통과

4. 사무총국 보고

○ 아틀레 호위가 발표함.

- **미얀마**에서는 대부분의 노조가 현재 금지된 상태이며, 단체협약으로 보호받던 노동자들 다수가 해고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됨. 60명 이상의 노조 활동가들이 조작된 혐의로 투옥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납치, 고문, 심지어 살해되는 노조 활동가들이 점점 늘고 있음.
- 우리는 지난 총회에서 결정된 대로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 제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음. 일부 브랜드와는 책임 있는 철수 전략을 협상했으며, 이제 모든 브랜드가 이에 맞춰 철수 계획을 세우도록 압박하고 있음. 프라이마크, 유니클로, 인디텍스와 같은 주요 브랜드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보

였지만, H&M 등 다른 브랜드는 여전히 미얀마에서 충분한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함. 변명의 여지 없이 반대의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들을 확실히 이해시켜야 함.

- 이번 주말에 끝난 국제노동기구(ILO) 회의에서 우리는 미얀마 국민의 정당한 대표로서 국가통합정부(NUG)의 공식 외교적 인정을 요구하고, 정치적 수감자들의 석방을 지지함.
- **벨라루스**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노조에 대한 탄압이 2022년에 절정에 달했으며, 그 결과 벨라루스 민주노동조합총연맹(BKDP)과 그 소속노조들이 해체됨. 그중에는 인터스트리올 소속노조도 3개 포함되어 있으며, 해체된 모든 노조의 지도자들을 포함해 40명 이상의 노조 지도자와 활동가들이 체포 및 구금됨.
- 자유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의 격화와 2004년 ILO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벨라루스 정권의 지속적인 실패를 고려할 때, 지난주 국제노동총회(ILC)에서 채택된 결정을 환영함. ILO 헌장 제33조에 따라, 이 결정은 해당 국가에서 노조 및 인권의 명백한 침해를 종식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시작하게 됨. 정부는 즉시 노조 지도자와 활동가들을 석방하고, 노조를 복원하며,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야 함.
- ILC 발언에서, 또한 **우크라이나**에서의 노동자 및 노조 권리의 후퇴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분노를 표명함. 2022년 7월 19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법률 5371 및 5161을 통과시킨. 전쟁이 끝난 후 국가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ILO 협약 87호와 98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 따라서 인터스트리올을 글로벌 유니온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모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모든 반노동 및 반노조 법률을 폐지하며, 노조 재산의 몰수를 중단하고,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협박과 위협을 즉시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 ILC에서 인터스트리올은 기준적용위원회(CAS) 토론에도 참여함. 목록에 오른 24개국 중 인터스트리올은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필리핀, 페루, 영국에 대해 개입함.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에 대한 공격이 유럽의 중심부에서도 증가하고 있음. 영국은 파업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CAS 목록에 포함된 24개국 중 하나였음.
- 이번 ILC에서 처음으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 대한 종합토론이 열렸다는 점을 환영함. 기후 변화와 디지털화로 인해 큰 전환이 있을 것이며, 이는 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러한 전환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며,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회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노동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
- ILO는 2023년 10~11월에 열릴 중앙집행위원회 심의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전략 및 사업계획을 개발하고, 향후 프로그램 및 예산 제안을 준비할 때 해당 종합토론의 결과를 고려하며, 추가 예산 자원을 동원할 것임. 인터스트리올 소속 회원조합들에게 가장 관련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음.
 - : 정부, 고용주, 노동자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을 존중하고 촉진하며 실현하는 한편,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긴급히 행동해야 함.
 - : 전환은 포괄적이어야 하며, 잠재적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력한 성평등 요소를 포함해야 함.
- 섬유 및 의류 부문에서는 지난 중앙집행위원회 이후로 큰 돌파구가 생김. 방글라데시 어코드 10년의 노력 이후, 파키스탄에서도 합의(어코드)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결정함. 이는 큰 돌파구로, 독립적

인 안전 점검을 통해 화재, 전기, 구조 및 보일러 등의 위험을 해결하고, 개선을 지원하며, 안전위원회 교육 및 노동자 안전 인식 프로그램, 독립적인 고충 처리 메커니즘, 투명성 확대와 지역 역량 구축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모든 주요 기능을 파키스탄에서도 적용함. 이 합의는 모든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음.

- 방글라데시 어코드에 대한 간략한 요약 : 2,400개 이상의 공장에서 56,000건의 점검, 140,000건의 건강 및 안전 문제 수정, 91% 이상의 개선 진행률, 18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공장 안전 위험 및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할 권리에 대해 교육받았으며, 1,200개 이상의 노동자-경영자 공동 안전위원회가 설립되고 교육을 받았으며, 6,000건의 고충이 접수됨. 333개의 비준수 공급업체는 어코드 브랜드에 대한 생산 자격을 박탈당함.
- 파키스탄으로의 확장은 국제 어코드 지속에 관한 협상에도 좋은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어코드는 당사자들이 그 작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산업의 건강 및 안전 기록을 개선하기 위해 어코드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좋은 소식임.
-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방글라데시가 홍콩 협약을 비준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임. 이는 협약이 국제법으로 제정되는 데에 매우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며, 선박 해체 산업을 정화하기 위한 오래된 인더스트리올 캠페인의 성공적인 결실이 될 것임. 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든 해양 선박의 95%를 해체하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의 해안 노동자들에게 좋은 소식임.
- 지난 중앙집행위원회 이후 국제노총(ITUC)은 주목을 받게 됨. 루카 비첸티나가 작년 11월 ITUC 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는데, 12월 9일 소위 카타르 게이트와 관련하여 벨기에 경찰에 체포됨. 이 사건에서 여러 정치인이 카타르로부터 정치적 결정을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음. 비첸티나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12월 14일에 일시적으로 직에서 물러남. 3월 11일 회의에서 중앙위원회는 더 이상 비첸티나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이미 1월 13일에 위원회는 사무총장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ITUC의 재정 규칙 및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특별감사를 명령함. 감사보고서는 기밀이기 때문에 결론을 여기서 공유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이후 인더스트리올이 자체 규약규정을 검토했으며, 우리 규정에는 ITUC에서 기록된 문제의 조항이 없다는 점을 보고함.
- 마지막으로 모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주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인더스트리올은 모금 요청을 받음.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나, 많은 회원조합들이 이미 자국 또는 국제인도주의조직에 기부함. 우리는 이러한 조직들과 경쟁할 생각이 없으며, 그들은 이미 탁월한 일을 하고 있음. 우리의 모금 목표는 우리의 회원조합들을 돕는 것임.
- 우크라이나와 터키를 위한 모금에 참여한 모든 회원조합에 감사의 말씀을 전함. 우크라이나를 위해 우리는 33만 유로를 모았으며, 터키를 위해서는 인더스트리올 유럽과 함께 10만 유로 이상을 모음. 이는 중요한 기부금이지만, 지속 가능한 것을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 서면 보고서에는 인도 자동차 연합이 건설 중이라는 언급이 있으며, 결론이 조기에 내려졌으므로, 우리는 인도의 회원조합들과 상의하여 다음 회의에서 이에 대해 보고할 것임.

○ 현장발언

- 모로코는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전염병과 러시아의 갈등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음. 식품 및 에너지 시장이 영향을 받았으며, 고인플레이션과 제품 부족으로 상황이 악화됨. 게다가 정부는 자유를 탄압하

고 사회적 대화가 없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에너지 및 에너지 가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으며, 이 중 일부가 통과됨. 또 정부와의 협상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국제프레이밍워크협약이 이루어짐.

-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 자유롭게 정직하게 서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함. 전쟁은 나토와 러시아 간의 싸움임. 글로벌 남반구는 이 전쟁의 피해자임. 인터스트리올은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이 전쟁을 멈추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표단을 파견해야 함.
- 유럽 노조는 이 전쟁이 다른 많은 나라와 남반구의 노조에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를 고려해야 함. 전쟁을 끌여가려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임. 우리가 벨라루스와 미얀마의 상황을 언급한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도 언급해야 함. 거기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이 압수되고 끔찍한 우익 정부가 인종 청소를 수행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 우리는 사업 홍보와 기업 캠페인이 우리의 조직 활동과 책임 중심적인 역할을 대체하지 않도록 해야 함. 우리는 조직화 캠페인과 모집에 자원을 할당해야 함.
- 정의로운 전환에 관해서는,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속도의 차이를 고려하고, 인도에서의 포드, GM 및 홀심(Holcim)과 같은 기업들이 북부로 사업을 이전함에 따라 남부 산업 퇴조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함.
- ITUC에서는 대규모 부패와 무책임함이 있었음. 인터스트리올은 명확한 다른 기준을 설정하고 ITUC로부터 더 엄격한 분리를 추구해야 함.
- 방글라데시의 홍콩 협약 비준 결정을 환영함.
- 인도에서 정부는 2015년 이후 노조와의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노조의 주요 우려 사항을 다루지 못함. 이번 해에 인도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 그 예임. ITUC가 특히 L20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조를 우회함.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5년간 19%의 임금인상을 약속함.
- 섬유 및 의류 산업에 대한 국제 건강 및 안전 협약이 파키스탄으로 진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발전임. 이는 노동자들의 조직 능력을 증가시키고 강제로 시행 가능한 협정의 프레임 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 또 프랑스에서 노조 활동의 범죄화가 언급됨. 1월 이후, 퇴직 계획 개편(퇴직연금 개혁)에 대한 대규모 집회가 있었음. 노조의 강력한 억압, 파업권 및 결성권 침해가 있었음.

○ 결정: 사무국 보고 승인

5. 중간정책대회

○ 아틀레 호위가 발표함.

- 중간정책대회 결론 작업반의 구성은 부위원장들의 참여와 모든 지역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짐. 이 작업반은 회의 결론을 작성하며, 11월 28, 29일에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토의되고 승인될 예정이다. 이 작업반은 11월 회의 이후에 새로운 사업계획의 수정 사항을 검토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작성할 준비위원회로 제안될 것 :

위원장

클라우디아 라만 (지명자)

부위원장

루시네이데 바르자오, 라틴 아메리카

아키라 타카쿠라, 아시아태평양

가르비네 에스페조, 유럽

로즈 오마모,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하비브 하자미 (지명자), 중동

벤 데이비스 (지명자), 북미

라틴 아메리카

에드손 비갈호, FEQUIMFAR, 브라질

마르셀로 베셀리오, FATLyF, 아르헨티나

아시아태평양

S.Q. 자마, INMF, 인도

엔딩 와훈엔씨, FSP KEP SPSI, 인도네시아

다니엘 월튼, AWU, 호주

유럽

마리 넬슨, IF Metall, 스웨덴

한네스 하우케, IG BCE, 독일

사이먼 더빈스, UNITE, 영국

바바라 아르시에니, FIM-CISL, 이탈리아

북아메리카

크리스틴 피터, UAW, 미국

테레사 하스, Workers United, 미국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무스타파 디아그니, SYNTICS, 세네갈

조이스 마쿠, PUWU, 가나

중동 및 북아프리카

하쉬메야 무흐센 알-사다위, GTUESE, 이라크

압델마지드 마투알, FNTE-UMT, 모로코

○ 결정 : 중간정책대회 계획 등 승인

6. 여성위원회 보고

- 해시메야 알사다웨와 알바나 스마일로비치, 여성위원회 공동 의장들이 구두보고를 제출함.
- 여성위원회는 전날 종일 100여 명의 여성 참가자들과 함께 모임. 매우 활발하고 고품질의 토론이 이루어짐. 위원장은 모임에 참석하여 우리가 노조 내에서도 가부장제를 철저히 철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페미니즘이 노조 변화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목표는 페미니즘이 어떻게 노조의 구조를 더 큰 포용성, 평등성 및 민주성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었음. 여전히 페미니즘은 이해되지 않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특히 남성들을 배제하는 운동으로 보임. 페미니즘에는 여러 운동이 있지만, 모두 여성에 대한 지배와 억압의 체제인 가부장제를 철폐하는 데 관련되어 있음. 페미니즘은 남성도 억압적인 체제와 유해한 남성성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운동이어야 함.
- 페미니즘은 자본주의와 관련된 생산 체제에 도전하고 있음. 페미니즘은 단체교섭, 공공 서비스, 돌봄과 같은 모든 서비스의 민영화, 불안정한 일자리 개발 등을 공격하는 우파적 서술에 일관된 대응을 도울 수 있음.
- 회원조합들이 어떻게 성평등한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스페인의 ELA 노조의 한 여성이, 그들이 성평등과 차별을 복제해온 방법을 식별하기 위해 조합의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참여형 감사를 진행했다고 함. 남성을 이 과정을 지원하도록 참여시키는 문제가 토론의 중심에 있었음. 권력을 공유하고 분배하며 가부장제와 유해한 남성성을 철폐하는 데 대한 남성 지도자들과의 토론이 필요함.
- 페미니즘은 또한 성소수자와 같은 가부장적 구조에서 배제된 취약집단의 통합을 지원함. 이런 면에서 우리 조직에 이런 노동자들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페미니즘에 관한 토론은 인터스트리올이 국제 수준에서 한 최초의 시도임. 계속해서 이 토론을 이어가고 발전시키기를 요구함. 이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페미니스트 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함.
- 그 후 토론은 중간정책대회에서 젠더 관점을 채택하기 위한 준비에 중점을 두었음.
- 마지막으로, 여성위원회는 성평등 TF팀이 개발한 성희롱, 여성혐오, 성차별에 관한 인터스트리올의 미래 정책 초안을 논의함. 일부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 정책은 피해자 지원, 사건 비밀유지, 공정성 및 효과적인 해결,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합원을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정책의 적절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등 매우 민감한 문제를 다룸. 여성위원회는 7월 초까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초안은 제3분기에 여성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최종 초안은 10월에 준비될 예정이며, 11월에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 현장발언

- 보고서, 페미니즘 프로그램, 젠더평등에 대한 새로운 언어, 가부장제 철폐에 대한 남성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음. 남성들은 새로운 토대를 모색하기 위해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함. 성평등 논의는 중집에서 상설 항목이 되어야 하며, 일부 조직이 성평등 정책을 일상 활동에 통합하는 데 성공하는 좋은 예시를 가져오고, 조합원이 차별과 성별주의적 정책을 수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 자신의 조직 내에서 진전을 이루는 방법을 보여줘야 함.
- 여성위원회는 다국적 기업의 여성 인권 침해 사례를 다루는 데 권한이 있으며, 현지 수준에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 행위를 식별하고 고발하며, 문제를 추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이 문제는 명확해 보이지만, 이를 각자 조직 내의 조합원들에게 전달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이

정책을 대중화하기 위한 수단을 창의적으로 고안해야 함. 이 정책이 공장 수준에서 실시되어 채용과 고용에서 여성이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대부분 비공식 부문이 큰 글로벌 남반구에서는 고용주가 여성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성소수자 근로자에 관해 우리는 그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함. 그들은 불안정한 근로자들의 대표임.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족에서 나쁜 대우를 받는 피해자들임. 그들을 우리의 운동과 민주주의, 연대 및 평등을 위한 싸움에 포함해야 함. 이것은 또한 여성, 청년과 노인,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원주민에게까지 확장됨.

○ 결정 : 여성위원회 보고 확인

7. 중앙집행위원회 참관인으로서 청년노동자

- 조프리 아케디(AUKM, 나이지리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청년위원회 의장은 청년 시각에서 노조의 변화를 위한 글로벌 청년 대회의 권고 사항을 제시함 :

노동자 권리 증진

양질의 일자리 구현, 특히 고용 관계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불안정하고 비표준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들 사이의 노조 기능 확대
노조나 직장에서 모든 수준에서 청년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

노동조합 강화

모든 청년 노동자들에게 직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결할 자유 보장
모든 노동자들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변혁적인 노조 보장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조직문화 실행

글로벌 자본 대항

공급망 투명성 증대 및 기업의 공급망 공개 의무화
모든 인터스트리얼 위원회에 청년 포함
청년이 잘 대표되는 곳에서 모든 수준에 청년조직 마련
단체협상에 청년 문제 통합 및 교섭위원회에 청년 포함

지속 가능한 산업 정책

청년의 정의로운 전환 토론 참여
변혁적인 계획을 위해 필요한 지속 가능한 역량 구축을 보장하는 청년 정책

- 결정 : 다음 총회까지 발언권 있는 참관인으로서 청년 2명이 승인됨. 청년 2명은 인터스트리얼 청년조직에서 지명함.

8. 2025년 총회

- 2025년에 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할 예정임. 프랑스와 호주라는 후보가 있었고, 프랑스의 제안은 철회되고 프랑스 소속의 단체들은 호주 개최를 전적으로 지지함. 이전 총회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고 이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개최하려는 제안임.

- 결정: 규약 제10조에 따라, 인터스트리얼 글로벌 유니온 제4차 총회를 2025년 11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정확한 날짜는 다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임.

9. 노동조합 힘 강화 : 인더스트리얼 글로벌 유니온과 인더스트리얼 유럽 간의 협력 강화

- 인더스트리얼과 인더스트리얼 유럽은 서로 독립적이고 별도의 법적 지위, 의무금 체계, 규정, 사업계획을 갖는 두 개의 조직임. 인더스트리얼 유럽의 활동은 EU 활동과 연결되어 있음. 유럽에 동일한 단체가 있으며,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함. 인더스트리얼 유럽은 브뤼셀에서 우수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는 노동조합 힘을 구축하는 데 관한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각 조직의 총회에서는 두 독립적인 조직 간의 더 많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함. 우리는 노동조합 힘 구축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했으며,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 힘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정책을 공동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계획을 2023년 겨울이나 2024년 봄에 각 조직의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시할 것임.

○ 현장발언

- 재정적 도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압박을 받고 있으며, 중복을 허용할 여유가 없음. 그러므로 상호 지원을 극대화해야 함. 이는 유럽이 특권적인 위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지원을 극대화하고 중복을 피하는 것임. 정보 교환과 양 조직의 강화,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의미 있는 캠페인을 진행해야 하며, 승리가 필요함.
- 다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매우 실용적인 수준에서 프로젝트와 철저한 연구를 제시하여 자원을 최적화하고 재정 상황을 살펴봐야 함. 지역과 전 세계가 동일한 목표와 정책을 공유해야 함.
- 자원 공유에 관해서는, 남반구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연구를 수행하고, 일부 글로벌기업 대상 캠페인 개발이 필요함.

○ 결정: 원안대로 통과

10. 글로벌 다국적 기업 정책위원회(GMCPC)의 구성, 임무, 및 전략적 토론을 마무리하며

- 이 위원회의 목표는 글로벌 자본과 대립하고 기업 내에서 노동조합 힘을 구축하는 것으로, 글로벌프레이워크협정 및 기타 수단을 활용해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함. 이 위원회는 4월 27, 28일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회의를 개최했으며, 7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프랑스 동지들이 주최함.
- 위원회는 기본금속, 원자재, 그리고 풍력 에너지와 같은 전략적 캠페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잠재적인 부문과 기업들을 다룸. 위원회는 다국적 기업 내에서 글로벌 노동조합 네트워크의 창설을 촉진하고, 기업 내에서 노동조합 권리를 촉진하고 핵심 노동 기준의 침해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러 권고안을 채택함. 또한 글로벌프레이워크협정, 인권 실천, 그리고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협정 등 기존 도구를 강화하기로 결정함.
- 위원회는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17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출됨. 마리아 솔레다드 칼레와 조나단 헤이워드가 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원도 겸함.

○ 현장발언

- 풍력 에너지와 핵심 광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함.
- 풍력 에너지는 중요하며, 지멘스와 베스타스를 포함한 6개 기업이 주도함. 그들에게 집중하고 조직화하고 공급망과 고객에 압박을 가해야 함. 산업전환 중심에서 모든 것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올바른 노동 기준을 요구해야 함.
- 핵심 광물과 정의로운 전환의 맥락에서, 전 세계의 북반구와 남반구를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전 세계 자본주의에 따른 노동 분업을 강화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공급망을 따라 다국적 기업을 살펴보고 제조 및 구성, 그리고 착취적인 노동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남반구에서는 서구 기업들이 중국과의 사업을 줄이고 인도와 기타 국가로 산업을 이전하고 있음. 게다가,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 경제에 모든 노력과 자원을 집중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면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격차가 깊어질 위험이 있음.
- 또한, 이 두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및 항공우주 등 다른 부문에도 우선순위를 두어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회원들을 대표하여 미래를 형성하는 데 차이를 만들어야 함.
- 우리는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도전에 대처하면서 얻은 경험, 예를 들면 남아공금속노조가 독일금속노조와 전미자동차노조와 협력한 경험 등, 다국적기업에서 노조가 조직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갖고 있음.

○ 결정 : 원안대로 통화

11. 공급망 및 책임성에 대한 노동조합 전략을 마무리하는 토론

- 여성은 종종 부정적인 비즈니스 관행에 비례하여 영향을 받으며 남성과 같은 경제 기회를 누리지 못함. 여성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과 폭력에 특히 취약하며, 채용, 교육 및 경력 기회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음. 여성들은 동일한 활동에 대해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들은 보통 비정규, 비공식 또는 불규칙적인 고용과 관련이 더 많음.
- 여성에게 미치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에서 ILO 협약 100호 및 111호와 같은 국제노동기준을 활용하여 평등한 보상을 요구하고 고용과 직업에 대한 차별을 근절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정의로운 전환과 이에 따른 불평등과 변화입니다. 글래스고에서는 공급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깨끗한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존 및 신흥 공급망이 모든 이에게 포함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공정한 고용을 보장하며 국경을 넘어 공정한 고용을 창출하도록 요구하는 선언문이 발표됨.
-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기후 변화 맥락에서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특별 보고관이 기업의 인권 및 기후 변화에 관한 책임성,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인권 보호, 기후 변화 완화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 기업의 책임성에 대해 호소함.

○ 현장발언

-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3,0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1,000명 이상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임. 이 법에는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는 자발적 책임성에서 강제적 접근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음. 이 법의 시행은 기업이 위험 분석을 수행하고 예방 조치를 정의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고충처리 절차를 포함하고 있음. 이는 고용주의 의무 준수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지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음.
- 유럽 기업의 지속 가능한 실사 지침(EU 지침)이 국내 법규를 개선하고 보충하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투명성과 추적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산업의 관련 기업의 복잡한 공급망 네트워크를 매핑하기 위한 도구와 능력을 개발해야 함. 공급망은 주로 남반구에 있음. 이러한 공급망에 대한 제한된 지식을 개선하고 매핑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현지 조합원을 훈련하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공급망에서의 노동자 권리 침해에 대응해야 함.

○ 결정 : 회의에서 추가된 문서를 포함해 원안 통과

12. 우크라이나에 대한 업데이트

- 지난 17개월 동안 회원조합들은 우크라이나 회원조합들에게 큰 지원을 제공함. 우리의 지원은 평화를 요구하고 국제적 선전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점령한 지역과 나머지 나라에서의 인권 및 노조 권리 침해를 비난하고, 정부의 노동법률 정책을 비난하고, 회원조합들을 지원하고 국가재건을 준비함.
- 2023년에 0.5%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2022년에는 약 30%의 침체가 있었음. 우크라이나의 경제 전망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며 전쟁의 지속 기간에 따라 달라짐. 2022년에는 빈곤층이 5.5%에서 24.2%로 증가하여 7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으며, 15년 동안의 성장을 되돌림. 공공재정은 여전히 압력을 받고, 종합 예산적자(보조금 제외)는 2022년에 GDP의 26.5%에 달했음. 간접세가 축소되어 명목 8%의 세수가 감소했습니다(실질 30% 감소). 지출은 전쟁 관련 지출 및 필수 공공 및 사회 서비스가 우선이 되어 65% 증가함.
- 우크라이나는 2023년에 재건 및 필수 서비스를 위해 110억 달러가 필요함 : 22% 운송, 17% 주택, 11% 에너지, 10% 사회 보호 및 생계, 9% 폭발물 위험 관리, 7% 농업. ILO는 2022년의 고용이 2021년의 전쟁 전 수준보다 15.5% 낮았다고 추정함(2,400만 개의 일자리).
- IL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세계적 영향을 미치며, 자포리자 발전소와 에네르호다르 시에서의 기본 노동권 침해를 강조함.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노동자들은 러시아 연방이 발전소를 점령한 이후로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보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사무국은 계속해서 러시아 회원조합들과 교신하고 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 사항을 알려줌. 그들에게는 전쟁에 대한 국가의 입장을 알려주는데, 이는 러시아 회원조합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음.
- 지역사무소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조만간 조지아의 트빌리시로 이전될 것임.

○ 현장발언

- 우리의 통일된 외침은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어야 함. 정부와 회원조합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음. 우리는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일어서야 함.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노동자들과 이야기하며, 이 소통창구를 통해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데 사용해야 함.
-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등에서 중재를 시도하는 세계적인 노력이 있었음. 우리는 이런 모든 노력을 촉구해야 함.
- 인터스트리올은 즉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함. 평화는 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항상 외교와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음. 국가의 주권은 협상의 일부여야 함.

○ 결정: 보고서 승인, 연대기금에 대한 추가기여 요청 등 조치 승인

13. 재정 및 행정 사항

13.1 2022 재정 보고서 및 외부 및 내부 감사보고서

- 투자 포트폴리오로 인해 4.7백만 스위스프랑(CHF)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14.49% 하락함. 그러나 올해 첫 분기에 긍정적인 성과를 이룸. 의무금 수입은 예산보다 높았으며, 2022년 예산에 비해 50만 CHF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 제한으로 많은 활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71만 3천 CHF가 절약됨.
- 벤 데이비스가 내부 회계감사를 대신해 발언함. 내부 회계감사들은 4월 27~28일에 모여 2022년 정기 감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재무제표가 스위스 법률과 협회 설립 규정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림. 그들은 11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될 예산을 검토함. 의무금 납부 상태에 대해 논의함. 특히 장기 또는 영구적인 면제를 요청하는 사항이 우려됨.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검토함. 지역사무실 감사가 진행 중임.

○ 결정: 규약 제19조에 따라, 외부 및 내부 회계감사가 검토한 2022년 연간 결산을 승인하고 사무총장의 이후 책임을 해제함.

13.2 2024년 의무금

- 규약 8조에 따라 기본 연간 의무금이 매년 최신 공개된 스위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함. 2022년에 2.8%이므로 2024년부터 기본 연간 의무금은 1인당 1.3532 CHF로 설정됨.

13.3 2023년 의무금 납부 및 감면 (단위 CHF 생략)

13.3.1 부분 감면

○ 승인

- 브라질
CNM-CUT : 2023년 50,525 대신 1,000 (49,525 면제)

CNTM : 2023년 29,694 대신 1,000 (28,694 면제)

CNTV-CUT : 2023년 1,647 대신 200 (1,447 면제)

- 캄보디아

CUMW - 2023년 790 대신 162 (628 면제).

- 인도네시아

CEMWU SPSP : 2023년 17,770 대신 3,500 (14,270 면제).

- 팔레스타인

GUMEEW - 2020년 443 대신 100 (343 면제)

13.3.2. 전액 감면

○ 승인

- 알제리

SNATEG - 2022년 353 및 2023년 355

UAI - 2022년 170 및 2023년 171

- 벨라루스

BITU - 2023년 1,850

REPAM - 2023년 637

SPM - 2023년 265

- 브라질

CONACCOVEST - 2022년 5,986 및 2023년 6,022

- 인도

INGLWF - 2021년 204

- 우크라이나

AAMWU - 2023년 547

ATOMPROFSPILKA - 2023년 5,958

CTU - 2023년 221

KVPU - 2023년 3,816

MASHMETAL - 2023년 724

PMGU - 2023년 2,078

UKRNAFTOGAZPROFSPILKA - 2021년 및 2023년 2,946

PRUPU - 2021년 및 2023년 3,894

REMEWU - 2023년 875

TUAMBWU - 2023년 408

TUDIW - 2023년 658

UKRELECTROPROFSPILKA - 2023년 377

- 러시아(FNPR 회원조합)
 TRIWU - 2023년 18,313
 REIWU - 2023년 7,544
 RCWU - 2023년 7,242
 ARETU - 2023년 7,107
 MMWU - 2023년 87,657
 Profavia - 2023년 7,542
 ROSUGLEPROF - 2023년 19,671
 ROGWU - 2023년 31,272
 IWU - 2023년 3,949
 AFW - 2023년 5,923
 RTUNPIW - 2023년 28,668

13.4. 제명

13.4.1 모잠비크

- 결정: 규약 제7조에 따라 SINTICIM, SINTIME 및 SINTIQUIAF 등 모잠비크의 세 회원조합을 인터스트리올 이익에 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제명함.

13.4.2 벨라루스 - BELKHIMPROFSOYUZ

- 결정: 이 문제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다음 회의로 연기함.

13.5. 신규 가맹

○ 승인

- 브라질 : Sao Paulo의 고무 및 타이어 제조업 노동조합 - SINTRABOR
- 키르기스스탄 : 산업, 공공 서비스 및 기업 노동조합 - PRPKBOP
- 말레이시아 : Tenaga Nasional Berhad 지원 관리자 노동조합 - TNBSSOU
- 뉴질랜드 : Kawerau Incorporated의 펄프 및 종이 노동조합 - PPWU
- 우크라이나 : 기계 및 기기 제조노동조합 - Mashprilad

○ 불승인

- 방글라데시 : Green Bangla Garments Workers Federation - GBGWF

13.6. 합병

- 인도 : 2021년에 인도 국립 의복 및 가죽 노동자 연맹(INGLWF)이 인도 국립 섬유 노동자 연맹(INTWF)과 합병됨.

- 레바논 : 레바논 홀심 직원 및 노동자 조합은 건설 및 건축 레바논 노동조합 연맹 (GFBCTU) 아래로 가맹되었음.
- 팔레스타인 : 기계공학조합 (GUMEEW)이 2021년에 에너지 및 전기 조합 (PGUE)과 합병되었고, 2023년에 보고됨.

13.7. 탈퇴

- 리투아니아 : LMTU(노동조합 통합)

13.8. 이사회 구성원 / 부문 공동 의장 변경

- 정위원
FICA-UGT의 Mariano Hoya는 2023년 9월부터 Pedro Hojas로 교체
UAW의 Shawn P. Fain은 Ray Curry로 교체
UAW의 Margaret Mock은 Cindy Estrada로 교체
- 부위원
FICA-UGT의 Mariano Hoya는 2023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Pedro Hojas로 교체
Federation des Travailleurs de la Metallurgie - CGT의 Frederic Touboul은 2022-2023 및 2024-2025 기간에 Patrick Correa로 교체
Unifor의 Len Poirier는 Lana Payne로 교체
UAW의 Paul Caucci는 Shawn P. Fain로 교체
Sintracarbon의 Igor Diaz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Maria Soledad Calle로 교체
- 위원회 각 부문 공동의장 : 섬유 및 의복 부문에서 2023년 2월 2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TGSL 세계 부문 회의에서 다음 네 명의 공동의장 선출
Heidi Lampinen - 스웨덴 IF Metall
Habib Hazimi - 튀니지 FGTHCC-UGT
Zehra Khan - 파키스탄 HBWWF
Victor Garrido Sotomayor - 스페인 CCOO

13.9. 사무국 인사

- Patrick Correa가 2023년 3월부터 기계 공학 및 원자재 담당 이사로 임명
- Ramon A Certeza가 2023년 1월부터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국의 교차부문 문제 및 정책 담당 지역 사무관으로 임명

14. 기타토의

○ 포스코에 대한 결의안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 발언문

인터스트리를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속노련 위원장 김만재입니다. 이렇게 케이프타운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방금 영상으로 확인하신 대로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 진압 사태에 대해 인터스트리울에서 항의하고 연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집권한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노동개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노동시간 규제완화를 통하여 장시간 노동을 추진하고,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노조의 파업과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 조합비 회계장부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노조의 자주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스코 사내하청사인 포운의 노사합의 이행과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농성을 지원하던 저를 경찰이 폭행하고 강제연행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사무처장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연행 후 구속하였습니다.

포운 사측이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 포운 노조가 정당하게 파업을 진행했지만 포스코가 현장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사측의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저와 김준영 사무처장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찰의 곤봉과 수갑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노조 정책이 극에 달해 결국에는 노동자를 상대로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인터스트리울 동지들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저는 노조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과 폭력 경찰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사내하청사의 노동3권을 훼손하고 있는 포스코를 규탄합니다. 또한 심각한 부상에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뜻을 모아 인터스트리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련 결의문 채택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결장: 포스코 결의안 만장일치로 승인

국제통합제조노련 결의안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한국 정부와 경찰의 폭력 진압과 포운의 노동3권을 훼손하는 포스코를 강력히 규탄하며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사인 성암산업 사측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쪼개 매각을 시도하면서 노조가 반발하자 '분사 없는 매각'을 약속했다. 그런데 2020년 성암산업이 이번에는 작업권을 반납하겠다고 밝히고 그해 6월 전 조합원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서자 2020년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재로 포운으로 전직하고 근로조건 및 노조활동 보장에 합의했고 사태가 일단락 됐다.

하지만 포운은 성암산업 시절 근로조건을 승계하지 않고, 임금교섭에도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 노조

활동도 보장하지 않았다. 결국 노조는 또다시 연장근로 거부 등의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원청인 포스코에서 노조법상 금지된 행위인 대체인력 투입으로 노조의 쟁의를 무력화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지만 포스코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을 줘 조업을 계속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노조의 헌법상 노동3권을 권리를 정면으로 무력화한 행위이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와 포운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노조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 400일이 넘게 천막을 치고 투쟁을 이어왔다.

결국 문제해결을 위해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이 포운으로 갔다. 포스코와 포운을 만났지만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자 김준영 사무처장이 철탑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경찰은 다음날 바로 철거를 시도하자 이에 항의하던 김만재 위원장의 목과 얼굴을 바닥에 짓이키며 뒷수갑을 채워 폭력적으로 체포됐다. 그 다음날 새벽에는 경찰이 김준영 사무처장을 머리를 15회 이상 경찰봉으로 무자비하게 집중 타격하고 피투성이를 만들어 체포했다. 경찰의 이런 폭력진압은 집회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대통령과 경찰청장이 주문했기 때문이다.

국제제조산업노조와 가맹노조들은 한국 정부와 경찰의 폭력 진압과 사내하청사 노동3권을 훼손하는 포스코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함을 강력히 결의한다.

○ 베스타스(Vestas)에 대한 결의안

- 독일금속노조의 볼프강 뎀프가 베스타스에 대한 결의안을 소개했습니다. 독일 베스타스 유한회사는 독일 내 베스타스 풍력터빈의 서비스와 수리를 담당하는 기계공들을 포함해 총 1,7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노동자들은 5월 9일부터 회사가 공정하고 건설적이며 진지한 단체교섭을 개최하고 분쟁을 좋은 결론으로 이끌기 위해 파업 중임.

○ 결정: 베스타스에 대한 결의안 만장일치로 승인

○ 멕시코 - SITIMM

- 결정: 위원회는 Frankische Industrial Pipes 회사의 실라오, 구아나후아토의 단체 교섭 계약 상황을 다음 이사회 회의인 2023년 11월 이사회 회의에서 검토할 것으로 하며, 사실조사 미션의 현장 방문 결과를 기다립니다.

○ 차기 회의 : 2023년 11월 28~29일, 온라인 회의

라. 인터스트리올 아시아태평양지역 집행위원회 회의, 정책회의

1) 인터스트리올 아시아태평양지역 집행위원회 회의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년 10월 31일(화)
- 장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 참석자

-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이효원 홍보차장

(3) 회의내용

1. 개회사 및 환영사

- 아키라 타카쿠라, 부위원장 겸 아태지역 공동의장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갈등 고조에 대해 상기시킴. 아태지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지적함. 미얀마의 군사 정권, 방글라데시와 필리핀에서의 노조 권리 침해,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 도입된 반노동자 노동법 등 여러 나라에서의 긴장 상황을 지적함. 또한 두 명의 지역 사무국장이 떠나고 새로운 부위원장이 임명될 즈음 몇 가지 조직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조직이 계속해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프리하나니 보에나디, 아태지역 공동의장

인도네시아의 반노동자법 개혁, 특히 새로운 옴니버스법에 대한 투쟁에 대해 언급함.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대해 언급하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아태지역 여성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성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인터스트리올 정책과 노조의 의사결정 기구에 더 많은 여성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풍부한 논의가 있었음을 언급함. 또 나즈마 악터가 아태지역 여성위원회의 새로운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공유함.

- 케말 외즈칸, 사무부총장

올해 후반에 있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각 지역 집행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함. 이것이 조직 내에서 민주주의, 투명성 및 포괄성을 반영한다고 강조함. 또 전 세계적으로, 특히 가자 지역에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말함. 그는 인터스트리올이 평화와 정의를 지지하지만, 불행히도 글로벌 노조 운동은 이 문제에 대해 분열되어 있다고 재차 강조함.

가자의 경우, 추가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 휴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엔의 두 국가 해결책이 시행되어야 함. 7월에 글로벌 노조 협의회가 점령지의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결의안을 채택함. 팔레스타인 문제는 글로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도 논의될 것임.

카자흐스탄의 아르셀로미탈에서 발생한 사고로 4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을 언급하며, 기업의 탐욕

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함. 방글라데시에서는 한 노동자가 총에 맞아 사망하고, 여러 노조원이 체포됨. 유럽에서도 노조원들이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단결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고팔키쉬남 나데산, 인터스트리올 말레이시아 의회 사무국장
동남아시아, 특히 말레이시아의 노조 상황에 대해 언급함. 노동시간이 48시간에서 45시간으로 단축되고, 출산 휴가가 60일에서 98일로 늘어나는 등 노조의 성과를 언급함.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가 전체 노동력의 6%에 불과하다고 함.

2. 안전 승인

○ 원안대로 통과

3. 전차 회의록 승인

○ 원안대로 통과

4. 사무국 보고

- 케말 외즈칸 사무부총장이 보고함. 세계 거버넌스 시스템과 관련하여 현재 ILO 이사회 회의가 진행 중이며, 이 회의에서 파업권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언급함. G20과 관련하여 글로벌 노동조합운동이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언급함.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서 특히 노동자 이익과 관련하여 큰 후퇴가 있음을 알림. IMF/WB 회의에서는 글로벌 남반구의 부채 문제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정의로운 전환 자금조달 문제도 거론됨.
- 다가오는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9를 위해 인터스트리올은 노동자 권리와 기후 자금조달을 핵심으로 한 요구 사항을 마련함.
- 2023년에 인터스트리올이 수행한 주요 활동인 산업안전보건(OSH)을 다룬 광업 회의, 베트남에서 열린 정보통신 회의, 이스탄불에서 열린 화학 회의,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배터리 공급망 회의, 마드리드에서 열린 사무직 노동자 회의 등을 언급함.
- ACCORD(방글라데시 의류산업 안전 협정)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알림. 특히 파키스탄의 광업 산업에서 직업 건강 및 안전이 지역의 주요 관심사임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호주 노조의 지원을 받아 인터스트리올이 안전 관련 작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언급함.
- 인터스트리올 남아시아 지역 사무국장인 아프루바 카이와와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국장인 신야 이와이는 2023년에 이 지역에서 수행된 활동을 발표

○ 현장발언

- 가우탐 모디(인도, Unions United)는 여성 지역 사무국장이 임명된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고 언급하며, 노동조합운동 내 깊이 뿌리박힌 여성 혐오를 극복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함.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쟁에 대해 조직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팔레스타인 계열사들이 정부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단 한 가지 요청만 했고, 이에 대해 우리가 아

직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함. 인터스트리올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함. 남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인플레이션, 부채 및 통화 가치 하락을 경험하고 있음. 사무국 보고서가 조직에서 수행된 일련의 행사처럼 보인다고 언급하며, 회원조합들을 통합하고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다음 총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함.

- 토니 마허(호주, 광업 및 에너지 노조)는 지역 전반에 걸친 생활 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스트리올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 언급함. 그러나 그 결과는 각 회원조합들의 능력과 법적 프레임 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할 것이라고 말함. 무디의 여성 지역 사무국장 임명에 대한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함.
- 정혜원(한국, 금속노조)은 앞서 발언자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조직이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대응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함. 방글라데시에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요구하며 시위하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아태지역 집행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독일과 미국에서의 시위는 더 높은 임금을 위한 투쟁이 조합원 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함.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아시아 노동계급의 더 큰 역할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나즈마 악터(방글라데시, Sommillito Garment Sramik Sangathan)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언급함. 방글라데시의 최저임금 시위에 대해 공유하며 인터스트리올의 조치를 요청함.

5. 특별 캠페인 피드백: 미얀마, 스리랑카 및 한국

○ 카잉 자르(미얀마)

- 군사 세력이 계속해서 노조원을 체포하고 살해하고 있으며, 임의로 어린이들을 체포하기도 함. 국제 캠페인은 계속되고 있지만, 미디어는 우크라이나 및 다른 전쟁 중인 국가와 같은 방식으로 미얀마 상황을 조명하지 않음. 미얀마의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노조 권리 및 노동자 권리 침해 사례가 기록되고 있음. IWFM은 미얀마에서 총파업을 이끄는 총파업위원회와 협력하고 있음. IWFM의 120명 회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준 인터스트리올에 감사를 표함. 또한 태국에 IWFM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알림. 결론적으로, IWFM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태국에 사무소를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임. ILO는 미얀마에서 조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국가에는 결사의 자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캠페인을 더욱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함.

○ 안톤 마르쿠스(스리랑카, 자유무역지대 및 일반 서비스 직원 노조)

- 경제 위기로 인해 약 150,000명의 노동자가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알림. 많은 공장이 폐쇄되었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음. 식료품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매우 높음. 정부는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노동법 개정에 집중하고 있으며, 노사정 대화를 약화시키고 있음. 노조는 정부에 여러 차례 서한을 제출해 모든 노조와의 회의를 요구했지만, 아직 이러한 회의는 개최되지 않음. 노조가 인터스트리올의 지원을 받아 11월 5일에 공동으로 캠페인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있다고 알림. 인터스트리올이 계속해서 스리랑카의 노동자들과 노조들과 연대할 것을 요청함.

○ 김만재(한국, 금속노련)

- 국가 내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잔인한 공격에 대해 이야기함. 자신을 포함한 다섯 명의 노조 지도자가

체포되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고 말함. 노조의 사무총장은 경찰에 의해 잔인하게 구타당했으며 현재 감옥에 있음. 정부는 노조를 거짓 사건으로 모함함. 그는 체포된 지도자의 보석 청원서가 심리되었으며 현재 노조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림. 연대를 확장해 준 인터스트리올에 감사를 표함. 노조가 대통령이 사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함.

- 김만재 위원장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금속노련 위원장 김만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저를 비롯해 김준영 사무처장, 그리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간부 등 3인에 대해 각종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탑을 설치해 도로교통을 방해한 점, 신고하지 않고 철탑을 설치한 점이 공통된 혐의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에게는 공무집행방해, 김준영 사무처장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케이프타운에서 보신 영상이 기억이 나십니까? 김준영 사무처장은 경찰봉에 수십차례 맞았습니다. 수십 차례 맞으며 저항하던 김준영 사무처장이 어떻게 가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시 경찰봉에 맞은 탓에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는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 보석신청을 한 상태이고 어제 있던 재판에서 보석신청에 관한 재판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결과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노조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며 일반 대중에게 노조혐오적인 정서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연대에 힘 입어 당시 투쟁하던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의 교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항의서한을 보내주시며 투쟁에 함께 해주신 인터스트리올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김준영 사무처장이 석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습니다. 김준영 사무처장이 석방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금속노련은 금속노조가 속해있는 민주노총과 또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노조를 깨부수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정부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의 이 투쟁에 동지들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 윤장혁(한국, 금속노조)

- 한국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 특히 하청 노동자와 젊은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공유함. 오랜 투쟁 끝에 이제 농민들도 노조와 연합하여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음. 국가 총파업에 연대를 보내준 인터스트리올, 특히 쿠알라룸푸르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에 동참한 말레이시아 노동조합에 감사를 표함. 노조가 아시아의 노동자 계급의 강력한 운동을 계속해서 구축할 것이며, 지역 내 모든 투쟁하는 노조에 연대를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함.

○ 프리하니 보에나디

- 반노동자법안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함. 인도네시아에서는 부문별 최저임금이 약화되었으며, 해당 부문에서 여성노동자의 수가 감소함. 이 문제는 2023년 6월 ILC에서도 의제로 다루어짐.

○ 산제이 바드하브카르(인도, 철강, 금속 및 공학 노동자 연합)

- 인도 노조가 다음 총선 전에 어떻게 나아가고 캠페인을 진행할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했다고 언급함.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힘을 합쳤다고 전함. 직장 내 건강 및 안전이 인도 노조의 주요 의제임을 알림. 인도 철강청의 청장이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음을 전함. ILO 자체는 반노동자 정책에 대해 정부에 압력을 가하지 못하고 있지만, 노조는 인터스트리올 지도부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6. 아태지역 여성위원회 회의 피드백

- 아태지역 여성위원회의 새로운 공동의장인 나즈마 악터가 회의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제공함. 글로벌 여성위원회의 활동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하향식 접근 방식과 인터스트리올이 제안한 성폭력 및 괴롭힘 정책에 대한 토론에 중점을 둬. 아푸르바도 보고서에 추가되어 각 회원조합의 지도부가 여성과 관련된 조직의 활동에 대한 이메일을 모든 활발한 여성 지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여성 지도자들의 우려를 강조함. 아태지역 여성위원회 회원들이 GBVH 정책에 대한 제안은 크리스틴 올리비에에게 공유될 예정이라고 알림.
- ACCORD가 특히 미국 브랜드를 포함한 더 많은 브랜드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인터스트리올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아푸르바 카이와르가 떠난 후 지역 사무국장에 여성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함.

○ 현장발언

- 가우탐 모디는 인터스트리올의 모든 부문과 구조에 여성위원회를 두는 필요성을 강조함. 광업 및 TGSL 부문에는 여성위원회가 있지만, 다른 부문에도 이러한 위원회가 있어야 하며, 공장 내 여성들도 이러한 위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함.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할당해야 하며, 예를 들어 언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함.

7. 청년 활동 보고

- 인터스트리올 동남아시아 사무소의 Yap Hwa NG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실시한 청년 활동에 대해 간단히 보고함.

○ 현장발언

- 대만 석유노동자 조합의 Lan Jhih Wei는 국내에서 더 많은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며, 특히 청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최되는 회의에 더 많은 청년을 참석시킬 것을 요청함.
- 임원 회원들이 비서실이 실시한 활동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점에 대한 대응으로, 아푸르바는 사무국이 조직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고 말함.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의 연합체는 정의로운 전환 대한 워크숍을 요청함. 연합체가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의 활동이 기술적 세부사항으로 제한된다고 강조함. 신야 이와이는 지역 사무국이 회원들이 주도하는 조직 활동을 지원한다고 강조함. 또한 회원조합에게 지역 사무국과의 협력을 더 확대할 것을 요청함. 케말 사무부총장은 모든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 두 명의 지역 사무국장이 떠나고 현재의 부위원장과 공동의장이 은퇴할 예정이라는 조직적 변화에 대해 위원회에 알림.

8.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 중간정책대회

- 케말 외즈칸 사무부총장은 올해 초 인터스트리올 중간정책대의에서 진행된 토론의 결론을 공유함. 결론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구성된 작업반과의 협의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동일한 작업반이 다음 시드니 대회를 위한 준비위원회로 활동할 것이라고 알림.

○ 현장발언

- 인도 국가 광산노동자 연맹의 S.Q. 자마는 비정규직화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취업 보장이나 사회적 보호가 없어서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남아시아의 석탄 부문에서의 직업 건강과 질병 상황을 강조함. 지역의 노동조합이 호주의 동지들로부터 석탄 부문 노동자의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함. 시급히 노동조합 수준 및 정책 수준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함.
- 가우탐 모디는 풍력 에너지 부문에서 전략적 조직과 캠페인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함. 현재 풍력 터빈 제조업체 등의 노동자 중에는 전체 인력의 10% 미만이 조직되어 있음. 회의 결론이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조직의 자원을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언급했으며, 리더십은 조직의 필요에 따라 사무국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 토니 마허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정책 수준에서 각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를 강조함. 이번에는 호주 정부가 노동 우대적이므로 노조가 정책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함.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지배에 놓일 것임. 호주의 정의로운 전환 기관이 다른 국가들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었다고 덧붙임.
- UA ZENSEN의 아키히코 마츠우라는 간극이 존재할지라도, 글로벌 프레임워크 협약은 기업에 책임을 묻는 효과적인 도구이며, 따라서 GFAs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언급함.
- 현장발언에 대한 응답으로 케말은 결론이 전략적 문서임을 강조하며, 당연히 조직은 자원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함. 조직의 전략적 중점은 비정규직 활동을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임. 인터스트리올이 석탄 광산에서의 작업 안전과 ILO협약 176호 비준을 위해 파키스탄에 개입하고 있다고 알림. 노동자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임. 기후 자급에 대한 큰 문제가 있으며, 세계은행이 그것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풍력 부문의 전략적 조직화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운영방법을 검토하고 재정 자원에 대한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함. 호주 노동조합이 그 나라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전문지식이 남반구의 다른 국가와 공유될 수 있는지 요청함. 글로벌 프레임워크 협정과 관련하여, 인터스트리올을 글로벌 다국적 위원회에 보내져 그들의 활동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함.

9. 2023년 11월 28~29일 개최되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준비

-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안건 공유

○ 현장발언

- S.Q.자마는 다음 시드니에서의 전체 대회에 대한 보다 넓은 참여를 고려할 때 재정적 제약을 염두에 두고, 조직이 일부 지원을 제공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일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토니 마하는 호주 노동조합이 2025년 시드니에서 모두를 환영할 것을 기대한다고 표현함.
- 정혜원은 지금 독일금속노조가 선거를 치렀고 위원장으로 여성을 선출한 상황에서 인터스트리올 위원장 대행을 어떻게 선출할지에 대한 절차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청함.
- 케말은 공동의장들이 총회 참여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며, 비자 신청 절차가 일찍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 현재의 위원장 대행 선출 절차에 대해 부위원장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명확히함. 부위원장 타키쿠라는 조직의 규정이 준수될 것이며, 현재까지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으며 다음 중앙 집행위원회 회의 이전에 부위원장들이 이에 관한 회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10. 글로벌 기구에서의 대표성

- 부위원장 타키쿠라가 은퇴를 발표하고 다음 부위원장 및 아태지역의 다음 공동의장으로 아키히로 카네코를 제안함. JCM의 회장인 아키히로 카네코는 모든 위원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았고, 이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제시할 예정임.
- 아태지역 집행위원회에 호주의 폴 파로가 정위원으로, 일본 이치카와 치요와 모리야 미부가 부위원으로 위원회에 합류할 예정임.

11. 기타 토의

- 방글라데시에서의 최저임금 시위에 대해 발표함. 이 시위는 경찰의 폭력적인 개입으로 네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음. 최저임금에 대한 시위에 대한 다카 경찰의 잔인한 공격을 강력히 비난함. 노조원 3명이 지난 며칠 동안 체포됨. 인터스트리올은 방글라데시 정부에 민주적 시위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함. 인터스트리올은 또한 최저임금을 현재의 생활수준에 맞춰 23000 BDT로 증액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

12. 폐회

2)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책회의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년 11월 1일(수)
- 장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 참석자

-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이효원 홍보차장

(3) 회의내용

- 인터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의 무역 및 산업 정책에 대한 입장
 - 공정 무역을 향한 인터스트리올의 사업계획 및 인터스트리올 정책은 중앙정책위원회에서 승인됨.
 - 2019년 6월에 채택된 무역 및 산업 정책 및 사업계획에 대한 아태지역 회의의 피드백
- 무역 협정 및 노동자 권리 보호 : 최근 발전 상황
- 패널 토론 1
 - 글로벌 남반구에서의 경험: 무역 협정에서 노동 기준 조항 활용
 - 아세안-인도 자유 무역 협정
 - 미국-필리핀 무역 및 투자 프레임워크
 - 인도네시아-유럽 자유 무역 협회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
- 패널 토론 2
 - 글로벌 북반구에서의 경험: 무역 협정에서 노동 기준 조항 활용(일본 / 한국 / 호주)
- 유럽 시각 : 무역 협정 내 노동권 강화
- 북미 시각 : USMCA에서의 좋은 실천 사례
- 전체 토론
 - 1) 무역 및 지속 가능한 산업 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에서의 간극과 한계는 무엇인가
 - 2) 무역 협정을 통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이 함께 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4) 회의결과

- 많은 노조는 무역 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노조의 관점과 무역 정책 문제 및 프로세스에 대한 참여가 낮고 수동적이며 반작용적인 것으로 나타남.
- 연구 능력 및 정보 및 데이터수집 능력이 부족함.
- 노동의 무역 정책 수립 및 협상 과정에서의 제한된 대표성

- 노동에 의한 산업 연구 부족 - 노동권부터 산업 개발 통합까지 부족함.
- 정부로부터의 무역 및 산업과 관련된 투명성 및 정보 부족(수입 및 수출 데이터, 통관 규정 및 절차, 원산지 규정 등) - 일반적으로 노조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전 컨설팅이 없음.
- 글로벌 남반구와 북반구 회원조합 간의 의사소통 및 조정이 제한되거나 부족하며, 무역 정책 문제에 대한 노조 전문가가 부재함.
- 특히 무역파트너와의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 관련 캠페인에서 전략적 초점 부재

2. 국제교류 활동

가. 인터스트리얼 글로벌 유니온 특별 서신



Geneva, 5 July 2023

Mr Yoon Suk-yeol
President
Republic of Korea
geneva.korea@mofa.go.kr

IndustriALL Global Union urges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guarantee respect of fundamental labour rights at POSCO

Dear President Yoon Suk-yeol,

I am writing to you on behalf of [IndustriALL Global Union](https://www.industriall.org/), representing more than fifty million workers in the mining, energy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in over 141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We call 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nsure the respect of fundamental labour rights at the POSCO's Gwangyang Steel Mill.

A subcontractor of POSCO, 'Sung-am Industry', which served as an internal subcontractor for the Gwangyang Steel Mill, unilaterally attempted to divide and sell the company with an intention to conduct union busting. At first, the company promised a "sale without division." However, in 2020 the company announced that they would terminate the contract with POSCO and subsequently informed all union members of their dismissal in June. In response, the union resisted and declared a total strike. In July, the Tripartite Commission, a statutory body for social dialogue, mediated and an agreement was reached on working conditions and a guarantee of union activities, bringing the situation to a resolution then.

However, 'Po-un', the new subcontractor, failed to honour the agreed-upon working conditions and neglected proper wage negotiations. They also did not ensure protection for union activities. As a result, the union was forced to engage in strikes again, including refusing overtime work. Nevertheless, POSCO seriously undermined the union's struggle by illegally deploying replacement workers, an act prohibited by labour laws.

During periods of industrial action, it is prohibited by law for employers to hire or replace personnel unrelated to the company. It is in violation of the union rights proclaimed in the Constitution. However, POSCO made other subcontractors do the work, which were stopped by the industrial actio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has so far ignored the illegal actions of POSCO and Po-un, while the FKMTU, which is affiliated to IndustriALL Global Union, continued its struggle, erecting a tent camp in front of POSCO's Gwangyang Steel Mill for over 400 days, to call attention to the serious violations of labour rights at POSCO.

To seek a resolution, Chairman Kim Man-jae and Secretary General Kim Jun-young of the FKMTU met with representatives from POSCO and Po-un. However, as there was no willingness to resolve the issue and they kept ignoring the union and their activities, Secretary General Kim Jun-young climbed onto a steel tower in protest. On the last day of May, when the police attempted to dismantle the tower, Chairman Kim Man-jae protested, leading to a violent arrest where he was forcefully restrained, with his face and neck forced onto the ground. The next morning, the police brutally assaulted Secretary General Kim Jun-young, ruthlessly beating his head more than 15 times with a police club and causing him to bleed.

It is high tim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tervened in this case. Therefore, we urge the Government to act immediately to guarantee that POSCO respects the fundamental labour rights of the subcontracted workers within the company and engage in collective negotiations with FKMTU to address the legitimate demands of the workers for decent working conditions and fair wages.

Lastly, we call 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release without any delay Kim Jun-young, who is the Secretary General of FKMTU, and stop the violent suppression of trade union leaders and workers.

We look forward to your prompt action and reply.

Sincerely,

Atle Høie
General Secretary

**인터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포스코에서의 노동기본권 존중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저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141개 국가의 광산, 에너지 및 제조업 분야의 5천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인터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을 대신하여 편지를 씁니다. 포스코의 광양제철소에서 노동기본권 존중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포스코의 하청업체인 '성암산업'은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로 노조깨기를 의도로 회사를 분할매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처음에 회사는 "분사 없는 매각"을 약속했으나, 2020년에 포스코와의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하고 6월에는 모든 노동조합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저항하며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7월에는 사회적 대화의 법적 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중재하여 근로조건 및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며 상황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하청업체인 '포운'은 합의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임금교섭도 해태했습니다. 또한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조는 또다시 초과근무거부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법에 금지된 대체근로를 투입해 노조의 투쟁을 심각하게 저해했습니다.

쟁의행위 기간에는 고용주가 회사와 무관한 인력을 고용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다른 하청업체에 작업을 시키려 했으나 총파업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포스코와 포운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었으며, 인터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의 회원 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앞에 400일이 넘도록 천막농성을 하며 포스코에서의 심각한 노동권 침해에 주목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은 포스코와 포운 대표들과 회담을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었고, 그들은 노조와 그들의 활동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김준영 사무총장은 항의의 표시로 철탑에 올라갔습니다. 지난 5월 말, 경찰이 탑을 해체하려고 시도할 때, 김만재 위원장이 항의하자 그는 억압당하며 얼굴과 목을 땅에 짓눌려 억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김준영 사무처장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경찰봉으로 그의 머리를 15번 이상 맹렬히 때려 출혈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안에 개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정부에 포스코가 회사 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존중하고 금속노련과의 단체교섭에 참여하여 노동자들의 합리적인 요구인 양질의 노동환경과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지체없이 석방하고 노동조합 간부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억압을 중단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합니다.

즉각적인 행동과 응답을 바랍니다.

아틀레 호위 사무총장



Jeong-Woo Choi
Chief Executive Officer
POSCO
POSCO Center West Wing
16th Floor
Seoul 135-777
South Korea
ir@posco.co.kr, igohome@posco.co.kr, cooljoon@oposco.com, webmaster@posco.co.kr;
ethics@posco.co.kr; idotcom@posco.co.kr

Calling on POSCO to honour agreed-upon working conditions and proper wage negotiations with FKMTU at Gwangyang Steel Mill

Dear Mr Jeong-Woo Choi,

I am writing to you on behalf of IndustriALL Global Union, which represents 50 million workers in the mining, energy, and manufacturing sectors in 141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to call on POSCO to honour agreed-upon working conditions and proper wage negotiations at Gwangyang Steel Mill.

We strongly condemn POSCO's behaviour, through its subcontractor 'Po-un', which has failed to honour the agreed-upon working conditions and proper wage negotiations, in line with the agreement, mediated by the Tripartite Commission, that was reached in 2020 stipulating working conditions and a guarantee of union activities.

POSCO has also failed to ensure protection for union activities. As a result, FKMTU, which is affiliated to IndustriALL Global Union, was forced to engage in strikes again, including refusing overtime work. Nevertheless, POSCO seriously undermined the union's struggle by illegally deploying replacement workers, an act prohibited by labour laws.

During periods of industrial action, it is prohibited by law for employers to hire or replace personnel unrelated to the company. It is in violation of the union rights proclaimed in the Constitution. However, POSCO made other subcontractors do the work, which were stopped by the industrial actio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has turned a blind eye to the illegal actions of POSCO and Po-un, while the union continued its struggle, erecting a tent camp in front of POSCO's Gwangyang Steel Mill for over 400 days.

54 bis, route des Acacias
CH 1227 Geneva
Switzerland

Tel: +41 (0)22 308 50 50
info@industriall-union.org
www.industriall-union.org

President: Jörg Hoffmann
General Secretary: Adis Hain



To seek a resolution, Chairman Kim Man-jae and Secretary General Kim Jun-young of the FKMTU met with representatives from POSCO and Po-un. However, as there was no willingness to resolve the issue and they kept ignoring the union and their activities, Secretary General Kim Jun-young climbed onto a steel tower in protest.

On the last day of May, when the police attempted to dismantle the tower, Chairman Kim Man-jae protested, leading to a violent arrest where he was forcefully restrained, with his face and neck forced onto the ground. The next morning, the police brutally assaulted Secretary General Kim Jun-young, ruthlessly beating his head more than 15 times with a police club and causing him to bleed.

IndustriALL Global Union and its affiliates from around the world, as unanimously expressed at our global Executive Committee meeting last week in Cape Town, strongly condemn the violent suppressio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olice, as well as the illegal actions of POSCO, which undermine the union rights of subcontracted workers within the company. We demand the immediate release of Secretary General Kim Jun-young.

We call on POSCO to respect the fundamental labour rights of the subcontracted workers within the company, engage in meaningful negotiations with FKMTU to address the legitimate demands of the workers for decent working conditions and fair wages.

Sincerely,

Atle Høie
General Secretary

**광양제철소에서 금속노련과의 합의된 근로조건과
적절한 임금교섭을 포스코가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최정우 씨께,

인더스트리얼 글로벌 유니온을 대표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글로벌 유니온은 광산, 에너지, 제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해 141개 국가에 걸쳐 5,00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양제철소에서 포스코가 합의된 근로조건과 적절한 임금교섭을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포스코가 포운을 통해 지난 2020년 노사정위원회 중재에 따라 근로조건과 노조활동 보장을 규정한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행태를 강력히 비난합니다. 포스코의 하청업체인 '포운'은 합의된 근로조건과 적절한 임금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는 또한 노조활동 보호를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더스트리얼 글로벌 유니온의 회원조합인 금속노련은 초과근무거부를 포함한 파업에 다시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법에 금지된 대체근로를 불법으로 동원하여 노조의 투쟁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습니다.

쟁의행위 기간동안, 기업이 회사와 관련 없는 인원을 고용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선언된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총파업으로 중단된 작업을 다른 하청업체에 맡겨 법에 금지된 사항을 무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와 포운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노조는 광양제철소 앞에 농성천막을 설치해 400일 이상의 투쟁을 지속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은 포스코와 포운의 대표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었으며, 계속해서 노조와 노조의 활동을 무시했습니다. 이에 김준영 사무처장은 항의의 표시로 철망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5월의 마지막 날, 경찰이 철망을 해제하려고 시도했을 때 김만재 위원장은 항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는 폭력적으로 체포되어 억압당했고 얼굴과 목을 땅에 강제로 압박당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김준영 사무처장을 잔인하게 공격하여 경찰봉으로 그의 머리를 15번 이상 무차별적으로 가격하고 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주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인더스트리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인더스트리얼 글로벌 유니온과 세계 각국의 회원조합은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의 폭력적인 억압, 그리고 사내하청노동자의 노조 권리를 침해하는 포스코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비난합니다. 우리는 김준영 사무처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포스코에게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존중하고, 금속노련과 의미 있는 교섭에 참여하여 노동자들의 합리적인 요구인 적절한 노동조건과 공정한 임금을 해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틀레 호위 사무총장

1. 가맹노조 법률지원활동

- 가. ㄱ노조 법률지원
- 나. ㄴ노조 법률지원
- 다. ㄷ노조 법률지원
- 라. ㄹ노조 법률지원

2. 질의회신

- 가. A노조 질의에 대한 회신
- 나. B노조 질의에 대한 회신
- 다. C노조 질의에 대한 회신

3. 노동법률교육

4. 광양폭력진압사건 법률지원

- 가. 포운 투쟁 개요
- 나. 법률지원

평가 및 개선방향

금속노련 가맹노조의 법률활동을 지원하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사실이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 사용자가 통상해고라고 판단하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을 주장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정받은 사례,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며 부당징직을 인정받은 사례, 조합원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에 해당되는데,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단위노조 법규담당자의 노동법률 지식을 함양하여 조직력을 강화하고 간부 및 조합원들의 연대 및 조직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노동법률교육을 개최했다. 급변하는 노동정세 속에서 노조간부의 노동법률 지식함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함에 따라 노조간부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에 관한 법률 등의 기본사항을 이해하고 숙지하기 위해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했다. 노동법률교육을 통해 치밀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자본의 법적 수단에 의한 압박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을 키우고자 했다.

포운 교섭과 하청사 노동3권 문제 해결을 위해 김만재 위원장, 김준영 사무처장이 광양에 갔으나 폭력진압을 당했다. 광양폭력진압사건과 관련해서는 중앙법률원 변호인 선임 지원, 재판 증거 지원, 국민권익위 진정 지원, 구속적부심 탄원 지원 등을 진행했다. 현재도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에도 노동법률교육을 비롯한 집체교육을 진행하여 현장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현장과 이슈의 정기적인 발행을 통해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1. 가맹노조-중앙법률원 법률지원활동

가. ㄱ노조 지원

- 민주노총 금속노조 ㄱ지회가 한국노총 금속노련 ㄱ노조를 상대로 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을 신청하였는데, 각 노동위원회 및 서울행정법원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안에서, ㄱ노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사실이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2누46086 판결)
- 민주노총 금속노조 ㄱ지회가 교섭대표노조인 ㄱ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ㄱ지회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지 않고, 교섭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및 임금 및 단체협약 찬반투표시 ㄱ지회 조합원의 참가를 배제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교섭대표노조인 ㄱ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화해를 달성한 사례(경북지방법노동위원회 2023. 2. 1 화해 2022공정21)

나. ㄴ노조 지원

- ㄴ주식회사가 유죄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ㄴ노조 조합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통상해고라고 판단하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을 주장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정받은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23. 11. 9 판정 2023부해1347)

다. ㄷ노조 지원

- 주식회사 ㄷ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 및 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 근로자들이 복직하였음. 복직한 근로자 중 한 명에게 기존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그 업무 수행을 거부하자 이를 이유로 직접 업무지시를 내렸던 이사가 징계위원으로 포함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40일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정직 40일은 그 양정이 과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며 부당징계를 인정받은 사례(중앙노동위원회 2023. 11. 13 판정 2023부해1384)

라. ㄹ노조 지원

- 주식회사 ㄹ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종료 되었음을 통보함. 조합원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에 해당되는데,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을 인정받은 사례(전남지방법노동위원회 2023. 10. 31 판정 2023부해624)

2. 질의회신

가. A노조 질의에 대한 회신

1) 사실관계 및 질의 내용

- 과거 회계감사가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나 규약 개정을 통해 회계감사의 업무 감사 권한을 삭제함.
- 이후 규약 개정 시 회계감사는 회계에 대한 감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했고 업무에 대한 감사는 대의원회의에서 진행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함.
- 감사위원이 업무,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또는 대의원이 업무감사를 진행하며 회계자료까지 열람 가능한지 여부에 이견이 있음.
- 위 안전과 관련하여 조합원 밴드를 통해 투표로 결정해도 되는지,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질의회신

(1) 규약 관련

- 귀 노조의 규약에 따르면 업무감사는 회계감사와는 별도로 대의원회의에서 진행하게 되었지만 업무 감사의 범위, 구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규약상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규약 해석 관련

- 노동조합의 규약 해석상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규약의 제정기관이나 규약으로 위임을 받은 기관이 유권적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노정1542-7371, 1968.08.05.)
- 그러므로 규약 및 규정의 제정 취지·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노조68107-517, 2001.05.04)
- 이에 따라 노조 규약의 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귀 노조에 있는 바, 귀 노조의 경우 총회(대의원회)나 규약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그 해석 권한이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 노조법 제16조에 의거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합니다.
- 그 이외의 사항은 의결방식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실정에 맞게 현장투표, 우편, ARS, 전자투표 등의 방식 중에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서울지법2016가합520510)

나. B노조 질의에 대한 회신

1) 사실관계 및 질의 내용

- 귀 사업장에는 2개 노조가 있으며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 2022년 8월 11일 교섭대표노조를 선출함.
- 교섭대표노조가 2022년 10월 24일에 유효기간 1년의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함.
- 이와 관련하여 (1) 단체교섭 요구를 2023년 5월에 해도 되는지 또는 단협만료 3개월 전에 해야 하는지 여부
- (2) 2024년 교섭을 진행하면서 2024년 10월 23일이 초과되어도 단협이 체결되지 못 했을 경우 새로운 교섭대표노조 선정 여부

2) 질의회신

(1) 교섭 요구 시기 관련

- 사용자와의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라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기간 이전에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법 제30조의 교섭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단체교섭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2023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 관련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기준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되,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 이에 따라 2022년 8월 11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유효기간이 1년(2022년 10월 24일~2023년 10월 23일)인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은 2022년 8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23일까지로 사료됩니다.

- 만약 2024년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2024년 10월 23일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2항에 따라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출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서만 제한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C노조 질의에 대한 회신

1) 사실관계 및 질의 내용

- 귀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에 병가 사용 시 조합원의 연차유급휴가를 우선적으로 소진하게 하는 규정이 존재함.
- 병가 사용 중 조합원에게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조합원의 동의 없이 이를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회신

-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에 관하여 “법률행위에 따라 작성된 처분문서에 담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귀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은 “회사는 조합원이 개인적 질병,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연차휴가를 우선 소진하며, 소진후에도 치료가 필요할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병가를 부여하며, 동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조합원이 병가 사용 신청 당시 존재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우선적으로 소진(사용)하여 치료하고, 그럼에도 치유가 되지 않아 추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유급병가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되는데, ‘해당 규정이 기존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부여받은 병가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도 소진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 7. 18.).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병가 사용 중에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조합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 규정에 담긴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왜곡하여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으며, ▲ 조합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연차유급휴가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 가사, 사용자의 주장대로 단체협약을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 병가 사용 중 조합원에게 발생한 모든 연차유급휴가를 임의로 차감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조합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 지정권을 침해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을 병가 중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조합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차감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노동법률 교육

○ 목적

- 단위노조 법규담당자의 노동법률 지식을 함양하여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함
- 단위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연대 및 조직현안을 공유하기 위함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0월 23일(월) ~ 10월 25일(수), 국제청소년센터

○ 참석인원 : 80명

○ 교육프로그램

시 간	10월 23일(월)	10월 24일(화)	10월 25일(수)
08:00 ~ 09:00		조식	
09:00 ~ 10:00		개별적 근로관계법 실무	직장 내 괴롭힘 실무
10:00 ~ 11:00			
11:00 ~ 12:00		점심식사	각자 사업장으로
12:00 ~ 13:00			
13:00 ~ 14:00	접수 및 개강식	노동가로 배우는 노동운동사	
14:00 ~ 15:00	참가자 소개		
15:00 ~ 16:00	노동정세	집단적 노사관계법 실무	
16:00 ~ 17:00	임금실무		
17:00 ~ 18:00			
18:00 ~	석식(단결의 밤)	저녁식사	

4. 광양폭력진압사건 법률지원

가. 포운 투쟁 개요

- 2017년 원청 포스코의 분사매각 시도에 성암산업노조는 투쟁을 통해 2018년 분사 없는 매각을 포스코와 합의함.
- 포스코의 약속과 달리 성암산업 사측이 작업권을 반납하고 조합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금속노련과 2달 가까운 국회 노숙농성 진행. 경사노위 중재로 사회적 합의
 - 일시적 분사매각 수용 시 포스코 및 신설 하청에서 ▲ 기존 노동조건 유지 ▲ 1년 이내에 분사 이전 상태 회복 ▲ 분사 시 가장 많은 조합원이 가는 신설 법인에서 단체협약을 승계 보장
- 이후 포운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포운노조의 파업도 포스코의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무력화됨.
- 포운 교섭과 하청사 노동3권 문제 해결을 위해 김만재 위원장, 김준영 사무처장이 광양에 갔으나 폭력진압을 당함.

나. 법률지원

- 중앙법률원 변호인 선임 지원(변호사 문성덕, 정명기, 우지혜, 장희국, 박운병)
- 재판 증거 등 지원
- 국민권익위 진정 지원

존경하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영장전담재판부 판사님께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탄원인은 감사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탄원인은 피의자 김준영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을 소망하며, 아래와 같이 탄원합니다.

지난 6월 2일 구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은 오랜 세월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계약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며,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헌신적인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준영 사무처장은 포스코 사내하청인 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하던 중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준영 사무처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하루 반나절 만에 너무나 폭력적으로 김준영 사무처장을 진압했습니다. 이는 경찰 물리력 사용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경찰이 위협을 주장하는 '정글도'라는 것은 고공농성장의 현수막 제거 등에 사용한 것이며, 결코 경찰에게 직접 피해를 가한 바가 없습니다. 경찰이 쇠파이프'라고 주장하는 것도 두께 22센티 얇은 비계지지 막대기'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용인해 주는 것이자 우리 사회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김준영 사무처장은 평소 신의를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며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감안하시어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간곡히 탄원합니다.

○ 구속적부심 탄원 지원

○ 석방 탄원 지원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3고합36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탄원인 : 국회의원 000

피탄원인(피고인) : 김준영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탄원인은 감사와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탄원인은 피고인에 대한 귀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을 소망하며, 아래와 같이 탄원합니다.

아 래

피고인(피탄원인) 김준영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지난 33년 동안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원만한 산업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자입니다.

피고인은 1998년 전국 최초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립을 주도해 노사정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노사 공동의 직업훈련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노동복지관을 운영하였고, 젊은 나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54개 지역지부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동아일보는 2010., 2011., 2013. 3회에 걸쳐 '10년 후 한국을 빛낼 100인'으로 피고인을 선정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위원 9인 중 1인으로서 2,500만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전국 금속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전국을 뛰며 평생을 헌신하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들을 위해 이 사건 고공농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도 보장되지 않아 하청노동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알리고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노사는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단체협약에 합의하였으며, 4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온 분쟁은 종식되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망루에 오르게 된 원인은 소멸하였으며, 노사는 서로 협력하며 상생하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분쟁이 종식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시 유사한 사건을 벌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피고인이 석방된다면 노사 상호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을 위한 상징적인 결음으로서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피고인이 법이 정한 엄정한 질서를 어기고 망루에 오른 행위는 잘못이기는 하나 체포 과정의 과도한 폭력에 피고인이 상당한 부상을 입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머리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고,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던 시기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러한 바람은 공권력 행사의 위법성을 엄격히 따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감 중인 몸으로는 수습기에 이르는 영상 증거와 수천 페이지의 문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습니다. 부디 피고인이 석방된 환경에서 공권력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전쟁, 금리, 환율 등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는 심각한 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 신뢰와 협력이며, 갈등을 넘어 합리적인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피고인이 석방된다면 피해 젖은 체포로 발생된 갈등이 봉합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협력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재판장님,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탄원인의 간절한 의사, 향후 대한민국 노동조합들의 활동에 미치게 될 영향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하여 피고인이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고대합니다.

08 산업안전보건활동

1. 산업안전보건교육
 - 가. 제조연대(금속화학) 산업안전보건교육
 - 나. 금속노련 산업안전보건교육
2. 회의체 활동
 - 가. 202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전문위원회
 - 나. 202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전문위원회
3.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활동
 - 가. 주요 활동
4. 산업재해 지원
 - 가. 활동
 - 나. 주요 사건

평가 및 개선방향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응모하여 진행해 왔으나 정부의 회계 공시, 노동개약 등의 여파로 지원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공모사업 계약을 마쳤으나 공단에서 계약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도 제조연대(금속화학)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울산 소재 안전보건공단교육원에서 8월 16일(수)~18일(금) 3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이 제조연대 차원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금속노련에서는 풍산노조 등 16개 단위노조에서 38여 명이 참석했다.

금속노련 산업안전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울산 소재 안전보건공단교육원에서 12월 13일(수)~15일(금) 3일간 진행되었다. 김영미 정책본부장의 노동정세, 장진영 변호사의 노동관계법, 최서연 교수의 근골격계교육, 전현승 노무사의 산재보상 실무, 이완 교수의 위험성 평가, 이숙전 활동가의 노동자 건강권으로 진행됐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산안간부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에는 안전보건공단 지원교육이 진행되지 않아 금속노련 자체 예산을 통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재보상보험 정책전문위원회에도 참여하여 산재기금 여유자산 운용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 회계연도 산재기금 결산보고 등을 심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금지를 위한 활동도 전개했다.

향후에도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산안 활동 참여 방안 마련, 위험성 평가 제도를 통한 사고사망 재해 감소의 인식 확산,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이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가. 제조연대(금속화학) 산업안전보건교육

- 일시 : 2023년 8월 16(수)~18(금)
- 장소 : 안전보건공단교육원(울산시 중구 종가로 400)
- 참석 : 대표자 및 간부 68명
- 교육일정표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8월 16일(수)	8월 17일(목)	8월 18일(금)
08:00~09:00		아침식사 및 교육준비	
09:00~10:00		산업안전보건법	노동권과 건강권
10:00~11:00			
11:00~12:00			종강식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개강식	위험성 평가의 이해	
14:00~15:00	노동정세와 노동조합의 역할		
15:00~16:00		산재보상의 실무	
16:00~17:00	중대재해처벌법		
17:00~18:00			
18:00~19:00	저녁식사		

나. 금속노련 산업안전보건교육

- 일시 : 2023년 12월 13(수)~15(금)
- 장소 : 안전보건공단교육원(울산시 중구 종가로 400)
- 참석 : 대표자 및 간부 60명

○ 교육일정표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12월 13일(수)	12월 14일(목)	12월 15일(금)
08:00~09:00		아침식사 및 교육준비	
09:00~10:00		근골격계 및 뇌심질환의 이행	노동자 건강권
10:00~11:00			
11:00~12:00			종강식
12:00~13:00	점 심 식 사		
13:00~14:00	개강식	산재보상 실무	
14:00~15:00	노동정세		
15:00~16:00	노동관계법		
16:00~17:00		위험성 평가의 이해	
17:00~18:00			
18:00~19:00	저 녁 식 사		

2. 회의체 활동

가. 202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전문위원회

1) 일시 : 2023년 5월 22일(월) 14시

2) 장소 : 한국기술대학교 평가원

3) 참석 : 김영미 정책기획본부장

4) 내용

(1) 보고안건 : 2023년 산재기금 여유자산 운용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

가) 운용 규모

○ '23.4월말 산재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은 25조 7,11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조 1,629억원 증가

나) 자산별 운용 기준

○ 자산별 보유 비중은 국내채권이 43.4%로 가장 높고 해외주식 20.5%, 국내주식 15.3%, 대체투자 13.0% 순으로 구성

-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따라 전년말 대비 해외주식 비중을 2.86%p 확대하여 운용

다) 운용 성과

○ 금융시장은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추세 완화와 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에 전 자산군이 동반 상승

* 주식(국내: KOSPI, 미국: S&P500, 신흥국: MSCI) / 채권(국내: KIS, 미국: Bloomberg, 신흥국: JPMorgan)

○ 글로벌 금융시장 강세로 인해 모든 자산군이 양(+)의 성과를 보이며 기금 전체 운용성과는 6.41%를 기록

* 공정가치 평가가 미반영된 대체투자 제외 시 기금 수익률은 7.13%

- 국내채권과 해외주식의 초과성과에도 불구하고 공정가치가 미반영된 대체투자의 영향으로 기준수익률 대비 △0.34%p 하회(대체투자 제외시 0.18%p 초과 성과)

(2) 심의안건 : 2024회계연도 산재기금운용계획(안)

가) 산재기금 운용 규모

○ '23년말 산재기금 여유자산 평가금액은 26조 6,408억원으로 '22년말 대비 3조 927억원 증가

○ '23년말 운용자산은 채권 47.1%(국내 44.6%, 해외 2.5%), 주식 36.2%(국내 16.1%, 해외 20.1%), 대체투자 12.6%, 단기자금 4.1%로 구성

- '22년말 대비 해외주식, 단기자금 비중을 확대 운용

* 해외주식은 중장기 자산배분 관점에 따라 2.4%p 확대, 단기자금은 보험료 지출 증가세로 안정적 입출금 관리를 위해 0.4%p 비중 확대

- 고금리 시장에 대한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대체투자는 1.3%p 비중 축소 운용

나) 심의안건 : 2024회계연도 산재기금운용계획

□ 수입

○ '24년 순수입(안)은 10조 3,769억원으로 '23년 대비 5,813억원(5.9%) 증가

⇒ 적용 확대에 따른 보험료(사회보장기여금) 증가(7.6%),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요구('23년 대비 118억 증액) 등

□ 지출

○ '24년 순지출(안)은 9조 8,492억원으로 '23년 대비 2,086억원(2.2%) 증가

* 산재보험사업 1,322억(1.6%), 산재예방사업 657억(5.5%), 기금운영비 107억(2.5%) 증가

○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운용은 4조 6,763억원 (전년대비 50.3% 감소)

○ '23년 기금 수익률은 우호적 금융시장 환경과 시장상황을 적절히 이용한 전술적 자산배분을 통해 12.25% 실현

- 주요국 인플레이션 둔화 및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에 따라, 상승 탄력성이 높은 주식 자산군 비중을 확대하여 기금 성과 제고

-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 거래 위축된 대체투자 자산은 기투자 상품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포트폴리오 안정화를 위해 노력

* 대체투자 제외 기금 수익률은 13.60%로 기준수익률 대비 +0.62%p 초과

○ '23년 운용성과는 최근 10년간 기금 운용수익률 평균(4.15%)을 상회하며 재정안정성에 기여

나. 202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전문위원회

1) 일시 : 2024년 2월 15일(목) 14시

2) 장소 :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

3) 참석 : 김영미 정책기획본부장

4) 내용

(1) 보고안건 : 2023년 산재기금 여유자산 운용성과

가) 운용 규모

○ '23년말 산재기금 여유자산 평가금액은 26조 6,408억원*으로 '22년말 대비 3조 927억원 증가

○ '23년말 운용자산은 채권 47.1%(국내 44.6%, 해외 2.5%), 주식 36.2%(국내 16.1%, 해외 20.1%), 대체투자 12.6%, 단기자금 4.1%로 구성

- '22년말 대비 해외주식, 단기자금 비중을 확대 운용

* 해외주식은 중장기 자산배분 관점에 따라 2.4%p 확대, 단기자금은 보험료 지출 증가세로 안정적 입출금 관리를 위해 0.4%p 비중 확대

- 고금리 시장에 대한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대체투자는 1.3%p 비중 축소 운용

나) 운용 성과

○ '23년 기금 수익률은 우호적 금융시장 환경과 시장상황을 적절히 이용한 전술적 자산배분을 통해 12.25% 실현

- 주요국 인플레이션 둔화 및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에 따라, 상승 탄력성이 높은 주식 자산군 비중을 확대하여 기금 성과 제고

-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 거래 위축된 대체투자 자산은 기투자 상품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포트폴리오 안정화를 위해 노력

○ '23년 운용성과는 최근 10년간 기금 운용수익률 평균(4.15%)을 상회하며 재정안정성에 기여

다) 심의안건 : 2023년 회계연도 산재기금 결산보고서

□ (수입) '23년 16조 5,826억원 징수결정하여 14조 9,678억원 수납

(수납률 90.3%), 미수납액 1조 5,083억원, 불납결손액 1,066억원

○ (순수입) 11조 8,92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0조 2,775억원* 수납

↳ 수납액에서 여유자금 회수(2조 6,603억) + 공자기금 예탁금 회수(2조 300억) 제외

* 보험료수입(9조 1,054억원) + 재산수입(7,894억원) + 경상이전수입(1,144억원) + 용자원금회수(1,539억원) + 정부내부수입(1,036억원) + 기타수입(107억원)으로 구성

○ (여유자금 회수) 계획액 7조 2,306억원 대비 4조 5,703억원이 적은 2조 6,603억원 회수

* (여유자금 회수실적이 적은 이유) 약 1.2조원 수지차 발생으로 여유자금 회수를 통한 사업비 지출 필요성이 적었고, 자산 재배치(주식 → 채권, 채권 → 주식 등)의 필요성도 낮은데 기인

○ (공자기금 예탁금 회수) 계획액과 동일한 2조 300억원 회수

□ (지출) '23년 지출액은 14조 9,678억원

○ (순지출) 지출계획예산 9조 6,414억원 대비 9조 753억원 지출*(94.1%)하고, 5,659억원 불용

○ (여유자금 운용) 지출계획예산 7조 8,648억원 대비 3조 5,224억원이 적은 4조 3,424억원 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계획과 동일한 1조 5,501억원 지출

□ '24년말 누적 적립금은 24조 340억원으로, 책임준비금*은 6조 6,794억원이며, 연금 등 장래 보험급여 대비 적립금**은 17조 3,546억원

*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고(산재법 제99조), 전년도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총액을 차년도의 책임준비금으로 적립(산재법시행령 제90조제1항)

**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 보유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산재법시행령 제90조제2항)

□ '23년말 기준 자산총액은 29조 4,993억원, 부채는 6조 6,891억원, 순자산은 22조 8,102억원

○ 자산은 전년(26조 1,861억원)대비 3조 3,132억원 증가(12.7% ↑)

○ 부채는 전년(6조 4,006억원)대비 2,885억원 증가(4.5% ↑)

○ 순자산은 전년(19조 7,855억원) 대비 3조 247억원 증가(15.3% ↑)

3.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활동

가. 주요 활동

1) 목적 및 필요성

-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제시 및 개정
-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
-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 지원

2) 세부 추진사항

- 중대재해처벌법(법·시행령) 개선방안 마련 및 개정 요구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 저지

3) 주요내용

- 의견서, 기자회견, 국회 방문 등 대외활동을 통한 금속노련 의견 피력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TF 및 법원 중대재해처벌법 1심 선고 대응

4. 산업재해 지원

가. 활동

- 금속노련은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중앙법률원과의 협업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함

나. 주요 사건

- 주식회사 A사는 회사의 권유로 장기간 노사분규로 인한 우울증을 입원 치료받고 있던 근로자를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해고함. 이에 금속노련에서 법률지원을 하여 중앙법률원에서 조합원을 대리하여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막연히 근로자의 정신질병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유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사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 10. 24 결정 2023부해594)

1. 통일사업 참여

- 가. 제11회 한국노총 평화학교
- 나. 정전 70년 국제심포지엄
- 다.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참석
- 라. 제14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 마. 8.15 한국노총 통일대회
- 바. 2023년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 합동추모행사

2. 추모행사 참석

- 가. 제53주기 전태일 추도식 및 제31회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
- 나. 노동운동가故장진수동지 16주기 추모제

3. 연대사업

- 가. 정전 70주년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 참여
- 나. 역사 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 참여
- 다. 세월호 10주기 시민위원 참여

평가 및 개선방향

2023년 4월 금속노련 193차 중앙위원회에서 금속노련 박용락 상임부위원장이 통일위원장으로 승인되어 금속노련 통일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3년에는 한국노총 차원에서 다양한 통일사업이 진행됐다. 또 본격적인 엔데믹 국면 아래에서 각급 조직의 활발한 참여가 더욱 높아졌다. 한국노총 통일선봉대는 올해도 금속노련을 중심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의 뒷받침이 되었다. 통일선봉대의 경우 기존에 참여하던 조직들에 더해 계속해서 신규로 참여하는 조직이 늘어나서 금속노련의 통일운동 참여에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다.

또한 전태일열사, 장진수동지 추모제에 금속노련 조합원 및 사무처가 참석하여 열사의 뜻을 기리고 받들겠다는 의지를 되새겼다. 특히 올해 제31회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에서는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하청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는 영광을 얻었다.

2023년 한해는 한국노총에서 진행하는 각종 연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유독 한국노총과 금속노련에서 진행되는 서명운동, 탄원, 모금 등이 많았던 해임에도 불구하고 정전 70주년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 역사 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 세월호 10주기 시민위원 참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합해주는 현장의 동지들 덕분에 사업이 가능했다.

몇 해째 금속노련은 자체 통일, 연대사업 등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금속노련 통일위원회 활동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금속노련 자체 사업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통일사업 참여

가. 제11회 한국노총 평화학교

-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 13일(목)
- 장소 : 제주 / 4.3 유적지
- 참석자
 - 금속노련 지영철 노사대책부장
 - 롯데알미늄노조, 암스노조, 남양넥스모노조, 삼구아이앤씨노조, 포스코플랜텍포항노조, 지엠비코리아노조 등 13명

나. 정전 70년 국제심포지엄

- 일시 : 2023년 7월 27일(목) 14:00
- 장소 :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 참석자 : 이효원 홍보차장

다.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참석

1) 2023년 제1차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23. 4. 3(월) 13:00,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주요안건
 - ① 2022년 한국노총 통일사업 보고 및 평가
 - ② 2023년 한국노총 통일사업 계획
 - ③ 기타
- 참석자 : 박용락 상임부위원장(금속노련 통일위원장)
- 회의결과
 - ① 평화통일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 노총 통일사업 및 통일위원회의 역할 등 통일위원장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자료가 필요함에 공감, 통일의 필요성, 노동자와 통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자료가 필요함에 공감

- 추후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통일위원장들에게 사전 공유키로 함.
- 2022년 진행했던 통일위원회 사전 교육을 평화통일 아카데미로 정식화하여 추진하되, 집합교육 방식보다는 정기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기됨.

② 2023년 한국노총 8.15대회

- 통선대 및 노총 8.15대회 일정이 토·일·월·공휴일(4일)로 진행됨에 따라, 조직화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다른 단체 통선대가 8.15범국민대회를 마지막 행사로 운영함에 따라, 조직화 등의 이유로 노총이 통선대 일정을 옮길 경우 노총만의 행사로 될 우려가 있으며, 8.15범국민대회의 참여도 쉽지 않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및 <2023년 한국노총 8.15대회> 일정은 8.12(토)~15(화)로 확정함. 세부계획은 추후 논의키로 함.

③ 정전 70년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

- <정전 70년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을 진행키로 함. 그 외 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 및 6.15남측위원회 등 통일연대단체 사업에 대하여 추후 세부계획이 제출 되는대로 공유 및 공지키로 함.

④ 기타 안건

- 논란이 되었던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논평' 등에 대하여, 우리 땅에서 전개되는 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것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표된 노총 의견이었음을 확인 함.

2) 2023년 제2차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7월 5일(수) 14:00,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주요안건

- ① 정전70년 한반도 평화운동 : 서명운동, 7/22 평화대회
- ②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 ③ 2023년 8.15 한국노총 통일대회
- ④ 기타

○ 참석자 : 이효원 홍보차장

○ 회의결과

- ①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 2일차 김준영 동지 석방 촉구 결의대회 또는 포운노조 앞 공동집회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통일선봉대 노래나 율동 등 사전에 자료 배포 요청
- ② 통일교재
 - 통일사업 소개 / 통일에 대한 제반 해설 / 통선대 교육 자료 등, 통선대와 통일위원장 등 통해 전달

- 통일뉴스와 공동으로 추진

3) 2022년 제4차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22년 7월 28일(목) 10:00, ZOOM 회의
- 주요안건
 - ① 제14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조직화 현황
 - ② (가칭) 8.15 한국노총 통일대회
 - ③ 기타
- 참석자 : 박용락 상임부위원장, 이효원 홍보차장
- 회의내용 : 통선대 신청인원 독려, 제14기 통선대장 확정, 세부일정 재확인

4) 제3회 평화통일교육 및 제5차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0월 7일(금) 14:00,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이효원 홍보차장
- 주요안건
 - ① 10~12월 통일사업계획, 통일위원회 워크숍, 기타
- 회의내용 : 교육은〈대내외정세를 바라보는 북의 입장과 핵교리 법제화〉를 제목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 강의, 회의는 통일정세 2.10-12월 통일사업계획 논의

라. 제14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 일시 : 2023년 8월 9일(수) ~ 12일(토)
- 장소 : 전국
- 참석자
 - 금속노련 박용량 통일위원장, 이의선 조직차장, 이효원 홍보차장
 - 한국항공우주산업노조 1명, 코리아휠노조 1명, 삼우금속노조 1명, 남양넥스모노조 4명, 명화공업노조 5명, 롯데알미늄노조 3명, 한국특수전지노조 1명, STX중공업노조 1명, LS메탈노조 1명, 한일투브노조 1명, 고려용접봉노조 2명, 니콘코리아노조 1명, 하이닥코리아노조 1명, ASE코리아노조 6명

마. 8.15 한국노총 통일대회

- (1)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11일(금) 16:00,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서울, 용산역 광장)
- (2) 참석자 : 김만재 위원장, 김영미 정책기획본부장, 박선자 총무실장, 나병호 정책국장 및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금속노련 참석자 전체

바. 2023년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 합동추모행사

- (1)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23일(수) ~ 25일(금) / 일본 오사카, 교토부 등
- (2) 참석자 : 남양빅스모노조 3명, 화신정공노조 1명, 스태츠칩팩코리아노조 1명

2. 추모행사 참석

가. 제53주기 전태일 추도식 및 제31회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

- (1) 일시 및 장소 : 2023년 11월 13일(월) 11:00,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
- (2) 참석자 : 김만재 위원장, 김준영 사무처장, 박용락 상임부위원장, 김영미 정책기획본부장, 이효원 홍보차장
- (3) 비고 : 김준영 사무처장이 '전태일 노동상 공로상' 수상

나. 노동운동가故장진수동지 16주기 추모제

- (1) 일시 및 장소 : 2022년 12월 1일(금) 11:00,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
- (2) 참석자 : 김준영 사무처장, 이효원 홍보차장

3. 연대사업

가. 정전 70주년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 참여

- 취지 : 정전협정 7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와 협력하여 평화실현
- 기간 : 2023년 5월 8일(월) ~ 6월 16일(금)

나. 역사 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 참여

- 취지
 - 윤석열 정부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안' 즉 일본 피해기업 배상 판결금을 한국 정부가 대신 지급하겠다고면서, '판결금 공탁금' 꼼수를 쓰고 있음.
 - 양금덕 할머니(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와 이춘식 할아버지(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의 용기있는 투쟁을 응원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금운동이 진행되고 있음.
 - 2023년 제2차 한국노총 통일위원회에서 모금운동에 대한 조직적인 동참을 결정함.
- 기간 : 2023년 7월 6일(목) ~ 8월 4일(금)
- 참여조직 : 엔피씨물텍, 한국항공우주산업, 두올아산, 영진, 엔이케이, 한즈코퍼레이션, SK하이이엔지기술사무, 조일알미늄, 세명테크, 롯데알미늄, 두원중공업, 대덕전자노조 등

다. 세월호 10주기 시민위원 참여

- 목적 : 4.16 참사 추가진상규명 및 생명안전법 제정 등 10주기 사업 추진
- 기간 : 1차) 2024년 2월 27일(화) ~ 3월 20일(수)
2차) 2024년 3월 21일(목) ~ 4월 16일(화)
- 참여조직 : 단체) 금속노련, 덴소코리아마산, 남양텍스모, 인지컨트롤스옥천, 세명테크, MEMCKorea, 박상스코리아, 삼기, 삼화왕관, 에릭슨엘지엔터프라이즈, SK실트론, 포스코노조(2,040,000원)
개인) 금속노련 김만재김준영박용락이효원, 대구지역본부 권태훈, 조일알미늄노조 박용대(160,000원)

10 홍보선전활동

1. 홍보사업
 - 가. 소식지
 - 나. 노총 기관지 기고
 - 다. 성명서/보도자료
 - 라. 기타 선전활동
 - 마.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
2. 홈페이지 및 SNS
3. 부록
 - 가. 소식지
 - 나. 노총 기관지 기고
 - 다. 성명서/보도자료
 - 라. 언론사 광고

평가 및 개선방향

금속노련의 홍보선전활동은 금속노련의 소식을 각 단위노조에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속노동자의 단결과 연대강화를 목표로 한다.

2023년 금속노련 홍보선전활동은 ①금속노련 홈페이지 <금속소식> ②금속노련 소식지 「희망과 도전」 ③소셜미디어(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금속소식>은 금속노련의 활동과 각 단위노조의 소식을 기사 형태로 작성했다. 「희망과 도전」은 주간 매체로 일주일간 작성된 <금속소식>과 추가적인 단위노조의 단신, 교육 일정 및 사업 광고 등을 포함했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폭넓은 매체로 구성하고자 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은 비조합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매체로서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매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유튜브 채널은 금속노련의 홍보활동을 기록하는 영상 아카이브 성격도 지닌다.

2023년에는 금속노련의 활동을 기록하고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간 매체인 「희망과 도전」은 장기간 생산되지 못하기도 했으나, 금속노련과 단위노조의 소식들을 기록하는 데 집중했고, 특히 활동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기록으로서 남기는 것일 것이다.

금속노련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은 지난해에 이어 방문자 수와 조회 수가 급등하여 콘텐츠 전달 매체로서의 중요도가 보다 높아졌다.

향후 금속노련 홍보활동은 정확성과 기록물로서의 매체성을 상기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기록하고 남기는 데에 더 노력해야 한다.

1. 홍보사업

가. 소식지

제호	제목	발행일
482	2023년 상반기 지역순회 막바지 외	2023.04.12.
483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023.05.17.
484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문제해결을 위한 김만재 위원장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2023.05.23.
485	김준영 석방! 폭력정권·노조깨기 규탄! 외	2023.06.22.
486	금속노련, 중앙위서 집중투쟁 결의 외	2023.07.07.
487	금속노련 기자회견 통해 윤석열 퇴진투쟁 선포! 외	2023.07.12.
488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퇴진이다! 윤석열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 참가 외	2023.07.20.
489	금속노련 천막 투쟁 9일차 외	2023.07.26.
490	포운 노사 단체교섭 조인식 외	2023.08.03.
491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을 위한 10만 탄원서명 추진! 외	2023.09.08.
492	2023년 하반기 지역순회 시작 외	2023.09.15.
493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해결 및 박영우 회장 증인 채택 촉구 기자회견 외	2023.09.26.
494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회장 국감 출석은 단결의 결과!	2023.10.27.
495	김준영 사무처장 보석 석방! 외	2023.11.08.
496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시 ‘중대결단’ 해야”	2023.11.17.
497	자동차 부품산업 정의로운 전환 모색 세미나 개최	2023.11.23.
498	노조법 23조 개정 거부권 규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외	2023.12.06.
499	조직강화팀 워크숍 개최 외	2023.12.15.
500	노조탄압 규탄! 조선선재노조 서울 본사 상경 투쟁 외	2024.01.26.
501	LG이노텍노조, 35년 만에 조합원 상경 투쟁 외	2024.02.07.
502	금속노련 제195차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2024.03.07.
503	“가자! 뛰자!” 상반기 지역순회 시작 외	2024.03.15.
504	상반기 지역순회 순항 중	2024.03.28.

*상세 내용 부록 참조

나. 노총 기관지 기고

제호	제목	기고자
2023년 7·8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철탑에 오른 이유	금속노련 이효원 홍보차장
2023년 9월	반노동·반통일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남양넥스모노조 김종광 회계감사

*상세 내용 부록 참조

다. 성명서/보도자료

번호	구분	제목	배포일
1	성명서	윤석열 정권 1년,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	2023.05.10.
2	성명서	윤석열 정권과 경찰의 폭압적인 노조 탄압을 규탄한다!	2023.05.30.
3	성명서	경찰의 연이은 폭압적인 강제연행 규탄한다!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즉각 석방하라!	2023.05.31.
4	성명서	법원은 김준영 사무처장을 석방하라!	2023.06.02.
5	보도자료	노동탄압 윤석열 심판! 폭력연행 윤희근 파면!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김준영 동지 석방! 금속노련 사내하청 노동자 기자회견	2023.06.20.
6	보도자료	김준영을 석방하라! 포스코는 노조탄압 중단하라! 국제제조노동자들 한 목소리	2023.06.20.
7	성명서	최저임금위원회 김준영 노동자위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강제해촉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06.21.
8	보도자료	노동탄압 윤석열 심판! 폭력연행 윤희근 파면!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김준영 동지 석방! 윤석열정권 퇴진투쟁 선포 금속노련 기자회견	2023.07.11.
9	성명서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촉구한다	2023.10.16.
10	성명서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은 체불임금 지급확약 반드시 이행하라	2023.10.27.
11	보도자료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4개 노동조합, 박영우 회장에 간담회 요청	2023.11.3.
12	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3.12.01.
13	보도자료	LG그룹 산하노조 35년 만에 조합원 상경 투쟁	2024.02.02
14	성명서	박영우 회장은 체불임금 즉각 지급하라 검찰은 박영우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2024.02.06.
15	보도자료	“이재용 회장, 직접 교섭하자!” 삼성연대 2023년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10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024.02.07.
16	성명서	박영우 회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라!	2024.02.21.

* 상세 내용 부록 참조

라. 기타 선전활동

1) 신년사(2023.12.29.)

자랑스러운 금속 동지 여러분!

2023년 계묘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였던 계묘년은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말 그대로 어둠의 한 해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노조와 민주주의는 파괴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취업 초기부터 노동개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장시간 노동, 임금체제 개편, 파견 확대 등의 반노동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노사법치주의라는 해괴한 단어로 노조 활동을 탄압했습니다.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며 회계공시를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노조를 이권 카르텔로 칭하며 가차 없이 싸우라고 독려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경찰은 포스코 사내하청사의 노동3권 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던 저와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력으로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저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가 짓이겨 지고 뒷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습니다. 김준영 사무처장은 경찰로부터 곤봉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며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에도 5개월여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금속노련은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열찬 투쟁의 깃발을 드높였습니다. 용산에서, 고용노동부 지청 앞에서, 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금속 동지들께서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동지들의 힘을 바탕으로 금속노련은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에 결합하여 활동했습니다.

존경하는 금속 동지 여러분!

대통령과 보수여당은 자본을 등에 업고 대화와 타협은 없이 불통과 편가르기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노동입법들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무력화시켰습니다. 새해가 밝아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공안탄압이 자행되고, 노동의 가치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투쟁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2024년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노동의 관점에서 진정 노동자를 위한 후보에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총선에서 친자본 정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자본과 정권의 진짜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노동개악 시도는 노동악법 입법이라는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금속노련은 현장의 동지들을 중심으로 6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금속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역사임을 증명해 왔습니다. 자랑스러운 금속 동지들의 힘을 바탕으로 2024년에도 금속노련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설 것입니다.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비장한 각오로 한국 노총의 중심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끝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며 따뜻해야 할 연말인데도 대유위니아그룹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문제로 더 차가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노동자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속노련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박영우 회장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17만 조합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만재

마.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

1) 개요

(1) 목적

- 금속노련 단위노조 홍보담당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2) 개요

-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30일(목)
- 장소 :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
- 참석자 : 대표자 및 간부 33명

(3) 교육일정 및 내용

○ 1일차

- 노동조합의 홍보와 글쓰기(김은경 작가, 『내 문장은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까?』 저자)
- 노동자의 시각으로 언론 바로보기(미디어인권연구소 몽클 김언경 소장)

○ 2일차

- 노동조합 홍보물 제작 사례공유(삼성엔지니어링노조&U,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2. 홈페이지 및 SNS

가. 홈페이지

○ 2023년 4월 ~ 2024년 3월 방문자 수 137,808명(전기 136,496 대비 0.96%p 증가)

The screenshot displays the official website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Metal Workers' Unions.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소개' (Introduction), '알림마당' (Notice Board), '소식마당' (News Board), '자료실' (Resource Room), and '노조가입안내' (Union Membership Guide).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a large banner for the '전태일 의료 센터' (Jeon Tae-il Medical Center) with the tagline '단신하고 쫓을 수 있는 모두의 병원' (A hospital everyone can follow); a '금속소식' (Metal News) section featuring articles on labor issues; a '일정' (Calendar) section listing events such as '5월 16일 (목요일)' and '5월 21일 (화요일)'; and a '동영상자료실' (Video Resource Room) section with thumbnails for various videos.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Facebook(efkmtu)' section with a video player showing a protest scene.

나. SNS

1) 유튜브 채널(2023.04.01. ~ 2024.03.31.)

○ 총 구독자수: 명(전기 730명 대비 명 증가)

○ 기간 내 조회 수: 39,624회 (전기 28,642회 대비 56.7%p 증가)

○ 채널 분석

- 금속노련 유튜브 채널 시청자는 만35~44세가 31.3%, 만45~54세가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시청자의 성별은 남성 87.7%, 여성 12.3% 전기 대비 여성 시청자 비율이 소폭 증가함.
- 기간 내 신규 콘텐츠 중에서는 <공권력이 자행한 김준영동지 폭력연행! 폭력경찰 규탄!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가 조회수 7,425회(노출수 15,743회), <노동자들의 권리 지키려는 김만재 위원장을 폭력진압하는 경찰 #금속노련>(쇼츠)가 4,689회(노출수 8,893회), <80년 광주와 무엇이 다르니까!>(쇼츠)이 3,144회(노출수 1,057회), <금속공장 EP13. 6개월 임금체불. 박영우가 책임져라! 위니아전자사무직 자사무직노동조합을 만났습니다>가 2,086회(노출수 15,924회) 순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함.

<유튜브 채널 신규 콘텐츠 현황>

(조회수, 좋아요는 2024.03.31. 기준)

번호	이름	게시일자	조회수	좋아요
1	금속공장 EP13. 6개월 임금체불. 박영우가 책임져라! 위니아전자사무직 노동조합을 만났습니다.	2023.05.03.	2,086	74
2	금속노련 2022년 사업보고	2023.05.17.	414	7
3	노동자들의 권리 지키려는 김만재 위원장을 폭력진압하는 경찰 #금속노련	2023.05.30.	4,689	47
4	공권력이 자행한 김준영동지 폭력연행! 폭력경찰 규탄!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2023.05.31.	7,425	224
5	80년 광주와 무엇이 다르니까!	2023.06.02.	3,144	52
6	김준영을 석방하라!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도 '이렇게 살 수 없다'였다!	2023.06.02.	269	30
7	김준영을 석방하라! - 제가 두려운 것은 구속이 아니라 이 투쟁의 패배입니다!	2023.06.02	331	24
8	김준영을 석방하라! - 포스코의 쟁의권 박탈은 가장 간악한 범죄행위!	2023.06.02	175	19
9	김준영 사무처장은 무죄! 당장 석방하라!	2023.06.02	317	15
10	김준영을 석방하라! - 내가 철타고공농성을 한 이유는?	2023.06.02	245	15
11	김준영 사무처장은 피해자다! 가해자는 윤석열 폭력정부!	2023.06.02	230	9
12	김만재위원장 폭력연행은 금속노련 17만에 대한 폭거!	2023.06.02	225	7
13	김만재위원장 폭력연행, 3년 전 조지플로이드 사망사건과 무엇이 다르니까!	2023.06.02	105	4
14	김준영 사무처장 강제진압! 경찰의 폭력적 진압과정	2023.06.02	329	17

번호	이름	게시일자	조회수	좋아요
15	윤석열 정권 심판! 김준영 동지 석방! 한국노총 긴급 투쟁 결의대회	2023.06.08.	729	32
16	금속공장 Ep.14 외주화를 막아내고 노조를 시작하는 올품지부를 만났습니다.	2023.06.22.	1,228	59
17	나를 바꾸는 시간(나바시) 7 :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 권리와 회사의 이윤추구	2023.07.14.	762	42
18	금속공장 Ep.15 심야노동 철폐!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 인지컨트롤스 옥천노조를 만났습니다!	2023.08.02.	810	51
19	나를 바꾸는 시간(나바시) 8 : 노동조합은 자주적, 대중적, 민주적 조직이다	2023.08.07	547	50
20	금속공장 Ep.16 동일처우 약속! 즉시 이행하라! 삼성화재에너지손해사정노조를 만났습니다!	2023.09.06.	1,428	68
21	금속공장 Ep.17 불법파견 철폐! 금속일반노조 KG스틸협력사지부를 만났습니다!	2023.10.25.	502	18
22	나를 바꾸는 시간(나바시) 9 : 노동조합의 특성	2023.11.09.	175	16
23	금속공장 Ep.18 사측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GS에코메탈노조를 만났습니다!	2023.11.20	1,216	34
24	금속공장 Ep.19 단협해지 통보, 단협개약 시도에 맞서 투쟁하는 조선선재 온산공장노조를 만났습니다.	2024.01.24.	635	22
25	나를 바꾸는 시간(나바시) 10 : 단체교섭이란?	2024.01.31.	171	8
26	나를 바꾸는 시간(나바시) 12 : 단체협약이란(2)?	2024.02.01.	112	9
27	나를 바꾸는 시간(나바시) 11 : 단체협약이란(1)?	2024.02.01.	105	8

2) 페이스북 페이지(2023.04.01. ~ 2024.03.31.)

○ 총 팔로워 : 641명 (전기 607명 대비 5.6%p 증가)

○ 기간 내 새로운 순 팔로우 : 34

○ 페이지 분석

- 금속노련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는 남성이 85.3%, 여성이 14.7%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연령대는 만45~54세가 가장 많고 뒤이어 만55~64세, 만35~44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3. 부록

가. 소식지

20만 조직화
노동기본권 수호
2023 임단투 승례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23년 4월 12일(수) 제482호

2023년 상반기 지역순회 막바지

2023년 금속노련 상반기 지역순회 간담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지역순회는 4/18(목) 경기지역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간담회에서는 △2023년 정세 및 임금투쟁지침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과 대응지침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 계획 등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광주전남(3/29)



▲대구경북(4/5)



▲부산(4/6)



▲포항(4/6)



▲경남(3/22)



▲울산경주(3/22)



▲전북(3/29)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efkmtu
 유튜브 채널: youtube.com/c/efkmtu

금속노련 의무금이 2023년 4월부터 1700원/1인으로 인상됩니다. [1/2]

금속노련 노조간부실무교육 개최

금속노련 노조간부실무교육이 4/10(월)~12(수) 2박 3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90여 명의 교육생이 참석해 뜨거운 교육의지를 보였다.

교육내용은 ▲임금지침 실무 ▲노동 정세 ▲노동조합법 실무 ▲노동시간 실무 ▲직장 내 괴롭힘 실무 ▲노조 간부 역할과 자세 ▲금속노련 운동사 및 건강권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국 곳곳은 지금 투쟁 중!

에스엠노조, 위니아담채 연일 선전전 진행

금속동지들이 전국 곳곳에서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에스엠노조(위원장 이신호, 포항)는 포스코 정비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임금수준을 계열사 수준까지 보장하라며 지난 4/7(금)부터 연일 이른 새벽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선전전에는 한국노총과 금속노련 포항지역본부가 연대로 함께 나서고 있다.



위니아담채사무관리직노조(위원장 남승대, 서울)는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위니아의 계속되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성남이전을 반대하며 선릉 사옥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위니아담채사무관리직노조는 지난 3월 초 사측의 임금체불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에도 1개월분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었으며, 사측은 체불임금을 한

달 뒤에 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2020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포운을 규탄하며 포스코광양제철소 앞에서 1년 여 동안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위원장 박옥경, 광주전남), 45만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화재노조(위원장 오상훈, 서울)에 동지들의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노동개악 저지! 민생파탄 규탄! 2023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 일시: 2023년 5월 1일(월) 14시
(사전대회 13시 30분)
- ▶ 장소: 서울 여의대로(버스 환승센터 차로)
- ▶ 문의: 노윤철 조직실장(02-6277-2008)

금속노련 2023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안내

1. 제193차 중앙위원회
 - ▶ 일시: 2023년 4월 25일(화) 13시 30분
 - ▶ 장소: 노총 6층 대회의실
2. 2023년도 정기대의원대회
 - ▶ 일시: 2023년 5월 16일(화) 13시 30분
 - ▶ 장소: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여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긴급구호 모금운동 결과

- 1) 명칭: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긴급 구호 한국노총 모금운동
- 2) 모금기간: 2023년 2월 17일 ~ 3월 31일
- 3) 총 모금액: 10,000,000원
- 4) 송금처: 인터스트리를 튀르키예 연대, 한국노총
좋은친구복지재단
따뜻한 관심과 연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속노련 의무금이 2023년 4월분부터 1700원/1인으로 인상됩니다.

[2/2]

20만 조직화
노동기본권 수호
2023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나 도전



2023년 5월 17일(수) 제483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김문재 | 편집인: 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02-6277-2000 F)02-6277-2011 http://metall.or.kr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총파업 포함 시기 집중 총력투쟁 결의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이 5월 16일(화)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2023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박용락 상임부위원장의 대회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된 대회는 재적대의원 887명 중 645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내외빈으로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유재섭, 변재환 전 금속노련 위원장 등 선배님들, 오영봉(섬유·유동노련), 박갑용(식품산업노련), 김용서(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 회원조합 대표자들, 강국모(충북), 권오탁(경북), 정진용(경남) 의장 등 노총 지역본부 의장들, 윤각열(부산) 의장을 비롯한 금속노련 지역본부 의장들 등 30여 명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올해 대의원대회는 2018년부터 시작한 금속노련 20만 조직화사업에 따라 금속노련 조합원이 17만을 돌파했고 대의원 수도 900명을 돌파한 감격적인 날이다”라며 “조직화를 위해 선두에서 뛰신 대의원 동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노동은 위기를 맞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아가는 노조 때리기로 지지를 받음을 노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노동의 가치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투쟁 말고 다른 길은 없다”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투쟁을 선언하고 6월 중순경 일괄 조정신청을 통한 시기 집중 투쟁 결의를 밝혔다.

대회 참가자들은 이후 <금속노동자의 힘으로 친자본, 반노동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라는 2023년 금속노련의 각오를 담은 몸자보를 힘차게 흔들며 “금속노련 단결투쟁! 노동개악 박살내자!”, “금속노동자 단결투쟁!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라고 구호를 외쳤다.



대회를 기념하여 최명우 선배님께 감사패를, 손승일 전 경남지역본부 의장, 정상준 전 포항지역본부 의장 외 3명의 전임 지역본부 의장에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금속노련 조직확대 우수본부상은 포항지역본부가 수상했다.

금속노련은 투표를 통해 김해광 의 8명의 부위원장 보선과 55명(정39, 후보16)의 중앙위원을 선출했다. 또한 지난 4월 25일 개최된 제193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안건인 △2022년도 사업보고 △2022년도 회계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외에도 2023년도 핵심사업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노동탄압 대응 △지역본부 조직강화팀 역량강화 및 활성화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역량 강화 △신규조직, 간부, 조합원 표준 교육자료 제작 △노조 상급단체 등 필요성 관련 선전물 제작 △자동차 부품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발굴 △금속노련 자동차업종위원회 운영 등을 확정했다.

끝으로 대의원들은 △조직 확대·강화 일로매진 △임단투 시기 집중 투쟁으로 노동개악 투쟁 준비태세 △윤석열 정부 노동조합 고립 및 말살 정책에 맞선 총력투쟁 실천 △제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한 국민적 투쟁 전선 구축과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의 공세적 투쟁 △반노동 정책 유지·고수에 대해 총선을 비롯한 일상적 심판투쟁에 나설 것을 힘차게 결의했다.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1]

20만 조직화
노동기본권 수호
2023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23년 5월 23일화 제484호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김만재 | 편집인: 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02-6277-2000 FX02-6277-2011 http://metall.or.kr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문제해결을 위한 김만재 위원장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광양지역노조가 천막투쟁을 시작한 지 400일을 향해가고 있다.

바람과 시간이 깃발을 뽀로막으로 만들었다.

성심 공중분해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임금도 단협도 체결되지 않았다.

2020년 포운 설립 이후 아직까지 임금 인상이 없었고

노동조합과 단협을 맺는 합의서도 없이

같은만 조장하는 사류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 투쟁을 매듭지으려 한다. 늘 마음이 두거렸다.

끝을 볼 때까지 광양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농성을 시작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만재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1]

20만 조직화
노동기본권 수회
2023 임단투 승례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23년 6월 22일 목 제485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김만재 | 편집인: 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02-6277-2000 F)02-6277-2011 http://metall.or.kr

김준영 석방! 폭력정권·노조깨기 규탄!

김만재 위원장 인더스트리올 중집 참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IndustriALL(국제통합제조노동조합연맹, 이하 인더스트리올)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윤석열 정부와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짓밟으며 노조깨기를 자행하는 포스코를 규탄하고 구속된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6/19(월), 20(화) 양일간 열리는 인더스트리올 중앙집행위원회 참가를 위해 지난 18일 출국했다. 현지시각으로 19일 오후 6시 30분경 김만재 위원장은 지난 5/30(화)과 31(수)에 있었던 경찰의 강제진압을 간단한 영상으로 상영한 후 연설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이 지난 1년 동안 노동개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왔으며, 노조의 파업과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식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스코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짓밟으며 노조의 파업을 대체근로 투입으로 무력화했다고 비난했다.

인더스트리올 중앙집행위원들은 금속노련에서 준비한 머리띠를 착용하고 피켓을 흔들며 “김준영을 석방하라! (Free Kim!)”, “포스코는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POSCO, Stop Union Busting)” 등의 구호를 외쳤고, 긴급결의문을 채택하여 “한국 정부와 경찰의 폭력

진압과 사내하청사 노동3권을 훼손하는 포스코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할 것을 강력히 결의”했다.



앞서 인더스트리올은 금속노련의 상황에 대해 누리집 기사를 통해 상황을 전달하고 연대서한을 보내는 등 지지를 표한 바 있으며, 현재 포스코에 대한 항의서한을 준비 중에 있다.

사내하청노동자 노동3권을 짓밟지마라

금속노련 사내하청노동자 기자회견

금속노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3권 보장과 이를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20(화) 오후 2시 용산 집무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금속노련 박용락 상임부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충재 상임부위원장, 금속일반노조 SK네슬리스협력사지부·KG스틸협력사지부와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에서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2]

참석했다.

박용락 상임부위원장은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제진압한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 받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절한 노동3권 보장 요구를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건”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정부도, 정치인도, 누구도 해결해보려고도 해결하지도 않았으며, “이렇게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내 목소리 들어 달라고 외치는 것 뿐”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지고 보호해줘야 할 가장 힘없는 약자를, 그리고 그를 대변하는 사람을 곤봉이 부러지도록 내리쳤다”며 비판했다.

한국노총 이충재 상임부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MB 시즌2를 보고 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노동 존중 하겠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다. 강제동원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안으라고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으라고 하고 있다. 이런 정부, 이런 대통령 차라리 없어야 한다”며 한국노총의 정권심판 투쟁을 선언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청노조들 깨기 위한 원·하청의 ‘업체갈이’, 폐업, 사업반납 형태와 대체근로에 의한 단체행동권 무력화 등을 규탄했다. 또한 이제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으며, 벼랑 끝에 몰린 이상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한국노총, 금속노련 지침에 따라 씀 없이, 끈질기게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했다.

투쟁계획에 따른 전국 동시다발 시위 거점 앞 1인 시위와 현수막 게시

금속노련 투쟁계획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매일 진행되고 있다. 지침에 따른 투쟁계획은 6/19(월)부터 26(월)까지 서울의 경우 매일 용산에서, 지역본부의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지역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현수막을 게시한다. 이후 6/27(화) 한국노총 노조간부 결의대회, 7/15(토)와 8/12(토) 윤석열 정권퇴진 1, 2차 시국 대회가 각각 예정되어있다.

각 지역본부에서 1인 시위와 현수막 게시 후 노련으로 사진을 발송해주기를 부탁드리며, 26일까지 계속해서 1인 시위 및 현수막 게시 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주요 투쟁실천 계획〉

구분	금속집중	노련, 서울	지역
6/19~26	6/20 사내하청 노조 기자회견	용산, 국회, 포스코센터 앞	지역 노동청, 경찰청 앞
6/26~7/2	6/27 한국노총 노조간부대회	1인 시위	1인 시위 및 주요 거점 현수막 게시
7/15	윤석열 정권퇴진 1차 시국대회	추후 시달 예정	
8/12	윤석열 정권퇴진 2차 시국대회		

윤석열 정부 심판 및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한국노총 노조간부 결의대회

- ▶ 일시: 2023년 6월 27일(화) 13시
(사전대회 12시 30분)
*지역 차량 12시 30분까지 도착 완료
- ▶ 장소: 서울 남대문 인근 세종대로(시청교차로부터 숭례문오거리까지)
- ▶ 준비물: 깃발, 깃발, 투쟁조끼, 머리띠, 우비 등
- ▶ 문의: 노윤철 조직실장(02-6277-2008)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2/2]

윤석열정권 퇴진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

희망나도전



2023년 7월 7일금 제486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김만재 | 편집인: 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02-6277-2000 F)02-6277-2011 http://metall.or.kr

금속노련, 중앙위서 집중투쟁 결의

윤석열 심판! 윤희근 파면!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이 7/6(목) 오후 1시 30분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194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자를 폭력진압하고 노동계약에 앞장서는 윤석열정권 심판을 위한 집중투쟁을 결의했다.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준) 참가

금속노련은 노동조합을 부패집단으로 몰아가고 노조회계를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윤석열정권에 대해 심판을 넘어 퇴진투쟁에 합류한다.

지난 6/27(화) 발족한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현재 7/15(토)와 8/12(토) 두 차례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금속노련은 7/15(토) 16시에 시작하는 본대회 전 15시 20분부터 사전대회를 개최한다.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 상반기 총파업 대기 해제

금속노련은 지난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인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과 관련해 다섯 차례 집중투쟁 중 상반기 총파업 대기를 해제하고, 이를 대신해 7/15(토) 범국민대회 참가투쟁으로 대체한다.

▲윤석열 심판, 윤희근 파면, 사내하청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 투쟁계획

금속노련은 상반기 투쟁을 평가하고, 하반기 투쟁계획으로 △7.15 및 8.12 범국민대회 참가 △9월 금속노련

또는 금속노련 제안 한국노총 투쟁 △11.13 노동자대회 △서울 주요거점 천막농성투쟁 △지역 주요거점 1인 시위 및 선전전 등을 수립했다.

▲김준영 사무처장 등 법률투쟁비용 지원을 위한 모금

현재 김준영 사무처장은 구속 기소, 김만재 위원장과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박옥경 위원장 등 3인 불구속 기소되어 총 5인에 대한 법률투쟁지원을 위해 모금을 시작한다. 모금기한은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 시까지이며, 계좌 등은 아래 광고를 참조 바란다.

※제194차 중앙위원회 자료는 [금속노련 홈페이지] 문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OTIS엘리베이터노조, 2인작업 쟁취투쟁

사장실 점거는 일단락, 향후 투쟁수위 결정

OTIS(오티스)엘리베이터노조(위원장 방규현)가 작업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투쟁 중에 있다.

지난 6/23(금) 오후 2시 경 발생한 20대 조합원 죽음 이후, 노조는 또 다른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2인 1조 작업을 요구해왔지만 여러 핑계로 사측은 이에 대해 화답해주지 않았다.

사장실 점거 7일차인 지난 7/4(화) 오후 5시 경 사측은 2인 1조 작업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와 취약지역의 우선 인원충원 및 숙직근무 인원 증원을 약속해 사장실 점거는 일단락되었다. 노조는 향후 사측의 해당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준영 사무처장 등 법률투쟁비용 지원을 위한 모금 안내

- ▶ 모금기한: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 시까지
- ▶ 모금단위: 한국노총 및 각 산별, 지역본부, 금속노련 단위노조 및 조합원 등
- ▶ 모금계좌: 수협 1010-1046-3045
(예금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1]

윤석열정권 퇴진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

희망과 도전



2023년 7월 12일(수) 제487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김민재 | 편집인: 김준영 | 서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02-6277-2000 F)02-6277-2011 http://metall.or.kr

금속노련 기자회견 통해 윤석열 퇴진투쟁 선포

금속노련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적인 윤석열 정권 퇴진까지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금속노련은 7/11(화)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곳은 날씨 속에 시작된 기자회견에는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박용락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와 금속일반노동조합에서 연대로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날 6/27(화) 발족하여 금속노련이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의 릴레이 퇴진선로 기자회견을 겸하여 진행되었는데, 해당 위원회 공동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참석해 연대발언을 전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파탄나고 민생이 붕괴된 지난 1년이었다. 말로는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친족들만을 위한 자유인 것 같다. 이렇게 무참히 자유를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교에 관해서도) 미국을 위한 대통령인지 일본을 위한 대통령인지 국민들은 (지켜보며)

준엄하게 심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미래를 맡길 수 없기에 오늘 선포식을 통해 퇴진운동본부에 결합하고자 함을 밝힌다. 오늘 바로 이 장엄한 날에 한국노총의 중심 조직인 우리 금속노련이 나서고자 한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온 국민에게 보장되는 그 날까지, 김준영 사무처장이 석방되는 그날까지 금속노련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며 윤석열정권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준) 공동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윤석열정권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폭력', '부패' 낙인찍고 탄압한 '노조킬러'이며, 노동조합하는 것이 자부심이던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를 죽이고,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위해 고공농성하던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력연행하고 구속한 '노동자킬러'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금속노련의 퇴진투쟁 동참을 지지하며, 농민, 노동자들과 함께 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로서 앞서 싸워 나갈 것이며,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며 퇴진투쟁 의지를 고취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속노련은 이 시각 이후로 윤석열 정권의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금속노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투쟁 그 끝에는 윤석열의 퇴진과 노동자, 민중의 승리만이 남을 것"이라고 선포했으며,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여성, 자영업자 등 모든 이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역사적인 대열에 함께할 것이다. 반민중·반민생·반민주·반평화의 다른 이름인 윤석열! 퇴진하라!"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재차 부르짖었다.

금속노련은 7/15(토) 오후 3시 20분경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오후 4시부터 경복궁영역에서 개최되는 '윤석열 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2]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 사업이전시 노동관계 승계 입법 촉구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게 하청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과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전 시 노동관계 승계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7/12(수)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서영교 단장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먼저 김준영 사무처장 폭력진압 사건을 비롯해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운 노사의 교섭 등과 관련해 여러 방면으로 애써준 국회의원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어 전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과 한국노총 제조연대가 함께 발의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업이전 시 노동관계 승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김준영 사무처장 등 법률투쟁비용 지원을 위한 모금 안내

- ▶ 모금기한: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 시까지
- ▶ 모금단위: 한국노총 및 각 산별, 지역본부, 금속노련 단위노조 및 조합원 등
- ▶ 모금계좌: 수협 1010-1046-3045
(예금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

2023년 7월 15일(토) 오후 4시 경북구역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준)

윤석열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 안내

- ▶ 일시: 2023년 7월 15일(토) 오후 4시
- ▶ 장소: 경북구역 (사직로 130)
- ▶ 금속노련 사전대회는 오후 3시 20분부터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종로1길 45)에서 개최
- ▶ 준비물: 깃발, 깃판, 투쟁조끼, 머리띠, 생수 등 집회용품
- ▶ 문의: 노윤철 조직실장(02-6277-2008)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 홍보물모음

▶ '알기 쉬운 퇴진' 카드뉴스



알기쉬운퇴진카드뉴스

▶ 주제별 미니맵자보 (5종)



주제별미니맵자보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2/2]

윤석열정권 퇴진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

희망과 도전



2023년 7월 20일 목 제488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김민재 | 편집인·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02-6277-2000 F)02-6277-2011 <http://metal.or.kr>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퇴진이다! 윤석열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 참가

금속노련이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을 부르짖으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7/15(토) 오후 4시 경복궁역 인근에서 개최된 <윤석열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를 위해 금속노련은 오후 3시 20분경 광화문 인근에서 사전대회로 모였다. 약식으로 사전대회를 마치고 금속노련은 정부서울청사와 서울경찰청 앞을 지나 범국민대회 본대오에 합류했다.



"못 살겠다. 갈아엎자!"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 날 범국민대회에는 금속노련과 마찬가지로 앞서 민주노총 결의대회, 전국농민대회,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민행진 등 사전대회로 모인 약 3만여 명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들이 참여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노동 단위를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을 통해 범국민대회 참여자들은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선포하며 역사적 행보를 시작한다"고 선포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 다 죽이는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며 결의를 높였다.



금속노련은 이번 대회를 개최한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속노련 투쟁 지침에 따라 한 달여 뒤 서울 도심에서 개최될 8/12(토) 두 번째 범국민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금속노련 천막 투쟁 돌입 하청노동자 노동3권 쟁취! 김준영 석방!

금속노련이 하청노동자 노동3권 쟁취와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을 요구하며 천막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7/18(화) 한국노총 회관 앞에 설치한 투쟁 천막은 사무처를 기본으로 하여 각 지역본부가 당번을 정해 천막을 지키고, 시민들을 상대로 수시 선전전을 진행한다. 천막 투쟁은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 시까지 계속된다.



김준영 사무처장 등
법률투쟁비용 지원을 위한 모금 안내

- ▶ 모금기한: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 시까지
- ▶ 모금계좌: 수협 1010-1046-3045
(예금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1]

윤석열정권 퇴진!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

희망과 도전



2023년 7월 26일(수) 제489호

1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김만재 | 편집인: 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02-6277-2000 F)02-6277-2011 http://rmetal.or.kr

금속노련 천막 투쟁 9일차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

금속노련의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을 위한 천막농성이 어느덧 9일 차를 맞았다.

현재 천막농성장은 금속노련 지참에 따라 각 지역본부에서 순서를 정하여 매일 지키고 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켓선전전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역본부 외에도 금속노련 단위노조, 한국노총 회원조합 등 많은 동지가 천막을 찾아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경기



▲인천



▲안산시흥



▲충남세종



▲ASE코리아, 삼성윌스토리, 삼성에스원노조, 노총 조직본부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위니아디지털사무직노조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2]



▲노벨리스코리아노조



▲화학노련



▲IT연맹



▲천막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금속노련 사무처

인지컨트롤스·인지컨트롤스옥천 주간연속2교대제 합의

금속노련과 인지컨트롤스·인지컨트롤스옥천 사측이 주간연속2교대제(8+8)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인지컨트롤스옥천노동조합은 2022년 임단협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를 요구하고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쟁의행위를 비롯해 253 일간의 천막농성 등 투쟁에 돌입했다. 인지컨트롤스노동조합 또한 2023년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를 요구하고 사측과 교섭을 했으나, 2개의 법인과 3개 공장(시화, 경주, 옥천)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한계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양 노조는 금속노련에 주간연속2교대제에 관한 교섭을 위임했고, 금속노련은 5월부터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병행하여 마침내 7/20(목) 임금삭감 없는 주간연속2교대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 내용으로는 △2024년 시행 △삼야수당보전 △추가수당 마련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2023년 10월 시범운영 실시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등이다.

2023년 상반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실태조사

금속노련이 단위노조의 2023년 상반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문 [금속노련-23-236]을 참조하여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조사 양식은 금속노련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 ▶ 조사기간: 7/26(수)부터 8/11(금)까지
- ▶ 문의: 홍보차장 이효원(02-6277-2009)

김준영 사무처장 등 법률투쟁 지원을 위한 모금 안내

- 모금기간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 시까지
- 모금단위 한국노총, 회원조합, 지역본부, 단위노조 및 조합원 등
- 모금계좌 수협 1010-1046-3045
(예금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2/2]

윤석열정권 퇴진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

희망과 도전



2023년 8월 3일(목) 제490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김진재 | 편집인: 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02-6277-2000 F)02-6277-2011 http://metall.or.kr

포운 노사 단체교섭 조인식 핵심은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 투쟁 지속

지난 5월 말, 광양에서 발생한 폭력진압사태의 중심이었던 포운 노사의 교섭이 일단락되었다. 지난 8/1(화) 잠정합의에 도달한 포운 노사의 합의안은 8/2(수) 진행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었고, 포운 노사는 8/3(목) 오후 4시 광양 포스코복지센터에서 단체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 조인식에 앞서 노조는 오전 10시경 천막농성 465일 만에 천막을 걷었다.



조인식에는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포운의 노동조합인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박옥경 위원장, 포운 박원수 사장,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양정열 청장이 참석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2021년 임금 5.5%, 2022년 임금 4.1% 인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 연간 2,000시간에서 3,000시간으로 확대 ▲연차 자율 사용 보장 ▲노조사무실 지원 등이다.

금속노련은 이번 포운 사태의 핵심은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하청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또한 하청 회사의 폐업, 분사 등으로 인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업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만 제2, 제3의 포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운의 교섭은 타결되었으나, 금속노련의 투쟁은 이번 광양 폭력진압사태로 구속된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 시까지 계속될 것이다. 한국노총 앞 금속노련 천막농성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본부의 결함과 단위노조, 노총 회원조합의 연대·지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포함한 5인에 대한 재판은 8/9(수)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또한 금속노련은 8/12(토) 서울 도심에서 개최되는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범국민대회'에 전 조직적 결의로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지역본부, 금속일반노조 울퉁자부



▲SK마티리얼노조, 롯데일미노조



▲금속노련 구미지역본부, 영풍석포제련소노조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2]



▲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외기노련

코웨이노동조합 첫 임단협 마무리!

코웨이노조가 첫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지난 7/21(금) 단체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



코웨이노조는 2022년 7월 유구, 인천, 포천 3개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되었다. 이미 코웨이에는 설치·A/S직군 대상의 노조와 렌탈케어서비스직군 대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생산직군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또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했다.

이에 금속노련은 코웨이의 생산직군 교섭단위분리 및 교섭창구단일화, 임단협 체결의 전 과정에 전면적으로 결합하여 조직을 지도했으며, 그 결과 코웨이노조는 노조 설립 1년이 지난 7/21(금) 생산직군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써 2023년 첫 임단협을 마무리 짓는 조인식을

갖게 되었다.



같이표자!
모이재 서울로!
문석열정권 퇴진 2차 범국민대회
2023. 8. 12(토) 오후 3시 30분 | 서울도심

문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준)

김준영 사무처장 등 법률투쟁 지원을 위한 모금 안내

- 모금기간**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 시까지
- 모금단위** 한국노총, 회원조합, 지역본부, 단위노조 및 조합원 등
- 모금계좌** 수협 1010-1046-3045 (예금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2023년 상반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실태조사

금속노련이 단위노조의 2023년 상반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문 [금속노련-23-236]을 참조하여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조사 양식은 금속노련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 조사기간: 7/26(수)부터 8/11(금)까지
▶ 문의: 홍보차장 이효원(02-6277-2009)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2/2]

윤석열정권 퇴진!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

희망과 도전



2023년 9월 8일(금) 제491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김민재 | 편집인 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102-6277-2000 F102-6277-2011 http://metall.or.kr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을 위한 10만 탄원서명 추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해 15일까지 진행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이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을 위해 함께 적극 나선다.

한국노총은 지난 8/17(목) 공문을 통해 김준영 사무처장의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따른 탄원서 조직과 대국민 선전전 계획을 알렸다. 각 지역과 단위노조에서는 탄원서 작성으로 연결되는 현수막과 배너를 제작하여 게시하고, 탄원참여를 독려하는 카드뉴스를 SNS, 소식지, 게시판 등을 통해 배포한다. 탄원서명은 9/4(월)부터 9/15(금)까지 진행되며, 목표는 총 10만 명이다.

지난 9/1(금)에는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앞에서 김동명 위원장과 한국노총 사무총장 및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5/31(수) 경찰에 폭력 진압된 김준영 사무처장은 여전히 광주구치소에 구속되어있다. 김준영 사무처장 등은 7/13(목) 재판을 일반재판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청구했고, 7/18(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으로 이관되었다. 지난 8/9(수), 8/30(수)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었고, 9/13(금) 3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검사 측에서 여전히 일반재판 진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련은 3차 공판준비기일 결과에 따라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전전을 광주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배심원단은 광주시민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노총 앞 천막농성도 계속된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김준영 탄원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KG스틸협력사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노조법 2, 3조 개정해야만 해결 실마리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들이 또 다시 해고 위기에 처했다.

KG스틸협력사인 건일산업과 건우실업은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9/4(월) 해고 통보를 보냈다. 이로 인해 금속일반노조 KG스틸협력사지부(지부장 권인규, 충남세종, 이하 지부)조합원 100여 명이 해고될 위기이다.

원청인 KG스틸은 각 협력사에 도급계약 해지통보를 보내며 그 사유로 '지부의 정익행위 하도급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들었다. 지부는 지난 8/28(월)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는데, 원청은 파업 시작과 함께 원청의 노동자들을 대체근로로 투입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부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소송 취하와 부제소합의를 조건으로 자회사로 전환하면 성과급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성과급을 줄 수 없다며 회유했다.

하청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고용관계의 위험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KG스틸협력사의 일만이 아니다. 하청노동자들의 단행행동권의 무력화, 반복되는 회사의 변경과 해고 위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2, 3조 개정'과 '사업이전 시 노동관계 승계에 관한 입법'이 절실하다.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2]

포스코노조, 정의대책위원회 출범! 더 이상 소통은 없다, 이제는 투쟁이다!

포스코노조(위원장 김성호, 포항, 이하 노조)가 조합원에게만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하고 경영진만 배불리는 회사를 향해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지난 5/24(수) 상견례를 시작으로 8/23(수)까지 20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약속 미이행에 따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9/6(수)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이후 노조는 대회 직후에는 광양제철소 1문 앞에서, 이튿날에는 포항제철소 본사 앞에서 정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각 곳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조합원 1천 여 명 이상이 운집했으며, 포항에서 개최된 출범식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김동일 포항지역본부 의장이 연대로 함께했다.



금속노련 여성위원회 회의 및 교육

금속노련 여성위원회가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23년 회의와 교육을 개최했다. 9/4(월), 5(화) 양일간 개최된 회의 및 교육에는 3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참석해 힘찬 응원과 격려를 전했고, 금속노련 여성위원회 정영숙 지도위원 또한 참석해 여성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첫날 진행된 회의 안건으로는 ▲여성위원회 구성 ▲임원 임명 ▲여성위원회 사업 등이 논의되었다. 이튿날에는 '노동인권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노무법인 가경의 오수경 공인노무사의 교육도 진행되었다.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워크숍 개최

금속노련이 8/31(목), 9/1(금) 양일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자동차업종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32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을 시작하며 금속노련 박용락 상임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노동개혁, 노조탄압, 폭력진압에만 앞장서고, 노동정책이나 기후정책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금속노련은 자동차부품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워크인연구소 이문호 소장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황선자 부원장이 '자동차 산업 현황과 정책대안'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고, 오기영미래교육연구소의 오기영 소장이 '기후위기와 일자리'를 주제로 교육했다.

금속노련은 하반기 내에 금속노련 자동차업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준영 사무처장 등 법률투쟁 지원을 위한 모금 안내

모금기간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 시까지

모금단위 한국노총, 회원조합, 지역본부, 단위노조 및 조합원 등

모금계좌 수협 1010-1046-3045
(예금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2/2]

윤석열정권 퇴진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

희망과 도전



2023년 9월 15일목 제492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김민재 | 편집인: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02-6277-2000 F)02-6277-2011 http://metall.or.kr

2023년 하반기 지역순회 시작 김준영 무죄 석방 10만 탄원운동 적극 독려

금속노련의 사업과 지침을 설명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2023년 금속노련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가 9/14(목) 안산시흥지역본부부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과 대응 방향 △하반기 투쟁계획 등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특히 김준영 사무처장의 무죄 석방을 위한 10만 탄원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지역에서는 김준영 사무처장 무죄 석방을 위한 10만 탄원 운동의 일환으로 선전전이 개최되고 있다.



▲경남지역본부 10만 탄원 선전전



▲안산시흥



▲충남세종

KG스틸협력사지부, 서울 상경 투쟁 직접고용 쟁취!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해고를 한 달 앞둔 KG스틸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사의 도급계약 해지를 규탄하고, 직접고용과 하청노동자 노동 3권 쟁취를 외치며 서울 상경 집회를 개최했다.



금속일반노조 KG스틸협력사지부(지부장 권인규, 충남 세종, 이하 지부)는 9/14(목) 오후 2시 KG그룹 본사가 입주한 서울 서대문구 소재 KG타워 앞에서 '금속일반노조 KG스틸협력사지부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속노련 노윤철 조직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는 권인규 지부장의 대회사, 원상훈 수석부지부장의 경과보고, 투쟁 발언 후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되었다.

결의문을 통해 지부는 "이 사태의 원인이 불합리한 현행법과 제도, 이를 악용하는 권력을 비롯한 원청사에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탄압과 시련이 있더라도 굳건히 이 자리를 지키겠다", "더 큰 투쟁과 소송승리를 통해 당당히 사업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투쟁결의를 밝혔다."

지부는 매달 본사 앞 서울 상경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노조법 2, 3조 개정투쟁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김준영 탄원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1]

윤석열정권 퇴진!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

희망과 도전



2023년 9월 26일화 제493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김민재 | 편집인: 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02-6277-2000 F)02-6277-2011 http://metall.or.kr

대우위니아그룹 임금체불 해결 및 박영우 회장 증인 채택 촉구 기자회견

금속노련이 국회를 향해 대우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을 2023년 정기 국정감사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련은 위니아전자사무직노조(위원장 강용석, 인천), 위니아딤채사무관리직노조(위원장 남승대, 서울),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과 함께 9/25(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속노련 김민재 위원장은 “대우위니아그룹 임금체불이 확인된 것만 550억 원을 넘겼고, 생산공정까지 합하면 7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위니아전자 박현철 대표이사가 구속되자 회사는 바로 다음 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기다렸다는 듯한 회사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9년 회사와 노조의 단체교섭이 무려 1년 반 만에야 체결된 것에 대해 “눈치만 보며 결정하지 못하는 사장은 진짜 사장이 아니”며 “대우위니아그룹의 박영우 회장이 그룹 내 의사결정에 대한 진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그를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그룹의 임금체불을 어떻게 책임지고 해결할 것인지를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2023년 국정감사는 10/10(화)~27(금)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금속노련은 국정감사에서 대우위니아그룹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를 준비 중이다.

금속노련 상반기 교섭 실태조사 요구율은 7.88%, 타결율은 4.70%

금속노련 단위노조가 올해 요구한 임금인상요구율은 평균 7.88%, 상반기에 타결된 임금인상율은 4.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련은 단위노조 572개(본조 559개, 금속일반노조 지부 13개)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단체교섭 실태조사’ 지난 7/26(수)~8/11(금) 총 11일간 진행했다. 설문에는 81개 단위노조가 응답해 14.2%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조사결과 응답한 노조 중 올해 교섭내용이 임금과 단체협약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59.3%, 임금만 해당하는 경우는 40.7%로 나타났다. 교섭 진행 상황은 교섭이 완료된 노조가 60.5%로 가장 많았고, 교섭 중인 노조는 33.3%, 아직 교섭을 시작하지 못한 노조는 6.2%로 나타났다.

임금인상요구에 관해서는 올해 요구율은 7.88%, 요구액은 191,238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0.08%p와 20,807원 올랐으나, 타결률은 4.70%, 타결액은 114,444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0.5%p와 1,366원 줄었다. 또한 올해 평균 요구율은 금속노련 2023년 임금인상요구율인 9.67%보다 1.79%p 낮게 나타났다.

응답한 노조 중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논의한 노조는 각각 20곳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한 노조는 15곳으로 나타났다.

서술식으로 답변한 기타사항 등에서는 법정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법적 폐지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 교섭현장에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논의가 활발하며 단위노조 차원에서 사측을 상대로 해당 제도의 변화 또는 폐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이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앞서 법정 정년연장 관철을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청원 5만 명 달성으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의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2]

오티스엘리베이터사무직노조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개최

오티스엘리베이터사무직노조(위원장 김영길, 서울)가 전면파업에 돌입하며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면파업은 노조로서는 최초이다. 9/22(금) 오후 1시 금속노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조합원 340명이 참석했다. 대회 후 참가자 전원은 여의도 소재 본사까지 약 3km 행진하고 약식집회를 가졌다.

노조는 9/5(화) 쟁의권을 획득한 이후 준법투쟁을 계속해오다가 9/21(목)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투쟁사에서 김영길 위원장은 “2023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3%라는 압도적 가결은 우리 투쟁의 힘을 바탕으로 노조를 무시하는 사측의 작태를 투쟁으로 분쇄하라는 조합원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강조했다.

노조는 대회 당일 현재 136일째 2023년 교섭을 진행 중이다. 사측은 지난해 매출액과 경상이익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교섭에서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5.1%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률을 제시하면서, 주주들에게는 680억 원 규모의 배당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노총(ITUC) 노련 투쟁천막 방문 한국의 상황에 주목

국제노총(ITUC) 파과 단쿠아 법률국장과 모니나 웁 노동기본권국 아태지역 담당자가 금속노련의 투쟁천막을 방문해 연대와 지지를 보냈다.

금속노련은 지난 9/20(수) 한국노총을 방문하며 노련의 투쟁천막을 찾은 국제노총에 투쟁 경과와 현재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금속노련은 국제노총에 ‘김준영 처장 석방’과 ‘윤석열 퇴진’ 구호가 담긴 손수건을 전달하며 국제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연대를 요청했다.



사진으로 보는 23년 하반기 지역순회



▲인천



▲경남



▲구미



▲대전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김준영 탄원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2/2]

윤석열정권 퇴진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김준영 석방

희망과 도전



2023년 10월 27일금 제494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김만재 | 편집인: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02-6277-2000 F)02-6277-2011 http://metall.or.kr

대우위니아그룹 박영우회장 국감 출석은 단결의 결과!

대우위니아그룹 노동자들의 노력이 마침내 박영우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대에 세웠다. 조직된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의 결과다.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우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문제가 다루어지면서 박영우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금속노련은 10/16(월) 성명을 발표해 박영우 회장의 증인 출석을 촉구하기도 했다. 성명을 통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박영우 회장은 지금도 멀쩡히 출근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검도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있다"며 박영우 회장의 불출석은 "임금체불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기만이자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단호하게 비판했다.



이어 위니아전자노조(위원장 강용석, 인천)와 위니아담채노조(위원장 남승대, 서울)는 민주노총 소속 대우위니아그룹 노조들과 함께 지난 10/17(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우위니아그룹 체불임금, 경영실패 책임자 박영우회장 국정감사 출석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10/26(목)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박영우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영우 회장은 내주 골프장 매각, 성남의 신사옥, 멕시코 공장 매각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임금체불 상환 계획을 밝혔다.

금속노련은 10/27(금) 성명을 통해 박영우 회장이 임금체불 규모를 300억 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확인된 체불임금만 600억 원"이

넘는다고 바로잡으며, "국감장에서 증인으로서는 밝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포스코노조 1차 서울 상경집회

지난 9월 쟁의를 결의한 포스코노조(위원장 김성호, 포항, 이하 노조)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규탄하며 서울 상경 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10/24(화) 12시 서울 소재 포스코센터 앞에서 약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집회 이후 포스코센터 주변을 에워싸 1시간 반 여의 피켓팅도 진행했다.



김성호 위원장은 투쟁발언에서 "10월 30일까지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인다면 다음은 전 조합원이 포스코센터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포스코노조의 파업에 따른 여파를 우려하는 사측의 입장으로 도배되어 사측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금속노련 노동법률교육 진행

단위노조 법규담당자의 노동법률 지식 함양과 조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금속노련 노동법률교육이 서울 소재 국제청소년센터에서 10/23(월)~25(수)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38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노동정책 ▲임금실무 ▲계별적 근로관계법 실무 ▲노동기초 배우는 노동운동사 ▲집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2]

단적 노사관계법 실무 ▲직장 내 괴롭힘 실무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진으로 보는 23년 하반기 지역순회



▲대구경북



▲부산



▲울산경주



▲포항



▲경기



▲충북



▲전북



▲광주전남

윤석열 정권 심판 11.11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탄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맞서는 한국노총!"

- ▶ 일시 : 2023년 11월 11일(토) 13시
- ▶ 장소 : 서울 여의대로 및 국회 앞
- ▶ 금속노련 참석 규모 13,500명 예정
- ▶ 준비물 : 투쟁조끼, 깃발, 모자, 깔판 등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사국회의(추) 공동주최 윤석열 정권 퇴진 총결기

- ▶ 대회 슬로건 : "퇴진광장을 열자!"
- ▶ 일시 : 2023년 11월 11일(토) 15시30분
- ▶ 장소 : 서울 도심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 문의 : 노윤첼 조직실장 02-6277-2008

김준영 사무처장 등 법률투쟁비용 지원을 위한 모금 안내

- ▶ 모금기한: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 때까지
- ▶ 모금계좌: 수협 1010-1046-3045
(예금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2/2]

20만 금속노련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정권 퇴진!

희망과 도전



2023년 11월 8일(수) 제495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김만재 | 편집인: 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02-6277-2000 F)02-6277-2011 http://metall.or.kr

김준영 사무처장 보석 석방!

노총 앞 투쟁천막 철거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다. 지난 11/3(금) 보석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김준영 사무처장은 늦은 오후 풀려났다. 광주교도소 앞에서 기다리던 동지들이 건넨 두부를 먹고 꽃다발을 품에 든 김준영 사무처장은 “여러분들의 정성과 연대가 모여 나오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의 무도함을 잘 밝혀 우리의 투쟁이 정당했다는 것을 꼭 입증해내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김준영 사무처장은 11/7(화)까지 111일 동안 노총회관 앞에 설치되어있던 천막으로 돌아왔고, 사무처와 함께 천막을 철거했다.



인더스트리얼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앙집행위원회 참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및 노동조합 깨기 만행을 알리고,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한 연대와 지원을 촉구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10/31(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국제통합제조노련(인더스트리얼)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8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인더스트리얼 글로벌 중앙집행위원회 이후 상황에 대해 전달했다.

특별 캠페인 대한민국 보고 순서에서 김만재 위원장은 동지들의 연대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날 공판이 이루어졌으며 김준영 사무처장의 보석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련은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노조를 깨부수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정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 11.11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 ▶ 일시 : 2023년 11월 11일(토) 13시
- ▶ 장소 : 서울 여의대로 및 국회 앞
- ▶ 금속노련 참석 규모 13,500명 예정
- ▶ 준비물 : 투쟁조끼, 깃발, 모자, 깃판 등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사국회의(주) 공동주최
윤석열 정권 퇴진 총결기

- ▶ 대회 슬로건 : “퇴진광장을 열자!”
- ▶ 일시 : 2023년 11월 11일(토) 15시30분
- ▶ 장소 :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서대문역 8번 출구)
- ▶ 문의 : 노윤철 조직실장 02-6277-2008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1]

20만 금속노련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정권 퇴진!

희망과 도전



2023년 11월 17일금 제496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김만재 | 편집인: 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02-6277-2000 F)02-6277-2011 http://metall.or.kr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시 ‘중대결단’해야”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한국노총 102차 중앙집행위원회에 강력히 주문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이 11/17(금) 오전 10시 30분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10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대화 복귀와 관련해서 논의했다.



“투쟁으로 새로운 국면 만들어야”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급작스러운 사회적대화 복귀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윤석열정부가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한국노총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협상 의제가 우리 노동자를 죽이는 것이 명확하다면 투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만재 위원장은 “사회적대화 복귀의 정확한 명분을 현장에 제시하고 현 정부의 변화와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노총의 역할을 주문했다.

“열사와 노동자의 죽음이 만든 노란봉투법”

첫째, 윤정부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20여년 넘게 투쟁해온 노동자의 눈물, 고통, 염원이다. 여기에는 김주익, 배달호 열사가 있고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배어있으며 이제 막 국회 문턱을 넘었다.

둘째, 윤정부의 각종 노동개악 시도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과거처럼 정부가 미리 답을 청해 놓은 협상을 하고 개악 정책들을 집행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셋째, 노총이 참여하고 있던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노총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상징적 조치이다.

넷째, 의제 선정과 위원회 구성 과정에 대한 진정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노동개악을 전제로 한 의제나, 위원회 구성에 정책 역량이 아닌 거수기만 할 조직들을 참여시킬 경우 제대로 된 협상이 될 리 만무하다.

다섯째, 공격적인 의제를 제시해야 한다. 가령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 사회양극화해소, 제재 개편, 원하청 문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기관 공공성 지키기와 같은 공격적인 의제가 필수적이다.

“총선 전 국면전환용 들러리 안돼”

마지막으로 김만재 위원장은 “노총이 협상의 주체가 아닌 총선 전 국면전환용 들러리로 활용될 작은 조짐이라도 감지되면 이번 참여 결정과 같이 김동명 위원장의 단호한 판단과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면 한국노총 차원에서 중대 결심할 것이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김동명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금일 10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사회적대화 복귀 결정과 관련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시기와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각 연맹별 지역본부별 어려움과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서 대화의 필요성 주장도 있었다. 회의는 사회적대화 복귀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한국노총의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여주는 의견수렴으로 마무리됐다.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1]

20만 금속노련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정권 퇴진

희망과 도전



2023년 11월 23일목 제497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김민재 | 편집인: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X02-6277-2000 FX02-6277-2011 http://metall.or.kr

자동차 부품산업 정의로운 전환 모색 세미나 개최

금속노련이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등 산업대전환기에 자동차부품사 단위노조의 대응전략 모색하고 국가 산업정책 참여 등을 고취하기 위한 자동차업종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11/22(수) 노총 6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업전환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독일 자동차부품산업의 실태와 노사의 대응현황을 독일 전문가로부터 듣는 시간도 가졌다.

세미나에는 명화공업(안산지부), 코레스(전주지부), 아진카 이텍, 한국보그워너티에스, 한일투브노조(가나나순)에서 참석했으며, 독일 전문가로는 독일 오스나브뤼크 대학의 하요 홀스트 교수가 참석했다. 그리고 금속노련과 함께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황선자 부원장과 워크인연구소의 이문호 소장도 참석했다.



홀스트 교수는 "독일 자동차산업의 이중전환-탈탄소화와 디지털화"를 주제로 발제했는데, 현재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라는 이중전환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E-모빌리티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전략 하의 구체적인 실행이 성공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독일 자동차산업의 높은 노조 조직률을 기반으로 공동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홀스트 교수의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한국과 독일의 미래차 전환 상황과 사업장별 특성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미래차 기술, 재생에너지, 사회안전망,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금속노련 하반기 교육 계속 노조간부 기본교육, 신입대표자 및 임원교육

금속노련의 2023년 하반기 집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14(화)~16(목)에는 노조간부 기본교육이 KT대전인 재개발원에서 개최되었다. 73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노동경제 ▲노동조합 소통 특강 ▲노동법 실무 ▲노조 회계 실무 ▲노조 간부 자세와 역할 ▲노조운영 분임토의 ▲산재보상 실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1/22(수), 23(목)에는 신입대표자 및 임원교육이 충북 소재 소노문 단양에서 개최되었다.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노조 간부의 자세와 역할, 노조운영 ▲단체교섭 쟁의행위 전략 전술 ▲집단적 노사관계 법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일정으로는 11/29(수), 30(목) 홍보담당자 교육이, 12/13(수)~15(금)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예정되어있다.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제31회 전태일 노동상 공로상 수상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 33년 동안의 노동운동에 대한 헌신과 지난 5월 광양에서의 투쟁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31회 전태일 노동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김준영 사무처장은 전태일의 친구로 살아야겠다는 결심과 이소선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회상하며, 33년 간 그랬듯 앞으로도 매년 열사 앞에서 반성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살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1]

20만 금속노련!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정권 퇴진!

희망과 도전



2023년 12월 6일(수) 제498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김만재 | 편집인·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02-6277-2000 F)02-6277-2011 http://metall.or.kr

노조법 2·3조 개정 거부권 규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국회 본청 앞 한국노총 기자회견

금속노련이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50인 미만(억) 적용 유예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국노총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12/5(화)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및 소속 회원조합 임원과 간부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금속노련은 임원을 비롯해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김만재 위원장은 "작년 한 해 2,223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했다. ... 중처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고 사망자 중 중처법 적용 유예를 받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80%를 넘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 발생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분명히 경고한다.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연장되어서도 안 되고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 명확한 처벌이 전제된 중처법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 죽음 앞에 다음 기회는 없다. ... 오로지 기업만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엄중히 말했다.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 개최

2023년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이 지난 11/29(수)~30(목) 서울 강서구 소재 국제청소년센터에서 개최되었다.

33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노동조합의 홍보와 글쓰기(김은영 작가, 슬로우베이지 대표) ▲노동자의 시각으로 언론 바로보기(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몽클 소장) ▲노동조합 홍보사례발표(김영민 삼성엔지니어링노조&U부위원장, 김현철 삼성화재에너지손해사정노조 사무국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노동운동가故장진수 동지 16주기 추모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영원한 벗,故장진수 열사의 16주기 추모제가 12/1(금) 11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모란공원의 열사 묘역에서 열렸다. 열사와의 각별한 인연이 있는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은 열사에게 쓴 편지 형식의 추모사를 전했다.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1]

20만 금속노련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정권 퇴진!

희망과 도전



2023년 12월 15일금 제499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김만재 | 편집인: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02-6277-2000 F)02-6277-2011 http://metall.or.kr

조직강화팀 워크숍 개최 20만 금속노련을 위한 힘찬 도약

금속노련이 연맹-지역본부-단위노조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20만 금속노련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3년 조직강화팀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강화팀’이란 금속노련 20만 조직화 전략의 일환으로 2021년 ‘전략적 타겟’, ‘미조직 신규’ 투트랙 조직사업 성과를 계승하고 조직확대와 조직강화의 통일적 실현을 위해 2022년 대의원대회 결의로 설치되었다. 조직강화팀은 지역마다 금속노련 조직강화본부의 지역담당자와 지역본부 사무국장 외 5인 이내로 구성되어 신규조직화, 단체교섭, 교육·선전·투쟁 등을 지원한다.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2/12(화), 13(수) 양일간 충청남도 소재 소노벨 천안에서 열린 워크숍은 ▲노동조합 조직화 사례(발제) ▲조직강화팀 체계강화와 신규조직화 사업, 분쟁조직 지원(토론) ▲김준영 사무처장에게 듣는 광양투쟁 등으로 구성되었다.



워크숍에서는 3개의 조를 구성하여 ▲금속노련-지역본부-단위노조 사업공유 ▲신규조직화와 전략조직화사업 ▲조직강화를 위한 신규조직과 분쟁조직 지원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토론했고, 참여하지 못한 지역을 위해 토론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금속노련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최

2023년 금속노련 산업안전보건교육이 12/13(수)~15(금) 2박 3일간 울산 소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47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노동조합이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교육원 김종길 교수실장) ▲노동경제(금속노련 나병호 정책국장) ▲노동관계법(법률사무소 성의 정진영 변호사)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질환 이해(한서대 안전보건학과 최서연 교수) ▲산재보상 실무(법무법인 중앙법률원 전현승 노무사) ▲위험성평가 이해(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용석 교수) ▲노동자 건강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건 상임활동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자동차 부품사업장 미래차 대응 인식조사 협조 요청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며 전기차 등 미래차 보급이 확대되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일자리 등 노동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의 영향을 살피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함께 자동차부품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금속노련-23-315(2023.12.12.) 참조]

- ▶ 조사기한 : 2023년 12월 22일(금)까지
- ▶ 회신방법 : 팩스, 이메일, 우편
- ▶ 문의 : 나병호 정책국장(02-6277-2006)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1]

20만 금속노련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계약 저지
윤석열정권 퇴진!

희망과 도전



2024년 1월 26일금 제500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김만재 | 편집인: 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02-6277-2000 F)02-6277-2011 <http://metall.or.kr>

노조탄압 규탄! 조선선재노조 서울 본사 상경 투쟁

연일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조선선재노조(위원장 조석연, 포항)가 사측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 본사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조선빌딩 앞에서 1/24(수) 오후 1시에 개최된 이번 결의대회에는 조선선재노조와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박용락 상임부위원장, 김준영 사무차장, 금속노련 포항지역본부 김동일 의장을 비롯한 포항지역 대표자들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석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 피땀 흘려가며 헌신한 노동자들을 회사는 외면했다. 단체 교섭 자리에는 나타나지도 않은 채 노무사를 앞세워 노동조합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더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제는 투쟁이다!"라며 결의를 밝혔다.

이어 김만재 위원장은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헌신에 되돌아온 것은 단체협약 해지통보와 대체근로라는 말도 안 되는 행태다. 20여 년 간 분규 없이 노력해온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짓밟고 있는 사측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후 조선선재 노동자들의 투쟁에 금속노련이 적극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조선선재는 연 평균 100억 여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지난해 사무직군 구조조정, 포항과 온산의 현장직 희망퇴직 등 노조와 협의 없이 인원 감

축을 진행했다. 이후 사무직군 구조조정으로 교섭할 인원이 없으며 외부 노무법인에 교섭을 위임해 교섭 대표로 공인노무사가 참여했고 노조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46개 개악안을 제시했다. 교섭이 9차까지 진행되자 회사는 돌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교섭 시작 직후 베트남 공장에서 산업연수생으로 6명이 들어왔는데, 노조가 22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연수생들이 대체근로에 투입돼 노조 무력화 시도를 자행했다.

노조는 회사에 사측 요구안을 전면 철회하고, 고용안정 보장과 장원영 회장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련-전태일 노동대학 노동교육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금속노련이 노동교육 강화를 위해 전태일 노동대학과 1/23(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태일 노동대학은 1학년 기초교양 과정(자본주의 사회·역사·문화, 인간에 대한 과학적 인식), 2학년 기본이론 과정(자본주의·제국주의 비판과 노동해방·인간해방의 전망 모색), 3학년 전문실천 과정(민주노조운동, 노동자 점치운동 및 시민사회운동에 관한 성찰과 혁신) 등 3년 6학기로 이루어져 있다. 수업은 한 학기에 4주 동안의 온라인 강의와 5주차 오프라인 합동교육으로 진행된다.

노동자로서, 노동조합 간부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가르치는 전태일 노동대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http://www.junodae.org/>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1]

20만 금속노련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정권 퇴진!

희망과 도전



2024년 2월 7일(수) 제501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김만재 | 편집인: 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02-6277-2000 F)02-6277-2011 http://metall.or.kr

LG이노텍노조 35년 만에 조합원 상경 투쟁

LG이노텍노조(위원장 이종일, 구미, 이하 노조)가 회사의 '투서 자작극' 등 부당노동행위에 거세게 항의하며 본사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노조는 2/2(금) 오전 11시 30분 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LG이노텍 본사 앞에서 '노경팀 투서 공작사건 규탄! 경영성과급 지급! 진급제도 개선! LG이노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LG이노텍노조 이종일 위원장과, 김성수 사무처장, 장대식 평택지부장, 이규채 광주지부장, 김영지 파주지부장과 조합원 500여 명을 비롯해,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박용락 상임부위원장, 김준영 사무처장, 금속노련 구미지역본부 임상택 의장 등이 참석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지금 싸움은 시작에 불과하다. 구광모 회장과 문혁수 사장에게 경고한다. 이 사태의 책임자 처벌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사과하라. 재발방지책도 함께 만들고 노조에 대한 탄압도 이시간부로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금속노련 17만 동지들이 연대하여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노조 이종일 위원장은 "지난 9월 익명의 투서 한 장이 도착한다. 투서는 구미공장 노경팀장이 지시해 계약직을 가장한 노경팀원이 벌인 투서 공작이었다. 12월 경찰 조사로 명백한 범죄행위가 밝혀졌음에도 사측은 사과와 반성은 뒤로 한 채 익명의 제보라며 뻔뻔함을 보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줄 돈은 없다

더니 투서를 공작한 노경팀을 살리려고 건당 수입료가 1억에 육박하는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런 사측의 태도에 분노가 치민다. 사측에 강력히 전달한다.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나와 협상테이블에 앉으라! 오늘 우리의 목소리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다음은 LG트윈타워 구광모 회장 앞으로 갈 것이다"라고 경고하며 다음 투쟁을 예고했다.

현재 노조는 핵심 요구는 ▲투서 공작사건 등 회사의 노조와해 및 무력화 시도에 대해 관련자와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최고경영자(CEO)가 조합원 앞에 정중하게 사과할 것 ▲조합원들의 중요한 근로조건인 진급제도의 일방적 수행을 멈추고 노사합의로 시행할 것 ▲경영성과급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비상경영에 헌신해온 모든 임직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 등이다.

이재용 회장님! 노동조합과도 떡볶이 먹으면서 대화합시다!

삼성그룹 노동조합들이 2024년 9개 공동요구를 제시했다. 삼성연대는 2/6(화) 삼성전자 서초사옥 정문 앞에서 '2024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2024년 공동요구안에는 노사관계 개선 2대 요구안과 근로조건 개선 7대 요구안이 담겼다. 공동요구안 설명은 삼성연대 오상훈 의장(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이 맡았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대표발언에서 "무노조 사슬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2]

을 끌고 한국노총 금속노련에서 삼성연대 조직을 발족하고 끊임없는 공동요구안을 마련하며 (공동)교섭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은 노사협의회를 앞세워 노조를 무력화했다. 아직도 삼성그룹은 노동조합의 대화를 외면한 채 노사협의회를 앞세운 노사관계 왜곡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함께 떡볶이를 먹을 시간이 있었더라면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권력의 허수아비가 된 이재용 회장은 지금이라도 노동조합과 대화창구를 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삼성그룹이) 전향적으로 삼성연대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촉구한다. 이 요구들이 관철될 때까지 한국노총 금속노련 17만 동지들과 함께 연대하고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11개 삼성그룹 노동조합들은 "삼성그룹은 매년 공동요구안과 공동교섭을 거부했다. 심지어 단사별 교섭에서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앞세워 정한 임금·노동조건에 구속시켰다.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평가제도를 운영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노숙도 사측도 변해야 할 시기다. 급속도로 빠르게 변하는 세계경제 속에 노사화합을 통한 성장과 발전은 우리의 작장이고 국민기업인 삼성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변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삼성연대는 ▲이재용 회장의 직접 소통과 노사협력 견인 ▲삼성연대 9대 공동요구안 수용 ▲임금·인사·평가제도·자회사 차별개선 노사 공동 TF구성 등을 촉구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조선선재노조, 총파업 돌입

조선선재노조(위원장 조석연, 포항)가 사측의 대체근로 투입, 부분직장폐쇄에 분개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22(월)부터 노조는 1개 제품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파업을 진행해왔다. 노조는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 ▲사측의 단체협약 개악안 철회 ▲장원영 회장과 면담 요청 등 요구를 공문을 통해 수차례 전달했으나 사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설이 가까워져 오자 상여 등을 빌미로 부분파업 해제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그러다 사측은 2/5(월) 오전 6시부터 돌연 부분직장폐

쇄를 통보했다. 노조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기치 아래 2/5(월) 8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총파업 돌입’ 성명서에서 “노조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회사가 수용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할 의지가 있다면 노조 역시 모든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고 교섭을 통한 평화적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의지 또한 전달했다. 그러나 사측은 부분직장폐쇄를 통보하며 노조를 자본의 힘으로 굴종시키려 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장원영 회장에게 경고한다. 명분 없는 단체협약 해지통보 및 사측의 단체협약 요구안을 철회하고,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불법적 대체근로를 지금 당장 멈춰라. 우리 노조는 17만 조직의 금속노련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반드시 총파업투쟁을 사수할 것이며, 더욱 강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더욱 힘 있는 투쟁을 벌여 기필코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힘주어 전했다.

노조는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고 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응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열렬한 지지, 연대를 요청한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향해
보내주신 연대의 손길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현장의 힘으로! 현장과 함께
노동개약에 맞서는 금속노련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라며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2/2]

20만 금속노련!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정권 퇴진!

희망과 도전



2024년 3월 7일(목) 제502호

【주최】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김민재 | 편집인·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B04호 T)02-6277-2000 F)02-6277-2011 http://metall.or.kr

금속노련 제195차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임금인상요구율 8.59%(211,927원) 결정



금속노련 2024년 임금인상요구율이 8.59%로 결정되었다. 금속노련은 3/5(화)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195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는 재적인원 73명 중 38명이 참석해 52.0%의 참석률로 성원되었다.

제195차 중앙위원회에서는 △2024년 정책 및 법제도개선 주요과제 △한국노총 22대 총선 정책요구 △2024년 교육일정 △2023년 조직강화본부 사업 추진 현황 △영화 <다시 부르는 노래, 초혼> 후원 제언 △세월호 10주기 시민위원 모집 참여를 보고했으며, ▲2024년 4-5월 가예산 승인 ▲2024년도 정기대의원대회 ▲2024년 임단투지침(안) 확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정책 및 법제도개선 주요과제

한국노총은 2024년 정책 및 법제도개선 주요과제로 ① 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② 정부 노동시장 개악 및 노조운영 개입 저지 ③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악 저지 ④ 정년연장 및 고령자 고용대책 활동 ⑤ 고용안정 쟁취 ⑥ 노조 참여 산업전환 거버넌스 구축 ⑦ 산업안전보건 예방 및 보상활동 강화 등을 선정하고 입법 및 제도개선 투쟁과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22대 총선 정책요구

한국노총은 ▲사회연대 입법 ▲노조법 제2, 3조 개정 제추진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산업법·업종별 교섭과 사회연대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불균형 해소 등을 7대 핵심정책요구로 제시했다. 금속노련은 ▲기업변동 시 노동관계 승계 등 노동자 보호 ▲정년 65세 연장 법제화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개정) 및 노사 자율 보장 ▲외국인 투자기업 먹튀방지법 제정 등을 한국노총 제조연대차원에서 공동 정책요구로 제시하고, ▲자동차 부품기업 노동자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노련 요구로 제시했다.

△2023년 조직강화본부 사업 추진 현황

금속노련 조직화 사업의 결과로 2023년 한 해 동안 30개의 신규조직이 가맹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탄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금속노련은 투쟁의 선봉에 섰다. 광양의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투쟁과 그 과정에서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축에 따른 석방투쟁을 전개했다.

금속노련은 조직 활동을 위한 각종 매뉴얼과 지침 발행, 간부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노동교실,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조직강화팀 워크숍, 연대선전을 위한 금속나바시, 금속공장 등 영상콘텐츠 제작에 힘썼다.

▲2024년도 정기대의원대회

2024년도 정기대의원대회는 5/22(수) 13:30 경기도 과천시 소재 마사회 렛츠런파크 럭비빌 6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대회에 앞서 4/5(금)에 의무금 납부를 마감하고, 5/10(금) 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위원회의와 제196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한다.

▲2024년 임단투지침 확정

2024년 금속노련 임금인상요구율은 8.59%(기본급 기준 211,929원)로 확정됐다. 요구율은 2023년 12월 실시한 임단투 실태조사 결과와 2024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에 근거해 산출했다.

이어서 금속노련은 규약에 따라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결과 위원장에 신진호 인천지역본부 의장, 위원에 원철식 경기지역본부 의장, 이성영 안산·시흥지역본부 사무국장, 반영진 충북지역본부 사무국장, 사무국장 예전 상 서울지역본부 사무국장이 위촉되었다.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1]

20만 금속노련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정권 퇴진!

희망과 도전



2024년 3월 15일금 제503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김만재 | 편집인: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02-6277-2000 F)02-6277-2011 http://metall.or.kr

“가자! 뛰자!” 상반기 지역순회 시작 금속노동자 총단결로 2024 임단투 승리!



금속노련의 사업과 ‘2024년 임금 및 단체교섭 투쟁지침’을 설명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2024년 금속노련 상반기 지역순회 간담회가 3/12(화) 경남지역본부 시작으로 4월까지 진행된다.

김만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를 심판대에 올려놓지 못하면 노동의 위기가 계속될 것이다. 이 정부는 9건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 삶은 실종됐다”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한 정권 심판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이어 “작년 세아그룹을 비롯해 임금피크제 폐지를 이루어 낸 조직들이 있다. 앞으로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축소 또는 폐지를 이루어내기 위해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교섭과 투쟁을 위한 준비를 독려했다. 끝으로 “올해 정기대의원대회와 체육대회 등 여러 행사를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금속 동지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노련의 여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간담회에서는 ▲2024년 주요 정세 ▲2024년 금속노련 임금투쟁지침 ▲2024년 임단투 주요 쟁점 및 과제 ▲금속노련 교육일정 ▲2023년 신규조직 현황 ▲2023년 분쟁조직 지도 지원 현황 ▲2023년 조직강화본부 주요사업추진현황 등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상반기 지역순회 일정은 아래와 같다.

2024년 상반기 지역순회 일정

3/19(화) 11:00	서울	3/20(수) 16:00	포항
3/21(목) 11:00	구미	3/26(화) 15:00	광주전남

3/27(수) 11:00	안산시흥	3/29(금) 11:00	전북
4/3(수) 10:30	충북	4/9(화) 10:30	울산경주
4/11(목) 15:00	충남세종	4/16(화) 16:30	인천
4/17(수)	부산	4/18(목)	대구경북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 노동자의 힘으로 심판하자!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온 몸으로 저항해온 사람, 김만재!

공권력에 무참히 짓밟혀도
윤석열 퇴진을 외친 사람, 김만재!

원칙을 지키며 과감한 혁신을
실천해 나갈 사람, 김만재!

혁신 속도 100%! 우리 손으로 만드는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조국혁신당 제22대 총선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국민참여선거인단 모집

신청기간 3월 14일(목) 9시 ~ 3월 16일(토) 18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링크 : 조국신당.kr/signup

문의 나병호 정책국장 02-6277-2006
이효원 홍보부장 02-6277-2009



※선거인단 참여는 당원가입이 아닙니다.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2]

배움만이 살길이다!

금속노련 및 제조연대 교육 개최

금속노련 상반기 각종 교육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연대믹 국면 이후 교육수요가 폭발해 여러 교육이 조기 마감되어 금속노련 자체 교육을 추가 계획하는 등 교육에 대한 금속 동지들의 열기가 뜨겁다.

경기도 이천시 소재 한국생산성본부연수원에서 3/12(화)~13(수) 양일간 개최된 '한국노총 제조연대 1차 교섭위원 교육'은 104명이 참여했다.



연이어 경북 청도군 소재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에서 3/13(수)~15(금) 2박 3일간 개최된 '금속노련 노동문화교육'은 65명이 참석했다.



빠르게 마감된 한국노총 제조연대 2차 교섭위원 교육은 3/19(화)~20(수), 선전선동교육은 4/2(화)~3(수) 한국생산성본부연수원에서 개최된다. 금속노련 입단투교육은 3/25(월)~26(화) 세종시 조치원을 소재 흥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개최되며 오늘까지 신청 가능하다.

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핵심공약 채택 및 재추진 촉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 재추진을 촉구하며 3/14(목) 13:30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노총은 "22대 총선 국면에서 2,500만 노동자들의 살아 숨쉬는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모든 정당이 핵심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일반노조 KGS틸협력사지부 권인규 지부장(충남세

종, 아래 사진에서 오른쪽)은 현장발언에서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 만들고,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 권리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사실상 없었다"며 노조법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현행법 하에서 실질적 사용자는 교섭에 나올 필요도 없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해도 계약만 바꾸면 언제든 끝이다 쓸 대체인력이 넘쳐나는 게 현실"이라며 "원청과 근로조건 차별도 서러운데 법에서 정한 권리마저 차별받아야 하느냐"며 규탄했다.

"기억은 힘이 세지"

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 '시민위원' 참가 요청

한국노총과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4.16연대, 4.16 참사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위원을 모집하오니 금속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공문 금속노련-24-069(2024.03.11.) 참조]

- ▶ 모집기간 : 2024년 4월 16일(화)까지
※ 한국노총 집중모집기간 : 3월 20일(수) 17시
- ▶ 금액 : 개인 1만원, 조직 5만원 이상
※입금자명으로 주관단체 홈페이지 게시 예정
※참여조직 확인을 위해 참석여부를 금속노련에 반드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 모금계좌 : 416-01-001231 수협은행 (예금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 주요사업
 - 영화프로젝트 '세월호참사 10년의 사람들'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생명안전공원
 - 국민이 함께하는 4.16시민합창
 - 10주기 추모 문화제
 - 청소년 추모활동 지원 등
- ▶ 문의 : 이효원 홍보부장(02-6277-2009)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2/2]

20만 금속노련!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정권 퇴진!

희망과 도전



2024년 3월 28일목 제504호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김만재 | 편집인: 김준영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02-6277-2000 F)02-6277-2011 http://metall.or.kr

상반기 지역순회 순항 중

2024년 금속노련 상반기 지역순회가 지역의 협조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3/19)



▲포항(3/20)



▲구미(3/21)



▲광주전남(3/26)



▲안산사흥(3/27)

간담회에서는 ▲2024년 임단투 주요 쟁점 및 과제 ▲2023년 신규조직 및 분쟁조직 지도 지원 현황 ▲2023년 조직강화본부 주요사업추진현황 등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이후 진행되는 일정은 아래와 같다.

2024년 상반기 지역순회 일정

3/29(금) 11:00	전북	4/3(수) 10:30	충북
4/8(월) 10:30	인천	4/8(월) 16:00	대전
4/9(화) 10:30	울산경주	4/11(목) 15:00	충남세종
4/17(수) 15:00	부산	4/18(목) 15:00	대구경북
4/19(금) 10:30	경기		

22대 국회에 바란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 8대 요구 발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산업(위원장 황영안, 경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한화시스템노동조합(위원장 이성종, 경기) 등 6개 조직으로 구성된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22(금)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방위사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3권이 부정당하는 현실을 알리고 오는 22대 국회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이 연대로 함께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노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1/2]

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세 개의 권리 모두가 흔들리는 것이 노동3권"이라며 비판하고 방위사업노동자들을 위한 22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 개정 노력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위사업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법제화 ▲방산업체 적정이윤보장 및 과도한 규제 철폐 ▲방위산업의 감사 및 비리진단 제도 개선 ▲연구실폐 개인책임제가 개선 ▲경쟁사 간 저가 수주 경쟁 개선 및 적정 개발·납품일정 법제화 ▲노동이사제 도입 등 8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8대 요구안이 담긴 정책질의서를 각 당에 발송하고 응답을 취합한 결과를 소속 사업장 구성원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노조와해 행위를 중단하라!

포스코노조(위원장 김성호, 포항)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측의 조직적인 노조 탈퇴 종용과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천막사무실 운영을 마무리하고 다음 투쟁을 준비한다.



노조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앞에 각각 3/18(월), 3/21(목)부터 천막사무실을 열어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법 위반 사례를 신고받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200여 건에 달하며, 법률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3/26(화) 광양에서 진행된

광주·전남 지역순회 간담회 일정에 앞서 천막을 방문해 격려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

제조연대 2차 교섭위원 교육 및 금속노련 임단투 교육 개최

한국노총 제조연대 2차 교섭위원 교육이 3/19(화)~20(수) 양일간 경기도 이천시 소재 한국생산성본부연수원에서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금속노련 임단투 교육은 3/25(월)~26(화) 양일간 세종시 조치원을 소재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1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 '시민위원' 참가 요청

- ▶ 모집기간 : 2024년 4월 16일(화)까지
- ▶ 금액 : 개인 1만 원, 단체 5만 원 이상
- ※ 참여조직 확인을 위해 참여여부를 금속노련에 반드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 모금계좌 : 416-01-001231 수협은행 (예금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 문의 : 이효원 홍보부장(02-6277-2009)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안내

- ▶ 일시 : 2024년 5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 ▶ 장소 : 마사회 랫츠리조트 럭키빌 6층 컨벤션홀 (경기도 과천 소재)
- ※ 소집공고는 5월 중 공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현장과 함께! 20만 금속노련 시대를 향한 전진!

[2/2]

나. 노총 기관지 기고

1)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철탑에 오른 이유 : 광양 포스코 하청 노동자 투쟁 경과 및 과제 (2023년 7·8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이 천막 투쟁을 시작한 지 400일을 향해가고 있다. 바람과 시간이 깃발을 반 토막으로 만들었다. …… 이 투쟁을 매듭지으려 한다. 늘 마음이 무거웠다. 끝을 볼 때까지 광양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농성을 시작한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포스코 사내 하청 '포운' 노조의 투쟁에 결합하며 한 말이다.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양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급단체 위원장과 간부가 내려와 협상을 요구하는데도 회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이 사람, 저 사람과 비공식 만남과 간담회로 김준영 사무처장을 탁구공처럼 이리저리 보냈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은 전혀 없었다. 이에 노조는 5월 29일, 30일 이틀간 각각 2시간, 4시간의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그러자 원청인 포스코는 대체근로를 투입했고, 포운 사측은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날 새벽, 김준영 사무처장은 8.7m 철탑에 올랐다.

고공 농성 강제진압과 폭력, 유혈사태 … 그 끝은 사회적 대화 단절

“동종업종의 비슷한 차를 (대체근로로) 집어넣었다고 하면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포운의 차를 탄 놈들이 타겠다는 거, 이것이 우리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박탈하는 가장 잔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철탑을 결심했다.”

철탑이 세워지고 동이 트자, 순식간에 경찰들이 몰려와 철탑을 에워쌌고 에어매트를 사방에 설치했다. 에어매트 설치하는 곧 철거의 시작임을 모두 잘 알고 있는 탓에 김준영 사무처장은 철탑을 흔들며 저항했고, 김준영 사무처장이 흥분한 상태가 걱정된 김만재 위원장은 에어매트를 설치하지 말고 경찰통제선을 두르지 말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경찰 7명은 강력범죄 현행범을 체포하듯 갑자기 달려들어 김만재 위원장을 제압하며 얼굴을 아스팔트 바닥에 짓이기고 15초 이상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 숨도 쉬지 못하게 하고 뒤통수를 채워 연행했다. 이날은 오후에 교섭이 예정되어있었다. 김만재 위원장은 교섭에 참여하는 당사자였다.

경찰의 폭력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김만재 위원장이 체포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은 5월 31일 새벽, 경찰 6개 중대가 철탑을 둘러쌌고 소방굴절차(스카이크레인) 2대가 배치되었다. 소방굴절차에는 각각 1명의 소방관과 약 1.5m의 경찰봉과 방패, 헬멧으로 무장한 2명의 형사가 타고 철탑에 접근했고, 김준영 사무처장은 소방굴절차 난간을 비계 지지대로 때리며 접근을 막았다.

그러나 가까이 접근한 4명의 형사는 경찰봉으로 김준영 처장의 온몸을 30여 차례, 특히 머리를 15차례

집중타격해 철탑 위에 쓰러지게 했고, 의식이 흐려진 그를 지상으로 끌고 내려왔을 때는 머리에 피를 철 철 흘리고 있었으며, 무릎 연골이 파열돼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

한국노총은 김준영 사무처장의 연행된 후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인권 무시, 노동자 폭력진압 윤석열 정권 공권력 남용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해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의 시작을 선언했다. 광양에서도 비슷한 시각인 오후 2시 광양경찰서 앞에서 〈노동 탄압 폭력 만행 윤석열 정권 규탄 한국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해 김준영 사무처장의 폭력 연행을 규탄했다.

다음날인 6월 1일, 금속노련은 김만재 위원장이 구속된 순천경찰서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김만재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났다. 그러나 6월 1일 늦은 밤 기습적으로 청구된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되어 지금까지 구속상태에 있다.

한국노총은 6월 2일 〈김준영 사무처장 폭력진압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경찰청 앞에서 개최하고, 6월 8일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6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이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력·과잉 진압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6월 29일 검찰은 김준영 사무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회사의 ‘노조 깨기’, 하청노동자 노동3권 쟁취에 나서자

포운 노조의 과거 이름은 ‘성암산업 노조’다. 성암산업 노조는 2020년 회사가 폐업하며 140명을 일시에 해고하겠다고 해 국회 앞 단식 농성을 벌였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1년 뒤에 한 회사에 다시 모이기로 약속하며 5개 회사로 조합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1년 뒤인 2021년 한 회사인 ‘포운’에 다시 모였다.

흩어졌던 조합원들이 모인 이후에 회사는 노조의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여전히 ‘성암산업’ 소속일 때 받던 2018년도 임금을 2023년에도 받고 있어 임금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70회 이상 교섭을 하는 시늉만 했을 뿐 타결의 의지는 전혀 없다.

이름만 바뀌는 사측은 2018년 당시 노조의 교섭 요구에 교섭해태로 일관하다가 폐업을 선언하더니, 70회 이상 교섭에서도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옥경 포운 노조 위원장은 “사내 하청은 원청과 1년마다 계약을 갱신·변경하고, 3년 주기로 사장과 회사명이 바뀌고, 근로조건도 원청에 의해 결정되고 그마저도 최저임금 수준이다”며 “이런 하청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하려면 이른바 〈업체같이〉, 〈폐업〉, 〈사업 반납〉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LG트윈타워 노동자들, 흥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 2023년 현재 금속일반노동조합 소속의 SK넥실리스협력사지부, NPF지부, 서진캠협력사지부, KG스틸협력사지부 등이 투쟁하는 이유는 같다.

결국, 하청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회사 폐업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보호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2021년 금속노련이 소속된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의원과 함께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은 현재 환노위에서 잠자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제2, 제3의 포운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모두 철탑에 올라주세요!”

광양에서의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여가 지났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많은 이들의 뇌리에,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단절함으로써 지난 17년간 지켜온 노사정 대화 주체로서의 자리를 과감히 떠나며 정권 심판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련은 정권 심판을 넘어 정권 퇴진을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며, 7월 15일 1차 범국민대회, 8월 12일 2차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엄중하고 날 선 비판으로 정권을 심판하든, 범국민 퇴진운동에 합류하든,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 6월 7일 구속상태에서 전한 편지에서의 부탁처럼 동지들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철탑에 올라주기 바란다. 우리가 김준영이 되어 그가 부르짖었던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한다면, 자유를 박탈당한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2) 반노동·반통일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 2023년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참가 후기 (2023년 9월)

올해 여름은 폭염과 폭우로 몹시 힘든 나날이었다. 어느 해보다 희생자도 많았다. 가슴 아픈 뉴스는 곧 분노로 바뀌었다. 정부의 책임자들은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최고 책임자는 남의 나라 전쟁터에 갔다. 민중은 각자도생으로 몰리고 있다. 살겠다고 저항하면 곤봉 세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적이었다. 결국, 한 노동자는 몸에 불을 붙였고 우리 대표자는 잡혀갔다.

우리가 김준영이다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발대식 참석을 위해 한국노총 대회의실에 모인 통일선봉대 대원들은 가슴에 '우리가 김준영이다.'라고 쓰인 배지를 달았다.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원청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2020년에 체결된 고용 승계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고 현장은 노동 탄압이 자행되었다. 일상은 전쟁이 되고 누군가 나서지 않는다면 해결은 요원했다. 그리하여 포스코 회사 앞 도로에 철탑이 세워진 것이다.

경찰은 폭력적으로 대응했고 가짜 뉴스가 유포됐다. 부도덕한 정치인들은 노동을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분노했다. 윤석열 정권, 무도한 정권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 15기 한국노총 민족자주 통일선봉대는 김준영 동지의 마음으로 시작했다.

숨 가쁘게 돌아본 분단 78년 역사

첫 일정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및 11차 기림일을 맞이하는 세계 연대집회였다. '정의도 기억도 연대도 격렬하게 혐오를 넘어 평화의 연대로!'란 구호를 걸고 진행하는데 스피커 볼륨을 높여 집회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 집회가 마무리되고 가려졌던 구호 현수막이 거뒀지니 떠들던 사람은 4명뿐이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장관, 기자, 학자, 전문가란 스피커로 요란스레 동족 대결과 적대를 떠들어대지만, 과연 그들은 얼마나 될까. 온갖 방해물 물리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해본다.

둘째 날 아침 광주 교도소 앞, 김준영 동지 무죄 석방을 위한 금속노련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태풍 우가 쏟아졌다.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팔뚝질을 하고 노래를 불렀다. 김준영 동지는 통일선봉대에게 보내는 편지글에서 "윤석열 정권 가슴에 날아가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자"고 호소하며 "남북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유를 위해 싸우자"고 했다. 감동적인 글에 우리가 더 큰 힘을 얻었다. 과연 간혀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김준영을 즉각 석방하라!"고 크게 외쳤다.

셋째 날 아침,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장소인 노근리 쌍굴다리 현장을 탐방했다.

노근리는 1950년 7월 미군이 충북 노근리 경부선 철도 아래 쌍굴다리 속에 피신해 있던 주민들을 무차별 사격하여 민간인 300여 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이러다가 다 죽겠네..." 젓먹이 아이의 울음소리는 적들의 표적이 되었다. 도피처에 숨은 사람들이 다 죽지 않기 위해 내 아이를 냇가에 버린 어미의 심정을 알 수 있을까.

미군은 비행기 잡는 기관총으로 노근리 쌍굴다리를 무차별로 쏘아댔다. 아이를 살리려 온몸으로 막은 엄마의 주검 아래, 몇 명의 아이들이 살아남았다. 사격이 멈췄다. 인민군에 의해 미군이 후퇴한 것이다. 무자비한 살상 아래, 총격을 멈추게 한 인민군이 고마웠다고 한다. "하루라도 빨리 내려 왔으면..." 생존자들은 역설적 상황을 증언했다. 전쟁의 비인간성은 처참했다. 당시 살아남은 아이들이 자라, 끈질긴 진실 투쟁으로 노근리 학살 사건은 공론화되고 결국, 미국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또 다른 민간인 학살터인 대전 산내 골령골을 탐방했다. 수천 명이 학살된 산내 골령골은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 불린다. 1950년, 한국전쟁이 나자마자 이승만 정부는 감옥 문을 열어 수감자들을 조직적으로 죽였다. 국제법상 전쟁 시에는 수감자들을 풀어주게 되어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전쟁 상황을 틈타 분단을 반대해 수감된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 총살했다. 1950년 집단 학살은 3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영등포와 서대문, 수원의 형무소에서 가석방돼 열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대전역에서 마구잡이로 연행된 사람들과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 약 7000여 명이 총살되어 긴 구덩이 아래로 떨어졌다. 이 중에는 제주 4.3 관련 수감자와 여순사건 등 소위 정치범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1999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던 '한국에서의 정치범 처형'이라는 A-1급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밝혀졌다. 50년이 걸렸다. 산내 골령골 학살에 대해서 정부는 진상조사를 외면하고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겨우 미군 문서에 의해 진상이 알려진 후 유해발굴을 시작했다.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인 한국전쟁 전후 전국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추모와 평화 인권 교육을 위한 ‘진실과 화해의 숲’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승만 기념관은 세우려고 열을 올리고 있다. 누가 국민을 죽였는가. 학살의 죄를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하는가.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시도는 계속된다.

분단 78년 역사를 숨 가쁘게 돌아보고 나니, 실천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로 올라와서 각계각층의 통일 선봉대와 함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행진했다. 역사 왜곡, 분단 강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에 대해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용산 대통령실에 항의했다. 신냉전 한미일 군사 협력 반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규탄, 반노동·반통일 윤석열 정부 심판, 굴욕외교 규탄, 주권회복을 외쳤다. 이어 용산역 강제동원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8·15 한국노총 통일대회에 참여했다. “노동 탄압·굴욕외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외쳤다. ‘노동자통일선봉대가’를 힘차게 불렀다. “새 역사를 개척하는 노동자 통.일.선.봉.대.”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일정 중 교육이 세 번 있었다. 교육을 통해 한반도 주변 신냉전 조성의 위험성, 정전체제의 역사,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고민하게 되었다. 교육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 외교·통일정책, 역사의식에 대해 분노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보국안민, 제폭구민, 척양척왜를 외치며 일어났던 농민군, 5.18항쟁 때 마지막 도청을 지켰던 시민군, 무장을 들고 일제와 투쟁했던 항일운동가들... 그들이 치열하게 살고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였을까. 그들도 우리처럼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투쟁했다. 윤석열 정권의 친미·친일·사대매국 행보는 노동자 민중의 삶과 같이 갈 수 없다. 8.15 한국노총 통일대회에서 울린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노래 가사가 떠올랐다.

식민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쟁의 참극을 되새기며, 노동자 민중이 행복한 정의로운 나라와 자주·평화·통일의 세상을 꿈꿔 본다. 그리고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실천과 투쟁으로 한국노총 통일선봉대의 깃발을 휘날릴 것이다.

다. 성명서/보도자료

1) [성명서] 윤석열 정권 1년,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2023.05.10.)

- 반성과 사과 없는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을 맞은 2023년 5월 10일, 그 어느 때보다 노동은 위기를 맞고 있다. 물가폭등과 경기침체,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노동자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노조의 회계 부정과 고용 세습을 주장하며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본의 소원수리이자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는 꼼수의 발현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차근차근 노동개악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족시켰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 내용을 보면 주 69시간 장시간노동, 유연근무제 확대, 성과직무급제 도입과 파견업종 확대까지 자본의 요구를 총망라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는 상생임금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진정 묻고 싶다. 대화와 타협 없이 불통과 편가르기에 앞장서는 대통령, 친자본, 반노동도 모자라 친일의 길에 앞장서고 있는 대통령. 주구장창 자유를 외치면서도 노사자치는 무시한 채 노사법치를 운운하는 대통령. 이렇게 1년 만에 대한민국 정치, 경제, 외교, 민생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 노동탄압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 온 몸을 던져 투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와 대립했던 정권의 끝이 어땠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다. 2023년,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공안탄압이 자행되고, 노동의 가치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투쟁 말고 다른 길은 없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앞으로의 4년은 기다릴 수 없다. 우리 17만 금속노동자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노동개악을 비판하는 노동자를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겁박하는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금속노련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설 것이다.

2) [성명서] 윤석열 정권과 경찰의 폭압적인 노조 탄압을 규탄한다!(2023.05.30.)

- 금속노련의 전조직적 역량을 결집하여 투쟁에 임할 것임을 선포한다 -

2020년, 금속노련은 포스코 협력사인 성암산업의 작업권 반납에 맞서 성암산업노조(현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전 조합원과 함께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했다. 전조합원의 투쟁과 더불어 김민재 위원장의 단식, 한국노총과 국회의 노력, 경사노위의 중재에 힘입어 조합원 고용 승계와 노동조건에 관한 합의를 이뤘고, 2020년 7월 21일 농성을 마무리 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7월 18일에 노사가 맺은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합의서가 단체협약이라고 주장하던 사측이 이후에는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회사의 입맛대로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근거도 없이 행정해석을 했다. 더욱 힘을 받은 사장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이어갔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노조의 계속되는 진정에도 사측에 면죄부를 주기에 바꿨다. 포스코를 등에 업은 OB출신 사장과 여수지청의 합작으로 포운(구 성암산업) 노동자들은 여전히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다. 전직 여수지청장들은 현재 포스코 협력사들의 노무 자문을 맡고 있다.

이에 금속노련이 직접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광양으로 달려갔지만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포스코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은 철갑을 만들고 꼭대기로 올라갔다. 김만재 위원장이 지상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예닐곱 명의 경찰들이 김만재 위원장을 둘러싸고 강력법 검거하듯 머리를 바닥에 짓이기고 수갑을 뒤로 채워 연행했다. 물리력을 남용하고 수갑 지침도 위반한 경찰의 과격한 폭력에 정녕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농성 중인 산별노조 위원장을 너무나 폭압적으로 연행해가고 공공농성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경찰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부터 금속노련은 하청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과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에 맞서 전조직적 역량을 총집결하여 정권과 경찰에 맞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한다.

3) [성명서] 경찰의 연이은 폭압적인 강제연행 규탄한다!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즉각 석방하라!(2023.05.31.)

2023년 5월 30일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아스팔트에 머리가 짓이겨 지며 뒷수갑이 채워진 채 강제연행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김준영 사무처장이 오늘 새벽 경찰에 강제연행됐다. 강제연행에 맞서는 김준영 사무처장을 경찰들이 곤봉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김준영 사무처장은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다수의 조합원들도 폭력으로 진압했다.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포운의 노사합의를 이행하라는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정권과 경찰은 폭압으로 진압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조직이라고 스스로를 밝힌다. 하지만 그런 소개가 무색하게 대통령의 한마디에 바짝 앞드려 움직이는 조직을 우리는 정권의 하수인이라 부른다.

김만재 위원장은 어제 광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고 오늘도 조사를 받는다. 김준영 사무처장도 치료 후 순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다. 폭압적 강제연행을 진행한 경찰은 즉각 무리한 조사를 중단하고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석방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해 왔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공안탄압이 자행되고, 노동의 가치가 탄압받는 상황에서 이 땅의 노동자이자 국민들은 분연히 일어서 왔다. 노동자의 차오르는 분노를 경찰의

방패와 곤봉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노조를 혐오하는 대통령, 열심히 충성하는 경찰청장, 사장 본인이 서명한 합의도 지키지 않는 포운, 뒤에 숨어 극한 노사 대립을 방관한 포스코, 자신의 역할은 망각한 채 사측의 편에 섰던 고용노동부와 여수지청이 비극적인 상황을 만든 공동정범이다. 잘못했으면 죄값을 받아야 한다. 그게 정의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한 죄, 그 죄를 금속노련과 이 땅의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끝까지 물을 것이다.

4) [성명서] 법원은 김준영 사무처장을 석방하라!(2023.06.02.)

- 금속노련의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석방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

오전 11시, 경찰의 무차별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은 아픈 몸을 이끌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고 구속됐다.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경찰, 검찰, 법원 그 어디에도 정의는 없었다.

경찰의 폭압적인 강제연행과 병원에서의 무리한 조사, 새벽을 틈탄 구속영장 신청, 검사가 그것도 무려 두 명의 검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찰을 증인으로 대동한 채 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진술하는 상황은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받고 구속됐어야 하는 사람은 김준영 사무처장이 아니라 위법한 공권력으로 김준영 사무처장을 집단폭행한 경찰들이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시한 뒷선이었어야 한다.

우리는 김준영 사무처장이 평소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피투성이가 되어 연행된 후에도 남겨진 동지들에게 미안하다며 현재까지 식사도 거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김준영이다.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포운의 노사합의를 이행하라는 요구가 그렇게 큰 죄인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사정기관까지 앞세워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권이라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설 유일한 방법은 연대투쟁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과 그 하수인들에 대한 퇴진 운동을 시작으로 금속노련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 결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분쇄할 것이다.

경찰의 집단폭행으로 부상한 김준영 사무처장을 법원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금속노련은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이 이뤄질 때까지 전 조직적 역량을 결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5) [보도자료] 노동탄압 윤석열 심판! 폭력연행 윤희근 파면!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김준영 동지 석방! 금속노련 사내하청 노동자 기자회견(2023.06.20.)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달 말 광양 포스코 앞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이 윤석열 정부의 폭력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김만재 위원장 석방,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이 발생했습니다.
3. 정부·여당·보수언론은 사건이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는 무시한 채 불법·노사법치를 내세우며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4. 사건의 본질은 사회적 약자이자 교사나 공무원도 아니면서 헌법상 노동3권 조차 사실상 보장받지 못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윤석열 정부가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저지른 국가폭력사건입니다.
5. 이에 보수언론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하기 위해 등장시키는 소위 귀족노조·철밥통 노조 아닌, 금속노련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현장의 현실을 알리고,
6. 노동탄압 윤석열 심판! 폭력연행 윤희근 파면!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 김준영 동지 석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함과 동시에 이후 투쟁을 선포하려 합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바랍니다.

- 아래 -

- 기자회견명 : 윤석열 정권 노동탄압 규탄 및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14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순서
 - 참석자 소개
 - 금속노련 박용락 상임부위원장 인사말 / 한국노총 이충재 상임부위원장 인사말
 - 현장발언(포운노조, 금속일반노조 SK넥실리스협력사지부·서진캠협력사지부·KG스틸협력사지부·NPF지부)
 - 기자회견문 낭독(사내하청 노동자)

[기자회견문]

지난 달 말 광양 포스코 앞,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이 윤석열 정부의 폭력 경찰에 연행됐다. 다행히 김만재 위원장은 석방됐지만, 김준영 사

무처장은 일방적 폭력과 큰 부상에도 구속되고 말았다.

오래 그렇듯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보수언론을 앞세워 사건이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는 무시한 채, 앵무새처럼 불법·법치를 들먹이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요구에서 비롯됐다. 통상 사내하청은 원청과 1년마다 계약을 갱신·변경하고, 3년 주기로 사장과 회사명이 바뀐다. 원청사업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원청 의지에 따라 회사가 유지될 수도 없어질 수도 있다. 근로조건도 원청에 의해 결정되고 그마저도 최저임금 수준이다. 정규직이라지만 근기법상 정규직과 근로조건 차별금지가 적용되는 계약직보다 못한 비정규직이다.

이런 하청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하려면 원·하청에 의한 이른바 <업체갈이>, <폐업>, <사업반납>도 감수해야 한다. 설사 노동조합이 유지된다 해도 아무 결정 권한 없는 하청을 상대로 형식적 교섭밖에 할 수 없다. 나아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면 원청이나 원청과 새로 계약한 다른 하청의 대체근로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무력화된다. 이렇듯 우리는 분명 노동자인데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여기 모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를 증명한다. 포운노조는 대체근로로 단체행동권이 무력화됐으며, 금속일반노조 서진캠퍼스지부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하청사가 무려 6개나 없어지고 조합원들은 생계투쟁 중이다. SK넥실리스협력사지부는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하청사 사장이 사업을 반납해 조합원들이 3개 회사로 찢어졌고 지부 임원은 3년 넘게 해고 상태에 있다. KG스틸 원청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인 KG스틸협력사지부가 빨리 파업하기만을 기다린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파업투쟁으로 오늘 참석 못 한 NVH-NOS-NPF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 말단 회사인 NPF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폐업을 공고한 상태다.

누구는 사내하청 문제가 시작됐던 IMF 외환위기가 벌써 20년 전 끝났다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말하지만 우린 여전히 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 탐욕스런 원청자본, 중간착취 하청자본, 이에 부역한 법기술자들이 만들어놓은 부당한 제도에 아직도 갇혀있다. 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국회로 법원으로 노동부로 찾아다니며 처절하게 호소 했지만 국회는 관련법을 방치했고, 법원은 판결에 느긋했고, 정부는 법 집행을 망쳤다. 오히려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할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대변하는 김준영 사무처장을 곤봉이 부러지도록 셀 수 없이 내리쳤다.

이렇게까지 된 이상, 우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더는 이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자유는 힘 있는 자들과 자본의 자유, 법치는 힘없는 자들과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법치였고, 이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정부, 물러날 곳 없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정부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이 사회적 약자이자 교사나 공무원도 아니면서 헌법상 노동3권조차 사실상 보장받지 못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윤석열 정부가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국가폭력사건으로 규정하며, 더 이상 아무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친자본 반노동 윤석열

정권이 심판되는 그날까지 이 나라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지침에 따라
쉽 없이, 끈질기게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한다.

우리의 투쟁은 이 시대의 가장 억압받은 약자들의 투쟁이며, 사회역사는 그들의 투쟁에 의해 변화·발전
해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6) [보도자료] 김준영을 석방하라! 포스코는 노조탄압 중단하라! 국제제조노동자들 한 목소리
(2023.06.20.)

- 인터스트리올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윤석열 정권과 포스코 규탄 연설 및 긴급결의문 채택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IndustriALL(국제통합제조노동조합연맹, 이하
인터스트리올)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윤석열 정부와 하청노동자의 노
동3권을 짓밟으며 노조개기를 자행하는 포스코를 규탄하고 구속된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6월 19, 20일 양일간 열리는 인터스트리올 중앙집행위원회 참가를 위해 지난 18일 출
국했다. 현지시각으로 19일 오후 6시 30분경 김만재 위원장은 지난 5월 30일과 31일에 있었던 경찰의
강제진압을 간단한 영상으로 상영 후 연설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이 지난 1년 동안 노동개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왔으며, 노조의
파업과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식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스코는 사내하청노
동자들의 노동3권을 짓밟으며 노조의 파업을 대체근로 투입으로 무력화했다고 비난했다.

인터스트리올 중앙집행위원들은 금속노련에서 준비한 머리띠를 착용하고 피켓을 흔들며 “김준영을 석
방하라!(Free Kim!)”, “포스코는 노조탄압을 중단하라!(POSCO, Stop Union Busting)” 등의 구호를
외쳤고, 긴급결의문을 채택하여 “한국 정부와 경찰의 폭력 진압과 사내하청사 노동3권을 훼손하는 포스
코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함을 강력히 결의”했다.

앞서 인터스트리올은 금속노련의 상황에 대해 누리집 기사를 통해 상황을 전달하고 연대서한을 보내는
등 지지를 표한 바 있으며, 현재 포스코에 대한 항의서한을 준비 중에 있다.

[김만재 위원장 발언문]

인터스트리올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속노련 위원장 김만재입니다.

이렇게 케이프타운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방금 영상으로 확인하신 대로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 진압 사태에 대해 인터스트리올에서 항
의하고 연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집권한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노동개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노동시간 규제완화를 통하여 장시간 노동을 추진하고,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노조의 파업과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 조합비 회계장부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노조의 자주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스코 사내하청사인 포운의 노사합의 이행과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농성을 지원하던 저를 경찰이 폭행하고 강제연행 하는 일까지 벌여졌습니다. 그리고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사무처장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연행 후 구속하였습니다.

포운 사측이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 포운 노조가 정당하게 파업을 진행했지만 포스코가 현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사측의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저와 김준영 사무처장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찰의 곤봉과 수갑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노조 정책이 극에 달해 결국에는 노동자를 상대로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인터스트리얼 동지들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저는 노조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과 폭력 경찰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사내하청사의 노동3권을 훼손하고 있는 포스코를 규탄합니다. 또한 심각한 부상에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뜻을 모아 인터스트리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련 결의문 채택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합제조노련 결의안]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한국 정부와 경찰의 폭력 진압과 포운의 노동3권을 훼손하는 포스코를 강력히 규탄하며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사인 성암산업 사측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쪼개 매각을 시도하면서 노조가 반발하자 ‘분사 없는 매각’을 약속했다. 그런데 2020년 성암산업이 이번에는 작업권을 반납하겠다고 밝히고 그해 6월 전 조합원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서자 2020년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재로 포운으로 전직하고 근로조건 및 노조활동 보장에 합의했고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포운은 성암산업 시절 근로조건을 승계하지 않고, 임금교섭에도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 노조 활동도 보장하지 않았다. 결국 노조는 또다시 연장근로 거부 등의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원청인 포스코에서 노조법상 금지된 행위인 대체인력 투입으로 노조의 쟁의를 무력화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지만 포스코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을 줘 조업을 계속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노조의 헌법상 노동3권을 권리를 정면으로 무력화한 행위이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와 포운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노조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 400일이 넘게 천막을 치고 투쟁을 이어왔다.

결국 문제해결을 위해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이 포운으로 갔다. 포스코와 포운을 만났지만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자 김준영 사무처장이 철탑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경찰은 다음달 바로 철거를 시도하자 이에 항의하던 김만재 위원장의 목과 얼굴을 바닥에 짓이키며 뒷수갑을 채워 폭력적으로 체포됐다. 그 다음날 새벽에는 경찰이 김준영 사무처장을 머리를 15회 이상 경찰봉으로 무자비하게 집중 타격하고 피투성이를 만들어 체포했다. 경찰의 이런 폭력진압은 집회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대통령과 경찰청장이 주문했기 때문이다.

국제제조산업노조와 가맹노조들은 한국 정부와 경찰의 폭력 진압과 사내하청사 노동3권을 훼손하는 포스코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함을 강력히 결의한다.

7) [성명서] 최저임금위원회 김준영 노동자위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강제해촉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06.21.)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김만재 위원장을 즉각 위촉하라 -

오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촉을 제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김준영 사무처장이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를 했으며 노동자위원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쳤다.

노사법치라는 해괴하기 이를 데 없는 단어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가 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법치 수호자가 되어 왔다. 그런 고용노동부가 이제는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제해촉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은 폭력 진압의 피해자인 김준영 사무처장이 오히려 구속됨에 따라 사임이나 위임 등의 방법을 찾아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김준영 사무처장을 해촉하고, 새 노동자위원을 위촉하는 절차를 빠르게 밟자는 제안을 했다.

노동자위원의 공백을 막을 수 없기에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은 협의를 통해 김만재 위원장을 위촉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김만재 위원장의 위촉을 반대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김준영 사무처장을 일방적으로 해촉했다.

김준영 사무처장의 해촉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문까지 적시한 노동부가 김만재 위원장 위촉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만재 위원장이 현행법상 어떤 근거로 노동자위원에 위촉될 수 없는지 노동부는 설명해야 한다.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제해촉한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금속노련은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강제 해촉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부 스스로의 주장대로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김만재 위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위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8) [보도자료] 노동탄압 윤석열 퇴진! 폭력연행 윤희근 파면!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김준영 동지 석방! 윤석열정권 퇴진투쟁 선포 금속노련 기자회견(2023.07.1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적인 윤석열 정권 퇴진까지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금속노련은 7월 11일(화)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선언했다.

꽃은 날씨 속에 시작된 기자회견에는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박용락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와 금속일반노동조합에서 연대로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6월 27일 발족했고 금속노련이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의 릴레이 퇴진선포 기자회견을 겸하여 진행되었는데, 해당 위원회 공동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참석해 연대발언을 전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파탄나고 민생이 붕괴된 지난 1년이였다. 말로는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친족들만을 위한 자유인 것 같다. 이렇게 무참히 자유를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교에 관해서도) 미국을 위한 대통령인지 일본을 위한 대통령인지 국민들은 (지켜보며) 준엄하게 심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미래를 맡길 수 없기에 오늘 선포식을 통해 퇴진운동본부에 결합하고자 함을 밝힌다. 오늘 바로 이 장엄한 날에 한국노총의 중심 조직인 우리 금속노련이 나서고자 한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온 국민에게 보장되는 그 날까지, 김준영 사무처장이 석방되는 그날까지 금속노련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며 윤석열정권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준) 공동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요즘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킬러’, ‘카르텔’이다. 그런데 수능 문항보다 위협적인 킬러는 바로 ‘킬러정권’ 윤석열 정권이며, 사교육 카르텔보다 더 부패한 카르텔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 검찰, 경찰, 국정원, 자본까지 틀어쥐 ‘용산 카르텔’ 윤석열 정권이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정권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폭력’, ‘부패’ 낙인찍고 탄압한 ‘노조킬러’이며, 노동조합하는 것이 자부심이던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를 죽이고,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위해 고공농성하던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력연행하고 구속한 ‘노동자킬러’다. 쌀값폭락과 생산비폭등으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농민들을 외면한 ‘농민킬러’이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탄압하기 위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민주주의킬러’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금속노련의 퇴진투쟁 동참을 지지하며, 농민, 노동자들과 함께 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로서 앞서 싸워 나갈 것이며,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며 퇴진투쟁 의지를 고취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까지 노동자와 국민의 수많은 경고와 외침을 무시해온 윤석열 정권에 우리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닌 선전포고를 던진다. 금속노련은 이 시각 이후로 윤석열 정권

의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금속노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투쟁 그 끝에는 윤석열의 퇴진과 노동자, 민중의 승리만이 남을 것"이라고 선포했으며, "금속노련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여성, 자영업자 등 모든 이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역사적인 대열에 함께 할 것이다. 반민중·반민생·반민주·반평화의 다른 이름인 윤석열! 퇴진하라!"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재차 부르짖었다.

금속노련은 7월 15일(토) 오후 3시 20분경 청계남로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오후 4시부터 개최되는 '윤석열 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후 열릴 8.12 범국민대회까지 투쟁동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석열정권 퇴진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권 1년은 마치 10년과도 같았다. 허구한 날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노동3권을 부르짖다 피투성이가 되거나 뺨수갑이 채워 진행되는 공안정국이 점차 일상이 되고 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전세사기로 국민들이 목숨을 끊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는 일본 핵폐기수 해양투기에 앞장서고 굴종, 굴욕외교로 나라를 팔아먹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배제이다. 노동조합을 부패집단으로 몰고 가 회계장부를 들쭉시면서,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인 파업을 무력화하는 대체근로를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허용해주려 하고 있다.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르짖다 연행된 사람을 '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서 직권해촉 했다. 품위손상은 해외순방을 가서 아무나 비속어로 지칭하는 사람에게 더 적절한 말이 아닌가? 노동을 혐오하고 노동자들을 배제하며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하면서도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검찰왕국 대통령의 착각이다.

몸뚱이밖에는 가진 것 없는 노동자들이, 민중이 거대 자본과 권력에 맞서 싸울 방법은 광장에 모이는 것이다. 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수많은 판례에서도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집시법을 개정을 운운하고,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에 캡사이신을 준비하겠다고며 엽포를 놓았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화제는 불법집회로 간주해 강제해산 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입을 막으려 하는가!

지금까지 노동자와 국민의 수많은 경고와 외침을 무시해온 윤석열 정권에 우리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닌 선전포고를 던진다! 금속노련은 이 시각 이후로 윤석열 정권의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금속노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투쟁 그 끝에는 윤석열의 퇴진과 노동자, 민중의 승리만이 남을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곳곳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다. 더 이상 이 정권하에서 살 수 없다며, 각계각층의 인사들, 그리고 노동자와 민중들이 부르짖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3일부터 대대적인 총파업 실시하고 있다. 금속노련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여성, 자영업자 등 모든 이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역사적인 대열에 함께 할 것이다.

윤석열! 너는 노동자와 민중의 외침을 들어라!

반민중·반민생·반민주·반평화의 다른 이름인 윤석열! 퇴진하라!

9) [성명서]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촉구한다.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이 10월 17일 국회 환노위 국감을 앞두고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니아전자노동조합, 위니아딤채노동조합은 박영우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유그룹은 2014년 위니아만도, 2018년 동부대우전자를 각각 인수하며 가전제품 사업에 진출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을 시작하며 현재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확인된 것만 553억 원 이상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다. 생산 공장까지 합하면 체불임금은 8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박영우 회장은 비등기이사로 법적인 책임은 없이 그룹의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위니아, 대유에이텍, 대유플러스, 대유에이피 4개사에서만 2021년 65억, 2022년 77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현재 위니아와 위니아전자 등 계열사 3곳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제공자인 박영우 회장의 대책과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금속노련과 위니아전자노동조합, 위니아딤채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박영우 회장의 환노위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것이다.

하지만 국감을 코앞에 두고 박영우 회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영우 회장은 지금도 멀쩡히 출근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검도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있다. 이러한 박영우 회장의 국감 증인 불출석은 임금체불로 자녀들의 학원부터 끊으며 추석에도 귀향하지 못 하고 이제는 쌀을 살 돈도 없어 끼니를 걱정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기만이자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박영우 회장은 2012년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으로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전례가 있다. 이후 박영우 회장은 2017년 10월 자본시장법(대유신소재 주식 손실회피)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았다. 최근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한다.

박영우 회장은 지금 당장 증인 불출석 의사를 철회하고 환노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 본인을 둘러싼 잘못을 속죄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임금체불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금속노련과 위니아전자노동조합, 위니아딤채노동조합은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의혹에 대한 박영우 회장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10) [성명서]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은 체불임금 지급확약 반드시 이행하라(2023.10.27.)

10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박영우 회장이 26일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제공자인 박영우 회장의 대책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노조의 끊임없는 요구에 결국 출석한 것이다. 하지만 임금체불 규모를 묻는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의 질문에 박영우 회장은 "300억 원대"라고 답변했다.

아니다. 틀렸다.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확인된 체불임금만 600억이 넘는다. 그룹의 최고책임자인 회장이 정확한 임금체불액도 모르고 있는 상황을 보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길게는 1년 가까이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이어가는 조합원들에 대한 조롱이자 모욕이다.

박영우 회장은 몽베르CC, 경기도 성남의 R&D 사옥, 멕시코 생산공장 매각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몽베르CC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매각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다. 매각대금을 체불임금 변제에 최우선으로 쓸 것이냐는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그럴 것이라고 확약했다. 또한 박정 환노위 위원장에게 체불임금 해결과정을 보고하라는 것에도 동의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마치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유위니아그룹은 박영우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언 중이던 때 위니아에이드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국회에 출석한 날 다섯 번째 계열사를 부도낸 것이다. 이미 체불임금 지급합의에 대한 반복적인 미이행, 고의 부도 의혹, 내부 부당거래 의혹 등으로 대유위니아그룹은 신뢰를 잃었다. 그렇기에 체불임금 확약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감장에서 박영우 회장이 증인으로서 밝힌 체불임금 확약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감에서 위증시에 받는 처벌은 형법상 위증죄보다도 형량이 무겁다. 국감 선서 증인이 허위 진술하는 경우 「국회에서 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형벌을 떠나 임금체불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조합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이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앞으로도 금속노련은 대유위니아그룹의 모든 체불임금 지급이 완료되는 순간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다.

11) [보도자료]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4개 노동조합, 박영우 회장에 간담회 요청(2023.11.3.)

- 몽베르CC 매각대금, 약속대로 체불임금 변제에 최우선 사용돼야 -

지난 10월 26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영우 회장은 몽베르CC, 경기도 성남 R&D 사옥, 멕시코 생산공장 매각을 통해 체불임금을 최우선 변제하겠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박영우 회장은 체불임금 해결과정을 박정 환노위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에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공시에 따르면 대유위니아그룹이 엠파크와 3,000억원에 몽베르CC를 매각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엠파크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6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몽베르CC 매각이 마무리 되더라도 회원권을 비롯한 부채를 정리하고 남는 금액은 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몽베르CC 매각 대금을 대유에이텍 전환사채 상환, 계열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운영비용 등에도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 이후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니아전자노동조합, 위니아딥채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니아딥채지회,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지회 등 4개 노조는 박영우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회사의 회신은 없습니다.

박영우 회장은 면담일정을 신속하게 회신해야 합니다. 노조와 만나 임금 지급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고통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만약 면담을 계속 거부할 경우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박영우 회장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더 큰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12) [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2023.12.01.)

노란봉투법으로 불렸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안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이라 기대했다.

우리는 그동안 똑똑히 보아 왔다.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는 노동자의 가정을 박살내고 심지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진짜 사장은 하청사의 뒤에 숨어 하청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노조법이 사용자 정의나 합법 파업을 협소하게 정의하며 오히려 기업에 날개를 달아줬던 노조법의 입법적 흠결을 최소한으로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국가의 행정 권력이 오로지 기업만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노동자를 향한 폭압의 수단이 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두 배 넘게 많았음에도 행정 독재 앞에 국민의 뜻과 입법권은 무력화됐다.

지난 11월 13일 대통령실은 한국노총이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이자 노동계의 대표주자라며 사회적 대

화 복귀를 요청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24일에는 한국노총, 경사노위, 경총이 모인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도 열렸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11월 17일에 열린 한국노총 제10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한국노총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고 거부권 행사 시에는 중대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노총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계 대표 83명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정 노조법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이제 한국노총이 중대 결심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야당은 힘을 모아 노란봉투법을 재의결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노란봉투법을 공포해야 한다. 금속노련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란봉투법이 공포되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13) [보도자료] LG그룹 산하노조 35년 만에 조합원 상경 투쟁(2024.02.02.)

- LG이노텍노조, 사측에 노조탄압 중단과 투서사건 공개 사과 요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산하 LG이노텍노조(이하 노조)가 회사의 ‘투서 자작극’ 등 부당노동행위에 거세게 항의하며 본사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노조는 2월 2일(금) 오전 11시 30분 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LG이노텍 본사 앞에서 ‘노경팀 투서 공작사건 규탄! 경영성과급 지급! 진급제도 개선! LG이노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대회에는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안정된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많은 것을 양보했으나, 회사는 필요할 때만 노경을 얘기하고 늘 지배하려 하고 악질적인 노사관계를 자행하고 있다. 지금 싸움은 시작에 불과하다. 구광모 회장과 문혁수 사장에게 경고한다. 이 사태의 책임자 처벌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사과하라. 재발 방지책도 함께 만들고 노조에 대한 탄압도 이시간부로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금속노련 17만 동지들이 연대하여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노조 이종일 위원장은 “지난 9월 익명의 투서 한 장이 도착한다. 투서는 구미공장 노경팀장이 지시해 계약직을 가장한 노경팀원이 벌인 투서 공작이었다. 12월 경찰 조사로 명백한 범죄행위가 밝혀졌음에도 사측은 사과와 반성은 뒤로 한 채 익명의 제보라며 뻔뻔함을 보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투서 공작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진급 전형에 논란을 만들어 사건을 덮으려 했다. 23년도 비상경영체제에서 전 임직원이 한 마음 되어 8,3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미한 성과급을 지급하려 한다. 구성원들에게 줄 돈은 없다더니 투서를 공작한 노경팀을 살리려고 건당 수입료가 1억에 육박하는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섭외했다. 이런 사측의 태도에 분노가 치민다. 사측에 강력히 전달한

다.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나와 협상테이블에 앉으라! 오늘 우리의 목소리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다음 은 LG트윈타워 구광모 회장 앞으로 갈 것이다”라고 경고하며 다음 투쟁을 예고했다.

현재 노조는 핵심 요구는 ▲노경팀 투서 공작사건 등 회사의 노조와해 및 무력화 시도에 대해 관련자와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최고경영자(CEO)가 조합원 앞에 정중하게 사과할 것 ▲조합원들의 중요한 근로조건인 진급제도의 일방적 수행을 멈추고 노사합의로 시행할 것 ▲경영성과급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비상경영에 헌신해온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 등이다.

지난해 9월 노조 간부의 근태불량을 지적하며 회사와 노조에 배달된 투서가 경찰조사에서 노경팀의 자작임이 드러난 뒤 노조는 12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회사는 이전에도 노조 선거에 개입하고 현 집행부의 당선을 막기 위해 노골적으로 횡방을 놓고, 사사건건 감시하는 등 노조 길들이기를 시도했다. 투서 사건 또한 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시도로 보이며, 회사는 지금까지 투서를 보낸 노경팀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회사의 행태는 진급제도에서도 이어졌다. 노조가 자신들의 뜻대로 길들지 않자 진급시험 및 절차에 대한 노사협의를 일방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시험일정을 강행했다. 지금까지 진급시험은 노사가 협의해 진행해온 사항으로 노조가 투서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그때까지 1년 여 진행되던 협의를 갑자기 중단했다.

LG이노텍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20조 6,053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매출과 8,30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는 3년 전 경영성과급 산정방식을 일방적으로 설계했으며, 노조는 이를 현시점에서 전면 재설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4) [성명서] 박영우 회장은 체불임금 즉각 지급하라. 검찰은 박영우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2024.02.06.)

대유위니아그룹 가전3사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액이 작년 10월 7백억 원을 넘겼다. 그 금액은 더 커져서 이제는 8백억 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박영우 회장은 여전히 체불임금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길게는 1년 반 동안 수입 없이 생활하고 있다. 임금체불로 4대보험마저 체납되어 병원에도 못 가고 금융권 대출도 불가능한 극한의 시간에서 가정은 파탄 나고 있다.

광주지역 450여개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1천억 원이 넘는 납품 대금의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박영우 회장의 임금체불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기에 그 고통은 더욱 크다.

지난 12월 6일 대유위니아그룹이 국회에 제출한 체불임금 변제계획서에 따르면 몽베르CC 매각을 통해 현금 1천 2백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체불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자산 추가 매각과 M&A가 필요하

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박영우 회장의 국감 증언은 거짓이었기에 국회는 1월 4일 검찰에 박영우 회장을 위증으로 고발했다.

박영우 회장 본인은 몽베르CC 매각을 통해서 300여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박영우 회장은 1월 17일 노조와의 면담 자리에서 구속 상태인 위니아전자 박현철 대표가 석방되도록 노조가 협조해 줄 경우 50억 정도의 체불임금 변제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한 번 체불임금을 변제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박영우 회장은 지금이라도 석고대죄의 자세로 몽베르CC 매각 대금에서 체불임금을 설날 이전에 즉각 변제해야 한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위증을 하고 현재도 체불임금 변제 의지가 없는 박영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룹의 실소유주이자 의사결정권자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지만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법의 처벌을 피하고 있는 박영우 회장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설날을 앞두고 더욱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대우위니아그룹 노동자들의 모든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까지 금속노련은 17만 조합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다.

15) [보도자료] 이재용 회장님! 노동조합과도 떡볶이 먹으면서 대화합시다!(2024.02.06.)

- 삼성연대 2024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삼성그룹 노동조합들이 2024년 9개 공동요구를 제시했다. 2021년 결성 이후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삼성연대)는 매년 공동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년 공동요구안에는 ▲이재용 회장과 직접 교섭 상견례 ▲교섭 시 대표이사 참석 등 노사관계 개선 2대 요구안과 ▲2024년도 공통인상률(Base-up) 5.4%, 성과인상률 각 사별 인상(가이드라인) ▲고령자 연령차별 해소와 고령사회 시대적 요구 부응 ▲일과 삶의 균형 보장 ▲정당한 임금 체계로 전환과 임금제도 개선 노사 공동 TF 구성 제안 ▲공정한 평가제도 도입 및 하위 고과자 임금삭감 폐지 ▲모회사-자회사 동일처우와 차별철폐 ▲임금·인사·평가제도·자회사 차별개선 노사 공동 TF구성 제안 등 근로조건 개선 7대 요구안이 담겼다. 공동요구안은 삼성연대 오상훈 의장(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이 맡았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대표발언에서 "무노조 사슬을 끊고 한국노총 금속노련에서 삼성연대 조직을 발족하고 끊임없는 공동요구안을 마련하며 (공동)교섭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은 노사협의회를 앞세워 노조를 무력화했다. 아직도 삼성그룹은 노동조합의 대화를 외면한 채 노사협의회를 앞세운 노사관계 왜곡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용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그룹의 경영상태가 넉넉치 않음에도 해외순방을 따라다니며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왔다. 대통령과 함께 떡볶이를 먹을 시간이 있었더라

면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으라 생각한다. 권력의 하수인이 된 이재용 회장은 지금이라도 노동조합과 대화창구를 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삼성그룹이) 전향적으로 삼성연대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촉구한다. 이 요구들이 관철될 때까지 한국노총 금속노련 17만 동지들과 함께 연대하고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11개 삼성그룹 노동조합들은 "삼성그룹은 매년 공동요구안과 공동교섭을 거부했다. 심지어 단사별 교섭에서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앞세워 정한 임금·노동조건에 구속시켰다.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평가제도를 운영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노숙도 사측도 변해야 할 시기다. 급속도로 빠르게 변하는 세계경제 속에 노사화합을 통한 성장과 발전은 우리의 직장이고 국민기업인 삼성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변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삼성연대는 ▲이재용 회장의 직접 소통과 노사협력 견인 ▲삼성연대 9대 공동요구안 수용 ▲임금·인사·평가제도·자회사 차별개선 노사 공동 TF구성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2023년 10대 공동요구안!

이재용 회장과 직접 교섭을 요구한다!

지난 2년간 변한 게 없는 삼성!

2021년 2월 8일!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금속삼성연대')가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으로 뭉쳐 최초로 공동교섭을 요구한 날이다. 금속삼성연대는 작년 2022년 2월 8일에도 공동요구안을 발표했으며 오늘로 2년이 지났다.

삼성그룹은 매년 공동요구안과 공동교섭을 거부했다. 심지어 단사단위노조별 교섭에서 개별사는 노사협의회를 앞세우기도 했고 자기들끼리 정한 임금노동조건을 강요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노사 상생을 위한 진심 어린 설득도, 의미 있는 투쟁도 해봤다. 강도는 달랐지만 노동조합이라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했다.

결론은 '삼성은 아직 변하지 않았고 우리는 더 크게 단결하고 더 강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백년 노동조합 역사의 진리는 역시 변하지 않았다.

이재용 회장이 나와야 한다! 직접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금속삼성연대의 2023년 10대 공동요구안은 삼성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진정한 노사상생의 길을 마련하는 초석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자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수장인 이재용 회장이다. 우리는 개별교섭에서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수없이 들어왔다. 그렇다면 책임 있고 권한 있는 이재용 회

장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이다.

‘무조노경영폐기’가 대국민 1차 약속이라면 이제 ‘공동교섭성사’라는 대국민 2차 약속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렇게 할 때 만이 국민들도 이재용 회장의 ‘무노조경영폐기’ 약속을 믿을 것이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될 때까지 공동요구안 걸고 공동교섭으로 간다! 나와라 삼성그룹!

금속삼성연대는 공동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공동교섭을 요구하며 이재용 회장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다. 삼성그룹이 노사 평화와 상생을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화답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재용 회장과의 직접적인 단독 교섭뿐만 아니라, 공동교섭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삼성그룹이 우리의 요구에 또다시 무시한다면 그것은 투쟁을 부르는 지름길이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요구에 전격적으로 화답한다면 그것은 노조존중과 노사상생의 모범으로서 두고두고 칭찬을 받으며 삼성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것이다. 모든 것은 이재용 회장의 결단에 달려있다! 나와라 삼성그룹!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나, 이재용 회장은 삼성연대와의 공동교섭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삼성연대는 2023년 10대 공동요구안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삼성노동자 총 단결로 공동요구안공동교섭 반드시 쟁취하자!

16) [성명서] 박영우 회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라!(2024.02.21.)

대우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이 2월 19일 밤 구속됐다. 그룹의 실소유자이자 의사결정권자로서 활동했던 박영우 회장은 그 동안 미등기임원이라는 핑계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작년 9월까지 6백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그룹사 임금체불 총액은 800억원 대로 추산된다.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박영우 회장의 구속은 당연한 수순이다. 박영우 회장은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국감장에서의 약속을 뒤집고 골프장 매각 대금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먼저 챙겼다.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듯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박영우 회장의 법적 책임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박영우 회장이다. 박영우 회장의 계열사 밀어주기, 회사쪼개기, 무리한 해외공장으로의 제품 및 설비 이전, 대우브랜드 포기 등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위니아, 위니아전자, 위니아매뉴팩처링은 연쇄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고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졌다.

위니아그룹사 노동자들은 길게는 1년 반 동안 수입 없이 생활하고 있다. 임금체불로 4대보험마저 체납되어 병원에도 못 가고 금융권 대출도 불가능한 극한의 시간에서 가정은 파탄 나고 있다. 광주지역 450

여개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1천억 원이 넘는 납품 대금의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박영우 회장은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몽베르CC 매각 이익을 포함한 사재 출연을 통해 체불임금을 즉각 변제해야 한다. 이것만이 박영우 회장의 무능과 비도덕적인 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이자 원상회복이다. 임금체불 문제가 선결돼야 위니아 매각도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야 위니아를 비롯 위니아전자, 위니아매뉴팩처링 노동자들의 고용도 보장할 수 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금속노련은 대우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들의 고용을 비롯한 노동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17만 조합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 언론사 광고

1) 매일노동뉴스 후원광고(창립31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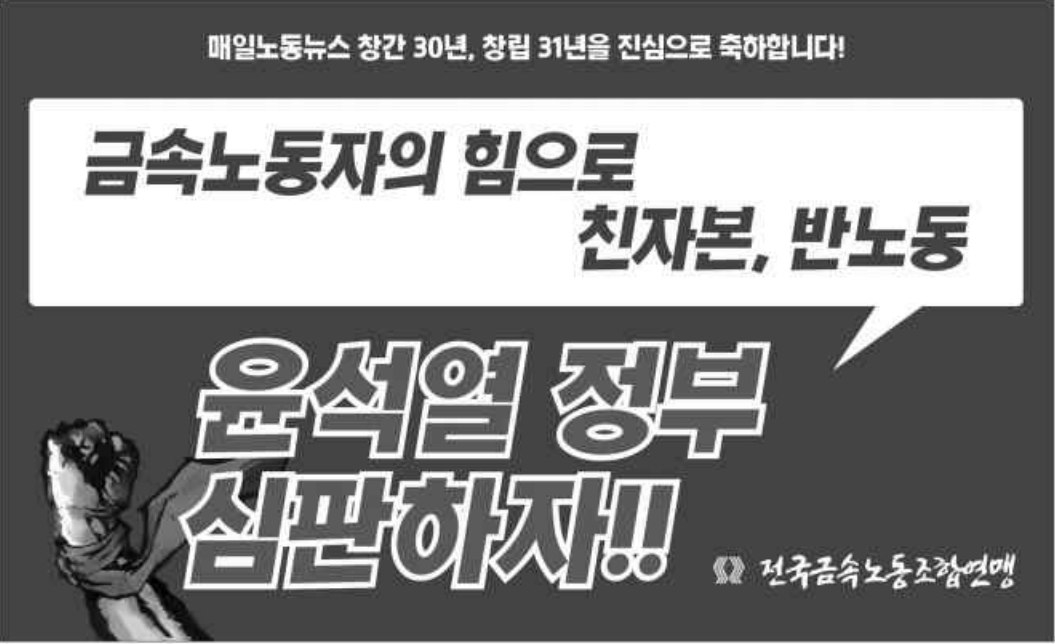
반면(200-122)

매일노동뉴스 창간 30년, 창립 31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금속노동자의 힘으로
친자본, 반노동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 금속노련 여성위원회
가. 여성위원회 총회 및 교육
2. 금속노련 여성대표성 강화
가. 금속노련 임원 및 중앙위원 선출
나. 한국노총 중앙위원 명단
3.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및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가.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나. 제11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4. 한국노총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고충처리
실무역량강화 교육
5. 한국노총 여성간부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6. 대외활동 및 기타활동
7. 청년활동
8. 문화활동

평가 및 개선방향

2~3년여 간의 노동조합 간부의 교체와 현장의 조합원들의 구성도 많이 바뀌었다.
여성활동에도 큰 고민과 변화의 시기임에 틀림없다.

2012년 금속노련은 여성할당제 시행에 따라 각종 회의기구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각종 결의기구나 회의체에서 여성의 목소리나 참여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여성대표자는 조금씩 늘어가는 것은 고무적이나 현장의 여성간부나 여성조합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여성위원회 총회를 재조직하여 총회를 개최하며 여성조직 활성화와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여성간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위한 활동에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속노련은 한국노총의 여성활동에 적극 연대하여 여성위원회 총회,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여성간부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여성담당자 워크숍과 회의 등에 적극 참여했다.

2023년도 사업에 한국노총에서는 청년위원회를 위한 준비활동을 진행해 우리노련에도 청년 사업에 참여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아직은 자체 사업 없지만 앞으로 젊은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체 활동 및 연대사업을 준비 해야 할 것이다.

2023년 문화활동은 지난해 경연대회를 개최한 후 다소 소강상태이나 노동문화교육을 집행하였고 문화패의 연대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과 유지를 도모했다.

우리노련 사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패들의 열정과 참여로 한국노총 산하 문화패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산별로 알려진 것은 그동안의 문화패 활동이 조금의 성과일 것이다. 노동조합의 역량강화와 조직강화를 위한 문화패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현장은 문화패 유지에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도 금속노련은 금속노동자의 문화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조직강화와 연대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문화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1. 금속노련 여성위원회

가. 여성위원회 총회 및 교육

1) 개요

(1) 목적

- 여성위원회 정기회의와 간부의 활동 역량강화하고 여성활동을 활성화함.
- 금속노련 단위노조 여성간부 및 여성담당자의 소통과 연대를 고취함.

(2) 일시 : 2023년 9월 4일(월) ~ 5일(화) (1박 2일)

(3) 장소 : KT대전인재개발원

(4) 참석자 : 여성위원회 위원 및 여성간부 39명

(5) 주요내용

○ 1일차 : 여성위원회 총회

- 여성위원회 총회인 만큼 여성위원회 역할과 여성 핵심간부로의 자세를 강조함.
- 여성할당 15%에 대해 지역본부에서 배정 인원만큼 안 되고 있음. 방안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의견
- 규약개정 사항으로 여성간부에 대한 조직화가 필요한 사항임. 여성간부 현황을 조사하여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는 것으로 정리함.
- 복수노조인 사업장인 삼성생명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개진
- 1노조가 아닌 경우 어려움이 있지만 1인 1조합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고 노력해야 함. 진심으로 하다 보면 조합원들의 맘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방안 제시
- 정영숙 지도위원의 지난 활동에 대한 실무경험과 선배로서의 여성활동과 조직활동에 대한 강의와 조언으로 간부들의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됨.
- 여성위원장 최해경 : 임기 1년이 남아 있고 여성위원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만 건강하고 활동적인 간부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활동이 기대됨.
-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 이기화 부위원장 임명

○ 2일차 : 노동인권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오수경 공인노무사)

-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 4년이 된 시점에 현장의 관심도가 높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간부의 역

량강화에 도움이 되었고 더불어 노동인권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종합평가

- 여성위원회 총회와 교육을 함께 함으로 참석한 간부들의 호응도가 높음.
- 여성위원회 총회로 회의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진솔한 내용과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 함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
- 예년보다 조직이 변경되어 처음 참석하는 동지들이 많았던 관계로 경험을 갖고 있는 동지들과 대화의 폭이 넓고 네트워크에 도움이 되었음.
- 참석한 여성위원들은 회의 시간을 좀 더 늘려주었으면 하는 의견도 개진
- 이후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

2. 금속노련 여성대표성 강화

가. 금속노련 임원 및 중앙위원 선출

1) 선출기구 및 일정

- 기구 :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 일정 : 2023년 5월 16일(화)
- 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2) 여성의 참여 확대

구분	노총파견		금속노련			
	대의원	중앙위원 (예비포함)	대의원	부위원장	회계감사	중앙위원
인원(명)	21	4	160	6	1	6
비율(%)	17.7	12.5	18.5	15.0	20.0	15.4

3) 금속노련 임원(부위원장/회계감사)과 중앙위원 현황

번호	이름	소속사업장	직책	비고
1	최해경	한국중천	위원장	부위원장
2	정란홍	두울아산	위원장	"
3	이정희	삼성공조	위원장	"
4	이기화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
5	최보라	SK하이닉사이천	홍보실장	"
6	오지수	LG디스플레이	여성부장	"
7	조소희	LG디스플레이	여성부장	회계감사
8	류다빈	LG전자	대의원	중앙위원
9	한예지	ASE코리아	부위원장	"
10	강미희	명일	위원장	"
11	김정희	대동모벨시스템	위원장	"
12	우하나	현대모비스	부위원장	"
13	김귀녀	한국보그워너T/S	사무국장	"

나. 한국노총 중앙위원 명단

○ 기구 :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 일정 : 2024년 2월 28(수)

○ 장소 : 마사회 렛츠런파크 럭키빌 6층 컨벤션홀

번호	이름	소속사업장	직책	비고
1	정란홍	두울아산	위원장	
2	최해경	한국중천	위원장	
3	오지수	LG디스플레이	여성부장	
4	이기화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예비

3.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및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가.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1) 목적

-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규정 제9조(회의)에 따라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여성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 및 실천과제를 논의함.
- 각급 조직 여성위원회 활동 역량 강화를 통한 여성위원회의 위상 제고 및 조직간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2) 개요

- 개최일시 : 2023년 11월 29일 14:00
- 개최장소 : 한국노총 5층 여율리
- 참석인원 : 200여 명(금속노련 50명)

(3)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 현황

번호	성명	단위노조명	직책	비고
1	최해경	한국중천	위원장	여성임원 (7)
2	정란홍	두올아산	위원장	
3	이정희	삼성공조	위원장	
4	이기화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5	최보라	SK하이닉스이천	홍보실장	
6	오지수	LG디스플레이	여성부장	
7	조소희	LG디스플레이	여성부장	
8	박선자	금속노련	총무실장	여성사업 담당간부(2)
9	이효원	금속노련	홍보차장	
10	이미정	삼성생명	위원장	여성대표자, 여성간부 중 2명 이내 추천 (2)
11	강미희	명 일	위원장	
12	김정희	대동모벨시스템	위원장	여성조합원 5천 명 이상 회원조합의 경우, 5천 명 당 1명 추가
13	한예지	ASE코리아	부위원장	
14	우하나	현대모비스	부위원장	
15	심애경	덴소코리아화성	부위원장	
16	김난영	SK하이이엔지기술사무	사무국장	

나. 제11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1) 목적

- 116주년 세계여성이 날을 맞아 여성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현실을 알려내고 정부와 국회에 여성노동의 당면과제 해결을 촉구함.
- 조직된 여성노동자의 연대와 결속을 통한 세력화와 일하는 모든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 평등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행동과 힘을 결집하는 자리임.

(2) 개요

- 일시 : 2024년 3월 8일(금) 14:00
- 장소 : 청계천 한빛광장
- 참석규모 : 600여 명
- 내용 : 평등상 및 여성노동자상 시상
 - 여성노동자상 : SK실트론노조 김상휘 문화국장
LG디스플레이노조 이태경 상무집행위원

(3) 슬로건 : 변화, 행복한 미래로의 여(女)정(正)

(4) 우리의 요구

- 성평등 노동시장 실현과 여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
 - 여성대표성 확대로 성별 균형 달성!
 - 임금, 채용, 승진 차별없는 공정 노동시장 실현!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평등사회 구축!
 - 폭력과 괴롭힘이 사라진 안전한 일터 확보!

(5) 역대 슬로건

* 부녀 및 연소노동자 보호 강조기간 (5월 중) : 1968(제1회) ~ 197

1975년 3월 18일 근로여성대회 - 세계여성의 해

1986년 5월 21일 평등하고 인간다운 생활보장

1987년 5월 28일 여성노동의 평등과 균등발전을 위한 활동과제

1988년 5월 30일 노동조합 여성활동 과제와 방향

- 1989년 5월 30일 여성노동자의 어제 오늘과 내일의 전망 - 제24회 여성노동의 평등 및 인권보장 강조기간
- 1989. 3. 6 세계여성의 날 성명서 발표<3.8 세계여성의 날에 여성차별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 1990년 5월 30일 여성노동의 평등·발전과 모성평화 - 제25회 강조기간
- 1990. 3. 8 세계여성의 날 성명서발표 <여성노동의 평등·발전과 모성보호정책을 촉구한다>
- 1991년 5월 29일 여성노동의 고용안정과 모성평화 - 제26회 강조기간
- 1992년 5월 21일 여성노동의 동일가치·동일노동·동일임금 확보 - 제27회 강조기간
- 1993년 5월 26일 여성노동의 고용안정과 탁아시설 확충실현 - 제28회 강조기간
- 1994년 5월 26일 여성노동의 고용평등·고용안정·모성복지 실현 - 제29회 강조기간
- 1995년 10월 31일 여성노동의 고용안정·균등발전·모성복지 실현 - 제30회 강조기간 (10월로 변경)
- 1996년 10월 11일 고용안정·고용평등·모성보호 - 제31회 강조기간
- One+One 여성의 힘
- 1997년 10월 11일 모성보호·고용안정·조직확대 - 제32회 강조기간
- One+One 여성의 힘
- 1998년 10월 27일 고용안정, 조직확대, 고용평등
- 1998. 3. 8 세계여성의 날 90주년 기념대회 “고용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향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양대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공동주최)
- 1998. 2. 23 ~ 3. 8 3.8기념 사이버(CYBER) 토론회 (주제: 해고, 실업문제/비정규직 문제)
- 1999년 10월 27일 [주제누락]
- 1999. 3. 6 세계여성의 날 91주년 기념대회 “[주제누락]”(양대노총, 여성노동단체 공동주최)
- 2000년 3월 8일 조직확대와 평등실현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 2000. 10. 24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주제누락]”
- 2001년 3월 8일 [주제누락]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 2001. 2. 6 ~ 3. 8 3.8 여성의 날 기념 사이버 토론회 (주제: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 여성취업 및 사회참여의 걸림돌은?)
- 2002년 3월 8일 [주제누락]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 2003년 3월 7일 평등의 시작, 여성할당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 2004년 3월 8일 일하는 여성! 정치의 주인으로!
- 2005년 3월 8일 다함께 여는 평등의 새날!
- 2006년 3월 8일 여성노동자, 절반의 역사! 미완의 역사!

- 2007년 3월 8일 일상의 정치, 평등의 정치
- 2008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100주년 / 여성,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
- 2009년 3월 5일 여(女)노(勞)여(女)락(樂)
- 2010년 3월 8일 여성노동자여, 지역정치와 통(通)하라
- 2011년 3월 8일 강한 노조에 여성이 있다
- 2012년 3월 8일 일어나자! 참여하자! 여성이여!
- 2013년 3월 8일 양쪽 날개로 나는 평등세상
- 2014년 3월 8일 함께 키우는 평등세상
- 2015년 3월 8일 기억하라! 여성노동자, 힘내라! 여성노동자
- 2016년 3월 8일 여성노동자여 일어나라! 이제는 투쟁이다!
- 2017년 3월 8일 100만 조합원 총투표로 정권교체! 적폐청산! 친노동자 정권 수립!
- 2018년 3월 8일 여성이 희망이다 노동이 미래다
- 2019년 3월 8일 성평등 노동존중의 약속
- 2020년 3월 8일 성평등, 조직화의 시작
- 2021년 3월 8일 평등을 위한 노조! 함께하는 여성!
- 2022년 3월 7일 일상 속 평등, 행복한 공존
- 2023년 3월 8일 도약하라!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 2024년 3월 8일 변화, 행복한 미래로의 여(女)정(正)

(6) 결의문

결의문

1만 5천여 명 여성노동자들의 함성이 116년이 흐른 오늘, 청계천에 모인 후배 여성노동자들의 귓가에 여전히 생생하게 전해져 온다. 작은 물결과 같았던 그날의 용기 있는 여성들의 결단이 큰 파도가 되어 인간으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 오늘날 여성의 삶을 나아가게 만들었다.

그러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완전히 종식되지 못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활동도 활발해졌지만 여성의 노동가치는 저평가되어 아직도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낮은 노동조건, 불안정한 고용에 신음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일터에 도사리는 각종 차별과 편견으로 하여금 여성들은 견고한 유리천장 아래에 갇혀 있다. 결혼과 출산을 선택

하는 순간 밀려오는 돌봄의 부담은 여성을 일터로부터 밀어낸다.

2024년 우리는 불안한 경제와 민생,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빈곤 등 다면적 문제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변화의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그 여정의 종착지는 여성들이 노동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사회, 성별을 이유로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거나 과소 대표되지 않는 사회, 가사와 돌봄의 부담이 오롯이 여성에게만 지워지지 않는 사회! 바로 성평등 사회여야 한다.

제11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 모인 우리는 '성평등 사회'로의 성공적인 여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성원으로서 사회 전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여성노동자 조직화, 역량 강화에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채용, 임금, 승진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불식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시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의 힘을 동원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여성에게 과도하게 주어지는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장시간 노동 근절 등 일·가정 양립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돌봄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강화에도 적극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일터에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괴롭힘을 뿌리 뽑음으로써 여성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24년 3월 8일

제11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4. 한국노총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고충 처리 실무역량 강화 교육

1) 목적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법적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고충 사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함.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이후 나타나는 법령상의 미흡함과 보완점을 고민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여 실천적 과제를 도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진행함.

2) 교육개요

-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09:30 ~ 17:40
- 장소 : 한국노총 5층 여율리

3)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법적 개념 및 판단기준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사례를 통한 쟁점 분석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 분석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신고 이후 절차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법 문제점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법 관련 악용사례 및 대처방법

4) 프로그램

시간	강의자	프로그램 내용
9:30~11:30	공인노무사 오진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톺아보기(관련 행위 법률 규정,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해결방법, 주요 판단 요소)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신고 작성법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비교 -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사례 - 최신 판례 소개 - 현장/일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법 알아보기
11:30~13:00	점심 식사	
13:00~15:30	공인노무사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실무>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절차 및 주요 판단요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결방법, 판례로 보는 괴롭힘 관련 요건 개념 상세 설명) -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문제점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허위신고, 보복 신고 증가, 사용자의 조사·의무조치 불이행, 2차 가해, 가해자 처벌 규정 부재 등등) -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법 (취업규칙 표준안 설명, 내담자 상담법)
15:30~17:40	연구위원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 이후 현황과 보완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완점 등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4년 이후 현황 및 시사점 (4년간 신고율, 규모별 신고 건수, 산업별 특징, 신고 추이 등)

5. 한국노총 여성 간부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1) 목적

- 한국노총 여성 간부를 대상으로 한국노총의 기조인 ‘연대’에 대해 듣는 자리를 통해 조직 내 간부로서 역량과 자질을 높이고, 조직 내 여성 활동 강화 및 조직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아울러 타인의 심리 파악을 기반으로 한 소통기술 향상을 통해 구성원들과 상호존중 자세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리더십 함양에도 도움을 주고자 함.
- 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터와 삶터에 성차별 해소방안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년12월 18일(월) ~ 12월 19일(화)
-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회의실

3) 교육내용

- 연대의 중요성 (광양 ‘포운’ 문제를 중심으로)
 - 포스코 하청노동자 임금교섭 투쟁 참여 이유
 - 연대를 바탕으로 한 노동자 의식의 중요성
- 리더십 리빌딩 : 성공하는 리더의 조건
 - 일터 내 세대 차이 극복을 위한 소통 및 인식 전환의 필요성
 - 개인의 약점과 강점 파악을 통한 본인 정체성 확립
- 일터와 삶터에서의 성평등 실천 및 성차별 해소 방법
 - 성평등과 백래시 정의 알아보기
 -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인의 ‘페미니즘’ 정의 찾기

4) 프로그램

시간 \ 일자	1일차(12/18)	2일차(12/19)
09:00~09:30	등록	조식
09:30~10:00	개강식 (교육안내 및 사진촬영)	조회 및 교육 준비
[1부] 강의 (10:00~11:30)	① 연대의 중요성 - 광양 '포운' 문제를 중심으로 :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③ 일터와 삶터에서 성평등 실천 및 성차별 해소 방법 : 권수현 평등공작소 나우 대표(젠더와 문화 연구자)
12:00~13:30	중식	종강식 및 중식
[2부] 강의 13:30~16:30	② 리더십 리빌딩: 성공하는 리더의 조건 : 김도환 심리학 박사	
16:40~17:30	[참가자 자기소개 시간] 심리테스트로 서로를 알아가기	
17:30~18:30	방배정 후 휴식	
18:30~	석식 및 단결의 밤	

6. 대외활동 및 기타활동

1) 2023년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

(1) 목적

-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규정 제10조의2[운영위원회]에 의거 회의를 개최
- 위원회의 각종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년 11월 13일(월) 14:30
- 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3) 안건

- 2023년도 한국노총 여성간부 현황 및 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공유
- 2023년도 여성위원회 총회 개최의 건
- 공로패 수여의 건

2) 여성담당자 회의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년 6월 15일(목) 14:00
- 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2) 안건

- 한국노총 남녀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 2023 한국노총 여성노동포럼 개최
- 한국노총 청년사업 활동 경과 및 청년 사업계획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고충처리 실무역량 강화 교육 기획안
- 한국노총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여성사업담당자 현황 및 효율적 소통방안

3) 여성담당자 회의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 11. 1(수) 14:00
- 장소 : 한국노총 12층 교사노조연맹 대회의실

(2) 안건

- 2023년 한국노총 여성간부 현황 및 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공유
- 2023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개최(안)

4) 여성담당자 회의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 02. 16(금) 10:00
- 장소 : 한국노총 6층대회의실

(2) 안건

- 2024년 사업계획(안)에 관한 건
- 116주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에 관한 건

5) 윤석열 정부 1년, 차별과 퇴행의 시대!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공동 토론회

(1) 주최

- 여성노동연대(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2)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12일(금) 14:00,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3) 프로그램

- 사회: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제: 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과제 |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토론(5인)
 - 토론1: 돌봄사회로의 전환 | 강연화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지부장
 - 토론2: 여성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 김용남 전국여성노조 정책국장
 - 토론3: 주69시간 노동과 여성노동자 |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
 - 토론4: 노조 및 노동협오와 젠더 | 김미정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부지부장
 - 토론5: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제언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6) '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하는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 7월 12일, 국민의 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실업급여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이날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가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한” “그런 남자 분들”이 (고용보험 수혜자로) 적합하다는 성차별적 발언과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은 쉬겠다고 온다”라는 막말을 함.

- 여성과 청년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확산하고 실업급여라는 사회안전망을 뒤흔드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하고, 노동개악의 최전선을 지키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함.

(2) 주최

- 여성노동연대(한국노총 외 5개 단체)

(3) 일시 및 장소

- 2023년 7월 14일(금) 11:00, 국회 정문 앞

(4) 프로그램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연대발언(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김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남태우 한국노총 제주도 지역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7. 청년활동

1) 69시간 노동시간 개악 저지를 위한 양대노총 공동활동

(1) 취지 및 목적

- 양대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노동시간 개악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전개했음. 정부는 노동시간 과로를 유발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강행하며 청년 세대를 앞세워 노동시간 개편의 필요성을 주창함. 이에 양대노총 청년노동자들이 함께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하며 노동시간 개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

(2) 일시, 장소 및 주최

- ① 청년노동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공개토론회 제안 양대노총 기자회견
 - 2023년 3월 30일(목) 11:40,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
- ② 이정식 장관 없는 이정식 장관·청년노동자 공개토론회
 - 2023년 4월 06일(목) 19:00,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

(3) 개요

- 지난 3월 3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정식 장관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최함.
- 양대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제도를 규탄하고, 정부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각종 노동개악 정책을 '노동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일부 청년노동자와 선별적, 편향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작태를 비판함.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청년노동자들은 근로시간 40시간을 벗어나 69시간 노동시간을 주장하는 정부의 노동시간 논의들을 이어가기 위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토론회 불참 의사를 밝힘. 하지만 주 69시간 저지를 위한 청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 담아내고자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함.
- 4월 6일(목) 저녁 7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양대노총은 청년단체, 정당 소속 청년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이정식 장관 없는 이정식 장관 공개토론회>를 통해 청년노동자들이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악이 가져다줄 악영향을 현재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노동문제에 관해서도 토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짐.

(4) 내용

구분	제목	시간	내용
1	토론회 시작, 참석자 소개	19:00~19:05	취지 해설
2	구호(1)	19:05~19:06	구호 외치기
3	양대노총 발언 총 6인	19:06~19:26	[한국노총] 김희성 한국노총 청년정책자문회의 부의장 양기종 한국노총 청년정책자문회의 의장 한영수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맹 경기도일자리재단 위원장 [민주노총] 임미선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금천수요양병원지부 지부장 최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 김미성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조합원
4	청년단체 발언	19:26~19:32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 나현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5	구호(2)	19:32~19:33	구호 외치기
6	정당 발언	19:33~19:48	권혜인 청년진보당 강서구 총선 후보 김건수 노동당 학생위원회 위원장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레마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7	자유발언	19:48~19:52	
8	성명서 낭독	19:52~19:55	전승조 민주노총 전교조 부위원장 이현정 한국노총 금융노조 부장
9	퍼포먼스	19:55~20:00	

2) 양대노총 청년노동자- 더불어민주당 타운홀미팅 노동정책 간담회

(1) 취지 및 목적

- 윤석열 정부 집권 1년간 소위 주69시간제노동자혐오 등 반노동적 개악 시도로 인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당사자인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개선 정책은 실종됨. 특히 정부 여당이 MZ노조 부각 등을 중심으로 세대·성별·고용형태별 편가르기 방식의 정책추진 전략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했음.
-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주요정책대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사실상 권리실종상태에 놓인 청년 노동자가 겪고 있는 일자리현장의 실태, 구직·채용·재직·퇴직 과정상 청년층이 느끼는 노동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및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들이 경청하고 청년노동자들과 상호효성 있는 제도 개선사항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고자 기획됨.

(2) 일시, 장소 및 주최

- 행사명
 - 「더불어민주당-양대노총 청년노동자 타운홀미팅 노동정책 간담회: “청년노동자가 묻고, 민주당이 답하다”
- 일시 및 장소
 - 2023년 6월 8일(목) 10:00 ~ 11:20(80분), 민주당 당대표실
- 주최주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 주관 : 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김영잔·노웅래·우원식·윤건영·이수진·이학영·전용기·진성준)

(3) 개요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양대노총-더불어민주당 청년노동자 타운홀미팅 노동정책 간담회’를 통해 청년노동자가 겪고 있는 일자리현장의 실태, 구직·채용·재직·퇴직 과정상 청년층이 느끼는 노동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음.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청년노동자들이 8가지 청년노동 의제에 대한 정책 개선사항을 제기하면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 담당 의제에 따라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음.
 - ① 포괄임금제 근절 : (한국노총) 안랩노조 → 우원식의원실
 - ② 장시간노동(야간) 및 과로사 방지 : (한국노총) 세브란스노조 → 이수진의원실
 - ③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 (민주노총) 전교조 → 전용기의원실
 - ④ 정의로운 노동전환 : (한국노총) 발전노조 → 이수진의원실
 - ⑤ 중대재해 및 산재 예방 : (민주노총) 건설노조(경기) → 노웅래의원실

- ⑥ 간호조무사실습생 보호 : (민주노총) 특성화고 노조 → 이학영의원실
- ⑦ 노동과정 성차별(성희롱 등) : (한국노총) 금융노조 → 김영진의원실
- ⑧ 공무원 청년노동(직장 내 괴롭힘 등) :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 진성준의원실
- 매칭된 노동 의제는 각 담당 의원실에서 후속 논의와 함께 관련 의안·법령·정책 마련하기로 약속함.

(4) 내용

시간		일정
09:50~10:00		• 참석자 사전등록 및 안내(식순 배포)
사회(1) : 민주노총 김선경 청년사업실장		
1부 개회행사	10:00~10:05	• 개회사(행사취지) 및 내빈소개(주요당직인사·총연맹관계자 등)
	10:05~10:10	• 인사말씀(이재명 당대표)
	10:10~10:20	• 양대노총 청년노동자 주제발언(2명/각1명)
	10:20~10:30	• 상징의식(ex. 청년노동자 바램이 담긴 제안서 전달) 및 기념촬영
사회(2) :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양소영 위원장)		
2부 타운홀미팅 간담회	10:30~10:35	• 인사말씀(김성주 정책위수석부위원장)
	10:35~11:15	• 환노위 소속 의원발언(2명) • 양대노총 청년노동자 주제 발언(6명/각3명) • 환노위 소속 의원발언(6명)
	11:15~11:20	• 마무리 발언(김영진 환노위 간사)

3) 청년사업담당자 선임 및 운영

(1) 목적

- 이번 28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류기섭 사무총장]은 선거공약으로 ‘한국노총 청년정책자문회의’ 확대를 내세우며, 청년조합원 활동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여성본부가 ‘여성청년본부’로 확대되면서 청년사업 담당자가 배치되었고,
- 여성청년본부는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에 청년사업 담당자 선임을 요청하고, 이들과 함께 청년조합원 조직화와 청년 대표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노동조합에서 ‘청년’이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조직, 교육 및 연대사업을 추진하고자 운영하기 시작함.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년 7월 25일(화) 14:00
- 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안건
 - 2023년 한국노총 청년사업계획 보고
 - 한국노총 청년조합원 실태 및 노동조합 활동 현황 설문조사 공유
 - 청년조합원 대상 교육 실태조사
 - 청년위원회 준비위 출범 및 구성 논의

(3) 금속노련 담당자

- 이효원 홍보차장, 이의선 조직차장

4) 청년위원회 준비위원회 운영

(1) 목적

- 한국노총은 시대변화에 맞춰 청년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노동자 대표성을 확대하고, 청년조합원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
- 이에 ‘한국노총 청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 사업담당자 및 청년조합원들과 함께 청년위원회 발족과 설치 관련 규정, 사업계획 등 세부사항들을 논의하고자 운영됨.

(2) 일시 및 장소

- ① 비대면 회의
 - 일시 : 2023년 9월 25일(월) 18:00~20:30, 온라인
 - 안건 : 청년위원회 규약 제정 검토, 청년위원회 비전 논의
- ② 비대면 회의
 - 일시 : 2023년 10월 27일(금) 18:00~20:30, 온라인
 - 안건 : 청년위원회 필요성 및 설치 제언문 작성
- ③ 워크숍
 -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페어룸

- 안건 : 규약규정위원회에 청년위원회 논의사항 공유, 청년 할당제 도입 및 청년위 운영 사항 논의

(3) 개요

- 한국노총은 규약규정개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노동자 조직화 및 대표성 제고하고자 청년위원회 출범을 논의하기 시작함. 규약규정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면서 청년위원회가 윤곽을 잡아가고 있어 현장의 청년조합원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한국노총 청년위원회 준비위를 구성함. 청년위원회 준비위 구성원들은 청년위원회 규정안을 검토함. 아울러 청년위원회 출범 제언문을 작성하여 청년위원회의 필요성과 ITUC 규약을 준용한 청년할당제 10% 도입, 청년 당사자성을 가진 청년조합원 혹은 간부가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를 제안한 바 있음.
- 청년위원회 준비위를 통해 한국노총 청년위원회의 규약 사항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마련하는 등 개괄적인 논의를 실시하였음.

(4) 참가자

- 금속노련 이효원 홍보부장, SK하이닉스청주노조 남주하 공인노무사

8. 문화활동

1) 문화패 현황조사

(1) 목적

○ 사업장 내 문화패 구성과 현황을 조사하여 조직활동에서 문화활동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조직강화의 일환으로 문화패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매년 실시함.

(2) 조사결과

번호	노동조합명	문화패명	부문
1	SK하이닉스이천	노동아리	노래
2		신화창조	율동
3	SK하이닉스청주	담쟁이	노래
4		너울패	율동
5		하울림	풍물
6	남양넥스모	외침	율동
7	대덕전자목내동지부	가온	율동
8		천재일우	풍물
9	대동하이렉스	은혼	율동
10	두원공조	디딤돌	풍물
11	명화공업안산지부	선포	율동
12	새론오토모티브	어울림	풍물
13	세아베스틸	불꽃	율동
14	스태츠칩팩코리아	화살	율동
15		THE봄	노래
16	유니크	한동지	율동
17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예	풍물

2) 노동문화교육

○ 목적

- 2024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조직력 강화
- 노동조합 문화담당자 역량강화 및 노동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대 강화

○ 일시 : 2024년 3월 13일(수) ~ 22일(금) (2박 3일)

○ 장소 : 한국노총 경상북도지역본부 근로자복지연수원(경북 청도군 소재)

○ 참석자 : 단위노조 문화일꾼 64명

○ 주요내용

시 간	3월 13일(수)	3월 14일(목)	3월 15일(금)
08:00 ~ 09:00		아침식사 및 교육준비	아침식사 및 교육준비
09:00 ~ 10:00		노동운동정세	몸짓 배우기
10:00 ~ 12:00		노래로 배우는 노동운동사	각자 사업장으로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3:30	등 록	몸짓배우기	
13:30 ~ 14:00	개강식		
14:00 ~ 15:00	참가자 소개		
15:00 ~ 18:00	노동조합간부 소통특강		
18:00 ~ 20:00	저녁식사 단결의 밤	저녁식사	
20:00 ~ 21:00			

3) 연대활동

(1) 한국노총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2023년 5월 1일(월) 14:00
- 장소 :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 지원내용
 - 스태츠칩팩코리아노조 율동패 '화살' : 임을 위한 행진곡
 - SK하이닉스이천노조 율동패 '신화창조', 세아베스틸노조 율동패 '불꽃' 연합문화선전대 : 비상

(2) 노동탄압 규탄을 위한 한국노총 부산본부 투쟁결의대회

- 일시 : 2023년 10월 31일(화) 09:00
- 장소 : 송상현광장
- 지원내용 : 세아베스틸 율동패 '불꽃' 율동
 - 단결투쟁가
 - 비상

(3) 제11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 일시 : 2024년 3월 8일(금) 14:00
- 장소 : 청계천 한빛광장
- 지원내용 : 스태츠칩팩코리아노조 율동패 '화살' 율동
 - 파도 앞에서
 - 임을 위한 행진곡